이제는 신중년으로

신중년 고용서비스 현장에서
서비스 대상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활한 고용서비스를 이행하고,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중년 대상에 대한 심층정보와
경력개발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중년 경력개발 상담자를 위한

역량강화서

路

한국고용정보원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개발 상담자를 위한

역량강화서

이제는 신중년으로(路)

본 정보서는 일선 고용 서비스 현장에서 신중년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이 대상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활한 고용 서비스를 이행하고 전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신중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 인식 및 특성, 퇴직 전후의 심리적 특성, 경력 경로별 가이드 및 사례 등 대상자 이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심층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서의 타이틀인 '이제는 신중년으로(路)'는 고용 서비스 현장에서 주요 서비스 대상층으로 신중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전달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으로 활력 있는 인생 2막을 열어 나가는 신중년 세대의 변화와 신중년이 걸어 나갈 미래 방향성을 길에 빗대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060세대를 지칭하는 '신(新)중년'이라는 용어는 아직 우리 사회에 낯설게 느껴질지 모른다. 하지만 저출산, 기대 수명 증가 등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로 신중년의 퇴직 후 노후 설계 및 일자리 관련 문제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2017년 8월 5060세대를 '신중년'으로 새롭게 명명하고 이들의 인생 3모작 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중장년, 고령자, 노인 등 다양한 대상층에 중첩되며 정책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5060세대를 신중년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지원 폭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5060세대인 신중년이 본격적으로 정책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이들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생애 경력 설계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신중년은 그동안 정책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어 일선 고용 서비스 현장에서 신중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전문 상담 인력이 부족하고, 신중년 특성 및 요구, 퇴직 후 경력 경로 등 대상자 이해에 도움이 되는 심층 정보 및 인프라 구축도 미흡한 상황이다.

신중년 세대의 고용 지원을 위해서는 대상자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며 거기에는 신중년 대상층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의 신중년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끈 성장 동력 세대로 과거의 노인 세대와는 그 특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거 포함하고 있다. 신중년 세대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고용 서비스 현장에서 신중년 특성 및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본 가이드에서는 일선 고용 서비스 현장에서 서비스 대상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활한 고용 서비스를 이행하고 전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중년 대상에 대한 심층 정보와 경력 개발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1장에서는 신중년 대상층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경제활동 현황을, 제2장에서는 일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제3장에서는 퇴직 전후의 심리적 변화와 대처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부터 제7장까지는 신중년의 퇴직 후 경력 경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하여 재취업(제4장), 창업(제5장), 사회 공헌(제6장), 귀농·귀촌·귀어(제7장) 현황 및 특성, 준비 방법 및 가이드, 지원 기관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다양한 신중년들의 재취업 사례를 기반으로 신중년 재취업 경로 유형과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 재취업 지원을 위한 가이드 및 준비 전략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중년 재취업 경력 경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각 경력 경로별 진출 사례자의 인터뷰 내용을 기사화하여 보다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 외에도 신중년의 새로운 경력 대안으로서 창직을 안내하는 특별 기획을 마련해 두었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신중년 경력 개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콘텐츠, 프로그램,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중년 대상자 요구별로 활용 가능 자원을 유형화·목록화하여 제시했다.

본 가이드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생애 경력 설계 및 일자리 지원 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고용 서비스 종사자를 주 타깃으로 개발되었다. 특히 신중년 고용 서비스 업무에 초기 진입하여 대상층에 대한 이해 및 경험이 부족한 초기 상담자에게 신중년 이해의 입문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중년 대상의 교육 및 훈련 관계자, 정책 입안자를 비롯해 신중년 세대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사람들이 신중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을 주도하며 역경의 시간을 견디고 이끌어 준 신중년들의 행복하고 활력 있는 노후(Active aging)를 위하여 본 가이드가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신중년의 행복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하여,
이제는 신중년으로(路)!

이제는 신중년으로(路)

CONTENTS

1장 신중년, 그들을 들여다보다 8

1. 사회 변화와 신중년의 등장 10
2. 신중년 인구사회학적 특성 12
3. 신중년 경제활동 현황 15

제2장 숙로의 길에서 일을 돌아보다 24

1.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일 26
2. 삶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의 일 28
3. 심리적 만족과 보상으로서의 일 32

제3장 퇴직의 기로에서 인생의 행로를 그리다 38

1. 퇴직 전후의 심리적 변화 40
2. 심리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42
3. 퇴직 전후의 변화 대처 46

제4장 재취업으로, 다시 현역에 서다 56

1. 신중년 일자리 및 구직 활동 현황 58
2. 신중년 재취업 경력 경로 유형 67
3. 신중년 재취업 경로 유형별 사례와 특성 69
4. 신중년 재취업 지원을 위한 가이드 86

Tip_1. 신중년 재취업 준비 전략 134

Tip_2. 신중년 재취업 스토리 92/100/111/122/129

제5장 창업으로, 새로운 활로를 열다 140

1. 신중년 창업의 현황과 문제점 142
2. 신중년 창업의 올바른 방향 147
3. 창업의 실제 : 창업 유형 및 준비 과정 153
4. 신중년 창업 지원을 위한 가이드 161
5. 주요 창업 지원 기관 169

ip_ 신중년 창업 스토리 172

특별 기획 / 신중년의 새로운 직업 대안, 창직 180

1. 창직의 개념 및 특징 182
2. 창직의 실제 : 창직 유형 및 프로세스 184
3. 창직 지원 기관 192

제6장 사회 공헌으로, 일의 가치를 바꾸다 198

1. 사회 공헌 일자리의 개념과 현황 200
2. 신중년 사회 공헌 일자리 지원을 위한 가이드 210
3. 신중년 사회 공헌 일자리 경력 개발 사례 215
4. 사회 공헌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사업 219

Tip_ 신중년 사회 공헌 일자리 스토리 227

제7장 귀농·귀어·귀촌으로,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구다 234

1. 귀농·귀어·귀촌 개념 및 현황 235
2. 귀농·귀어·귀촌 준비자 유형 및 특성 242
3. 귀농·귀어·귀촌 준비 절차 244
4. 귀농·귀어·귀촌 지원 기관 255

Tip_ 신중년 귀농 스토리 258

제8장 신중년 경력 개발(취업 지원) 자원 활용 안내 266

부록 / 중년 재취업 사례자 경력 경로 상세 정보 278

제 1장

신중년, 그들을 들여다보다

- 신중년, 그들은 누구인가?

1. 사회변화와 신중년의 등장
2. 신중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 신중년의 경제활동 현황

路

신중년,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 사회에 신(新)중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것은 2017년 8월 정부의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 발표에 따른 것이다.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에서 50세를 전후로 퇴직해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면서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 중인 과도기 세대로 5060세대를 일컫는다. 기존에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하는 연령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고령자'나 '노인'을 대신하여 활력 있는 생활인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담은 정책적 용어로 활용된 것이다(관계 부처 합동, 2017). 그동안 중장년, 고령자, 노인 등 다양한 대상층에 중첩되며 정책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5060세대를 신중년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지원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과거에도 5060세대는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들을 신중년으로 새롭게 명명하고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장에서는 신중년의 대두 배경을 짚어보고,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경제활동 현황 등을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들 신중년이 갖는 의미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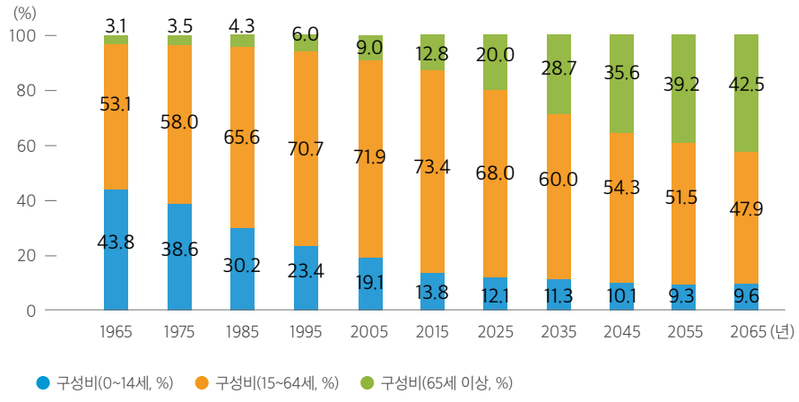
고용부 등 관계 부처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2017.8.8.)를 통해 5060세대를 새롭게 신중년으로 규정하고, 정부 최초의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주된 일자리→재취업 일자리→사회 공헌 일자리'로 이어지는 인생 3모작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재취업, 창업, 귀농·귀어·귀촌, 사회 공헌과 같은 신중년의 주요 경로별 맞춤 서비스 제공과 생애 경로를 준비할 수 있는 인프라 보강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통상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로 한정하던 그간의 제도와 관행에서 벗어나 69세 또는 그 이상 연령을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고용 서비스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특화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관계 부처 합동(2017.8.8.),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

1. 사회 변화와 신중년의 등장

우리 사회는 저조한 출산율과 의료 기술 발달에 따른 기대 수명 연장 등으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인 15~64세 인구는 2016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65년에는 2,062만 명(전체 인구의 47.9%)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고령 인구는 2065년 1,827만 명(전체 인구의 42.5%)으로 2015년 대비 2.8배 증가하고, 유소년 인구는 2065년 413만 명(전체 인구의 9.6%)으로 2015년 대비 59%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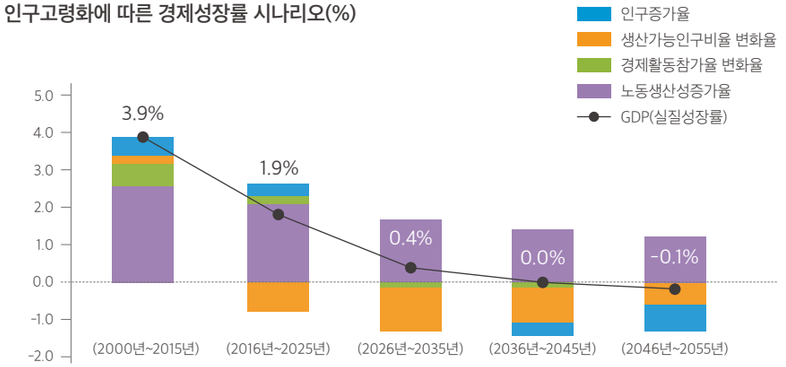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단위 : %)



[자료] 통계청(2016), 장래인구 추계
[출처]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kosis.kr/visual/populationKorea)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 노동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곧 노동 공급 감소에 따른 국가 발전 및 성장에 대한 심각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분석(2017)에 따르면, 202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시나리오(%)



[출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2017),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재인용: 관계 부처 합동(2017.12.20.), 55+ 현역 시대를 위한 장년 고용정책(안)-「제3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 계획(안)」, p.1

우리가 지금 신중년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사회의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 고령화와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급격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신중년의 인적자원 활용이 국가 경쟁력 확보와 경제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저출산, 고령화, 베이비부머 효과 등으로 신중년 세대의 인구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으며, 지금의 신중년에는 우리 사회의 중심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신중년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러한 국가적 필요성 외에도 개인적 요구와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인생 100세 시대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의 삶이 40년, 50년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하여 더 오래 현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신중년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의 신중년은 기존 노인 세대에 비해 경제력과 학력이 높고 사회에 대한 참여 욕구가 강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전직 및 생애 경력 설계를 지원하는 정책 및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장서영 외, 2013; 손유미 외 2012). 더욱이 부모 부양, 자녀 양육 등으로 퇴직 후 삶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베이비부머의 대규모 퇴직이 현실화되며 신중년의 노후 대책 및 일자리 관련 문제는 사회적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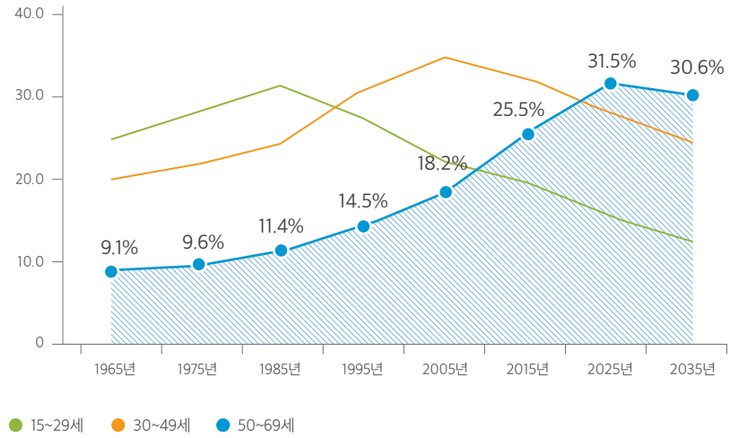
2. 신중년 인구사회학적 특성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2015~2065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신중년 인구 규모는 1,422만 명으로 전체 인구(5,164만 명)의 27.6%, 생산 가능 인구(50~64세)의 31.6%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705만 명(49.6%), 여성이 718만 명(50.4%)으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847만 명으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신중년 인구 규모는 전체 인구 대비, 생산 가능 인구 대비 모두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5년까지 약 1,658만 명(전체 인구의 31.5%, 생산 가능 인구의 36%)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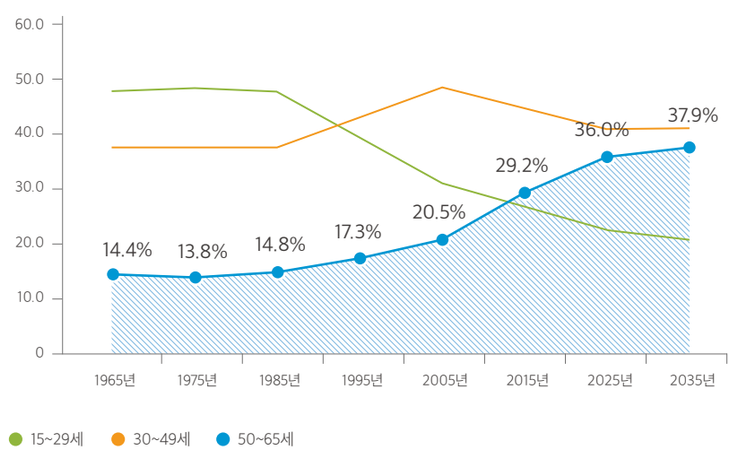
신중년 인구규모(2018년)

구분		빈도(천명)	비중(%)
신중년 인구		14,224	100.0
성비	남	7,048	49.6
	여	7,176	50.4
연령	50~54세	4,127	29.0
	55~59세	4,345	30.5
	60~64세	3,391	23.8
	65~69세	2,361	16.6

전체인구 대비 신중년 인구비중 추이



생산가능인구 대비 신중년 인구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2015~2065년) 중 중위 추계(kosis.kr)
[참조] 통계청(2016.12.8.), 장래인구 추계: 2015~2065년 보도 자료
관계 부처 합동(2017.8.8.),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 보도 자료

또한 지금의 신중년 세대에는 우리 사회의 중심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부머란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총 9년에 걸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며, 그 규모는 2017년 기준(54~62세) 약 728만 명에 이른다(대전광역시, 2017.12.26.). 현재 베이비부머는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에 분포해 있으며, 일부는 이미 퇴직했고, 6년 뒤인 2023년에는 전원이 60대에 진입할 것으로 분석되어 베이비부머의 대량 은퇴가 현실화되었다(류재광, 2017).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의 중심축으로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베이비부머의 노동시장 이탈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

베이비부머의 출생연도와 연령 (단위 : 세)

출생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33
1955	62	63	64	65	66	67	68	78
1956	61	62	63	64	65	66	67	77
1957	**60**	61	62	63	64	65	66	76
1958	59	**60**	61	62	63	64	65	75
1959	58	59	**60**	61	62	63	64	74
1960	57	58	59	**60**	61	62	63	73
1961	56	57	58	59	**60**	61	62	72
1962	55	56	57	58	59	**60**	61	71
1963	54	55	56	57	58	59	**60**	70
							60대 진입	**70대 진입**

[출처] 류재광(2017),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커리어 개발', 제27차 고령사회 전문가 포럼(2017.12.5.) 자료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p.14

우리가 신중년에 주목하는 이유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갖고 있는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기존 노년층보다 높은 학력과 오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경험을 노후에도 활용하고 싶은 요구가 높다(현대경제연구원, 2017; 류재광, 2017 재인용). 이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끈 성장 동력 세대이자, 부모와 자식을 모두 부양해야 했던 버팀목 세대이며, 정년퇴직 후에도 활발한 경제활동을 원하는 적극적 세대로 지금의 노인 세대와는 그 특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통계청, 2010).

한편 인생 100세 시대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의 삶이 40년, 50년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하여 더 오래 현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신중년들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2017.7.25.)에 따르면, 55세에서 79세에 이르는 고령층 10명 중 약 6명은 장래 근로를 희망하며, 평균 72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 보탬, 일하는 즐거움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퇴직 후의 재취업, 창업 등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신중년은 소수에 불과해 이들의 노후 설계 및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경력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크게 요구된다(관계 부처 합동, 2017.8.8.).

3. 신중년 경제활동 현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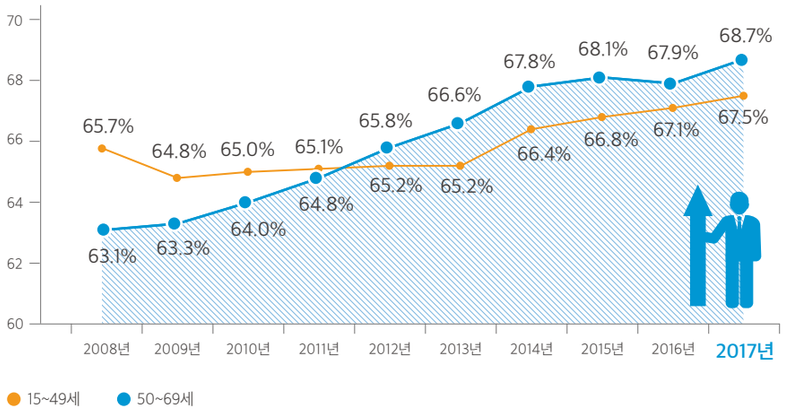
최근 10년간 신중년의 경제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신중년의 근로의사가 높아지면서 주요 고용 지표의 수치는 전반적으로 나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신중년 내에서도 50대와 60대 간의 경제활동 격차가 크고, 주요 고용 지표의 증가 폭이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무엇보다 낮은 고용의 질이 문제가 된다.

1) 본 장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신중년 경제활동 현황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장에서 제시한 표의 수치는 반올림 관계로 총합과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1) 최근 10년간 주요 고용 지표 변화

구체적으로 최근 10년간 신중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2008년 63.1%에서 2017년 68.7%로 약 5.6%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 폭이 과거에 비해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생산 인구에 속하는 15~4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15~4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8년 이후 다소 정체되어 있다가 2013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신중년 경제활동 참가율과의 격차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중년 연령대별로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50대가 77%, 60대가 56%로 그 격차가 21%에 이르며, 이는 2008년 격차(22.6%)와 비교해 보면 다소 감소한 수치이다.

신중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08-201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매년도)

신중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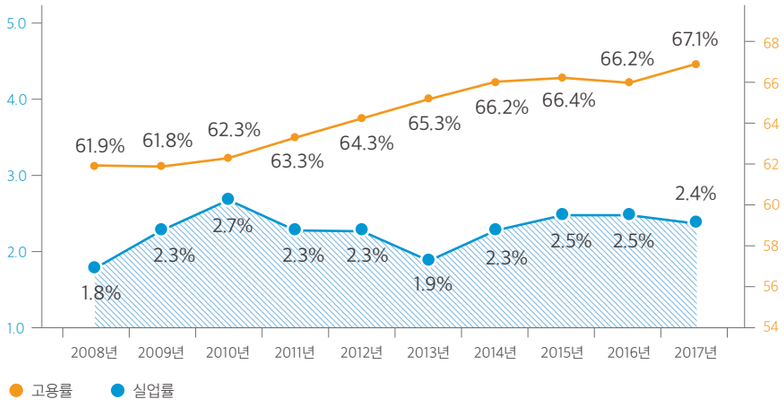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신중년 (50~69세)	63.1	63.3	64.0	64.8	65.8	66.6	67.8	68.1	67.9	68.7
	6,258	6,531	6,909	7,350	7,726	8,106	8,544	8,881	9,157	9,472
50대 (50~59세)	71.9	72.0	72.7	73.1	73.8	74.6	75.9	76.2	76.1	77.0
	4,341	4,587	4,908	5,257	5,533	5,812	6,083	6,215	6,295	6,442
60대 (60~69세)	49.3	49.2	49.5	50.4	51.6	52.4	53.5	54.5	54.9	56.0
	1,917	1,944	2,000	2,093	2,193	2,295	2,461	2,666	2,862	3,03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매년도)

최근 10년간 신중년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2008년 61.9%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67.1%로 약 5.2%가 증가했다. 하지만 경제활동 참가율과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고용률 증가 폭이 2011년부터 1%대를 유지하다 2014년에는 0.2%로 하락했고, 2016년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등 전년 대비 증가 폭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연령대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50대가 75.3%, 60대가 54.4%로 그 격차가 20.9%에 이르러 신중년의 고용률에는 50대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60대의 고용률도 2008년 48.6%에서 2017년 54.4%로 약 5.8% 증가하여 50대(4.8% 증가)에 비해 다소 높은 증가 폭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10년간 신중년의 실업률을 살펴보면, 2008년 1.8%에서 2017년 2.4%로 약 0.6% 소폭 증가했으며, 연도별 증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약 2%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년 연령대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50대가 2.2%, 60대가 2.9%로 고연령층의 실업률이 다소 높았다. 또한 최근 10년간 변화 추이에서도 60대가 2008년 1.5%에서 2017년 2.9%로 약 1.4% 증가하여 50대(0.2%)에 비해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신중년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2008-2017)



신중년 연령대별 고용률

(단위 : %, 천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신중년 (50~69세)	61.9	61.8	62.3	63.3	64.3	65.3	66.2	66.4	66.2	67.1
	6,143	6,380	6,725	7,179	7,551	7,952	8,348	8,661	8,929	9,244
50대 (50~59세)	70.5	70.2	70.9	71.6	72.3	73.2	74.2	74.4	74.3	75.3
	4,255	4,473	4,788	5,145	5,416	5,704	5,947	6,068	6,150	6,302
60대 (60~69세)	48.6	48.3	48.0	49.0	50.2	51.3	52.2	53.0	53.3	54.4
	1,888	1,907	1,937	2,034	2,135	2,249	2,401	2,593	2,779	2,942

신중년 연령대별 실업률

(단위 : %, 천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신중년 (50~69세)	1.8	2.3	2.7	2.3	2.3	1.9	2.3	2.5	2.5	2.4
	115	151	184	171	175	154	196	220	228	228
50대 (50~59세)	2.0	2.5	2.4	2.1	2.1	1.9	2.2	2.4	2.3	2.2
	86	114	120	112	117	108	136	147	145	140
60대 (60~69세)	1.5	1.9	3.2	2.8	2.6	2.0	2.4	2.7	2.9	2.9
	29	37	63	59	58	46	60	73	83	8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매년도)

2) 신중년 일자리 특성

신중년 취업자의 일자리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신중년 취업자의 종사 지위, 종사 직종, 종사 기업 규모 등을 살펴보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2017)」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신중년 취업자는 924만 5000명으로 이 중 임금 근로자(상용, 임시, 일용)는 63.2%, 비임금 근로자(고용주,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는 3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세부적으로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신중년 취업자에는 상용직(36.8%)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22.7%)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는 7.9%에 불과해, 신중년들이 소규모 점포 창업 등 영세한 자영업으로 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신중년들이 어쩔 수 없이 진로 대안으로 창업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는 신중년 연령대별로 더욱 큰 차이가 있는데, 상용직의 경우 50대가 높은 비율(50대 42.5%, 60대 24.4%)을 차지하고 있고, 임시직 및 일용직의 경우 60대가 높은 비율(50대 24.1%, 60대 31.2%)을 차지한다. 또한 60대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신중년 취업자 종사상 지위(2017)

구분		신중년(50~69세)		50대(50~59세)		60대(60~69세)	
		수(천명)	비율(%)	수(천명)	비율(%)	수(천명)	비율(%)
임금 근로자	상용직	3,398	36.8	2,679	42.5	719	24.4
	임시직	1,680	18.2	1,048	16.6	631	21.4
	일용직	760	8.2	474	7.5	287	9.8
비임금 근로자	고용주	733	7.9	542	8.6	191	6.5
	자영업자	2,095	22.6	1,215	19.3	879	29.9
	무급 가족 종사자	579	6.3	343	5.5	235	8.0
합계		**9,244**	**100.0**	**6,302**	**100.0**	**2,942**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2017)

비중이 29.9%로 가장 높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용직 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줄고, 자영업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재취업에 어려움이 많고, 고용 형태가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중년 종사기업 규모(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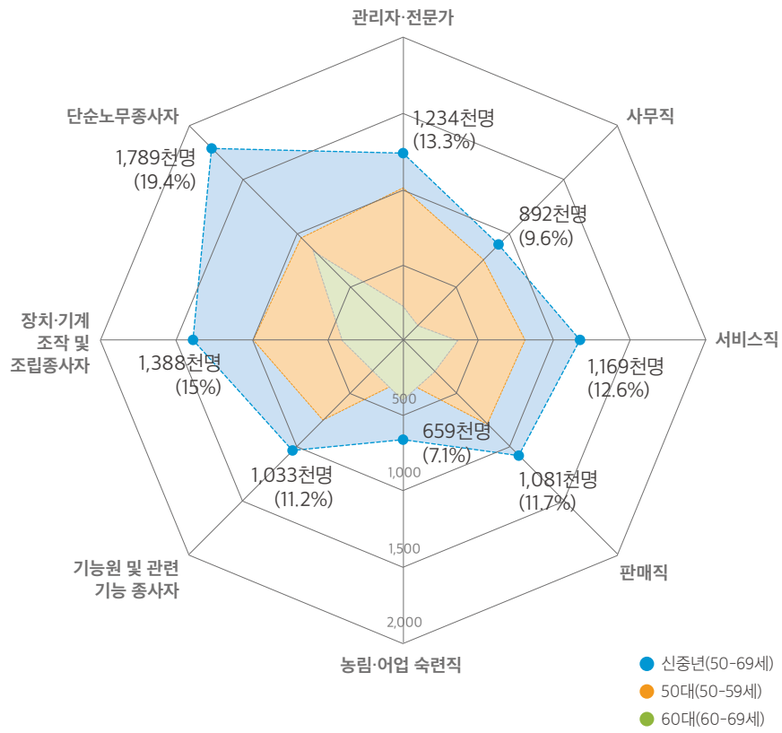
구분	신중년(50~69세)		50대(50~59세)		60대(60~69세)	
	수(천명)	비율(%)	수(천명)	비율(%)	수(천명)	비율(%)
1-4명	**4,401**	**47.6**	**2,706**	**42.9**	**1,696**	**57.6**
5-9명	1,309	14.2	892	14.2	417	14.2
10-29명	1,421	15.4	992	15.8	429	14.6
30-99명	1,124	12.1	872	13.8	252	8.6
100명이상	988	10.7	840	13.3	148	5.0
합계	9,244	100.0	6,302	100.0	2,942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2017)

이러한 경향성은 신중년 취업자의 직종 및 종사 기업 규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먼저 신중년의 현재 일자리 직종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에서는 관리자 및 전문가(15.9%)와 사무직(11.9%)의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60대에서는 관리자 및 전문가의 비중이 7.8%, 사무직의 비중이 4.8%로 크게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60대에서는 단순 노무직(50대 15.1%, 60대 28.4%)과 농림·어업 숙련직(50대 4.2%, 60대 13.4%)이 크게 증가하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자리의 하향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종사 기업의 규모에서도 전반적으로 1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60대는 전체의 57.6%가 4인 이하 규모의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50대에 비해 약 15% 더 높은 비중을 보여 주고 있었다.

신중년 취업 직종(2017)



구분	신중년(50~69세)		50대(50~59세)		60대(60~69세)	
	수(천명)	비율(%)	수(천명)	비율(%)	수(천명)	비율(%)
관리자·전문가	1,234	13.3	1,005	15.9	230	7.8
사무직	892	9.6	751	11.9	141	4.8
서비스직	1,169	12.6	806	12.8	363	12.3
판매직	1,081	11.7	786	12.5	294	10.0
농림·어업 숙련직	659	7.1	265	4.2	394	13.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33	11.2	748	11.9	285	9.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388	15.0	989	15.7	399	13.6
단순 노무 종사자	1,789	19.4	953	15.1	836	28.4
합계	9,244	100.0	6,302	100.0	2,942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2017)

최근 10년간 신중년의 경제활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 주요 고용 지표의 수치는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최근 주요 고용 지표의 증가 폭이 둔화되고 있고, 신중년 내에서도 50대와 60대 간의 경제활동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신중년층의 고용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경제적 활동에 어려움이 많고, 자영업 진출자가 증가하고, 임시직 및 일용직, 단순 노무직 등의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용 형태가 불안정해지고, 고용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중년들이 퇴직 후 본인의 경력 경로를 사전에 설정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전생에 걸친 경력 개발과 관리는 물론이고, 이·전직 서비스 강화,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지금의 신중년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하여 더 오래 현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요구가 높기 때문에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신중년 대상 고용 서비스 종사자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및 자료>

김은석, 오찬호, 심우정, 하지영(2015),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 경로 및 경력 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종단 연구(2차년도), 한국고용정보원
김은석, 양안나, 오찬호, 장서영, 하지영, 송스란(2016),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 경로 및 경력 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종단 연구(3차년도), 한국고용정보원
안준기, 최기성(2016), 중장년층의 경력 특성과 지원 정책 방안, 한국고용정보원
관계 부처 합동(2017.12.20.), 55+ 현역 시대를 위한 장년 고용정책(안)-「제3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 계획(안)」
관계 부처 합동(2017.8.8.),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 보도 자료
고용노동부(2018), 2018 장년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종합 안내
통계청(2016.12.8.), 장래인구 추계: 2015~2065년, 보도 자료
통계청(2010.5.10.), 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보도 자료
통계청(2017.7.25.), 2017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 보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매년도: 2008~2017)
대전광역시(2017.12.26.), 대전시 2017년 베이비부머 통계, 보도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7), 고학력 베이비부머와 고령층 일자리의 해부
류재광(2017),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커리어개발-적합한 직종을 중심으로', 제27차 고령 사회 전문가 포럼(2017.12.5.) 자료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장서영 외(2013), 사무직 베이비부머 퇴직설계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손유미, 이성(2012), 베이비붐 세대 제2의 인생설계 구축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참고 사이트>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kosis.kr/visual/populationKorea
KOSIS 국가통계포털 kosis.kr

제 2장

숙로의 길에서 일을 돌아보다

- 신중년 그들에게 일이란 무엇인가?

1.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일
2. 삶의 주요 구성요소로서의 일
3. 심리적 만족과 보상으로서의 일

路

신중년 그들에게 일이란 무엇인가?

신중년이 일을 바라보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색깔
'돈', '심리적 보상' 그리고 '삶의 주요 요소'

"신중년에게 일이란 '경제적 수단', '삶의 주요 요소', '심리적 보상'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신중년 대상의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이들 다양한 일의 의미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신중년 대상의 효과적인 취업 지원 상담과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첫걸음은 이들이 걸어온 근로 생애를 잘 이해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신중년에게 '일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자신의 일에 부여하는 의미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일과 관련된 경험과 태도, 어려움, 요구 사항 등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중년이 일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오직 먹고살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함'이라면 해결책 또한 그만큼 단순하고 명료할 것이다. 즉 일의 종류나 내용과 관계없이 소위 '생계형 일자리' 매칭에만 힘쓰면 될 것이다. 하지만 신중년이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생계유지 외에도 매우 다양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신중년, 그들에게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상담자의 이해를 돕고자 신중년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경제적 수단', '삶의 주요 구성 요소', '심리적 만족과 보상의 수단'으로 구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본 장에서 제시하는 신중년 사례자들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한 「베이비부머 경력 경로 조사를 위한 질적 종단 연구 1차년도(김은석 외, 2014)」의 조사 대상자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모두 가명으로 처리되었으며, 제3장에서 제시하는 사례자와 동일함을 밝힌다.

신중년의 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

1.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일

1) 일은 생계유지 수단

생계유지 수단으로서의 일은 비단 신중년뿐 아니라 먹고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기본적인 이유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는 '수입', '경제력', '생계유지', '호구지책 마련', '먹고사는 데 필수적인 것', '의식주 마련' 등이 있다. 이는 곧 일이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조달할 수 있는 돈을 버는 중요한 활동임을 암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이 필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먹고살기 위한 것이고, 취미처럼 일하고 자기 일에 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는 구직자를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처럼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이 아

닐지라도 대부분의 신중년은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왔음을 강조한다. 가령 오랫동안 교직원으로 일해 온 어느 신중년은 행정 업무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없었지만,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 온 것"이라고 말하고, 오랫동안 건설업에 종사해 온 신중년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건설업이 잘 맞지 않았지만 "건설 회사가 봉급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입사해서 계속해서 일해 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호구지책'으로 끌려온 자신의 직장 생활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삶을 억지로 끌려왔다고 할까요? 호구지책으로 직장에 다니느라 하고 싶은 것도 해 보지 못했어요. 개인 성향은 만드는 일, 생산적인 일이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상경대를 다니게 되었고, 그 때문에 취직도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적성에 안 맞아 일의 만족도 역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김길동, 60세)

생계유지 수단으로서 일해 온 신중년은 재취업 일자리 또한 생계유지 수단으로서의 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들이나 이혼, 사별 등으로 홀벌이 처지에 놓인 이들, 가족 부양의 부담이 큰 이들은 공통적으로 희망하는 일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을 급여라 보고 있다.

> "급여가 너무 안 맞아서 힘들었어요. 저보다 연령대가 높은 분들도 많이 지원해요. 그분들은 이미 자녀 교육 다 끝났고 용돈 정도만 벌어도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저같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 일자리가 안 맞더라고요." (이미희, 56세)

2) 일은 노후 대비 수단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일이 필요한 사람은 단지 생계형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비생계형 신중년에게도 주된 일자리 퇴직 후의 일은 여전히 경제적 도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때의 경제적 의미란 노후 대비를 위한 돈을 확보하는 것을 뜻한다. 가령 퇴직 후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어느 신중년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노년을 살아가기 위해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죠. 최소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조용히 가고 싶어요." (박순재, 59세)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비록 현재 먹고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평균수명이 높아 미래가 걱정'되기에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물질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어서 노후에 형제들은 물론 타인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삶을 잘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이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신중년은 이후의 삶에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막연한 불안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

3) 일은 어른으로서 체면 유지 수단

생계유지와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의 일 외에도 일부 신중년에게 일은 어른으로서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을 확보하는 경제적 의미를 갖기도 한다. 즉 돈을 벌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통해 자신을 어른답다고 느끼는 것이다. 가령 직장에서 연배가 높은 어른으로서 "내가 먼저 돈을 풀어야 하는 입장이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계산을 하면 좋지만, 요새는 그렇게 하면 인정을 못 받는다. 먼저 쓸 줄 알아야 대우를 받는다"고 돈의 필요를 말하는 신중년도 있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 주위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쓰고 베풀 줄 알아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한국 문화에서, 어른으로서의 품위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삶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의 일

신중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가난한 조국을 경제 부국으로 이끈 경제성장의 주역이다. 이들은 전쟁 이후 태어나 증산·수출 운동, 경제개발계획 등을 경험했고, 한국 사회에서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던 때에 청년기를 보냈다. 그 당시는 경

제성장기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기에, 공고 또는 상고를 졸업한 후 곧바로 대도시의 공장, 은행 등에 취업할 수 있었다. 이후 이들은 한국 사회의 경제 부흥을 위해 애쓰는 '산업 전사'로 불리며, 휴일 근무, 초과근무를 당연시할 만큼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거의 일만 하며 살아왔다. 특히 남성 신중년의 삶에서 일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는 그만큼 절대적이었다. 다음 사례는 이렇듯 일만 하며 살아온 신중년의 삶을 잘 드러내고 있다.

"아침 먹으면 수저 놓자마자 빨리 옷 갈아입고 나갔다가, 저녁 늦게 일 끝나고 나서 친구들하고 소주 한잔 마시고 콧노래 불러 가며 별님, 달님 보면서 집에 오는 것이 29년 동안 해 온 제 생활이었어요." (김지태, 60세)

오랜 기간을 이와 같이 살아온 신중년에게 퇴직이란 곧 자기 삶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일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일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고, 일 없는 삶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한다. 일 외에 다른 활동, 즉 휴식, 여가, 놀이 등의 활동을 즐겨 본 경험이 별로 없기에, 퇴직 후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시간은 오히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일 없는 고통'으로 다가온다.

실제로 많은 신중년은 퇴직 후 일이 없는 기간 동안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경험했고, '아무것도 없이 무대책으로 쉬라고 하면 갑갑하다'거나, 가만히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회사에 다니며 노는 게 좋다'고 할 만큼 일을 놀이로까지 인식하기도 한다. 이에 신중년에게 퇴직 후 일이 없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 '멍한 상태', '늘어짐', '무미건조', '무기력감', '희망 없음', '황폐함', 심지어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듯 신중년에게 일은 경제적 의미를 넘어 삶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기에 이에 대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은 삶의 활력소이자 원동력

일은 삶을 활기차고 능동적이 되도록 만들어 주며 신중년을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해 주는 '활력소'이자 '삶의 원동력'이 된다.

"적당한 스트레스와 긴장은 사람에게 더욱 활력소가 돼요. 내가 원하는 일을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할 때 보람을 느끼고 땀 흘린 후의 개운함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홍기태, 63세)

다른 신중년의 경우에는 "돈도 돈이지만 일이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되는 것 같다"면서, 일로 인해 "좀 더 생활에 활력이 생긴다"고 하며, "일을 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물질도 생기고, 정신적으로도 일이 없으면 나태해진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듯 신중년에게 삶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일이란 삶의 활력소이자 원동력의 의미를 갖는다.

2) 일은 몰두할 수 있는 '무엇'

많은 신중년에게 삶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일이란 '뭔가를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채우는 것'이자, '자신이 몰두할 수 있는 활동을 갖는 것'에 해당한다. 가령 경제적 여유가 충분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비상근으로라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내가 일을 하고 있다,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일종의 자기만족이랄까? 그런 게 좋아요"라고 말한다. 또 다른 신중년도 이와 유사하게 "항상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면서, "직업이 없으면 마음의 평정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에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어떤 신중년의 경우에는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해 생각할 때, 돈을 버는 일이나 취미 생활, 여가 생활과 상관없이 "무엇인가 몰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없이는 삶이 무미건조할 것 같아요"라고 전한다. 퇴직한 선배들로부터 시간적 여유가 너무 많아지면 우울증이 오고, 평일에 등산이라도 가게 되면 실직자라는 자책감이 들며, 집에 들어가면 멍한 상태가 된다고 들어 왔기에, 본인은 하루의 시간을 쪼개 무엇이든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또 다른 신중년은 자신이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일이 주는 분주함과 몰입감'을 설명한다. 그녀는 외아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빈 둥지 증후군'을 경험했는데, 그 공허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뭔가 숙제가 하나 쑥 빠져나가고 나니까 갑자기 멍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집만이 빈 둥지가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 해야 할 숙제도 텅 비어 버린 그런 완전히 빈 둥지,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늙어 가는 일만 남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김순희, 59세)

현재 그녀에게 일이란 '머릿속을 복잡하고 바쁘게 해 주는 매우 중요한 활동'에 해당한다. 이렇듯 신중년에게 일이란 자신이 몰두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3) 일은 삶에 규칙을 제공해 주는 것

삶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의 일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규칙적인 일정을 제공함으로써 삶을 구조화시키는 것'이다. 가령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진정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일이란 '구속'이지만, 동시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신중년도 있다. 즉 스스로 자신의 일상을 일에 맞춰 구조화시킬 때, 비로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퇴직 전에 일할 때는 이를 잘 몰랐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진정한 자유로움이 자신의 일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경제적 이유와 상관없이 일은 필요하다고 여기는 가운데, 일을 통한 삶의 규칙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설사 경제적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일은 꼭 있어야 해요. 회사에 취직하든, 사업을 하든 규정된 나의 시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어야 건강한 거죠." (이철수, 57세)

이렇듯 신중년에게 있어 일이란 자신의 삶을 구조화해 주고 규칙을 제공해 주는 소중한 도구에 해당한다. 이들은 평생토록 삶의 대부분을 일하는 데 보내 왔고, 이는 곧 외부에서 주어진 일정에 따라 평생을 살아왔음을 의미한다. 자신을 위한 여가나 놀이를 충분히 즐겨 보지 못한 대부분의 신중년은 자신의 시간을 주도적으로 구조화해 본 경험이 별로 없기에, 퇴직 이후 갑자기 주어진 많은 시간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며, 퇴직 전과 같이 외부에서 자신의 시간을 구조화해 주기를 원하기도 한다. 이들이 일이라는 구속을 계속해서 희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4) 일은 삶의 모든 것, '본능'이자 '생명'

앞서 소개했듯이 신중년에게 일이란 이들의 삶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자 몰입할 활동과 삶의 활력을 제공하며 삶의 규칙을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에서 일부 신중년은 일이란 자신의 삶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삶 자체'이자 '생명'이라고까지 생각하기도 한다. 즉 일을 '타고난 유전자', '생체 리듬', '본능', '사람의 일부', '자연스러운 행위'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가령 일이 곧 생명이며, '일이 없으면 죽은 것이고, 희망도 없다'고 말한다.

그는 30~40대에 한창 일할 때는 일이 지겹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은 것이었지만, 퇴직 후 일 없이 쉬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일의 의미가 생명으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즉 일을 하지 않으면 육체적·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결국 스스로를 '쓰임새 없는 경로당 노인 신세밖에 안 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또 다른 신중년은 "일은 나의 일부이고 내 삶"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기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일을 못 한다면 봉사라도 계속할 것"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일이란 인간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이자 타고난 유전자'라고 말하며,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도 한다.

> "일이라는 것은 그냥 삶이죠.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면 얼마 못 있고 죽듯이, 사람에게 일이란 살기 위해 매일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민기남, 60세)

3. 심리적 만족과 보상으로서의 일

지금까지 생계 부양의 수단, 삶을 채우는 주요한 구성 요소로서의 일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만족과 보상을 주는 도구로서의 일을 빼놓을 수 없다. 신중년은 일을 통한 성취감, 사회적 인정을 통한 가치감과 소속감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보상은 주된 일자리 퇴직이라는 커다란 인생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혹은 나이를 먹고 삶의 지혜가 쌓여 감에 따라 바뀌어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취를 추구하는 것'과 '타인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

신중년에게 일이란 단순히 돈을 버는 경제적 수단을 넘어서 자신의 성취욕을 채우는 활동이다. 한 기업에서 평사원부터 시작하여 임원까지 승진했던 어떤 신중년은 일을 통한 성취 추구를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고 있다. 처음에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 부양 의무, 즉 '처자식을 먹여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점차 욕심이 생겨나게 되고 회사에서의 클라이맥스라 할 수 있는 승진에 다다를수록 가족과의 추억, 취미 생활, 친구 관계 등 일 외의 것을 다 희생시키면서 모든 것을 일에 올인하게 된다. 그 이유는 바로 성취감 때문이다. 그는 그룹 내 꼴찌였던 영업점을 일등으로 만들었던 경험을 얘기하며,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는 일에 빠져들어 집중력을 가지고 기존에 하지 않았던 시도를 많이 하면서 성과를 내게 되었고, 그 결과를 조직원과 공유하는 만족감과 성취감이 엄청났다고 회상한다. 또 다른 신중년은 이혼 후 '살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시작했지만, 일이 돈벌이 수단만이 아니라 동시에 성취감을 주는 활동이었다고 떠올린다.

> "경제력 때문에 막상 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면의 어떤 능력이 발휘되면서 잘할 수 있었어요. 일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일을 하면 대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돈을 벌게 되죠. 그러니까 그 돈을 받을 때의 기쁨,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기쁨. 그러면서 좋은 성과가 나면 더 잘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났어요." (이진주, 57세)

이렇듯 일을 성취 추구로 여겼던 많은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 퇴직을 겪으면서 혹은 삶의 연륜을 통해 일의 의미가 바뀌는 것을 경험한다. 성취 추구를 말하던 많은 신중년이 이제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퇴직 과정을 거치면서 일의 의미가 변했음을 이야기하는 한 신중년이 있다. 그는 예전 직장에서 일을 통해 듣는 칭찬이나 인사고과를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면, 지금의 일은 그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한다.

즉 지금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데서 얻는 보람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 다른 신중년 또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선배와 상관들이 가는 길을 보며 빨리 진급하는 것에만 신경을 썼지만, 점차 나이가 들면서 주변을 둘러보게 되

었다. 그러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애들 잘 키우는 것도 성공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도와줌으로써 세상이 좀 나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가는 보람"이라고 여긴다. 성취 추구를 통한 만족감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일에 몰두하며 살아왔던 어떤 신중년은 앞으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고소득이나 안정적인 일자리 여부를 떠나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전수하고 싶다고 했다.

2) '나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신중년에게 일이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심리적 만족감의 수단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일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또는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내가 누구에게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보람"이고, 그렇기에 그동안 일에 미친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말한다. 이에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의 상실은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경험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힘들다.

> "선배가 퇴직할 때 '노벨상보다 더 어려운 상을 받았다.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말했는데, 막상 내가 퇴직을 하니 나 자신은 그런 보람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에 공헌 못 한다, 인간 폐물이다, 인간쓰레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지태, 60세)

어떤 이들에게 일은 가정과 사회에서 남자로서 가치를 드러내는 도구이다. 많은 신중년은 가정에서 남자의 역할을 가장의 역할과 동일시한다. 즉 그들은 가장으로서 가족이 쓸 돈을 벌어 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생각하고, 많은 돈을 벌어 올 때 권위를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 이는 곧 남자가 돈을 제대로 못 벌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남자가 퇴직 후 별 활동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비주류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다.

> "지금 당장 구직을 하지 않는다고 생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집안의 가장이자 남자의 역할, 그런 면에서 경제활동을 못 하면 위축이 되죠. 지금까지 늘 가정의 주권을 주도적으로 하던 입장에서 소외되는 거니까요." (배민철, 59세)

그에게 명함이란 자신의 얼굴이다. 즉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신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이렇듯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일해 온 신중년 중 일부는 퇴직이라는 생애 사건을 겪으면서 일의 의미가 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타인의 인정 추구가 중요한 일의 의미였던 많은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들은 퇴직 후 월급은 적더라도 살고 싶은 삶을 살기 원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맞추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어떤 신중년은 지금까지 돈을 벌기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한다. 일이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었고, 그래서 일중독에 걸릴 정도로 정신없이 살아온 다른 신중년은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조차 못 해 봤다고 말한다. 그는 퇴직 후의 삶에서는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기 자신을 찾고 행복을 찾는 일이 지금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3) 일은 '소속되는 것'에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신중년에게 일이란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주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이들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사회와 단절된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되는 것을, 사회의 조직원이 되어 사회에서 밀려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 "일단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의 조직원이 돼야 합니다. 진정한 사회 조직원이 돼서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내가 창업을 하든지 취업을 해야 돼요. 사람이라면 일을 해야 되고, 어디에든 소속이 돼서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뒤처지거나 밀려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박순재, 59세)

한 신중년은 과거에 일을 통해서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과 퇴직 후 사업을 하면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을 즐거워하며, 조직에의 소속과 상관없이 자신이 직접 사람들을 모으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의 즐거움을 말한다. 또 다른 사람은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직장 생활을 할

당시에는 내가 필요한 사람만 만나고 나한테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쫓아가게 되는데, 퇴직 후에는 당장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떠나서 많은 사람을 만나 볼수록 좋고, 누구한테든 늘 배울 점이 있으며 인적 네트워크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고 이것이 곧 행복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신중년은 일이나 활동을 통해 만나게 되는 직장, 학교, 교회, 선교 단체 등에서의 친구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를 잘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신중년의 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신중년에게 일이란 '경제적 수단', '삶의 주요 요소', '심리적 보상'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물론 대부분의 신중년은 생계유지 수단으로서의 일을 가장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일은 단순한 경제활동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일이란 삶을 활기차고 능동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줌으로써 사람을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해 주는 활력소이자 삶의 원동력에 해당한다. 또한 일이란 자신이 몰두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채울 수 있으며 삶의 규칙을 부여해 주는 의미 있는 활동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일의 의미는 신중년의 생애 단계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다. 가령 개인적인 성취를 추구하는 것에서 타인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자신이 하고 싶고 보람을 느끼는 것을 하는 쪽으로, 한 조직에 소속되는 것에서 자발적으로 가치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나아가는 등 일에 부여하는 의미와 가치 또한 유의미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가교 일자리를 거쳐 완전 은퇴에 이르는 일련의 의미 있고 중요한 과정에서 신중년의 일자리 문제를 단순히 '생계유지형 일자리' 혹은 '노인네 일자리'로만 바라보는 견해에서 벗어나 인생 후반기 삶의 완성과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이루어 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김은석, 장서영, 심우정, 오찬호, 하지영, 송순영(2014), 베이비부머 경력 경로 조사를 위한 질적 종단 연구(1차년도), 한국고용정보원

제 3장

퇴직의 기로에서 인생의 행로를 그리다

-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의 행로 엿보기

1. 퇴직 전후의 심리적 변화
2. 심리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3. 퇴직 전후의 변화 대처

路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의 행로 엿보기

퇴직한 신중년이 마주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
'존재감의 상실' 과 '삶의 재구조화'

"일은 곧 나 자신이었던 신중년에게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퇴직은 단순히 돈벌이 수단의 상실이 아닌 존재감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 이에 신중년이 주된 일자리 퇴직의 충격을 극복하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생계형 일자리의 단순 매칭을 넘어서는 심리적·정서적 지원과 지속 가능한 직업적 개입이 요구된다."

신중년에게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은 '예정된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다가온다. 그로 인한 충격과 부정적 정서는 아쉬움과 당혹스러움으로부터 분노에 이르기까지 깊고 다양하다. 문제는 이들의 심리적·정서적 준비도와 상관없이 삶은 계속되며,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적절히 대처하고 삶을 재구조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중요한 전환기에서 생계형 일자리 중심의 단순 매칭을 넘어서서 보다 근본적인 도움과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의 상황과 맥락을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퇴직한 신중년이 마주해야 할 어려운 과제'에 대한 상담자의 이해를 돕고자 주된 일자리 퇴직과 퇴직 후의 반응, 정서와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퇴직으로 인한 개인적·주변적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본 장에서 제시하는 신중년 사례자들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한 「베이비부머 경력 경로 조사를 위한 질적 종단 연구 1차년도(김은석 외, 2014)」의 조사 대상자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모두 가명으로 처리되었으며, 제2장에서 제시하는 사례자와 동일함을 밝힌다.

1. 퇴직 전후의 심리적 변화

상당수의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 퇴직에 대해 아쉬움, 섭섭함, 당혹스러움,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다. 화려했던 자신의 과거는 물론이요, 근로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거부당하는 경험인 퇴직에 대해 이들은 섭섭함과 아쉬움의 정서를 느끼게 된다.

"제 나름대로는 회사에 기여도 많이 했고, 그동안 제 능력이나 실력도 인정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어떤 시기가 되니 뭐라고 그럴까, 섭섭한 점들이 좀 많이 있었죠." (최민수, 58세)

"처음 퇴직 통보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서운하죠. 이렇게까지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는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며 받아들이려고 해요." (배민철, 59세)

이들의 섭섭함과 아쉬움이라는 정서의 근원에는 자신이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부분은 비자발적인 퇴직 과정에서 그간의 공로와 노력이 부정당하는 듯한 인상을 받으며 섭섭함에서 분노에 이르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한편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 맞이한 새로운 환경에서 신중년은 소외감과 위축감 같은 부정적 정서를 느끼거나 혹은 이와 반대로 해방감과 희망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기도 한다.

부정적 심리

퇴직 후 신중년의 가장 지배적인 정서는 상실감이다.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다 퇴직하여 작은 회사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느꼈던 상실감은 다음과 같다.

"사실 당황스럽죠. 결심하고 나오긴 했지만 일단 생활 패턴이 바뀌니까.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생각나고 출근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일단 딱 멈추는 순간에 일종의 공황장애를 경험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박길상, 63세)

매일의 정해진 규칙과 일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살아온 삶으로부터의 이탈은 신중년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과 정신적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시간적 여유와 정해지지 않은 일과는 상당수의 신중년에게 당혹감을 선사한다. 특히 경력의 정점에 있었던 신중년일수록 자신의 전문성과 사회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진 기분과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 그에게 금융인으로서의 전문성은 오랜 기간 자신의 정체성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퇴직 후 정보 접근성이 줄고 전문적 논의를 할 기회도 줄어들면서 '갑자기 좀 뭔가 부족해지는 것 같은 느낌', '안에 있다가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이야기한다.

"좀 소외된 느낌?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할 때는 금융시장 또는 그런 금융인들 동향이 파악이 되고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접하고 돌아가는 시장 상황을 다 알고 있었는데, 일을 그만두니까 정보가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서 뭔가 소외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김철현, 62세)"

긍정적 심리

규칙적 생활, 직업 정체성의 상실에 대해 공황장애에 가까운 당혹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신중년이 있는 반면 동일한 상실의 경험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신중년도 있다. 이들은 늘어난 여가 시간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기보다는 과도한 성취 중심의 사회와 극심한 경쟁에서 벗어나 여유 시간을 자기 재량으로 구성할 수 있음에 만족한다.

33년간 호텔 요리사로 근무한 한 신중년의 경우, 새벽 5시에 일어나 7시까지 출근하는 생활을 했다. 조직의 빡빡한 일정과 규칙에 매여 있는 직장 생활은 개인적 약속이나 게으름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술도 안 먹어야 하고 일찍 자야 하는 부지런한 삶을 살았다. 퇴직은 자신을 과도하게 옭아맨 규칙과 일정으로부터의 탈출이었기에 퇴직 후 시간 개념이 없어질 만큼 자유와 여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부 신중년은 성과 중심의 조직 풍토와 정신적 긴장에서 벗어남에 따라 정신 건강의 회복을 경험하기도 한다.

"시간에 엄청 쫓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만두고 나니 딱 생각나는 게 나는 출근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 편해요. 시간을 내려놓으니까. (중략)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게으

름을 피워도 되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되고, 차에다 다 때려 싣고 여행을 가도 되고요." (이진우, 63세)

"일단은 마음이 너무 편해요. 사실 회사에 있을 때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제가 또 마지막에도 야근하는 부서에 있었거든요. 퇴직할 때도 얼마나 정신적으로 긴장이 돼요. 직장이라는 데가 거기는 매번 등록 실적을 매번 신경 써야 하는 부서였어요." (김민희, 56세)

2. 심리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자아 존재감의 구성

주된 일자리 퇴직 후의 부정적 혹은 긍정적 정서는 개인의 자아 존재감 구성과도 관계가 있다. 가령 당혹감과 소외감이라는 부정적 반응의 저변에는 조직과 사회의 필요, 소속감 등 외부적 요소와 요구를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정서가 자리 잡고 있다.

"조직 생활에서 나온 거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쉬는 동안에는 사람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조직에 속해 있을 때와 달리 사회에서는 좀 이렇게 내가 존재감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기태, 63세)

그에게 존재의 가치는 사회적 지위 혹은 직무 역할과 같이 자기 외적인 요소와 관련성이 높다. 이에 퇴직은 자기 외적인 요소를 상실하는 것을 뜻하며 '존재감의 상실'로 귀결된다. 이와 유사하게 다른 어떤 신중년은 사회적 필요와 연관하여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고 있다.

"제가 퇴직을 받아들일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심리적으로 '아, 내가 이제 쓸모가 없는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받고 일해도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 없어지니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퇴물이 된 느낌. 그게 나를 제일 힘들게 했어요. 그런 정신적인 것이." (박지숙, 56세)

반면 퇴직에 따른 시간적·심리적 여유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신중년도 있다. 이들에게서는 주로 자신의 흥미와 가치 등 내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자기 존재감을 발견할 수 있다. 한 신중년은 조직에서 담당했던 역할이나 업무와 별개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이에 그녀는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일이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해 가기를 희망한다.

"퇴직 후 새로 시작한 일이 성과를 못 내도 정말 이거는 내가 원했던 삶이기 때문에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내가 전적으로 원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소정의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원치 않는 데도 해야 하는 일이니까 소정의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압박감이 강했죠." (김민희, 56세)

그녀는 비록 남들이 부러워하는 안정적 직장과 고소득을 누렸으나, 자신이 하는 일이 만족감을 주지는 못했다. 주된 일자리 근무 시 그녀에게 일은 경제적 이유로 수행한 타율적 행위였다. 일에서 꽤 많은 성과를 거둔 그녀였지만, 그녀에게 외적 성과와 지위 등은 자신의 존재감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가 아니었기에 만족감을 찾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진정 원하는 일을 찾아 정년보다 일찍 희망퇴직을 결정했고, '열심히 해 보자'라는 의욕과 함께 희망의 정서를 경험할 수 있었다.

2) 경제적 여건

경제적 여건은 퇴직자의 퇴직 후 반응과 정서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퇴직 후 긍정적 반응을 보인 퇴직자는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여행 작가를 꿈꾸며 퇴직을 진정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통과의례로 생각한 한 신중년의 경우 남편이 현직에 있었고 본인의 연금 소득이 있어 노후의 생활이 어느 정도는 보장된 상황이었다. 퇴직 후 자아 탐색을 위해 교육과 상담을 병행하며 코치로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신중년의 경우도 오랫동안의 홍보 담당 임원 생활로 재력을 축적하고 있었다.

반면 재정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불행히도 퇴직은 소득 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입지의 하락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상황은 신중년 퇴직자에게 위축감, 불편함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인식을 초래하기도 한다. 한 신중년은 퇴직과 소득 감소에 따른 위축감과 부정적 정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한다.

"난 쌓아 놓고 나중에 부자 돼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먹고살아야 하는 지금 현재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일을 그만두니 이제 거기에서도 딱 브레이크가 걸리더라고요." (이미희, 56세)

퇴직이 가정경제에 브레이크를 걸게 했다는 그녀의 말과 같이 신중년의 퇴직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상황과 사회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계약 만료로 갑작스러운 퇴직을 경험하게 된 어떤 신중년은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

경제적 여건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흥미와 가치 등 내적 요인으로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는 신중년조차도 재정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 신중년은 퇴직에 대한 은근한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희망퇴직을 선택했다. 하지만 퇴직 후 원하는 활동을 하고 싶었던 그의 바람은 생계 부양이라는 가정의 경제적 요구와 충돌하게 된다.

"가장 제약이 되었던 경제적인 문제가 한번 요리조리 계산해 보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한 70~80%는 해결될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뭐 가족들은 저한테 표현을 안 하죠. '나는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쫓겨난 거다.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는 건 없는데 지금 본인(가족)들도 되게 불편해하죠. 왜냐하면 당장 나올 생활비가 그 회사에서 받는 봉급이었거든요. 그러니 퇴직 후 매달 줄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죠. 갑자기 스트레스받죠. 어우, 당연히 힘들죠." (민기남, 60세)

그는 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아침 일찍 도서관으로 향한다든지 둘레길을 걷기 위해 나오는 등 일부러 출퇴근하는 일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타율적 규칙이 아닌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일상과 마음공부를 통해 자신을 탐색하는 현재의 시간이 "사실은 너무 좋아요"라고 이야기하지만 경제적 여유의 부족은 극복해야 할 압박감이라고 언급한다. 이와 같이 경제적 여건은 가정의 생계유지와 연결되면서 퇴직 후 삶에 대한 인식과 정서를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3) 사회적 지지

타인으로부터 받는 지원과 관심을 의미하는 사회적 지지는 위기와 충격의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중년의 퇴직 관련 인식에서도 가족과 동료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할 경우 퇴직이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신뢰와 인정 등 정서적 지지를 얻는 경우에는 퇴직과 퇴직 후 삶에 대해 보다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 특히 비자발적으로 갑작스러운 퇴직을 맞이하며 사회적으로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가족으로부터 듣게 되는 '수고했다'는 위로는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큰 힘을 제공한다.

"퇴직하고 나서 집사람이나 애들이 오히려 잘 챙겨 주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저대로 바빴고, 애들도 계속 집에 있었던 게 아니니까. 요즘은 애들도 아빠가 여유 있다고 좋아하고, 집사람도 더 좋아하고. 특히 집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고동민, 57세)

"저만 꽉 믿고 있는 중이죠. 그게 느껴져요. 근데 표시는 안 해요. 믿는다는 게 괜히 자리가 왜 없느냐, 왜 집에서 빈둥대느냐 이런 말을 할 법도 한데 그런 말은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는 걸 아는 거죠." (김서준, 56세)

4) 성별 역할에 대한 인식

성별 역할에 대한 인식 또한 퇴직에 대한 반응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퇴직 이후의 상황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남성 신중년에게서 생계 부양자와 직업인으로서의 역할 정체감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다음의 사례는 남성에 따른 역할 기대로 퇴직 후 경험한 부정적 정서와 인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남자는 아침 먹으면 수저 놓자마자 빨리 옷 갈아입고 나가야 되고, 저녁 늦게 일 끝나고 나서 친구들하고 소주 한잔하고 별님, 달님 보면서 콧노래 부르며 집에 오는 거라고 하죠. 저 역시 29년 동안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애 엄마 친구가 하는 얘기가 '우리 나이에

환한 대낮에 허름한 옷을 입고 밖에 나가기가 무척 민망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런 심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회에 공헌 못 한다, 인간폐물이네, 인간쓰레기네'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할까요?" (김지태, 60세)

요컨대 사회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으로 남성 신중년은 퇴직을 남성성의 상실, 남성 공간으로부터의 이탈로 인식하게 되어 많은 좌절감과 상실감을 경험할 수 있다. 물론 드물기는 하지만 남성 신중년 중에서도 사회적 역할 규범을 내면화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공간을 만들면서 퇴직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취업 박람회 같은 것도 보는데, 보통은 저녁 시간 되면 집에 가죠. 그러다 어떤 때는 밥도 해야 되기도 하고, 집안일을 많이 해요. 심지어 어떤 때는 우리 마누라가 적어 놓고 가면 시장에 가서 장도 봐 와야 되고.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뭐 꼭 여자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여자 일, 남자 일 분명히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고 맞춰서 하는 거죠." (최용준, 63세)

그의 경우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 역할을 인지하고 있으나 그에 매여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여성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가정에서의 일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를 통해 상실감이나 좌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켜 나가고자 한다.

3. 퇴직 전후의 변화 대처

신중년에게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이란 커다란 사회적·심리적·관계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며, 그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개인적·주변적 변화에 대처하고 자신의 삶을 재구조화하게 된다. 신중년이 주된 일자리 퇴직 직후 일상 영역에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취하는 대표적인 태도나 행동은 일상의 재구조화, 가족 관계에서의 변화 시도, 건강관리, 재정적 여유 확보, 취미 활동, 재취업 준비 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일상의 재구조화

무엇보다도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신중년에게 의미 있게 나타나는 변화는 스스로 할 일을 만들며 하루의 일상을 알차게 만들려는 모습이다.

"되도록이면 정시에 일어나고 정시에 자려고 노력합니다. 밤 11시 이전에 자고, 오전 6시 이전에 일어나고. 그렇다고 알람을 해 놓고 살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규칙적인 생활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노력 중입니다." (김종서, 60세)

"하루 일상으로 보면, 회사 다닐 때는 항상 일 가려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시간 정도 늦춰진 것 말고는 다 똑같아요. 집에도 사무실에서처럼 똑같이 책상 놓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일상적인 것들을 해요." (노기환, 60세)

위 두 사람은 퇴직 전의 생활 리듬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즉 규칙적인 생활을 원하며 되도록 정시에 일어나고 정시에 자는 노력을 한다. 또한 회사에 다닐 때보다 기상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늦춰진 차이밖에 없다는 인식을 보이면서 집이라는 공간을 회사에서 일하는 공간처럼 만들어 무언가를 계속할 수 있는 분위기 및 여건을 조성했다. 그에 비해 다른 어떤 신중년의 경우에는 집에만 있으면 위축되는 느낌을 받는다. 그 때문에 집 밖의 다양한 문화적 자원들을 스스로 찾아다니며 일상의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은 시간이 좀 많죠. 그렇다고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직장도 알아보고 활동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전시회도 가고, 내가 필요한 데는 가서 보는 편이에요. 심지어 내일인가 모레는 하나투어에서 하는 킨텍스 여행박람회에도 가 볼 예정이에요. 그렇게 뭐든지 돌아다니면서 봐야 배우는 게 있어요." (손상훈, 64세)

또 다른 신중년의 경우에는 퇴직 이후의 생활 패턴에 대해 '매일 일요일 같다'고 비유했는데, 이는 나태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뜻한다. 퇴직 이전부터 해 오던 일들을 비롯한 나름의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하고 싶은 일이 많아 그에 필요한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빨리 지나간다'고 말한다.

"생활 패턴에 변화가 있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회사를 갔는데, 지금은 맨날 일요일 같아요. 요즘은 계속해서 어딘가를 다니니까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빨라요 빨라. 공부도 해야 되고, 특히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그날그날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바빠요." (고동민, 57세)

2) 가족 및 배우자에 대한 신경

또 하나의 일상적인 변화는 가족과의 관계 변화이다. 퇴직 이후에 타의든 자의든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면서 가족으로부터의 심리적 지지를 기대하는 동시에 직장 대신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올라오게 된다. 한 신중년의 경우, 재직 중에 지방 생활을 오래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짧아서 집안일이나 자녀의 일을 배우자가 주도적으로 맡아 왔다. 그러다 보니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가 되어서야 자녀의 대학 졸업식에 처음 참석했을 정도이다. 그는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 비로소 배우자와 자녀 관계에 '비집고' 들어가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제가 20여 년 동안 지방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하고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중에 일부는 지방에 같이 있었지만 같이 있었던 건 한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 20년간 우리 아이들을 집사람이 혼자 키웠죠.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 사실 가족이란 느낌이 안 들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 건설 회사 일이라는 게 집에 올 수가 없었어요. 일요일이나 토요일에도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애들이 대학교까지 갈 동안 저는 애들 졸업식에 딱 한 번 갔어요." (노기환, 60세)

하지만 이러한 관계 맺음과 대화의 노력이 쉽지만은 않다. 대화를 하고 싶어도 말할 거리가 없거나 조금 말을 하면 자녀들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좋아할 만한 먹을거리를 사 오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

"애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말할 거리가 없어요. 어쩌다 몇 마디 해도 애들은 곧 방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한동안 애들이 오는 저녁에 뭔가를 하나씩 사 갔어요. 치킨을 사든지 가까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사든지. 가끔 두 개 다 사 가기도 하고. 그랬더니 아빠가 치킨 사

왔다는 얘기를 자기 이모한테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슬슬 대화가 좀 되더라고요. 거기에 좀 동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기환, 60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직장에서 집까지의 거리와 상관없이 그동안 자녀와 대화를 해 오지 않아서 공유할 주제를 찾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퇴직 이후 자녀들과의 관계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밥 먹었니?", "뭐 먹을까?" 등의 말 외에는 대화가 거의 없다. 이에 대한 원인은 그동안 꾸준히 만나지 못해 공유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대화라는 게 갑자기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만나고 같이 공유했던 것들이 있어야 이어지는 거거든요. 아들은 군대 가서 5년 됐는데 만나기 힘드니까 대화 주제가 한정될 수밖에 없고, 딸도 6년간 외국 생활을 해서 공감할 만한 얘기가 없으니 단절되더라고요. 가족은 역시 살을 부대끼고 살아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는데, 단절되었던 시간 동안 자기만의 영역이 생긴 것 같아요. 깊은 대화가 없어요. '밥 먹었니?'나 '뭐 먹을까?' 외에는." (김길동, 60세)

어쩌다 자녀에게 미래의 꿈과 비전을 높여 주고 싶은 마음에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간섭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녀의 반응을 부모 탓으로 돌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딸애에게 꿈과 비전을 높여 주고 싶어서 얘기하면 참견하지 말라는 식의 반응이 와요. 요즘 애들 그러잖아요. 부모 탓이죠. 그래도 아쉽긴 해요. 간섭하느냐는 등의 반응, 자기를 위해 얘기 꺼내면 그런 류의 반응이 오니까." (김길동, 60세)

3) 건강관리

건강에 더욱 신경 쓰는 모습은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신중년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이다. 한 신중년은 퇴직 전과 같은 규칙적인 생활을 못 한 때문인지 퇴직 이후 몸이 늘어지고 배가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에 따라 나태해진 생활을 하나씩 잡아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직장을 잡으면 좋은데 당장 쉽지가 않으니

일단 몸의 건강부터 챙기며 하나씩 계획적으로 이뤄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 다른 신중년의 경우에는 퇴직 후 소식, 금주, 다이어트 등을 통해서 건강을 스스로 챙기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쉬면서 몸이 약간 살이 찌고, 배도 나오는 것 같고 해서 하루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규칙적으로 걷거나 산에 갔다 오는 식으로 한 달 정도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뭐라 그럴까, 좀 나태해진 걸 하나씩 하나씩 잡아 나가려고 해요. 사실 직장을 잡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 몸 건강부터 하나하나 계획적으로 챙겨야겠다는 생각에서 운동부터 시작했죠." (최지연, 57세)

"독하게 뺐어요. 100kg에서 15kg을 빼니까 몸이 가벼워요. 무엇보다 술을 안 마시니까 그것도 좋고. 그동안은 사실 스트레스 때문에 마신 거죠. 술을 끊은 뒤로는 한 번도 술 생각이 안 났어요. 더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 그런데 논다고 해서 술을 안 마실 수는 없어요. 사람들 좋아하고 분위기 좋아하고 하니까. 그래서 술 마실 일이 있으면 미리 술집에 가서 사장님한테 빈 소주병에 술 대신 물을 담아 달라고 해서 그걸 마셔요. 다른 사람들은 취하면 그게 술인 줄 알아요(웃음)." (이용진, 63세)

4) 재정적 여유의 확보

경제적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소비를 줄이고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려는 모습은 신중년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퇴직 후에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의 지출이 아까워 퇴직 전보다 소비를 4분의 1로 줄인 사람도 있다.

"소득이 없으니까 있는 돈 까먹는 게 아깝잖아요. 씀씀이를 줄이게 되지요. 40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예전에는 주로 개인적으로 고객 관리하면서 외식하고, 차 마시고, 술 마시고 했는데, 요즘은 거의 없어요. 하루에 3,000원도 안 되죠. 거의 안 나가요. 친구들도 안 만나고 친구들 만날 경황도 없고." (김길동, 60세)

아래에 등장하는 사례자는 퇴직 후에 특별한 변화는 없고 경제적인 걱정이 들어서 일단 작은 평수의 집으로 옮겨 여유 자금을 마련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녀는 배우자 사별 후

에 금전적인 거래에서 손실을 보았고, 기존 일에서 받았던 보수 역시 월 150만 원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으며, 자녀들이 커 가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이 생겼기 때문에 돈을 조금씩 쓰게 되고 집을 정리하게 되었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는 지금 있는 돈으로 가능한데, 애들이 커 가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기잖아요. 내가 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일을 해 보니까 이것저것 정리하고 나면 150만 원 정도? 수입이 많지 않았거든요, 요양보호사 일이. 그거 갖고도 유지가 안 되는데, 이제는 있는 돈을 조금씩 빼 먹는 거잖아요. 돈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지? 뭐 따로 노후 설계를 해 놓은 것도 없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니까요. 안 들어오는 건 내 돈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결국 집을 정리했죠." (최지연, 57세)

5) 취미 활동

취미 활동의 개발은 신중년의 앞으로의 삶에서 점차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전산 개발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일해 온 한 신중년은 나이가 들면서 구직 장벽에 부딪혔다. 그러다 길어지기 시작한 공백 시기에 자연에서 새 사진을 찍는 취미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재직 중에 취미로 시작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일상의 중요한 활동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새 사진을 찍는 활동에 배우자나 딸과도 함께 하며 즐기고 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지방까지 내려가고 마음에 드는 사진을 얻을 때까지 수없이 시도하기도 한다.

"지금은 뭐 집 밖으로 나와서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는 게 일이에요. 처음 카메라를 샀을 때는 주로 집사람과 애 사진을 찍었어요. 두 사람이 모델이 되어 주었죠. 같이 놀러 가서 경치 좋은 데서 찍어 주고 삼각대 받쳐 놓고 찍고 그랬어요. 근데 한 1년 지나니까 카메라만 대면 도망가요. 찍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찍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경치를 찍고 다니다가 새를 찍었어요. 당시에는 필름카메라여서 새를 그렇게 많이는 안 찍었죠. 나중에 디카로 바꾸면서 본격적으로 새를 찍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새에 빠져서 그 뒤로는 새만 찍으러 다녀요." (김현우, 61세)

또 다른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현재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으로 기타 동호회 활동을 이야기한다. 만족도 100점 만점에 90점을 매길 정도이다. 그는 7년 전 50세가 되기 전에 악기 하나는 다루고 싶었는데 저녁 시간에 직장인 대상으로 하는 기타 강좌가 생겨서 그때부터 기타 연주를 시작했다. 비록 취미이긴 하지만 잡념 없이 몰입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하고, 끝난 뒤 멤버들과 막걸리 한잔하는 것도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는 이러한 활동이 삶의 질을 높여 준다고 이야기한다.

"취미 활동으로 기타 동호회에 나가고 있어요. 멤버들과 기타 치는 게 재미있고 삶의 질도 높여 줘요. 쉰 살이 되기 전에 악기 하나쯤 다루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아코디언, 색소폰, 하모니카 등 이것저것 생각했는데 우연히 저녁 시간에 기타 강좌가 생기면서 시작했어요. 7년 정도 했으니 오래된 것 같지만, 연습하는 시간을 모두 따지면 아주 적어서 겨우 1년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래도 악보 보는 눈을 갖게 되었고, 하고 나면 기분도 상쾌해요. 그 시간은 잡념 없이 몰입하게 되니까. 끝나고 나서 멤버들끼리 막걸리 한잔하고 헤어지는 것까지, 이게 재미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기타 치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90점 정도예요. 이 취미가 없었으면 지금도 정신적인 부분에서 많이 피폐해졌을 거 같아요." (정종훈, 58세)

6) 재취업 준비 활동

사회·경제적 지위나 퇴직 후 여건에서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중년은 일을 지속하기 위한 재취업 준비 활동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재취업 준비에서 나타나는 신중년의 특징은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필요뿐 아니라 개인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동기와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가령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고 싶은 욕구, 성취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존재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 삶의 의미와 보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개인의 경제적 상황은 재취업 활동의 방식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에 해당한다. 만약,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퇴직이 당장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신중년의 경우에는 일의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는 생계형 일자리 중심의 재취업 준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경제적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신중년일수록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 혹은 전문성을 발휘하여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신중년의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의 행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일은 곧 나 자신'이었던 이들 신중년에게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퇴직은 단순히 돈벌이 수단의 상실이 아닌 존재감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중대한 사건에 해당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에 신중년이 주된 일자리 퇴직의 충격을 극복하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생계형 일자리 중심의 단순 매칭을 넘어서는 지원과 지속 가능한 직업적 개입이 필요하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의 다음 행로는 어디로 이어지는 것일까? 이들 신중년은 재취업, 창업, 사회 공헌, 귀농·귀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경력을 다시금 이어 나가게 된다. 그중에서도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자신의 경력 경로를 그려 나가는 신중년의 대표적 행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중년 중 대다수는 자신이 평생 해 온 직무와 같거나 유사한 직무를 활용하여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실제로 그런 직무로 취업하거나 또는 취업이 안 되어 이전 직무와 전혀 다른 직무로 취업하거나 혹은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들 신중년이 경력 연계 일자리로 취업이 잘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많기 때문만이 아니며, 그보다는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한 직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역량, 긍정적인 사고와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 등 태도적 측면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들 대상의 취업 지원 상담에서는 재취업을 원하는 직장과 관련하여 유연성이나 낙관성 등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태도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지, 재취업에 적합한 기술이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이전 직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해 왔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신중년 퇴직자 중에는 기존 경력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고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재취업뿐 아니라 창업이나 귀농·귀촌이 모두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은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업종과 직무에 대해 완전 신참자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및 서비스는 다른 유형이 필요로 하는 것과 크게 다르다. 이들 중에는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일이 명확한 경우

도 있고, 단지 과거에 했던 일이 싫어 다른 것을 막연하게 찾는 사람도 있다.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일이 명확한 경우에도 그 일에 진입하고 시작하는 방법과 구직 실마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막상 원하는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일의 실제가 기대한 것과 달라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이전 경력과는 전혀 다른 경력을 희망하는 신중년의 경우에는 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더 이상 돈벌이로서의 노동을 지양하고 자신이 원하고 즐기는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이 쌓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회 공헌자로 최적화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한 업종에서 수십 년을 일하면서 조직의 실무 및 관리 총괄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 왔으며,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돈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을 소신껏 그리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갖춘 신중년을 위해서는 자신이 일했던 직종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약간의 보수를 받으며, 사회 공헌 일자리나 시간제 일자리 등을 통해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경력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관련 정보 제공이나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어지는 제4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재취업, 창업, 사회 공헌, 귀농·귀어·귀촌 등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 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별 현황과 특성을 비롯해 경력 경로별 준비 방법 및 지원 가이드, 구체적 사례 등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김은석, 장서영, 심우정, 오찬호, 하지영, 송순영(2014), 베이비부머 경력 경로 조사를 위한 질적 종단 연구(1차년도), 한국고용정보원

제 4장

재취업으로,
다시 현역에 서다

1. 신중년 일자리 및 구직활동 현황
2. 신중년 재취업 경력경로 유형
3. 신중년 재취업 경력경로 유형별 사례와 특성
4. 신중년 재취업 지원을 위한 가이드

Tip

1. 신중년 재취업 준비 전략
2. 신중년 재취업 스토리

路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고령화, 이 속에서 1980~1990년대 한국 경제 발전의 핵심 주역이던 신중년 대부분은 청장년 시절 오랫동안 몸담았던 주된 일자리에서 1차 은퇴를 경험하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첨단 의료 기술의 발달, 그리고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이들 신중년에게 이전 은퇴 세대와는 다른 인생 2모작, 혹은 3모작이라 불리는 인생 후반기 경력 개발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은퇴 시점은 이전과 변함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기술의 발달로 길어진 수명, 노동시장 불안에 따른 자녀 세대의 늦은 경제적 독립 등으로 은퇴 후에도 유지되는 지출 규모, 여기에 부모 세대에 대한 부양 부담까지 가중되어 이들에게 은퇴 이후의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일'의 지속성이 가지는 의미와 그 무게는 이전 세대가 체감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 할 것이다. 게다가 '일'은 단순히 금전적인 '수입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역'이라는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기에 한국 사회에서 아직 '사회적 현역'이고 싶은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 이후에도 새로운 혹은 이전과 유사한 '일자리'로의 이동을 우선적으로 기대하게 된다. 실제로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신중년(55~69세)이 조사 대상자의 71.6%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수의 신중년이 은퇴 후 재취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막연히 은퇴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재취업을 하게 되거나, 혹은 이 과정에서 심리적인 충격과 어려움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신중년 재취업 현황과 재취업 유형, 그리고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준비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돕는 컨설턴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장에서는 신중년 진출 가능 경력 경로 중 재취업 경로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실제 현장 사례에 기반한 재취업 유형과 유형별 특성, 그리고 효율적인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가이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신중년 일자리 및 구직 활동 현황

신중년의 경력 설계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신중년의 취업 현황에 대한 이해가 우선해야 한다. 이에 본 가이드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고령층 부가 조사[1] 결과를 활용하여 신중년의 일자리 및 구직 활동 현황, 장래 근로 희망 인식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 비중 높아

2017년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중년(55~64세, 723만 2000명)의 상당수가 이미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었으며, 그중 과반이 조금 넘는 신중년이 재취업하여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의 평균연령은 약 49.1세(남성 51.4세, 여성 47.2세)로 주된 사유는 사업 부진, 조업 중단, 휴·폐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신중년의 현재 일자리 현황을 살펴보면,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신중년은 262만 9000명으로 전체의 36.3%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주된 일자리란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일자리 또는 직장을 의미한다. 또한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고 재취업한 신중년은 231만 4000명(32%), 미취업한 신중년은 208만 8000명(28.9%)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취업 경험이 없는 신중년도 2.8%(20만 2000명)를 차지한다. 이는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신중년이 많지 않고, 퇴직 후 재취업 또는 미취업 상태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고령층 부가 조사는 고령층의 취업 관련 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 자료이다. 다만 고령층 부가 조사는 55세에서 79세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본 장에서 제시하는 분석 결과는 55세에서 69세에 해당하는 신중년에 한정되었으며 주된 일자리 관련 분석 결과는 55~64세 신중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본 자료를 분석하여 해당 장에서 제시한 표의 수치는 반올림 등의 관계로 총합과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다.

신중년(55~64세)_주된 일자리 퇴직 현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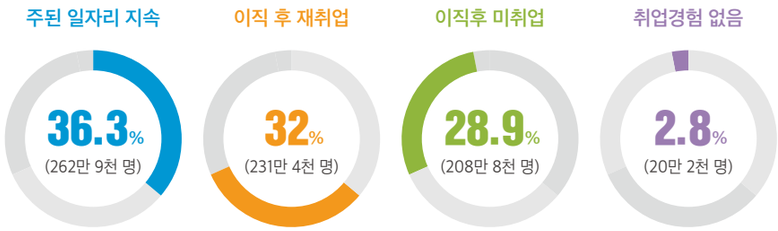
주된 일자리 퇴직자
440만 2천 명
※ 55~64세 신중년(723만 2천 명) 중 **60.9%**

평균근속기간
15년 3.8개월

그만 둔 이유
31.0%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

그만둘 당시 평균연령
49.1세

신중년(55~64세)_현재 일자리 현황[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2017.5.)
[참조] 1) 통계청(2017.7.25.), 2017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 보도 자료, p.6~8
2) 관계 부처 합동(2017.12.20.), 55+ 현역 시대를 위한 장년 고용정책(안)-「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 계획(안)」, p.8

2) 신중년 재취업 시 하향 이동 경향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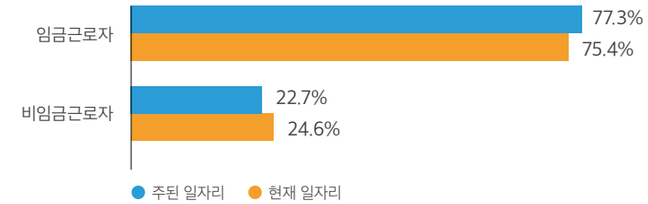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재취업한 신중년(231만 4000명)의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면 생애 주된 일자리와 비교하여 재취업 시 전반적으로 하향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주된 일자리와 재취업한 일자리를 근로 형태별로 비교해 보면, 과거 주된 일자리에서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을 포함하는 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77.3%였으나 현재 일자리에서는 75.4%로 좀 더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고용주, 자영업 등을 포함하는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22.7%에서 24.6%로 다소 증가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인 자영업자(약 68.5%) 비중이 높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신중년들이 어쩔 수 없이 창업으로 진출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임금 근로자로 재취업한 신중년(174만 6000명)의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전체 대비 상용직은 31.6%, 임시직이 26.8%, 일용직이 17.1%로 임시직 및 일용직의 비중이 높아 신중년 취업자의 고용 형태가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종사하고 있는 기업 규모도 4명 이하 규모가 42.5%, 5명에서 10명 미만이 20.2%를 차지하는 등 영세한 규모의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신중년 재취업 직종을 주된 일자리와 비교해 보면, 재취업 시 하향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재취업한 신중년의 현재 일자리 직종을 살펴보면 단순 노무직(30.5%)과 단순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5.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5.1%)의 비중이 주된 일자리에 비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관리직 및 전문가의 수치는 크게 감소하여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 사무 종사자(6.7%), 서비스 종사자(12.4%)의 비중도 주된 일자리에 비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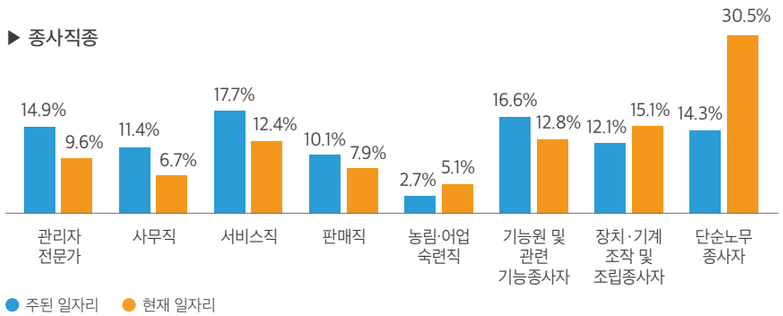
신중년(55-64세) 재취업자_주된 일자리 및 현재일자리 특성 비교

▶ 근로형태



구분	주된 일자리		현재 일자리	
	빈도(천명)	비중(%)	빈도(천명)	비중(%)
임금근로자	1,789	77.3	1,745	75.4
비임금근로자	525	22.7	569	24.6
합계	2,314	100.0	2,314	100.0

▶ 종사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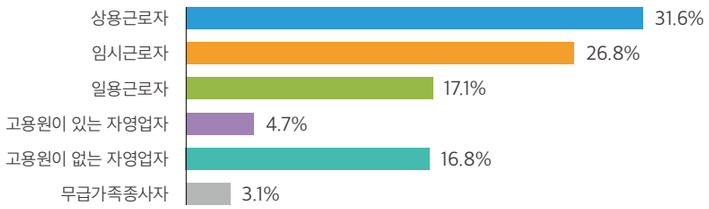


구 분	주된 일자리		현재 일자리	
	빈도(천명)	비중(%)	빈도(천명)	비중(%)
관리자·전문가	345	14.9	221	9.6
사무직	264	11.4	155	6.7
서비스직	411	17.7	286	12.4
판매직	235	10.1	183	7.9
농림어업숙련직	63	2.7	118	5.1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385	16.6	296	12.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280	12.1	349	15.1
단순노무종사자	**332**	**14.3**	**706**	**30.5**
합계	2,314	100.0	2,314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2017.5.)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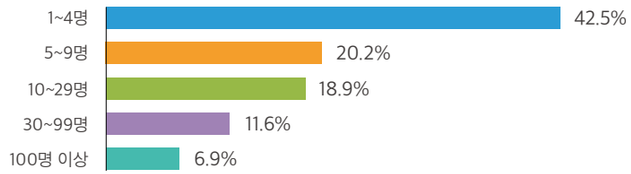
신중년(55-64세) 재취업자_현재일자리 특성

▶ 종사상 지위



구분		빈도(천명)	비중(%)
임금 근로자	상용 근로자	730	31.6
	임시 근로자	620	26.8
	일용 근로자	395	17.1
비임금 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08	4.7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390	16.8
	무급 가족 종사자	71	3.1
합계		2,314	100.0

▶ 종사기업 규모



구분	빈도(천명)	비중(%)
1~4명	983	42.5
5~9명	467	20.2
10~29명	438	18.9
30~99명	267	11.6
100명 이상	160	6.9
합계	2,314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017.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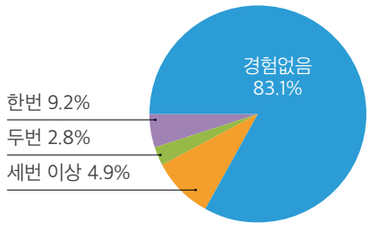
3) 신중년 구직 활동에 어려움 많아

신중년 재취업 지원의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신중년의 최근 구직 활동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55세에서 69세에 해당하는 신중년(951만 2000명) 중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자 비율은 16.9%로 성별로 보면 남성이 18.8%, 여성이 15.1%를 차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추가분석을 실시해 보면,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구직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학력자의 경우 저학력자에 비해 현재 재직 중인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저학력자들의 이·전직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년간 구직경험이 있는 신중년 중 두번 이상의 구직경험자 비중도 다소 높은 편이어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신중년의 재취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중년 구직 경로를 조사했을 때, 이들은 구직 활동 시 전문가의 지원 서비스를 받기보다는 인맥을 통한 정보 탐색, 직접 탐색 및 문의 등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구직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자의 구직 경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친구, 친지 소개 및 부탁(45.4%)과 같은 인맥을 통한 구직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고 신문, 잡지, 인터넷(10.9%)과 사업체 문의 또는 방문(10.4%)의 비중이 높았다. 고용노동부 및 기타 공공취업 알선 기관의 활용 비율은 18.1%인 것으로 나타나 최근 신중년 대상 정책 지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공 취업 알선 기관의 인지도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중년의 지난 1년간 취업 경험자 비율은 70.5%이며, 이 중 두 번 이상 취업을 경험한 비율이 14.7%로 1년이 되지 않아 직장을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 고용 안정성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재취업 일자리와 생애 주된 일자리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을 때 지난 1년간 경험한 일자리가 생애 주된 일자리와 관련이 있는 비율은 73.6%로 유사 직무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부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사 직무로 취업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고학력자일수록 유사 직무로 취업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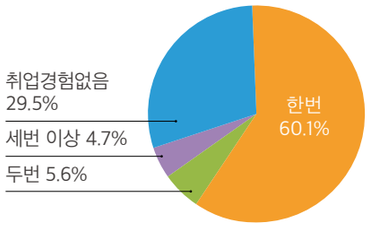
신중년(55~69세)_구직활동 및 취업 현황

▶ 지난 1년간 구직활동(구직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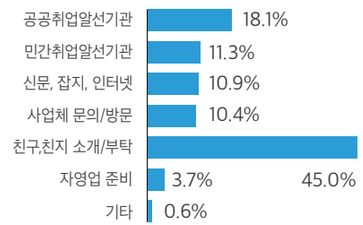
구분	빈도(천명)	비중(%)
구직 경험 없음	7,902	83.1
한 번	873	9.2
두 번	269	2.8
세 번 이상	470	4.9
합계	9,512	100.0

▶ 지난 1년간 취업경험(현재 일자리/직장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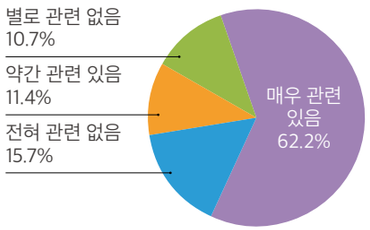
구분	빈도(천명)	비중(%)
취업 경험 없음	2,810	29.5
한 번	5,721	60.1
두 번	533	5.6
세 번 이상	449	4.7
합계	9,512	100.0

▶ 구직경로



구분	빈도(천명)	비중(%)
공공 취업 알선 기관	291	18.1
민간 취업 알선 기관	182	11.3
신문, 잡지, 인터넷	175	10.9
사업체 문의/방문	168	10.4
친구, 친지 소개/부탁	724	45.0
자영업 준비	60	3.7
기타	10	0.6
합계	1,611	100.0

▶ 취업일자리와 생애 주된 일자리의 관련성



구분	빈도(천명)	비중(%)
전혀 관련 없음	1,050	15.7
별로 관련 없음	715	10.7
약간 관련 있음	766	11.4
매우 관련 있음	4,172	62.2
합계	6,702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2017.5.)

4) 더 오래 현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신중년 요구 증가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삶이 길어지면서 더 오래 현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신중년들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장래에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신중년(55~69세)의 비율이 71.7%(681만 8000명)에 이르며, 평균 71세까지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임금은 150만~300만 원 수준이 5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중년(55~69세)_장래근로희망 인식

▶ 일자리 선택기준

(단위 : 천 명)

구분			임금 수준	일의 양과 시간대	일 내용 (사무직, 생산직 등)	출퇴근 편리성 (위치)	사업장 규모	계속 근로 가능성	과거 취업 경험 연관성	사회적 지위 유지 가능성	기타	전체
전체		빈도	1,804	1,635	921	390	19	1,171	795	73	10	6,818
		%	26.5%	24.0%	13.5%	5.7%	0.3%	17.2%	11.7%	1.1%	0.1%	100.0%
성별	남성	빈도	1,106	673	550	149	13	767	560	60	8	3,886
		%	28.5%	17.3%	14.2%	3.8%	0.3%	19.7%	14.4%	1.5%	0.2%	100.0%
	여성	빈도	698	962	371	240	6	404	235	14	2	2,932
		%	23.8%	32.8%	12.7%	8.2%	0.2%	13.8%	8.0%	0.5%	0.1%	100.0%
학력	중졸 이하	빈도	747	731	305	179	4	437	290	3	1	2,697
		%	27.7%	27.1%	11.3%	6.6%	0.2%	16.2%	10.7%	0.1%	0.0%	100.0%
	고졸	빈도	775	647	317	146	9	502	308	16	5	2,725
		%	28.4%	23.7%	11.6%	5.4%	0.3%	18.4%	11.3%	0.6%	0.2%	100.0%
	전문대졸 이상	빈도	282	257	298	65	5	233	197	54	5	1,396
		%	20.2%	18.4%	21.4%	4.6%	0.4%	16.7%	14.1%	3.9%	0.3%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2017.5.)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래 근로 희망자의 일자리 선택 기준은 임금 수준이 26.5%로 가장 높았으며, 일의 양과 시간대(24.0%), 계속 근로 가능성(17.2%), 일의 내용(13.5%) 등의 순이었다. 일자리 선택 기준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여성의 경우 일의 양과 시간대(32.8%)를, 남성의 경우 임금 수준(28.5%)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또한 학력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일의 내용(사무직·생산직 등, 21.4%)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신중년 대상 재취업 서비스 시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맞춤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신중년의 경력 설계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신중년의 일자리 및 구직 활동 현황 등에 대해 이해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호소 문제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많은 신중년은 이미 생애 가장 오래 일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여 재취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기존 일자리에 비해 하향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삶이 길어지면서 더 오래 현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신중년들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어 신중년 대상 고용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신중년 퇴직 후 진출 가능한 경력 경로 중 재취업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실제 현장 사례에 기반한 재취업 유형과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 재취업 지원을 위한 가이드 및 준비 전략 등을 안내하고자 한다.

2. 신중년 재취업 경력 경로 유형

여전히 현역이고 싶은 신중년, 특히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익숙한 이들에게 은퇴 후의 여러 경력 경로 중 재취업은 가장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여기기에 우선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들의 '재취업' 경로는 청장년 시기에 경험하는 일반적인 이·전직과는 차이가 있어 이들의 재취업 경로 선택과 성공적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중년 재취업 경로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선해야 한다. 이에 본 가이드에서는 다양한 경력 경로와의 관계 속에서 재취업의 경로를 조망하고, 재취업 경로의 유형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의 경력 경로는 저마다가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진 주요한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개별의 경력 경로는 몇 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고 이러한 유형화된 경로에 대한 이해는 은퇴를 준비하고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신중년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일을 지속하고자 하는 신중년의 경력 경로는 크게 다시 기업에 취업하는 '재취업 유형'과 '새 경력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으며, 새 경력 유형은 '창업(창직), 사회 공헌, 귀농·귀어·귀촌'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은퇴 후 다시 기업으로의 취업을 선택하는 '재취업 유형'은 기존 주된 일자리의 일과 현재(혹은 가장 최근에) 종사한 일자리 간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다시 '경력 연계 재취업, 경력 무관 재취업, 새 경력 재취업'으로 하위 유형화될 수 있다.

>> 경력 연계 재취업

'경력 연계 재취업' 유형은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했던 직무와 은퇴 이후 재취업 분야에서 수행하는 직무 간 관련성이나 유사성이 높은 경우의 유형을 의미한다. 예컨대 대기업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던 신중년이 해당 대기업에서 은퇴한 이후 중소기업의 관련 분야 직무로 근무하는 경우는 '경력 연계 재취업' 유형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력 연계 재취업 유형은 기존 일자리 직종(사무직·생산직 등)에 따라 다시 하위 유형화될 수도 있다.

>> 경력 무관 재취업

'경력 무관 재취업'은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했던 직무나 유사 직무로 취업하기를 원하지만 취업이 용이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관한 직무로 취업한 유형을 의미한다. 예컨대 중견 기업에서 일반 사무직부터 관리직까지 업무를 맡아 왔던 신중년이 은퇴 후 경비직이나 청소직에 근무하고 있다면 이는 경력 무관 재취업 사례에 해당된다.

>> 새 경력 재취업

'새 경력 재취업' 유형은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했던 직무와 유사하지 않은 분야로 교육, 훈련, 자격 취득 등을 통해 진입하여 새로운 경력을 시작한 유형이다. 새 경력 재취업 유형은 기존 일자리와 직무 관련성이 낮은 분야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경력 무관' 유형과 공통점을 가지나 스스로 새 경력 분야를 선택하고 이 분야로의 진출을 위해 교육이나 자격 취득 등의 노력을 수반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중소기업 행정직으로 근무했던 신중년이 은퇴 후 새로운 경력을 모색하던 중 호텔리어 교육을 수료하고 호텔 프론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새 경력 재취업 유형' 사례에 해당된다.

개인의 경력 경로는 종단적인 것이어서 연속된 경로 중 어느 시점에서 경로를 살펴보았는가에 따라서 동일한 개인이 다른 유형으로 규정될 수 있다. 특히 신중년이 은퇴 후 진입한 재취업 일자리들의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할지라도 재취업 기업의 정년, 신중년 본인의 체력 문제 등 여러 사정으로 주된 일자리만큼 오랜 시간 종사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대기업에서 임원이나 관리직으로 있던 사례자가 주된 일자리 퇴직 직후에 의뢰나 추천을 통해 중소기업 컨설턴트 등으로 이동한다면 이때의 재취업 유형은 경력 연계형일 수 있겠으나, 해당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실직을 경험하고 제품 가공 공장의 생산직으로 이동했다면 이 시점의 사례자는 경력 무관형 재취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신중년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컨설턴트는 재취업 유형과 재취업자의 경로는 시간의 흐름과 개인이 처한 상황, 주변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유형들은 서로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례자가 보다 유연하게 자신의 경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신중년 재취업 경로 유형별 사례와 특성

이번 장에서는 실제 재취업의 경로에 들어선 다양한 신중년 사례들을 기반으로 신중년 재취업 유형별 특성을 제시한다. 다양한 사례의 경력 경로에 근거한 재취업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제2의 인생 경로를 준비하는 신중년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상담과 컨설팅에 보다 생생한 현장의 정보가 되어 줄 것이다.

1) 신중년 재취업 사례 구성

기존 신중년의 재취업 유형 분류는 실제 사례자들의 특성에 따른 분류이기보다는 다양한 기준에 근거하여 이론적으로 제안된 것이다. 이에 실제 재취업 유형의 특성 이해를 위해서 본 가이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한 기존 연구들의 사례와 생애 경력 개발 정보 웹진 <커리어info> 재취업 기사 사례, 신규 인터뷰 사례를 수집했고 이 중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사례자를 최종 선정하여 그들의 경력 경로를 살펴보았다.

신중년 재취업 경로 검토를 위한 사례 선정 기준

연령 기준	50대 이상 60대에 해당되는 사례자
주된 일자리 기준	주된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일 경험 여부 충족 시 포함 - 청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일 경험을 반복했으나 주된 직무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예) IT 분야의 여러 기업 경험이 있으나 IT직 전문성이 동일한 경우, 여러 기업의 경험을 주된 일자리 경험으로 포함
재취업 일자리 기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동일 기업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취업 상태를 유지한 경우, 해당 일자리를 재취업 일자리로 판단하여 포함 - 만약 아르바이트성 단순 일자리라도 장기간 근무하거나 영역이 분명한 경우에는 재취업 일자리로 간주
기타	실직 상태이며 그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로, 이후 취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례자는 제외 현재 실직 상태이나 재취업 경험이 있고, 다른 일로 이동 과정에서 구직 활동하며 구직 의지를 보이는 경우에는 직전에 종사한 일자리를 재취업 일자리로 보고 사례로 검토

2) 재취업 유형별 사례와 특성

개인의 경력 경로는 각자가 가진 경험의 개인차에 따라 모두 나름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경력 경로는 주된 일자리, 재취업 일자리, 연령 등 몇몇 기준에 근거해 유사성을 가지는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렇게 분류한 유형들은 공통된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의 이해는 우리가 만나는 신중년 재취업자들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에 본 가이드에서는 신중년 재취업자들의 재취업 유형별 특성을 사례에 기반하여 살펴보고 제시했다. 다만 특성 중 신중년 대다수가 공유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비롯한 세대적 특성, 예컨대 일이나 삶에 대한 관점 변화와 같은 사항들은 본 장에서는 다루지 않았다[2]. 또한 제시하는 유형별 특성은 가이드에서 활용한 사례들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린다.

1 | 경력 연계 재취업 사례와 특성 |

(1) 사례자 요약

직종	이름	성별	연령대	주요 경력 경로	
				주된 일자리	현재 일자리
기술·기능	박한섭	남	60대	전력분야 공사 특수설비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 강사
기술·기능	위기찬	남	60대	전기분야 공기업 전기안전점검	전력분야 공사 현장 안전관리
사무/금융	정진호	남	60대	은행 지점장	중소기업 총무관리
사무/영업	김정한	남	50대	식품분야 중견기업 영업/관리	중소기업 영업구매
사무/금융	유민식	남	60대	은행 자금관리	중소기업 회계, 사무
사무/IT	신영식	남	50대	IT분야 대기업 정보통신 전문가	스마트팩토리추진단 전문위원
사무/건축	채정훈	남	50대	건설분야 대기업 주택개발사업관리	부동산 투자/개발회사 총괄관리

※ 사례자들의 이름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모두 가명 처리하였으며 상세한 경력정보는 [부록 1]을 참고

2) 신중년이 가지는 전반적인 특성 정보는 본 가이드의 제2장, 제3장을 참고하기 바람.

(2) 경력 연계 재취업 사례자 특성

대부분의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에서 직종과 상관없이 나름의 업무 노하우와 전문성을 누적했을 뿐 아니라 주된 일자리에 대한 나름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은퇴를 예상하거나 경험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자신의 주된 일자리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로의 이동을 기대하게 된다. 경력 연계 재취업자들은 이렇게 '주된 일자리'에서 누적된 경험과 직무 특성을 살려 해당 분야와의 유사성이 높은 일자리로 재취업한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들은 재취업 성공 요인을 주된 일자리에서의 전문성으로 꼽고 있다. 경력 연계 재취업자들의 경우 재취업 과정에서 자신이 주된 일자리에서 경험한 다양한 업무 내용을 목록화하는 등 상세한 점검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재취업 일자리의 진입을 준비하기도 했다.

> "제가 가장 잘해 왔던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선순위 리스트를 적어 보니 결국 부동산 개발 분야로 좁혀지더군요. 조급함을 버리고 차근차근 다시 이 분야에 도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투자 자문과 컨설팅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시작했죠." (채정훈, 50대)

이들은 주된 일자리에서 누적된 업무 스킬, 직무 전문성, 전문 자격 등을 활용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마치 30~40대의 이·전직과 유사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이·전직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경험한 이후 이동했다는 점에서 30~40대의 이·전직과는 차이가 있다. 50대 신영식(가명) 씨의 경우 청장년 시절 IT 분야에서의 전문 기술을 토대로 동일 직무를 다양한 기업에서 수행했으며 이후 IT 분야에서 누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후 컨설팅 교육을 수료하고 전문 분야 자문위원 역할을 수행 중이다. 사례자의 경우 청장년 시절에 동일 업무를 다수의 기업을 이동하며 수행한 것은 '일반적인 이직'에 해당되나 퇴직 후 해당 기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의 자문위원으로 취업한 것은 경력 이동 재취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경력 연계 재취업의 성공 여부가 기존의 경험과 기술, 누적된 노하우의 활용도에 달렸다고 볼 때, 주된 일자리의 직종에 따라 재취업의 용이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것은 일자리 진입 후 환경 적응과 만족도의 차이로도 이어졌다. 기술·기능

직 사례자들의 경우, 대체로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취업이 용이했고 재취업 일자리 적응도와 만족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직의 경우 주된 일자리와 재취업 일자리의 물리적 작업 환경이나 여건이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나아지기도 하여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 판단된다. 30여년 이상 기술·기능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던 박한섭(가명) 씨의 경우 주된 일자리는 '기술' 자체를 이용해야 하는 환경이었던 데 반해, 이후 재취업 일자리는 기술을 전수하고 교육하는 환경이었다. 이에 그는 이전 일자리에 비해 더 나은 근무 환경과 처우에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퇴직하고 하는 일인데 불만족일 게 없죠. 지금 일은 매일같이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 시간표대로 나오면 되니까 아주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어요. 작업 환경은 책상만 봐도 기분이 좋고요." (박한섭, 60대)

다만 기술·기능직이라도 사례자들이 종사한 업종 분야와 기술 특성에 따라 재취업 용이성과 이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기도 했다. 본인이 종사한 업종에서의 기술 자체가 급격한 기술 변화로 필요성이나 중요도가 낮은 기술이 되었거나, 혹은 조선업이나 건축업 등과 같이 업종 자체의 환경이 급변한 경우 등 노동환경이나 시장 상황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재취업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만족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갑자기 명예퇴직을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래는 예측 가능한 범주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난히 임원이 되고 정년퇴직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글로벌 경기 악화 때 건설업이 구조 조정을 겪으면서 무너졌죠. 50대를 목전에 두고 백수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었어요." (채정훈, 50대)

사무직 재취업자의 경우, 정년을 경험하고 퇴직하여 재취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장기간 근속 과정을 거치며 주된 일자리 경력의 후반기에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근속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직급의 변화로 수행 업무가 변경된 것이나, 이러한 관리직으로의 후반기 경력은 재취업에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에게 사무실 환경은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었기에 재취업하는 일자리의 상황도 우선

적으로 사무 환경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사무 직종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의 수요는 현장에서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실무자에 집중되어 있기에 최신의 실무 능력보다 관리 능력이 최근의 경력인 신중년은 이들 수요와는 매칭되지 않아 재취업 진입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사무직 중 관리 업무 분야로 재취업된 경우에도 기존 일자리에 비해 근무 상황이나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아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기술·기능직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가이드 사례자들의 경우 주된 일자리는 대체로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기업이었던 데 반해 재취업 일자리는 중소기업 이하 규모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업의 존립 자체가 불안하거나 업무의 의사 결정이 오너나 일부 운영진들의 개인적 주관이나 감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환경이었다. 이렇듯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재취업한 일자리가 퇴직 후 별다른 준비 없이 우연히 지인 소개 등을 통해 처음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그 만족도나 적응도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국내 대규모 은행에서 30년 근속 후 정년퇴직한 정진호(가명) 씨의 경우 정년퇴직 후 중소기업 오너인 지인의 요청에 따라 공백기 없이 중소기업의 관리직으로 순탄하게 이동했으나 기존 직장과 전혀 다른 근무 환경 및 기업 문화에 실망하고 적응하지 못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그러나 현재의 일자리가 퇴직 후 첫 번째 재취업 일자리가 아니고, 주된 일자리와 현재의 일자리 사이에 공백기나 구직 활동, 다른 일자리를 경험한 사례자들의 경우 현재의 일자리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경력 연계 재취업자들은 다른 유형의 재취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취업 과정에서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경험 수준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일자리가 퇴직 후 재취업한 첫 번째 일자리인 경우에는 아직도 이전 경력에 근거한 눈높이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재취업 과정에서 자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전문 역량 등을 주로 활용한 까닭에 다른 유형에 비해 지인의 소개나 부탁으로 재취업된 경우가 많았고, 스스로가 지원하여 선발되었어도 그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경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하고 지금 일자리 잡는 데까지 한 달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냥 ○○공사 열심히 다녔던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딱히 어려움을 느낀 게 없어요. 그냥 순탄하게 됐어요." (위기찬, 60대)

다만 경력 연계 재취업자들 중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현재의 재취업 일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한 경우에는 눈높이가 많이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예컨대 현재의 재취업 일자리가 처음이 아니며 이전 재취업 일자리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 혹은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경우, '괜찮은 일자리'의 수요 부족, 노동시장의 냉혹함 등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바라보는 눈높이에 조정이 생긴 것이다.

"재취업은 오래된 업무 습관이나 가치관을 모두 벗어 버리고, 마치 신입 사원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또 한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깨닫게 되었죠. 재취업은 결코 결승점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이니까요." (채정훈, 50대)

재취업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은 최신의 구직 기술, 전문가와의 컨설팅, 취업을 위한 재교육 등 고용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편이었다. 실제로 활용한 빈도도 낮고, 프로그램이나 고용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서비스의 효용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민식(가명) 씨나 채정훈(가명) 씨와 같이 재취업자 중 주된 일자리와 현재의 일자리 사이에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가 퇴직한 경험이 있어 그 과정에서 공백기와 구직 활동을 경험한 경우에는 달랐다. 그들은 구직 기술의 필요성이나 재취업을 돕는 다양한 고용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음을 토로했으며, 활용한 서비스들의 효과에 매우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실제로 상담자를 만나서 받는 일대일 컨설팅의 효과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사실 제가 담당 컨설턴트를 참 귀찮게 했습니다. 여러 차례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같이 차 마시면서 자문도 구하고 일자리를 추천받기도 했습니다. 귀찮을 법도 한데 그런 내색 없이 적극적으로 신경 쓰고 챙겨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의 적극적이고 간절한 모습에 컨설턴트도 더 마음이 쓰이셨던 것 같습니다." (유민식, 60대)

| 경력연계 재취업 사례 특성 요약 |

- 전문 분야의 풍부한 경력 경험이나, 기술·기능직군의 자격증을 보유한 퇴직자의 경우 경력을 연계한 재취업이(사무직 등의 다른 직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향을 보임
- 오랜 기간의 경력을 통해 일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풍부한 노하우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의지가 있음
- 재취업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했던바, 재취업 일자리와 관련된 눈높이 조절의 필요성이나 재취업 시장의 어려움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편임
  - 현재 일자리가 첫 번째 재취업 일자리가 아닌 경우, 다수의 이동 과정을 경험한 경우에는 재취업 시장의 냉혹함, 눈높이 조절의 필요성, 심리적 어려움 등을 경험함
- 주된 일자리에 비하여 대부분 연봉이 낮고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편이긴 하나, 대체로 재취업 일자리에 대해 만족감을 보임(낮은 직무 난이도, 적은 스트레스 등)
  - 중견 기업 이상 대기업에서 관리직 이상의 경력자가 초기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은 편임
- 상대적으로 수월한 일자리 이동 경험으로 인해 퇴직 후 재취업 시 구직 기술이나 고용 지원 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낮은 편이고 필요성을 높게 체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이들이 주로 많은 도움을 받았거나 활용한 방법은 인적 네트워크 활용)
  - 주된 일자리와 현재의 일자리 사이에 다른 유형의 일자리 경험이 많은 경우 구직 기술이나 고용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평가함

2 | 경력 무관 재취업 사례와 특성 |

(1) 사례자 요약

이름	성별	연령대	주요 경력 경로	
			주된 일자리	현재 일자리
고재식	남	60대	제약 회사 인사총무 관리	공공 기관 보안 안내직 (해충 방역 아르바이트)
한규석	남	50대	정보 통신 분야 대기업 차장	교통 분야 공사 물품 관리
최재호	남	50대	철강 분야 대기업/중견 기업 영업 분야 관리	공원 환경팀 시설 청소직
전규현	남	60대	중소기업 및 연구소 전자회로 설계	닭고기 가공 중소기업 생산직

※ 사례자들의 이름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모두 가명 처리하였으며 상세한 경력정보는 [부록 1]을 참고

(2) 경력 무관 재취업 사례자 특성

경력 무관 재취업 유형은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했던 직무나 유사 직무로 취업하기를 원하지만 취업이 용이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관한 직무로 취업'한 유형이다. 이들의 현재 일자리는 이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를 준비할 때, 혹은 은퇴한 이후에 기대했던 일자리가 아니었다. 대부분의 신중년 재취업자들이 그러하듯 이들 역시 초기에는 경력 연계 재취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경험을 되도록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기대하고 구직을 시도했다. 그러나 나이의 한계, 보유한 역량이나 기술과 시대와의 미스매치 등으로 은퇴 직후에 기대했던 일자리에서 거절당하는 경험을 누적하고 많은 경우 경력과 무관한 일자리로 이동했다. 공고를 졸업하고 공고에서의 전공 분야를 살려 다양한 기업에서 '전자회로 설계'와 관련된 기술 업무를 수행했던 전규현(가명) 씨의 경우 디지털화된 시대에 그가 가진 기술은 소용이 낮은 것이었고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재취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쪽 분야에서는 나이가 있는 편이라 안 받아 주죠. 또 지금은 디지털 시대라 소프트웨어를 많이 하는데 내가 가진 건 아날로그 기술이니까…. 진즉 좀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죠." (전규현, 60대)

구직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의 다양한 구직 활동 경험이 누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 역시 구직 과정에서 좀 더 나은 일자리로의 진출을 위해 직업교육 및 훈련, 구직 기술 강화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 활용을 시도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새로운 경력으로의 전환을 위해 교육, 훈련, 자격 취득 등을 희망했고 관련 지원 서비스를 받아 보는 등 이동 과정 중의 고용 서비스 경험은 높은 편이나 그 효용성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퇴직 이후에 교육받으러 많이 다녔죠. 전경련, 강남에 있는 한국경력개발진흥원 같은 곳에요. KBS에서 진행한 중장년 재취업 교육도 두 달 받았어요. 인천 남동구청에서 하는 교육도 2개월 받았고요. 재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한규석, 50대)

이는 이들이 받은 고용 서비스가 개인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일방적이거나 적합성이 떨어지는 매칭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상담자나 컨설턴트가 대상자의 특성이나 요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이들의 경력 기대를 묵살하거나 부정적이고 경직된 태도로 일관하여 심리적인 상처를 경험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고용센터에서 제가 직업상담사 공부를 해 보려고 그 분야는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희망도 없는 거 왜 하려고 하느냐?'면서 오히려 말리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왜 하냐고, 퇴직한 사람들 다 이거 하려고 하는데 따 봤자 갈 곳도 없다고. 무작정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도 사기가 꺾이잖아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규석, 50대)

실패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 과정에서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존감 하락 등의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 상태는 가족 관계 악화, 대인 관계 기피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심각한 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 실제 사례자들 중에서도 지속되는 거절 경험과 실직 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이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1년은 시련의 과정이었죠. 처음에는 자살까지 생각했어요. 수면제 사서 소주랑 먹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내가 너무 초라한 느낌, 따돌림당한 느낌, 사회로부터 격리된 느낌이 심하게 들었어요." (고재식, 60대)

이들의 현재 일자리는 대부분 주된 일자리와 무관한 단순 기능직인 경우가 많다. '어떤 일이든 일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신중년들은 구직 과정에서 재취업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체감하고 눈높이를 조절하여 경력과 무관한 일자리라 할지라도 진입하게 된다. 일자리의 귀천이 없으며 일자리 질의 고저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일자리는 사회적 통념상 단순히 '경력 무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준이 '하향된' 일자리로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면 새로운 길이 보이듯, 사례자들은 하향 이동된 경력 무관 일자리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이들 역시 이동 초기에는 하향된 일자리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좌절감을 경험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겸허히 현실을 수용하고 적응하고자 노력했다. '남들이 괜찮다고 하는 일자리, 높은 지위의 일자리'는 아닐지라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하여 '가계에 기여할 수 있게 해 주고' 신중년 개인을 '일이 있는 사람'으로 유지해 주기에 현재의 일자리도 가치 있는 것으로 수용하고 감사함을 느낀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현재 이들의 수용적인 태도는 주된 일자리에서 현재의 일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실패와 좌절로 인한 타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다. 대기업에서 영업 관리직을 수행했던 최재호(가명) 씨는 현재 공원 시설 청소 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현재의 일자리가 긴 정년이 보장되고 대우가 공무원에 준하며,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복지가 충분하다는 장점을 중요하게 보면서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괜찮다는 대학 나와 대기업 근무하다 햄버거 만들고 이젠 청소부 일을 하네요. 처음엔 내가 이런 일까지 해 가면서 먹고살아야 하나 싶어서 자괴감도 들었어요. 그거 극복하는 게 힘들었고,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죠. 그래도 뭐 일의 귀천이 있냐는 소리를 듣고 커 왔으니…. 아예 일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정년도 있고 정규직이고, 공무원 대우예요. 나름 만족해요." (최재호, 50대)

신중년에게 재취업 일자리의 의미는 청장년기 주된 일자리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이에 경력 무관 재취업으로 이동한 사례자들 중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의 일자리를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일' 정도로 이해하고 단순해 보이는 일도 겸허히 만족하며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규석(가명) 씨의 경우 주된 일자리 재직 당시부터 봉사와 외국어, 교육 등의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후 은퇴 후 삶에서 이에 할애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기를 기대했고 현재도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런 그에게 현재 현장에서 장비를 손보는 힘든 일이나 물품을 점검하는 일은 '자신에게 더 가치 있고 좋아하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보조적인 일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일로 다가온다.

"제 적성에 맞는 통역, 교육과 같은 일을 직업으로 하면 좋겠지만,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혹은 연차를 써 가면서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아요.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얼마 안 되더라도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직장을 찾아서 일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병행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한규석, 50대)

'역경'은 뒤집으면 '경력'이 되고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경력 무관 일자리를 경험하는 사례자 중에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였던 일자리에서 생각지 못했던 비전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은 일자리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대형 제약 회사에서 인사 분야 전문가로 정년퇴직한 고재식(가명) 씨의 경우 퇴직 후 방역 서비스를 하는 중소기업 관리직 분야에 인턴 형식으로 취업했으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현장직으로 전환한 후 3년 이상 재직하며 재취업 기관에서 다시금 정년을 맞이했

다. 그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스스로 더 필요한 인력이 어떤 것인지 생각한 후 현장을 더 알아야 한다는 판단하에 현장직을 자청했다. 현장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방역 서비스 업계의 발전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후 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현재는 투잡을 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주말마다 방역 사업으로 투잡을 하고 있어요. 소독을 하는 일이라 육체적으로 고되지만,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자금 투자가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죠. 물론 고객과 상담을 진행하고 영업 활동을 하면서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는 것도 좋고요. 2020년부터 국민연금이 130만~140만 원 정도 나오니까 그때 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내고 싶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이곳에 다니는 것에 만족해요." (고재식, 60대)

| 경력무관 재취업 사례 특성 요약 |

-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경력을 연계한 재취업의 어려움을 겪음. 나이 및 보유한 역량이 시대와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번번이 재취업에 실패
- 지속된 재취업 실패 과정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겪기도 함
- 재취업의 실패 과정에서 눈높이 조절의 필요성을 경험하고, 재취업 시장의 어려움을 체감, 다양한 공공고용 서비스, 교육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함
- 대부분 하향 이동한 까닭으로 이동 과정에서 경험한 고용 서비스의 효과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원하는 직종이나 만족할 만한 보수의 일자리를 찾지는 못하더라도 '일을 쉬고 싶지 않은 욕구'나 당장 생계유지를 위해 일자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취업 성공
- 삶에서 일자리의 의미를 조정하며 일을 영위한다는 자체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만족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 경우에 따라서는 은퇴 이후 새로운 경력을 설계하고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비교적 단순한 직군의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만족하고 있기도 함

3 | 새 경력 재취업 사례와 특성 |

(1) 사례자 요약

이름	성별	연령대	주요 경력 경로	
			주된 일자리	현재 일자리
배기섭	남	60대	대형 은행 임원	중소기업 시설 관리
김진규	남	50대	자동차 회사 영업사원	호텔 매니저
구승효	남	50대	중소기업 생산직	중소기업 물류 관리(지게차)
박미선	남	50대	웨딩홀 관리	웨딩홀 관리

※ 사례자들의 이름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모두 가명 처리했으며 상세한 경력 정보는 [부록 1]을 참고

(2) 새 경력 재취업 사례자 특성

새 경력 재취업 유형은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했던 직무와 유사하지 않은 직무로 교육, 훈련, 자격 취득 등을 통해서 경력을 전환하여 새로운 경력을 시작한 유형'을 일컫는다. 이 유형의 경우 기존의 경력과 전혀 다른 분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동 과정 중 '교육, 훈련, 자격 취득'을 했으며 이동 시 새롭게 취득한 기술이나 자격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차이가 있다. 경력 연계의 경우에도 유관 분야로 가더라도 자신의 역량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유민식(가명) 씨의 경우 은행 사무 분야 업무에서 현재의 업무로 가는 데 사무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수료했으나 그것이 분야 전환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경력 무관의 경우에는 유관 분야로 이동하기 위해서이거나 전환을 위해서 교육, 훈련 등을 경험하기도 하나, 그것이 실제 현재의 직업 이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새 경력 유형의 경우는 이동 중 참여한 교육과 훈련, 취득한 자격 등이 이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경우이므로 다른 유형과는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새 경력 재취업자들의 경우에는 새 경력에 진입한 시기와 전환 의도에 따라서 다시 분류해 볼 수 있었다. 우선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주된 일자리 퇴직 직후 새 경력 일자리로 진입한 경우이다. 이들의 이동은 스스로가 주된 일자리 은퇴 이후의 삶에서 이전과는 다

른 일을 기대했다는 점에서 창업이나, 사회적 공헌, 귀농·귀촌 사례자들과 비슷하나 정기적인 수입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취업'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다른 경우는 새 경력 재취업을 우선 고려하지 않았으나 다양한 이동 과정을 거쳐서 현재 새 경력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새 경력 재취업 신중년 역시 다른 신중년들과 동일하게 대부분 주된 일자리에서 장기간 근속하며 풍부한 업무 노하우와 경력을 쌓아 왔기에 이들 역시 초기에 '경력 연계 재취업' 분야로의 진출을 도모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살려 해당 분야로의 창업 등을 시도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의도대로 경력이 연계되기도 했으나 일부는 의도와는 달리 경력 연계에 실패하고 경력 무관의 일자리로 이동했거나 혹은 장기간의 실직기간, 아르바이트 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일차로 경력 연계로 이동했다가도 시간이 경과하며 다시 재취업 준비의 상태로 돌아오는 이들도 있었다. 즉 이들은 퇴직 이후 다양한 일자리, 구직 경험의 누적에 의해서 새 경력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전환하는 새로운 경력 분야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새로운 경력 분야는 주된 일자리 등 이전 일자리 경험과 전혀 무관한 경우도 있지만, 경험에서 누적한 개인적 특성, 혹은 간접적으로 관찰된 직업에 대한 정보에 근거하여 선택되기도 한다. 사무 관리직이었던 배기섭(가명) 씨는 기존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분야(기계 및 시설 관리)에 먼저 진출한 주변 사례를 보고 새로운 분야로 진출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배기섭(가명) 씨 역시 새로운 기술 분야 중 세부 업무를 선택하는 데는 자신의 이전 금융 관리직에서 발견한 자신의 꼼꼼한 특성을 감안해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업 및 창업 경험이 있고 현재 호텔 매니저 업무를 하고 있는 김진규(가명) 씨의 경우는 기존 삶의 경험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신의 성향에서 비롯한 것이며 현재 일자리 역시 이런 성향과 관련된 것이었다. 한편 구승효(가명) 씨의 사례처럼 주된 일자리에서 했던 일 그 자체는 아니지만 해당 일자리에서 간접적으로 관찰했던 직업 분야에 대한 관심을 실제 재취업 분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스스로가 의도하여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바로 새 경력으로 전환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은 경력 연계 재취업에 실패하는 과정, 혹은 경력 연계 재취업 일자리에서의 부정적인 경험, 경력 무관 일자리에서의 경험 등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경력 무관과 유사한 경험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었다. 다만 이들의 경우 경력 연계 재취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해서 단순직이나 생산직 등의 하향 직종을 바로 선택하기

보다는 새로운 경력 경로로의 진입과 같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에 시간을 투여하고 진입에 최종적으로 성공했다는 점에서 경력 무관 유형과 차이가 있다.

이들은 재취업 현실의 어려움이나 구직 눈높이 조절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새 경력으로의 진입 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위나 권위를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인이 의도하여 새로운 경력으로 진입한 경우에도 새로운 분야에서는 본인이 실제로 초보와 같은 상황이므로 기꺼이 낮은 보수와 지위를 감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직종을 바꿨으니까 이제 초보 아닙니까. 가능하면 계속해서 더 상위 레벨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이론과 기술을 모두 겸비한 '현장의 기술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산업기사 자격도 따고, 전기기사도 따고 싶죠. 이건 출세하고는 상관없어요. 그저 제 업무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거지만, 개인적인 삶의 만족은 물론 사회에도 작게나마 기여하고 싶죠." (배기섭, 60대)

"기존 일자리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임금이나 출퇴근 거리나 이런 환경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게 큰 어려움은 아니거든요. 저희 현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기로 마음먹어야죠. 저는 좀 많은 경험도 하고 싶고, 경험치를 쌓은 다음에 레벨을 더 올리고 싶어요." (김진규, 50대)

새 경력 재취업자들의 경우에는 다른 유형에 비해서 구직 기술 향상, 구직 정보 검색, 직업훈련 등 구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진입하고자 하는 일자리는 이들에게는 매우 낯선 분야이고 기존의 경력이나 노하우의 활용도가 낮은 분야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새 경력으로의 진입을 위해서 교육, 훈련, 자격 취득 등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으며 이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지게차 학원에 가서 배우려면 120만 원이래요. 그래서 책 사다가 혼자 공부했어요.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고 책상 앞에서 정말 다리가 부을 정도로 공부했어요. 오로지 자격증을 따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문제를 읽고 풀고 여러 번 반복했죠. 첫 시험에선 떨어졌어요. 내 자신이 미울 정도로 엄청 짜증도 났어요. 근데 어떡해요. 다시 해야지. 두 번 만에 합격했어요. 기분 좋았죠." (구승효, 50대)

이러한 새로운 경로로의 진입에서 이들은 공공고용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했고 다른 재취업 유형자들에 비해 해당 서비스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개별 일대일 컨설팅을 활용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편이었다. 그들은 초기에 자신의 심리적인 특성, 주된 일자리의 경력 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부터, 이를 근거로 적합한 새로운 경력 분야 모색과 선정, 해당 분야로의 진출을 위한 교육, 훈련 서비스 안내, 이후 구체적인 구직 기술 클리닉, 취업처 발굴과 연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세심한 컨설턴트의 서비스를 경험했음을 설명하며 만족 이상의 감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퇴사하고 나서 실업급여 때문에 고용센터에 갔다가 상공회의소 남○○ 컨설턴트를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분이. 제가 면허증은 없는데 예전 회사에서 지게차 운전을 제일 잘했거든요. 지게차 정비도 어깨너머로 배우고. 그걸로 취업하려면 먼저 자격증을 따야 한다고 남○○ 컨설턴트가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구승효, 50대)

새로운 경력에 진출한 사례자들의 경우 진출한 새로운 일자리에서 획득하는 지위와 보수는 기존 직장에 비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특성을 감안하여, 혹은 본인이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했다는 자부심으로 재취업 일자리에 높은 만족을 보이고 해당 일의 지속 기간 및 일과 관련된 경력의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저는 지금도 머리가 하얗지만, 더 하얘질 때까지도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어요. 호텔리어는 생각보다 아는 것도 많아야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해요. 경험도 중요하죠. 그러니 나이가 더 지긋해지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계속 한 단계씩 나아가겠다는 각오로, 지금이 밑거름이 된다 생각하며 일하고 있어요." (김진규, 50대)

"저는 매우 만족합니다. 직장 그만두고 취미 생활만 할 때보다 삶이 더 활기차졌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직종을 바꿨으니까 이제 초보 아닙니까.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그래도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 주고 싶어요." (배기섭, 60대)

| 새경력 재취업 사례특성 요약 |

- 주된 일자리에서 풍부한 경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나이, 직무 특성, 업종의 사양화 등으로 경력 연계 재취업에 실패하여 새로운 분야로 전환했거나, 스스로 주된 일자리와는 다른 경력을 모색하여 이동한 경우
- 새 경력 분야는 기존 주된 일자리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분야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기본적 성향이나 기존 일자리에서 누적한 특성, 혹은 간접경험 등을 통해 선정
- 경력 연계 재취업에 실패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재취업 현실의 어려움이나 구직 눈높이 조절의 필요성 등을 체감함
- 경력 연계 재취업 실패에 좌절하고 단순직, 생산직 등으로 하향을 선택하기보다는 새로운 경력 경로로의 진입 등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함
- 새로운 경력으로의 진입을 위해 기존 주된 일자리 등에서 획득한 지위나 권위를 내려놓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도전함
- 새 경력으로의 진입을 위해 구직 기술 향상, 구직 정보 검색, 직업훈련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임
- 다른 유형에 비해 공공고용 서비스(취업성공패키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비스 등)를 통한 상담·컨설팅, 국비 지원을 통한 직업훈련 등의 활용과 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 주된 일자리에 비해 보수는 낮지만, 새로운 일에 도전했다는 자부심으로 재취업 일자리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새로운 일에 도전한 자신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느낌. 또한 해당 경력 유지 기간을 보다 장기로 고려하고 있기도 함

4. 신중년 재취업 지원을 위한 가이드

신중년 경력 개발과 관련된 상담이나 컨설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경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본 가이드에서는 앞서 신중년 재취업 경로의 유형과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신중년이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막연하게 재취업 진출을 시도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에게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하며 보다 유연하게 인생 후반기 경력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상담자와 컨설턴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장에서는 재취업 사례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상담자나 컨설턴트가 신중년의 재취업 경력 설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요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확인하세요!

- 본 가이드에서 제시되는 주요 가이드 항목은 신중년 대상의 서비스를 실시하는 초기 상담자와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이들의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작성된 것인바, 개별 대상자 학력, 특성 등 배경 정보에 따른 상담 가이드는 포함하지 않음
- 본 가이드의 내용은 사례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가이드 내용 사이에 실제 사례자들의 진술 내용을 포함하고 실제 사례 중 일부는 기사로 작성하여 이해를 돕고자 구성함
- 본 가이드는 상담 프로세스를 감안하여 구성되었으며 유형별 차별성보다는 보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됨
  - 실제 사례들을 살펴볼 때, 퇴직 전부터 새 경력을 희망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재취업 희망자 대부분은 우선 경력 연계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경력 무관으로의 전환은 의도와 달리 선택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유형별 별도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음
  - 다만 가이드 항목 중 일부 유형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유형을 감안한 차별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본문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음

Guide 1

새로운 시작을 앞둔 그들,
냉정하게 파악하되
따뜻하게 지원하자

주요 가이드 Point

- 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차별적 계획 수립과 지원 제공의 기본이다. 신중년,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사전에 준비하자.
- 내담자가 자신과 노동시장에 대해 냉철하게 인식하도록 안내해야 하지만 은퇴 후 재취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서비스의 온도가 냉정할 필요는 없다.
- 만약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의 상태가 재취업을 위한 상담을 어렵게 하는 등 상담자나 컨설턴트가 다루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고려하자.

상담에서 내담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필수적인 것으로 전체 상담의 내용과 질의 바탕이 된다. 모든 상담이 그러하겠지만 신중년의 재취업을 위한 지원에 앞서 그들이 가진 특성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끼인 세대인 그들의 욕구와 책임의 양상은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복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중년 경력 지원을 위한 상담·컨설팅에 앞서 상담자들은 이들 세대가 가진 특성에 대한 이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만나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이 퇴직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퇴직을 받아들였던 자세, 이후 재취업 과정에서의 심리적인 경험에 대한 탐색 및 이해는 필수적이다. 퇴직 수용 자세와 이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인 경험에 따라 이후 상담 진행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에 따라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과 은퇴, 그리고 재취업으로의 이동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기도 하고, 다양한 이동 경험이 있거나 재취업이 용이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취업을 30~40대 경력 이동 수준의 변화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반면 은퇴와 퇴직을 자신이 무가치해지는 의미로 받아들여 심각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만약 여전히 퇴직과 은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를 만난다면, 상담은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에 우선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신중년 상담 중 빠른 재취업 진입을 독려하기 위해 현재 노동시장의 냉혹함과 내담자 현재 상황의 문제 직면만을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만약 내담자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리 상태라면 이는 도리어 내담자를 재취업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담의 내용이나 질과 상관없이 전체 고용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회사를 많이 옮기다 보니까 실업급여도 많이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고용센터를 떠올리면 좋은 기억이 없어요. 희망을 좀 주면 좋겠는데, 그냥 뭐 서류 쓰고 단체 교육을 받고…. 그냥 제가 패배자 같았어요. 상담도 몇 번 받아 봤는데 전문성이 별로 안 느껴졌어요." (신영식, 50대)

"고용센터에서 검사도 받고 상담도 받았어요. 제가 직업상담사 쪽 공부를 해 보려고 이쪽 방향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희망도 없는 거 왜 하려고 하느냐'면서 오히려 말리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왜 하냐고, 퇴직한 사람들 다 이거 하려고 하는데 따 봤자 갈 곳도 없다고. 무작정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도 사기가 꺾이잖아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규석, 50대)

신중년 재취업의 길은 쉽지 않다. 상담자가 만나는 내담자 중 많은 수는 이 과정에서 많은 좌절과 심리적 고통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일 수 있으므로 이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먼저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현실에 기반을 둔 효율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초기부터 무조건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부정적인 반응만 보이는 것은 삼가야 한다. 일단은 반응을 수용하되 사례자와 유사한 경력 경로를 안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눈높이를 맞춰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효과와 상관없이 서비스 과정만으로도 재취업의 동력을 부여할 있기 때문이다.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갔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재취업에 기여한 바는 없지만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기여했어요. 재취업에 대한 희망을 심어 줬거든요. 담당하시는 분이 항상 응원해 주셨어요. (중략) 참 고마웠어요." (한규석, 50대)

다만 당신이 만난 내담자가 현재 호소하는 은퇴와 재취업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상담을 진행하되, 만약 호소하는 심리적 문제의 수준이 일반적인 취업 상담·컨설팅 수준 이상의 것이라면 관련 전문 서비스로 연계를 권유하는 것도 필요하다.

Guide 2

새로운 경력의 길에서, 일의 의미를 파악하라

주요 가이드 Point

- 제2 경력에 기대하는 욕구의 우선순위(금전, 의미 추구, 경력 상승 등)를 파악하자.
- 주된 일자리에 기대한 의미와 향후 경력에서 기대하는 의미의 변화 여부를 포착하라.
- 일의 의미에 따라 경력 경로 선정부터, 재취업 분야 선택, 진출 후 만족과 적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라.

'일자리를 찾고 진입하도록 돕는다'는 점만 생각하면 신중년의 경력 개발 지원을 위한 취업 상담은 청년층 취업 상담과 유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중년들은 이미 주된 일자리에서 일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이들이 이후 경력에서 가지는 일의 의미는 청년들과는 상이한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 이들이 주된 일자리를 선택하거나 유지했을 때 일에 부여했던 의미와 이후 삶에서 선택하게 되는 일의 의미와 가치는 상이하다. 그러므로 이들의 경력 경로 설계와 진입을 지원하는 상담에서 일반적인 '직업 선택'의 이유와 의미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상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다 효율적인 맞춤형 경력 지원을 위한 상담을 위해 이들이 재취업 일자리에 기대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이후 설계하는 경력 경로의 선정과 준비 과정에 차이를 가져올 뿐 아니라 재취업 일자리에 대한 적응과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신중년 재취업 사례자들이 가진 주된 일자리와 재취업 일자리의 선택 요인은 어떻게 다를까?[3] 재취업 사례자들에 한정해 살펴볼 때 이들은 주된 일자리 선택 시에는 전공과의 연관성, 관련 기술 및 직무에 대한 흥미와 적성, 안정적인 고용과 수입, 사회적인 지위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에 반해 재취업을 선택할 때 고려한 요인은 이와는 다소 상이했다. 그들은 '일'을 지속한다는 자체에 깊은 의미를 두며 이를 통해 자신의 여전한 사회적 쓸모를 이어 가는 데에 만족감을 느끼기도 했다. 특히 조직 사회에 속한 소속감과 자존감을 지키고 싶은 심리, 사회적인 의미와 가치를 우

3) 일의 의미변화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본 가이드 2장을 참고하기 바람

선순위에 두고 있었다. 또한 적은 보수라도 만족하고 근무 환경과 여건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일자리를 선택하는 데서 이들 역시 자신과 잘 맞는, 즉 자신의 전공이나 이전 직업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해당 분야로 진입하기도 했다. 한편 신중년들 중에는 주된 일자리 은퇴 이후의 경력 개발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경로를 모색하거나 혹은 이를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고 진입을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새로운 경로로의 진입 실현을 위해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중년들이 재취업 일자리에 기대하는 일의 의미와 추구하는 가치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경로 제안과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보다 높은 연봉이나 지위를 제공하는 좋은 재취업 일자리라고 해도 해당 일자리가 많은 근로시간을 요구하여 여유로운 시간 활용을 할 수 없게 한다면 이를 원하지 않는 신중년에게는 의미 없는 일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취업 상황에서 시간이나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경로는 쉽게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만약 신중년 본인이 희망하며, 훈련 기간 동안 생계유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관련 서비스 제안이나 안내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취업 사례자들 대부분이 유형과 상관없이 주된 일자리에 비해서 고용 안정성이나 경제적 측면, 즉 주된 일자리의 선택 이유와 관련된 요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전보다 열악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그들의 일에 대한 의미가 변화했다면 이러한 현실에 적응하고 만족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실제 다양한 사례자들에게서 일자리에 대한 의미 변화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을 경험하며 현재의 일자리를 겸허히 수용하고 만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신중년의 재취업 일자리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그 변화와 가치 전환을 통해 재취업 일자리에서도 적응과 만족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독려하도록 한다.

"기존 일자리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임금이나 출퇴근 거리나 이런 환경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게 큰 어려움은 아니거든요. 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기로 마음먹어야죠. 저는 좀 많은 경험도 하고 싶고, 경험치를 쌓은 다음에 레벨을 더 올리고 싶어요. 점장 타이틀도 달고, 오래 다니고 싶어요." (김진규, 50대)

"소확행.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자체가 소소하지만 행복한 거 아닌가요? 내 일이 있고 직업이 있다는 것, 내가 직접 벌어서 내 용돈을 쓴다는 것, 애들한테 기대지 않고 사는 것. 우리 아버님이 제 롤모델이에요. 70대까지 일을 하셨거든요." (고재식, 60대)

TIP 신중년 재취업 스토리

새로 찾은 일의 가치, 활력 있는 삶을 개척하다

배기섭(남, 60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대형 빌딩 기전실에서 만난 배기섭(63) 씨. 그의 업무는 건물 내에 울려 퍼질 기분 좋은 음악을 선곡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전기와 수도 점검 및 보수, 냉난방 및 소방 시설의 안전 관리까지 무엇 하나 허투루 할 수 없기에, 옥상부터 지하까지 건물 구석구석을 살뜰하게 챙기다 보면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간다. 전기기능사, 승강기기능사,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까지 갖추고 능숙하게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배기섭 씨는 사실 평생 몸 쓰는 일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은행에 33년간 재직하며 지점장과 기업금융1실장까지 거쳤고, 은행 퇴직 이후에도 민간 기업 CFO로 일했던 그의 삶은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 그가 환갑이 넘는 나이에 기술직에 도전하게 된 것은 '일'을 바라보는 관점과 철학을 새롭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그에게 지금 '일'은 활력 있는 인생을 열게 하는 힘이자 세상 속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이 되었다.

금융 전문가로 평탄히 흘러온 인생 1막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배기섭 씨는 경제정책을 펼쳐 보고 싶다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행정 고시를 준비하다가 실패한 뒤, 부친의 뜻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입사했다. 당시 금융 사무직은 화이트칼라의 대명사이자 안정적인 임금으로 상당한 인기 직종이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기업 대출과 정책 금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은 금융인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장으로 손꼽히는 곳이었다.

○○은행은 배기섭 씨에게 33년간 모든 열정을 바친 평생직장이었다. 기업금융1실장과 지점장 등 요직을 도맡았고, 기업 금융과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담당하며 일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그렇게 별다른 굴곡 없이 평탄히 흘러온 인생 1막, 그는 임원 승진을 통해 은퇴 전 마지막 커리어를 빛나게 마무리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 달리 부행장 승진에서 탈락했고, 선임 심사 업무로 배정을 받게 되자, 고민 끝에 퇴직을 결정했다. 조금 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활용하고 싶던 그에게, 마침 민자 역사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가 재무본부장 자리를 제안했던 것이다. "당시에 그 회사에 금융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에게 SOS를 친 거죠. 은행에서 쪽방에 남기보다는 나를 더 필요로 하는 곳에 가면 된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과감히 나온 거죠." 기업금융자문 경력을 통해 민자 역사 재무본부장 자리로 이직을 하게 된 그는 3년에 걸쳐 금융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주었고, 이후 산업은행의 추천으로 자산관리 주식회사의 재무본부장으로 옮긴 후 약 2년의 근무 끝에 정년을 맞이하게 됐다.

새로운 도전 속에 만난 냉엄한 현실

60세 나이에 재무본부장에서 물러난 그는 비로소 은퇴를 맞이한 기분이었다. 퇴직금, 실업급여, 개인연금 등으로 생활에 대한 어려움이 없으니 일로부터 완전히 떠나 여유를 만끽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취미 활동으로 약 1년을 보내자 삶이 무료해졌다. 평생에 걸쳐 열심히 일해 온 그에게 휴식은 금방 지루한 일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영화 <인턴>이 그의 삶에 전환점이 됐다. "영화 <인턴>을 보면서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험을 살려 다시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도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들어가서 재무와 관련된 노하우를 전해 주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게 됐죠."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된 그는 먼저 학원을 등록했다. 컴퓨터활용능력부터 전산, 회계,

전산세무 등의 실무 능력을 다시 갖추기 위해 훈련을 받은 후 구직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급여의 많고 적음이나 직급, 보직과 상관없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 가겠다는 낮은 자세로 임했지만, 그를 찾는 회사는 없었던 것이다. "유일하게 생명보험 회사에서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가진 기업체 대표들과의 인맥을 활용하면, 연봉 1억 원은 보장해 준다는 말로 유혹했지만, 제가 원한 건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발상의 전환,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배기섭 씨는 은퇴 후에도 꾸준히 옛 동료나 고향 선후배 등 지인들과의 만남을 이어감으로써,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값진 정보를 얻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 선후배들과의 술자리에서 재취업을 위한 귀중한 단초를 얻게 됐다. 사무직 재취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에게 한 선배가 전기 분야를 배워 볼 것을 권했던 것이다. "저야 평생 화이트칼라로 살았으니 기술직은 생소하기도 하고, 자신이 없기도 했는데 선배가 그렇게 말하니 용기가 좀 생겼어요. 전기는 이론이 많이 필요한 분야라 기술직 중에서도 하이테크이고, 내 적성과 능력을 봤을 때 나름대로 괜찮겠다 싶었죠." 전기 관련 분야의 직업을 알아보던 중 '국가전략기간사업 훈련' 과정을 접한 그는, 노량진에 있는 직업학교에 등록해 국비 지원으로 전기기능사 자격 훈련을 시작했다. 20~30대 젊은 학생들과 함께 6개월간 매일 학교

에 다니며 훈련을 받았고, 모든 취미 활동도 끊은 채로 주말이면 밤 10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에만 몰입했다. "전액 국비로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데다, 식비나 교통비도 지급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설령 취업이 안 되더라도 전기를 배워 놓으면 더 좋잖아요. 취업이 돼도 좋고, 안 되더라도 남는 게 있는데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그렇게 그는 전기기능사 자격을 한 번에 취득하고 나서는 승강기기능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연이어 취득하며 재취업을 위한 자격 준비를 마쳤다.

일의 의미를 바꾸다

직업학교 훈련 과정이 끝날 무렵, 교수에게 노사발전재단을 소개받은 배기섭 씨는 다음 날 바로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방문했다. 재취업을 위한 경력 개발 컨설팅을 받기 위함이었다. 컨설턴트와의 만남은 본격적인 구직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력서 작성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구직 기술까지 포인트 레슨을 받을 수 있던 것이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 갔는데, 문제점을 바로 집어내 주더라고요. 오랜 세월 금융업계에서 일하면서 훈련된 저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빈틈이 없고 꼼꼼한 업무 성향을 기전실 업무와 연결 고리를 만들어서 어필해야 한다는 거죠. 그 덕분에 이렇게 빨리 재취업할 수 있었어요." 시설 관리자로 재취업에 성공한 배기섭 씨는 요즘 누구보다 활기찬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 새로운 분야에 진입한 만큼 초심자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이다. 지속적으로 실무 능력을 키우고, 산업기사 자격증에도 도전하여 이론과 기술을 모두 겸비한 '현장의 기술자'가 되겠다는 새로운 목표도 설정했다. 인생 제2막을 열어나가며, 일에 대한 의미도 바뀌었다고 말한다.

"이 나이가 되면 일을 왜 해야 할까에 대한 자기 철학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출세를 생각하기보다는 다음 세대들이 편안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를 찾는다면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아주 즐겁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제가 일을 하는 이유가 되었어요."

※ 신중년 재취업 성공 스토리에 소개된 사례자 이름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처리

Guide 3

**새로운 경력의 길에서,
일의 의미를 파악하라**

주요 가이드 Point

- 퇴직에 대한 자세와 마음가짐이 재취업 성공 준비와 적응의 기본이다.
- 퇴직(은퇴)은 누구나 겪는 것,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자.
- 재취업 시장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다시 현역이고 싶다면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안내하자.
- 주된 일자리와 다른 대우·위치를 수용하고 겸손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어디에서나 최선을 다한다면 또 다른 길이 열릴 수 있다.

신중년들이 대거 은퇴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후의 대책은 막막한 경우가 많다. 평생직장 시대를 살아온 까닭으로 여전히 이들에게 '퇴직=정년퇴직=은퇴'가 일종의 공식처럼 자리 잡고 있는 탓에, 55~60세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퇴직을 맞이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한다. 이들 다수가 치열하게 살아온 만큼 안락한 노후를 기대하지만 막상 맞이하게 되는 은퇴 이후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전에 경제적 여유를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신중년의 경우가 그렇다. 대부분이 은퇴 후 수입원은 제한된 것에 반해 소비는 은퇴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생활 유지에 직접적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인맥이나 생활 반경이 급격이 감소하며 심리적인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암흑기였어요. 고생 많이 했죠. 아내한테도 미안해서 꼼짝도 못 했어요. 일은 꾸준히 했는데 아무래도 계속 계약직을 전전하다 보니 돈이 들어와도 쓰지를 못했어요.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고용 불안감이 컸죠. 월 200만 원, 아니 150만 원씩이라도 좋으니 꼬박꼬박 정해진 날짜에 월급 나오는 일이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싶었어요." (신영식, 50대)

그러나 재취업에 성공한 많은 사례자는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도전하여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다.

"인텔리라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게 선민의식이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퇴직하고 전기기능사 자격 따려고 직업훈련학교에 다닐 때, 처음으로 지하철 첫차를 타 봤어요. 새벽 5시 반에 지하철이 꽉 차요. 건설 현장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주야간 교대 근무

하는 사람들 등 정말 다양하죠. 그 현장에 있어 보니 이전에 모르던 새로운 세상이 드디어 보이더라고요." (배기섭, 60대)

은퇴는 누구든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그 시기는 예상이 가능하다. 실제 사례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 시기를 어느 정도 가늠하고 있었다. 다만 예상되는 퇴직을 언제부터,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비했는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이후 냉혹한 현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은 물론이고 이후 재취업 준비 여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충분한 퇴직 준비 기간을 가진 신중년들의 경우 혹독한 고용 시장의 현실을 미리 파악하고, 재취업, 귀농·귀어·귀촌, 창업 등 퇴직 이후의 다양한 경로를 미리 탐색하여 퇴직에 따른 변화와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 또한 보다 이르게 시작한 은퇴 준비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경력 마무리 시간을 다음 경로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사실 제 예상보다 이른 퇴직이었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나올 순 없잖아요. 회사와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갖기로 하고, 그 사이에 부지런히 퇴직을 준비했어요. 내일배움카드도 신청하고, 밤에는 상하차 물류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예전부터 호텔 프론트 일을 해 보고 싶었는데, 마침 한국관광공사와 ○○에서 '신중년 호텔리어 양성 과정'을 모집한다기에 지원해서 훈련도 받고, 정말 정신없이 진짜 바쁘게 퇴직을 준비했죠." (김진규, 50대)

"퇴직하기 한 3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귀촌을 준비했어요. 시골에 집 한 채 마련해 놓고 주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했어요. 시골에 내려와서 아무 일 없이 텃밭에 자라는 작물이나 과일 같은 거 보면서 시간 좀 보내야지 했죠. 퇴직금 가지고 투자해서 창업하거면 그나마 가진 것도 잃겠다 싶었거든요." (박한섭, 60대)

"은행은 퇴직 절차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요. 은행 지점장은 만 55세까지죠. 만 55세 넘어서는 하루 6시간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채용해요. 계약직 근무를 9개월 정도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죠. 그 타이밍은 제가 정했고요. 가이드라인은 있었죠. 정년퇴직 준비 전부터 선배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퇴직자들 모임에도 나가 보고, 창업한 선배들 가게에도 가 보면서 현실적으로 생각했어요." (정진호, 60대)

또한 은퇴 이후 경로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면 경력과 무관한 곳으로 경로가 수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보다 겸허히 수용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진입하기 위한 과정으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헤쳐 나갈 수 있었다.

"제 적성에 맞는 통역이나 안내, 교육과 같은 일을 직업으로 하면 좋겠지만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마다 혹은 연차를 써 가면서 다니는 걸로 만족해요.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수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 안 되더라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직장을 찾아서 일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병행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한규석, 50대)

"처음에는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나? 내가 이사 명함 내밀면서 대우받았던 사람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중략) 지금은 주말마다 방역 사업으로 투잡을 하고 있어요. 소독을 하는 일이라 육체적으로 고되지만, 고객과 상담을 진행하고 영업 활동을 하면서 만족감과 보람을 느껴요. 지금은 안정적으로 이곳에 다니는 것에 만족해요." (고재식, 60대)

현재의 고용 시장은 누구에게도 녹록하지 않다. 특히 끼인 세대인 신중년이 은퇴 후 만나게 될 재취업 시장은 예상보다 혹독하며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좌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재취업 경로의 진입과 적응의 과정은 대부분의 신중년에게 더 많은 시간과 준비, 겸손한 마음가짐을 요구하게 된다. 실제로 살펴본 다양한 사례자들의 경우 은퇴에 대한 이른 준비와 긍정적이고 겸허한 수용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가고 있었다. 이에 상담자는 은퇴 준비 시기와 마음가짐에 따라 이후 구직 활동, 개인의 정체성, 나아가 삶의 방향까지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내담자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자.

TIP 신중년 재취업 스토리

두 번의 정년퇴직, 냉혹한 현실을 극복하게 해 준 꿈을 향한 한 걸음

고재식(남, 60대)*

○○ 건물 1층 로비에 들어서면 보안·안내를 담당하고 있는 고재식(60) 씨의 환한 미소를 만날 수 있다. 늘 따뜻한 미소, 밝은 인상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그이지만, 그도 한때 크나큰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30년간 열정을 다해 일했던 제약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맞으며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은 것도 모자라, 겨우 찾은 새로운 일자리에서도 3년 만에 다시 한번 정년퇴직으로 물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사이 마트 판매직과 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떨어진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극도의 우울감까지 경험했던 그는, 이 혹독한 현실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조바심을 내지 않고 꾸준히 재취업에 도전했다. 그렇게 끝내 현재 일자리에 다다랐지만 그의 열정 엔진은 여전히 가동 중이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발견한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 위해 오늘도 공부하고 있는 고재식 씨. 탄탄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자신의 몫을 다 하는 그의 여유로운 미소에서 다시 한번 기분 좋은 미래를 엿볼 수 있다.

30년, 사람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리더

고재식 씨는 제약 회사에서 한평생 일한 부친의 영향을 받아 ○○제약에 입사한 뒤, 20년간 인사총무 업무를 담당했다. 서류, 면접 등 채용의 전 과정과 신입 사원 교육, 직무 배정, 인사고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사 업무를 총괄했던 그는 힘겨웠던 1998년 IMF 외환위기 시절을 겪어 내기도 했다. 몇 달에 걸쳐 직원들을 설득해 사표를 받아 내는 악역까지 도맡았던 그 시절을 떠올릴 때면 그의 마음은 아직도 쓰리다. 그는 대기업의 형식적인 인사고과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늘 밤새워 공부했고, 직원들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직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던 사려 깊은 중간 관리자이기도 했다. 특히 신입 사원 교육을 총괄하면서, 직원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직무에 배정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애썼다는 그는, "상담을 통해 직원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그곳에서 만족을 느낀다고 말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느꼈다"고 그때를 회상한다. 고재식 씨는 이후 물류센터의 책임자로 발령이 나 정년까지 10년을 더 일했다. '평가'한다는 마음이 아닌 관리하고 보살핀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100명이 넘는 직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시기였다. 간식과 함께 힘내라는 메시지를 담은 메모를 건네기도 하는 따뜻하고 친근한 리더였다. 그러나 30년간 ○○제약에 삶을 바친 고재식 씨라도 정년퇴직의 그림자를 피할 수는 없었다. 퇴사 후 임금 삭감을 통해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게 되었지만, 2년 차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갑작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것이다.

혹독한 현실, 긍정의 자세로 극복하다

충분히 고민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퇴사하게 되었지만, 고재식 씨는 침착하게 지인들을 만나 물류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시장조사를 다니며 요식업계 자영업을 고민했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은 어렵다고 판단을 내리고 재취업을 결심하게 됐다. 30년간 한 우물을 판 자신의 이력서를 꼼꼼하게 검토해 줄 곳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현실은 너무도 냉혹했다. 퇴직 이후 1년은 헤매기만 한 시간이었다.

이력서를 100곳 넘게 보냈지만 번번이 나이를 문제로 어렵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특별한 자격증이나 기술이 없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한정적이었고, 결국 헤드헌터와 마트 판매직을 거쳐 공사 현장에까지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공사장에서도 현장 근무 경험이 없어 서툴기만 한 그를 더 이상은 받아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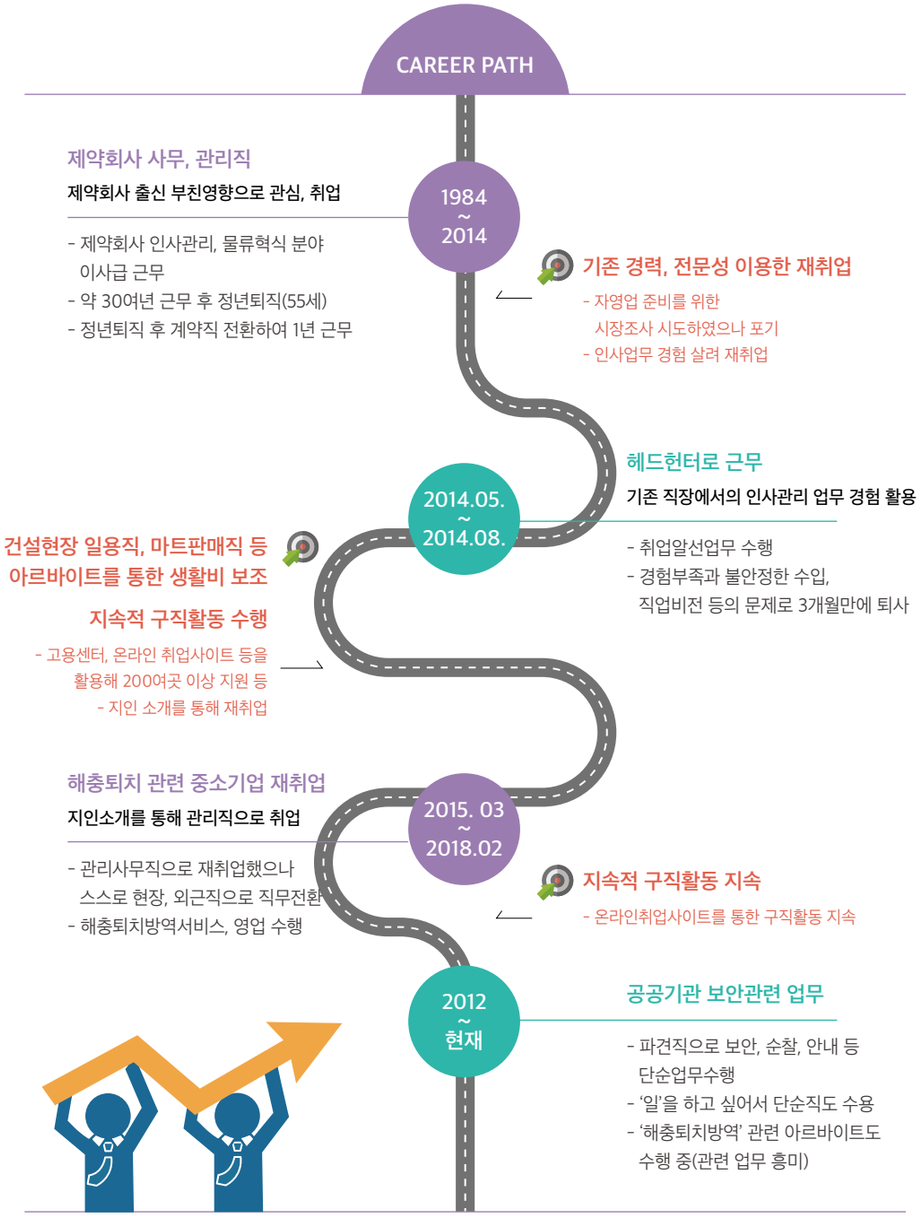
아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해 봤다"는 고재식 씨.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던 시기, 그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다. 제약 회사 근무 시절의 지인이 방역 회사의 이사로 있다며 함께 일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 온 것이다. 방역 작업과 해충 퇴치 상담 업무였다. 직접 소독 분무기를 들고 가정집과 식당 등을 돌며 약품을 뿌려 주는 일, 처음에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약 회사에서 이사 자리까지 올랐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릴 때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에 얼굴이 달아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방역을 통해 고객의 불편을 해결해 주고, 해충 문제를 상담하는 업무를 통해 곧바로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다. "해충 문제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함께 고객의 문제를 개선하고, 그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들을 때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죠." 제약 회사 근무 시절부터 상담을 통해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관심이 많았던 그에게는 방역 작업도 보람과 기쁨을 주는 일이었던 것이다.

새로운 도약의 날개를 펴다

그토록 적성에 잘 맞던 방역 업무였지만, 고재식 씨는 3년 만에 다시 정년의 쓴맛을 맛보게 되었다. 하지만 또다시 재취업을 준비하는 그의 자세는 이전 퇴직 때의 암울했던 시기와는 사뭇 달랐다. 고재식 씨는 "○○제약에서 퇴직했을 때는 애들이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던 시기라 조급한 마음이 들어 더 괴로웠지만, 이번에는 두 아이 모두 취업을 했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마음 편하게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렇게 그는 방역 회사 일을 아르바이트로 병행하며 차근차근 재취업에 노력을 기울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안·안내직의 면접 기회가 주어졌다. 면접관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화려한 경력을 다소 부담스러워하기도 했지만, 그는 성실함과 열의를 보여 주었다. "대기업 이사까지

했던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나 방역 업무와 한곳에서 오래 근무한 이력을 설명하는 걸 보고 제 열의와 성실함을 믿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했죠." 그는 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과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하루를 보낸다. 그렇게 평일에는 보안·안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말에는 방역작업과 상담, 영업 일을 통해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아 가고 있다. 더불어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직업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한 공부도 시작했다고 한다. 고재식 씨는 존경하는 부친처럼 70세까지는 일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두었다. 직업상담사로 나아갈지, 방역 사업으로 갈지를 고민하지만 그 중심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다는 것에 늘 힘이 난다고 전한다.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과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에게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여유가 깃들어 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후배들에게 자리를 비워 줘야 한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60세가 되면 순리를 안다는 공자 말씀도 있듯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욕심도 버려야 해요.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소한 하나라도 가지고 가는 건 필요해요. 저는 이제 무슨 일이든 자신 있어요." 요즘 고재식 씨는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가면서 남은 생을 일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채워 가고 있다.

※ 신중년 재취업 성공 스토리에 소개된 사례자 이름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처리



Guide 4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1 :
주인공 파악이 우선이다

주요 가이드 Point

- 취업을 할 때 현재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기본, 재취업을 준비하는 내담자 특성과 상태에 대해 다각도로 조망하고 이해를 분명히 하자.
- 재취업 신중년의 경우,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주된 일자리를 비롯해 이전의 다양한 직업 경험에서 누적된 직무 경험과 역량을 이해하고 이를 세밀히 확인한다.
- 내담자 본인에게도 면밀한 자기 이해가 새로운 길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재취업에서 신중년 자신이 가진 특성과 경력에 대한 세심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내담자들은 자신의 경력을 점검할 때, 기업명과 대표적인 업무 분야만을 고려하고 상세한 경험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담자는 이 부분에서 보다 상세하게 자신이 해 본 일을 모두 나열하고 그 일에서 어떤 업무적인 경험을 했고 어떤 직업능력을 쌓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중년 재취업자들이 다른 취업자들에 비해 가진 경쟁력은 그들이 가진 좋은 스펙이나 관리직으로의 오랜 경력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누적된 다양한 실전에서의 직무 경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존 경력을 활용하여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 시 이전 직종에서 경험한 다양한 직무 경험, 자격 등을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삶의 경험을 통해 인지하고 있는 자신의 장단점, 흥미와 성격 등 다양한 특성을 다각도로 조망하는 것은 청년층의 취업뿐 아니라 신중년의 취업에도 필요한 과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과정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경로를 발견하게 하고 은퇴 후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중년의 경우 그들이 주된 일자리를 선택하던 시기에 일자리 선택의 이유가 대부분 높은 연봉이나 지위, 안정성에 있었기에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와 맞지 않았어도 일을 선택하고 지속한 경우가 많아 이런 과정이 더욱 의미 있을 수 있다.

"사실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영업직도 했고, 자영업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 상대하는 일에 자신도 있었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프론트 쪽 일을 해 보고 싶다고 주변에 자주 말하고 다녔는데, 그걸 알고 있던 친구가 좋은 기회가 있다면서 연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신중년 호텔리어 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김진규, 50대)

"처음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무작정 3~4개월 해 보니까 재밌어졌어요. 고객들이 바퀴벌레 때문에 고민하고 불편해할 때, 제가 나서서 해결해 주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컨설팅하고 상담하면서 영업하고 마케팅도 하는데, 그런 일에 큰 보람을 느껴요.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사람들 돕고 컨설팅하고 그런 쪽에 적성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 인사 업무도 제가 하려고 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저한테 맞았던 거죠." (고재식, 60대)

재취업에서의 자기 이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함께 고려할 것은 자신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중년의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일자리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편이다. 특히 재취업자들의 경우 오랜 시간 주된 일자리에서 경력을 누적해 왔기에 도리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현역에서 기술을 활용했던 은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 환경이나 대우가 좋은 대기업 등에서 주된 일자리 경험을 누적한 경우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실제 업무 역량, 기술 수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무직이나 관리직이었던 경우 그들이 최근에 가진 일 경험과 기술 수준은 실제 최근의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상당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기존 경력과 좋은 스펙은 신중년이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도리어 부담스러운 조건이라 진입에 방해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을 대면하는 상담자는 신중년 본인이 자신이 가진 역량 수준에 대해서 보다 냉정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재취업의 눈높이 조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경험과 경력을 살려 연계하는 일자리를 희망하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역량만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 등의 고용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가 금융사에서 평생 일했고, 또 기업에서 재무본부장도 했으니까 작은 회사들을 좀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벤처회사 같은 곳에서 재무나 금융 자문 같은 거요. 급여 상관없이 해 보겠다 그러는데도 불러 주는 데가 없었어요." (배기섭, 60대)

Guide 5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2 : 변화의 방향성 파악 여부를 확인하라

(재취업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다)

주요 가이드 Point

- 노동시장의 변화, 재취업 시장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안내하자.
- 재취업 직무 이동의 현실을 직시하고 가능성을 점검할 것을 안내하자.
- 향후 노동 현장, 직업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배움 또한 중요하다.
- 현실적인 재진입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고 준비하도록 독려하자.

경기 악화와 직업 세계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재취업 시장에는 신중년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연령이나 기존 일자리 특성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모두가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다시 말해 이것은 신중년이 원하는 좋은 재취업 일자리로의 진입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신중년 노동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양호한 일자리나 핵심적 지위는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 주고, 임시·일용직, 단순 노무직에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도 해당 일자리의 질이 이전에 비해 낮고 경력 활용이 미흡한 임시·일용직, 생계형 자영업, 단순 노무직 등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재취업 탐색 시 이러한 노동시장의 특성을 충실하게 습득하지 못하거나, 취업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겸비하지 않고, 주된 일자리에서 가졌던 관리자적 눈높이를 유지한 채 취업처를 제한하는 경우 재취업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신중년은 재취업 시장의 특성에 대한 냉정한 이해와 파악이 필요하며, 직무 이동 희망 시 해당 직무에 대한 향후 고용 현황, 직업 비전에 대한 충실한 분석이 필요하다. 실제 사례자들을 살펴보면 은퇴 전 충분한 시장 정보를 검토하고 수집해 경로를 모색한 경우도 있었고, 막연하게 재취업에 대한 기대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냉철한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진입을 시도한 경우 재취업 과정에서 다수의 거절을 경험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데 이를 극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게 확인되었다. 반면에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일자리 시장에 대한 객관적 정보 탐색, 지인을 통한 현황 파악, 적극적인 교육 수료를 통한 시장 이해 등을 통

해 노동시장의 현실적인 진입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여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 내가 진입하려는 시장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다. 재취업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재취업자들의 경우에 '고용 시장'에 오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현재 고용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편향에 빠져 실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소홀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상담자는 이들이 진입하고자 하는 분야의 인력 수급 현황 등 시장 정보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금의 노동 및 고용 시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기술에 따라 예측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달라지고 있으므로 진출에 성공하더라도 끊임없이 변화를 파악하고 민감하게 변화해야 할 것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은 정부에서 최소 1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짠 거예요. 현재 민간 주도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 고도화 단계에서 진정한 스마트 공장은 2035년 정도에 중소기업에서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모든 정보가 자동화되고 그에 따라서 로봇이 움직이고 하는 그런 모델이 2035년 정도에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10년 이상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53세인데 10년 후면 63세일 거 아니에요. 저는 최소한 그때까지는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희망이죠." (신영식, 50대)

Guide 6

재취업도 취업이다 1 :
목표 설정을 분명히

주요 가이드 Point

- 은퇴 후 삶에서 재취업 일자리가 가지는 의미에 따라 분명한 목표 설정을 하되, 목표는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적이어야 함을 안내한다.
- 모든 것을 재취업 일자리로 충족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삶의 만족을 취미 활동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충족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현실적이고 분명한 목표 설정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취업 준비 과정을 가능하게 하고 이것이 일자리 진입 후의 적응과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해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목표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효율적인 취업 준비와 진입 이후의 적응과 만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재취업도 취업이다. 즉 신중년의 재취업에서도 명확한 목표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목표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자신의 상태를 명확히 검토하는 것이다. 이때 검토해야 하는 항목에는 취업과 관련된 주된 일자리에서의 다양한 직무 경험, 기술, 기타 자신의 성격 특성 및 성향의 장점뿐 아니라 은퇴 후 일자리에 대해 가지는 기대가 있다. 이러한 조건을 토대로 분명하게 목표를 설정해야 효율적인 구직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구직 관련 기술이나 경력 등을 점검함과 동시에 이들이 이후 일자리에 거는 기대나 부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여 목표를 함께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취업 일자리를 통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는 목표는 달라지며 달라진 목표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고용 서비스 역시 상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담자는 이러한 목표 설정 시 사례자의 기대를 감안하되, 사례자의 경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신중년 재취업 시장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신중년 재취업 시장의 현실을 아직 잘 체감하지 못했거나, 여전히 재취업 일자리의 무게와 가치를 주된 일자리에서 충족하는 수준과 유사하게 두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조정하여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신중년의 재취업 시장에서 이들을 위한 일자리의 수와 양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은퇴 후의 일에서 모든 것을 다 충족하려하기보다는 일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우선순위에 맞춰 목표를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구직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실제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보면 명확히 목표와 함께 그에 맞는 일자리를 설정하고 구

직 활동에 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작정 발로만 뛰어서는 취업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자신이 가진 경력을 잘 살려 직장을 구할 것인지,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일을 통해 자아실현, 사회봉사 등을 하고 싶은지, 빠른 취업을 통한 생계유지가 목적인지부터 명확하게 진단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자.

아래의 표는 신중년 재취업 사례자들이 재취업 일자리에 두는 목표와 의미를 사례에 기반하여 분류하고, 목표와 관련해 제공할 수 있는 상담 팁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면하는 내담자가 가지는 일자리의 목표를 확인할 때 참고하여 활용하도록 하자.

point 1 : 삶의 만족은 다른 것으로, 재취업 일은 새로운 꿈을 향한 발판

- 경력 무관 재취업 사례에서 많이 발견되는 목표
- 퇴직 전 자신의 흥미 분야를 미리 알고 이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자발적으로 경력 무관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취업 일자리로 하향 이동하는 것에서 오는 심리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경력 무관 일자리로 이동했는데 예상치 못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한 경우, 현재의 일자리는 비전 분야로의 진출을 위한 금전적 벌이의 수단으로 만족
- 경력 무관 일자리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러한 목표 사례를 설명하고 경력 무관 일자리에서 새로운 비전이나 만족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

point 2 : 급여보다는 기존 자신의 경력, 인정 지속이 목적

- 경력 연계 재취업 사례에서 많이 발견되는 목표
- 신중년 중 현재 가계 형편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경우 설정하는 목표인 경우가 많았음
-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 급여가 적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그중에 '자원봉사'의 개념의 일자리 확장도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수용 여부도 함께 파악하도록 할 것

point 3 : 새로운 일에 도전과 이후 경력 확장 기대

- 새 경력 재취업 사례에서 많이 발견되는 목표
- 이러한 목표의 설정을 지지하되, 실현 가능한 분야를 설정할 수 있도록 눈높이 조절을 돕고 지원
- 지원하는 분야 설정 시 기존 일자리에서 누적한 경험이나 자신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일지 점검할 것

point 4 : 생계의 지속, 사회적으로 계속 지속하는 활동 자체에 의미 부여

- 대부분의 신중년이 유형과 상관없이 기저에 가지고 있는 목표
- 만약 내담자가 경력 무관 일자리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 하향 이동으로 부담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감정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통해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가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리적으로 지지해 주어야 함

TIP 신중년 재취업 스토리

'나의 삶'을 중심으로 재취업을 설계하다

한규석(남, 50대)*

32년간 ○○에 근무하며 전국 각지에서 전기통신 관련 분야 업무를 담당했던 한규석(56) 씨는 언제나 분주하고 열정 넘치는 사람이었다. 업무 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모니터링, 봉사, 통역, 안내 등 활동을 꾸준히 해 왔기 때문이다. ○○에 구조 조정 바람이 불었을 때, 그는 교육을 통해 새로운 분야로 재취업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가진 상태로 명예퇴직을 결심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도전을 쉽게 받아 주지 않았다. 퇴직 후 재취업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도 취득했지만, 취업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탄탄하게 다져 놓은 인맥과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재취업의 목표 설정을 통해 그의 재기는 성공에 이르게 됐다. 안정적이고 마음의 여유를 주는 일자리를 통해 삶의 원동력이 되는 대외 활동에 꾸준히 집중할 수 있는 현재, 그는 어디에서도 밝은 웃음을 잃지 않는다.

안팎을 가리지 않았던 열정의 시기

한규석 씨는 19세에 입사한 이래, 32년간 ○○에 몸담으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맨홀을 열고 들어가 케이블을 확인하는 일부터 전자교환기 관리, 지하철에 설치되는 와이파이 중계기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전기통신 분야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누구보다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궂은 현장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였지만, 특히 품질(QI)과 교육, 물품 관리 등 사무적인 업무에서 강한 역량을 드러냈다. 특유의 적극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품질 혁신 경진 대회'를 주체적으로 이끌기도 하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 계약 업체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왔다. 이처럼 사람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던 그의 성격은 사내에서만 발휘되던 것은 아니었다. 주말은 물론 연차 휴가를 사용하면서까지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해 주는 일들에 꾸준히 봉사해 왔던 것이다. 특히 10년 넘게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강의를 하는 봉사를 이어 갔고, 그밖에도 각종 국제 대회나 엑스포, 축제에서 통역이나 봉사 분야에 자원하여 활동했다. 안팎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쏟아 내던 시기였다.

짐작과는 달랐던 새 출발

○○의 대대적인 구조 조정 소식이 들려오던 2014년, 한규석 씨는 정년퇴직을 10년 앞두고 있었다. 이전에도 4~5번의 구조 조정을 잘 견뎌 왔던 그였지만, 이번 인원 감축에는 그전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있었다. 인원 감축 이후 더욱 높아질 업무 강도와 언제 또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구조 조정에 대한 불안함을 떠올리며 회의적인 생각을 이어 갈 무렵, 그에게 퇴직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조금씩 스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해 왔던 한국어 강의나 통역 일을 좀 더 배우고 발전시키거나 통신 감리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이다.

한규석 씨는 열흘 남짓 고민한 이후 빠르게 퇴직을 결심했고, 퇴직 후 곧바로 아시안게임에서 한 달간 통신, 중계기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다. 덕분에 퇴직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앞섰다고 말한다. "퇴직할 당시에는 아시안게임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에 들떠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퇴직금으로 뭐라도 배우면서 하나씩 시도해 보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았어요." 아시안게임이 끝난 이후, 한규석 씨는 본격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참가했다. 전경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한국경력개발진흥원, KBS 중장년 퇴직자 재취업 교육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실제 취업까지 연결되지는 않았다. 그 과정에서도 그는 좌절하기보다는 꾸준히 사회복지사와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집중하면서, 다양한 기관의 모니터 요원, 안내, 통역과 같은 활동을 이어 갔다. 활발한 교육과정 참여와 자격증 공부, 봉사를 통해 1년간 자

신의 역량을 키워 가던 한규석 씨는 △△교통공사 모니터링 활동을 하던 중 우연히 홈페이지에서 구인 공고를 발견해 지원하게 됐다. 해 본 적 없던 전동차 정비 업무였지만 한 번의 고배를 마신 끝에 합격했고, 성실함과 밝은 성격을 바탕으로 20~30대 직원들 사이에서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전동차 바퀴와 같은 중량물을 다루는 곳에서 근무하다 보니, 2년이 넘어가면서 점차 육체노동을 견디는 것이 버거워졌다고 말한다. "팔은 계속 안 좋아지고, 페인트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가는 일도 허다했죠. 새로운 일을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됐지만, 계속하다가는 몸 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정에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동차 정비 업무에 지쳐 가고 있을 무렵, 한규석 씨에게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교통공사 경전철사업단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어!" 함께 정비 일을 했던 형님의 연락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업무를 확인해 보니 ○○에서 잠시 몸담았던 물품관리 업무였다. 수많은 경력을 지닌 13명의 지원자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그는 지원자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다. 그러나 주눅 들지 않고 면접 질문에 성실하게 답한 결과, 한규석 씨는 최종 합격한 단 한 명이 될 수 있었다. 소모품 담당을 맡게 된 그는 누구보다 책임감 있고 주도적

으로 업무에 임하고자 했다. “창고에 정신없이 쌓여 있는 소모품들을 직접 앵글을 짜서 정리했고, 주도적으로 할 일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했어요. 계약직이라고 해서 대충대충 시간만 보내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가 과거에 ○○에서 물품 관리를 담당했던 것은 4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꼼꼼하고 주도적인 성격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점차 업무에서도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인정받는 구성원이 된 그는 젊은 직원들이 많은 공간에 적응할 수 있었던 노하우가 ‘존중’이라고 말한다. 나이에 상관없이 동료의 업무 영역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통해 자신 또한 존중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꿈을 따라 순항하는 삶

명예퇴직 이후 몇 차례의 시련이 있었지만, 한규석 씨는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며 그 과정에서 만난 인연들을 소중하게 여겼다. 또한 그는 자신이 사람 속에 섞여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임을 일찍이 깨닫고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다. 정확히 자신의 적성과 업무적 강점을 파악한 뒤, 삶의 중심이 되는 목표를 설정한 그의 재취업은 실패할 수 없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수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얼마 안 되더라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상태라야만 좋아하는 일을 충분히 즐길 용기가 나요. 다음 직장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곳에 가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병행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한규석 씨는 스마트폰에 자신의 학력과 업무 내역은 물론, 수상 내역과 자격증, 인증서, 봉사 활동 기간과 장소까지 분야별로 꼼꼼하게 정리된 파일을 늘 갖고 다닌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꿈꾸는 5년 후, 10년 후 모습에 대해서도 언제나 상세한 계획을 세우며 한 발짝씩 다가서고 있다고 한다.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에 대해 평생 고민하며 길을 찾은 사람의 미소에서는 누구보다 강한 자신감이 묻어나왔다.

※ 신중년 재취업 성공 스토리에 소개된 사례자 이름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처리

Guide 7

재취업도 취업이다 2 :
필요한 스펙 관리는 철저하게

주요 가이드 Point

- 청년의 취업보다 혹독할 수도 있는 재취업. 그러므로 재취업 준비는 그만큼 더 철저해야 한다.
- 재취업의 스펙 관리는 다각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청년층 일자리 진입의 어려움과 이들이 진입을 위해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는 연일 쏟아지는 기사와 정보, 그리고 주변의 많은 청년층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늘구멍 같은 취업의 문을 통과하기 위한 청년들의 노력은 '스펙 10종 세트'라는 신조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신중년의 재취업은 어떠한가? 신중년 재취업 시장은 청년층의 취업 시장에 비해 여유로운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열악하다는 것을 상담자들과 컨설턴트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신중년들이 재취업에 경주하는 노력의 양상은 어떠한가?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상담자 및 컨설턴트는 내담자가 생각을 전환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재취업도 취업이다.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신중년 스스로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재취업 시장이 제한적인데도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이 취업을 위해 투여하는 노력을 생각하면,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상보다 막연한 정도의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신중년들의 경우 주된 일자리 진입 시 고용 환경이 현재에 비해 여유로운 편이었고, 학력이나 기술이 어느 정도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일자리로 진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구직을 위해 필요한 준비 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대처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또한 주된 일자리가 안정적이었던 경우 이후 재취업 시장의 어려움과 구직에 필요한 요소와 준비 방법에 대한 이해 및 준비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상담자(컨설턴트)는 신중년이 취업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임시·일용직이나 단순 노무직으로의 재취업이 아닌,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로의 진출을 기대하고 있는 내담자라면 환경 변화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에 진입하기 위해 철저한 스펙 관리를 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들 신중년의 경우 주된 일자리에서의 장기간 근무로 스스로는 자각하고 있지 못하나 최근의 구직 기술, 방법 측면에서 취약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구직 서류 작성 방법, 그리고 면접 방법이 분야와 트렌드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데 신중년의 관련 기술은 업데이트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구직 기술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의 점검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사발전재단 서비스 팸플릿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자격증은 땄는데 진입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었거든요. 거기서 ○○컨설턴트를 만난 거예요. 전문가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력서를 써 가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참 족집게처럼 집어냈어요. 이력서를 몇 번 고쳐서 완성본을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여기에 지원한 거예요. 일자리도 소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저를 PR도 해 주셨어요. 제가 참 복이 많죠." (배기섭, 60대)

구직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각도로 접근해서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신중년들이 구직처를 한정적인 경로를 통해 찾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상담자는 신중년이 구직처 탐색 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력 연계 일자리를 희망하거나 새 경력 일자리를 희망하는 경우 이동에 필요한 교육, 훈련, 자격 취득 등의 사항들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하고 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용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내하도록 한다. 신중년들 중에 실제로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게다가 교육이나 자격증 등의 경우 막연하게 많은 비용이 들 것을 예상하고 접근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담자들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국비 지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나 정책, 서비스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중에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요리 학원을 연결해 주더라고요. 배우던 중에 고용센터 컨설턴트분이 여기저기 이력서도 넣어 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면접을 봤고 취업이 됐죠." (박미선, 50대)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직업전문학교에서 국비 지원으로 배웠어요. 6개월간 매일 학교 다니고, 주말엔 도서관에서 지냈어요.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데다가 식비나 교통비도 지급이 돼요." (배기섭, 60대)

Guide 8

**재취업은 장기전,
조바심은 금물이다**

주요 가이드 Point

- 재취업 시 대부분 급하게 준비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하게 되므로,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를 지양해야 함을 안내한다.
- 목표가 분명하고, 가능성이 있다면 새로운 경력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훈련 기간 등을 감안)을 좀 더 허락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자.

준비 안 된 퇴직과 재취업 실패는 퇴직자의 심리 상태에 수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자존감 저하와 상실감, 절망감, 피해 의식, 불안과 초조감에 휩싸이다 보면 충분한 고려 없이 섣부르게 재취업을 결정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재취업 이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사례자는 대부분 재취업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한 경우였다. 그러므로 분명한 경력 목표를 세웠다면, 이를 위한 준비와 훈련 과정에 충분한 인내심을 갖고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인생 2모작에서 더 나아가 인생 3모작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 장기전의 첫걸음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취업 준비 시 중요한 것은 페달을 빨리 밟는 것이 아닌 오래 밟을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실제로 유형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재취업 사례자가 재취업과 관련하여 은퇴를 준비하는 신중년에게 조언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이와 관련된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조바심을 내지 말고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라도 그 일에 도전해 볼 것을 권유했다. 경우에 따라서 원하는 경력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비교적 단순 직종의 업무로 생계를 유지하며 훈련을 병행하는 것도 방법임을 조언해 주고 있었다. 특히 새 경력으로 진출을 도모하는 경우에 그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준비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장기전을 준비하려면 이것이 필요한 과정임을 먼저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들을 활용하여 안내하도록 하자.

"남아 있는 30년을 살아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정해야 해요. 짧게 보지 말고. 저는 사람 인생이 30년 학교 다니고, 30년 직장 다니고, 남은 30년 여생이라고 보거든요. 그 남은 30년을 잘 살 고민을 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구직 활동은 길면 5년에서 10년이고, 남은 30년이 더 길어요. 사실 5년, 10년 하는 사람도 없어요. 대개 들락날락하고 말아요. 그니까 남은 30년을 생각해서 조바심 가지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중요하죠." (정진호, 60대)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지금 좌절하고 실패하는 이 상황이 도약을 위한 기회일 수 있거든요. 재취업이 어렵다고 해서 인생 헛살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자전거를 타고 계속 나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빨리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굳이 속도 내지 않고 천천히 가도 돼요. 중요한 건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는 거거든요. 페달 놓는 순간 쓰러지잖아요. 주위에 사람이 있고, 많은 제도가 있으니 포기하지 않고 페달을 계속 밟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환갑이 넘더라도 내 일을 할 거 같아요. 지금도 계속 달리는 과정이죠." (신영식, 50대)

"조급해하지 말자. 돌아가더라도 제 길로 가면 된다. 계속 속으로 되뇌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처음 마음대로 계속 취업에 도전해 보기로 결심했죠. 욕심은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가진 경험까지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어디든 내가 가진 노하우를 응용할 수 있고 접목시킬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돌이켜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말하고 싶은 게 목표를 세웠다면 시간이 좀 걸리거나 돌아가더라도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길이 열릴 거라고 봐요." (유민식, 60대)

Guide 9

모든 곳에 길이 있다 1 :
네트워크를 활용하자

주요 가이드 Point

- 재취업에서 인적 네트워크는 신입과의 차별점이자 강점이 될 수 있다.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자.
- 매 순간, 어디에서든 인적 네트워크는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어디에서나 긍정적이고 충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안내하자.
- 다만 여기서 네트워크의 활용이 무례하거나 지나친 일자리 소개 요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은퇴자 대부분이 퇴직 후 현역에서 낙오, 혹은 뒤로 물러나게 되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를 패배자로 느끼는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며 대인 관계를 멀리하는 등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곤 했다. 그러나 신중년의 재취업에서 기회는 오히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되었다. 특히 신중년의 인적 네트워크는 실제 주된 일자리의 오랜 직업 경험과 관련되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경우 재취업이 용이하게 이뤄지기도 했다.

인적 네트워크는 직접적인 일자리 소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변에 자신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음을 알려 두고,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가진 직업 경험, 보유한 자격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사항들을 함께 알려 둘 것을 신중년에게 안내하도록 하자. 직업 경험으로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야말로 청장년 취업자들에 비해 신중년들이 가지는 구직 경쟁력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적 네트워크가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기회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생길 수도 있다'는 것과 관련된다. 즉 반드시 구직과 관련된 네트워크나 모임이 아닌 상황에서도 재취업의 기회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 사례자들 중에서는 다양한 모임과 대인 관계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발견하거나 관계 속에서 보여 준 성실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 덕분에 정보를 소개받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신중년은 다양한 인적 네트워킹의 장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이나 전문 분야, 재취업 의지 등을 두루 홍보해 두는 것도 중요하며 사회적 평판을 위한 철저한 자기 관리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을 안내한다. 특히 이때 자기 관리에는 업무 능력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모 및 건강관리, 이미지 메

이킹, 평판 관리 등 많은 부분이 포함된다는 점을 전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향 선배랑 모임에서 소주 한잔하는데, 저보다 아홉 살 많은 분이 산업기사를 딴 지 3년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기계 쪽 일을 하던 분인데 저보고도 한번 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정부에서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국가전략기간사업 훈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침 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게 됐죠." (배기섭, 60대)

"마침 회사를 그만두고 고민하던 시기에 우연히 첫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후배를 만났어요.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뭘 하냐고 물어 보니 현대모비스에 컨설팅을 하고 있대요. 그때 그 친구가 스마트공장추진단을 알려 준 거죠. 그런데 마침 그날이 딱 전문위원 공고 마감일이었어요." (신영식, 50대)

"재취업한 이후에도 전문성을 키우려고 부동산학 박사 과정을 수학하고 동시에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도 집중했습니다. 지인들뿐 아니라 대학원을 통해 알게 된 다양한 전문가 및 경영자들과의 인연에서도 많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좋은 프로젝트나 일자리도 꾸준히 소개받을 수 있었죠." (채정훈, 50대)

다만 여기서 인적 네트워크의 활용이 단순히 지인에게 일자리 소개를 부탁하며 부담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안내해야 한다.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라는 것은 일자리를 찾는 적극적인 방법 중 하나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구인처를 알아보는 홍보라는 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지, 자신이 지금까지 누적한 경험치 이상의 일자리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식의 일자리 소개 요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강요나 요청은 도리어 신중년 자신을 무례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TIP 신중년 재취업 스토리

일관된 경력 관리와 전문성, 그 길의 끝에서 빛을 찾다

신영식(남, 50대)*

1992년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 분야 전문가의 영역에 몸담은 후 약 15년 넘게 신영식(53) 씨의 삶은 오로지 '성공'만을 향해 전진하는 삶이었다. 탁월한 기량과 업무 노하우를 인정받아 몇 차례의 스카우트를 거치며 동종 업계로 이직을 거듭했고, 빠른 승진을 이어 가는 동안 그의 커리어는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로운 성장 곡선만을 그려 왔던 것이다. 그러나 40대 초반,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결정한 퇴직 이후 마주한 세상은 냉혹한 현실로 가득했다. 무려 10년의 세월 동안 많은 회사의 계약직을 전전하며 고용과 수입이 불안정한 시간을 보내야했지만, 그럼에도 그가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은 IT 분야에 대한 일관된 경력 관리와 전문성이었다. 보험설계사나 다단계의 유혹을 받기도 했고, 한때 귀촌을 결심하기도 했지만 끝내 IT 분야에 대한 애정과 자신감을 놓칠 수 없었던 그에게 '스마트공장추진단' 전문위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우연보다는 예정된 수순에 가까웠을지도 모른다.

오로지 성공과 일만을 향해 순항하는 삶

신영식 씨는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평생에 걸쳐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 분야에 몸담아 왔다. 1992년, L기업에 입사하여 제조 부문의 '공장 자동화'를 위한 IT SW 개발 업무를 맡게 된 그는 당시에 소프트웨어 분야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다. 1990년대 초·중반, 국내에는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가 한창 붐을 일으키던 시기이기도 했다. 어느 회사, 어느 조직에 몸담을 것인가보다는 오로지 '일'에 초점을 맞추어 이직을 결정했던 그였다. 첫 직장에서 5년 만에 원치 않는 부서 발령으로 직무가 바뀌게 되자, 과감하게 통신 회사로 옮겼던 것도 SW 개발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스카우트를 통해 몇 군데 IT 기업으로 이직하는 동안, 평판과 연봉도 줄곧 상승 곡선을 그렸다. IMF 외환 위기로 대량 해고가 이어지던 시기에도 해외 출장을 다니며 활발하게 일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성장시키던 그는 업무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시기에 대한 아쉬움도 남는다. "저도 모르게 이직을 참 쉽고 가볍게 여기게 된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후회가 되죠." 이후 2002년 S기업에 입사한 신영식 씨의 경력은 정보 통신 분야의 전문가로 확장되었다. 프로젝트 관리자로 일하며, 대형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하고,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력의 전성기를 맞이한 것이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그의 행보에 갑작스레 제동이 걸렸다. 오로지 일만 좇다 보니 직장 내 대인 관계를 놓친 것이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 늘 혼자 밥을 먹고 있었고, 주변에 믿고 따르는 후배 한 명 찾을 수 없었다. 굵직한 프로젝트를 맡았으나 모두에게 외면당했고, 협력 부서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게 되면서 결국 프로젝트도 실패했다. "처음 맛보는 실패였는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홧김에 그만둔다고 해 버린 거죠. 한 번만 굽히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기업을 박차고 나왔어요."

난파선이 된 삶, 난항을 이어 가다

임원의 만류에도 끝내 자존심을 굽히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퇴직한 신영식 씨가 마주한 사회는 그의 예상과는 너무도 달랐다. 언제나 새로운 회사의 러브 콜이나 헤드헌터의 제안을 받아 이직을 하던 과거와 달리 동급의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어느덧 들어 버린 나이가 변수였다. "아,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 뒤의 대기업이 잘났던 거구나. 그걸 퇴직을 하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죠. IT업계에서는 40대면 정년이더군요. 나이도 많고, 고액 연봉자이다 보니 부담스러워서 받아 주는 데가 없었어요." 프로젝트 관리자가 된 후로 개발 실무

에서 손을 뗀 지가 5년이 넘었는데, 다들 개발할 수 있는 실무자를 원했고, 애매한 위치에 놓인 그는 한참을 방황하며 암흑기로 보내야 했다. 그때부터 신영식 씨는 각종 IT 관련 중견·중소기업에 계약직으로 계속해서 거처를 옮겨야 했다. 헤드헌터를 이용해 보거나, 지인의 소개를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 몇 년 만에 퇴직의 쓴맛을 반복해야 했다. 때로는 고용 불안정이 힘겨워 작은 기업에 정규직으로 들어가기도 했지만, 경영 악화와 임금 체불로 체당금을 받느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주변에서 이런저런 유혹도 많아졌다. 대기업 출신의 인맥을 이용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자리도 종종 제안받고, 해외 취업이나 다단계 같은 한탕주의의 유혹도 있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IT 분야에 대한 경력을 포기할 수 없던 그였다. "사실 다 지치고 힘드니까 한때 귀농을 생각하기도 했는데, 귀농을 고려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마트 팜에 대해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천직이 엔지니어라, 도저히 다른 건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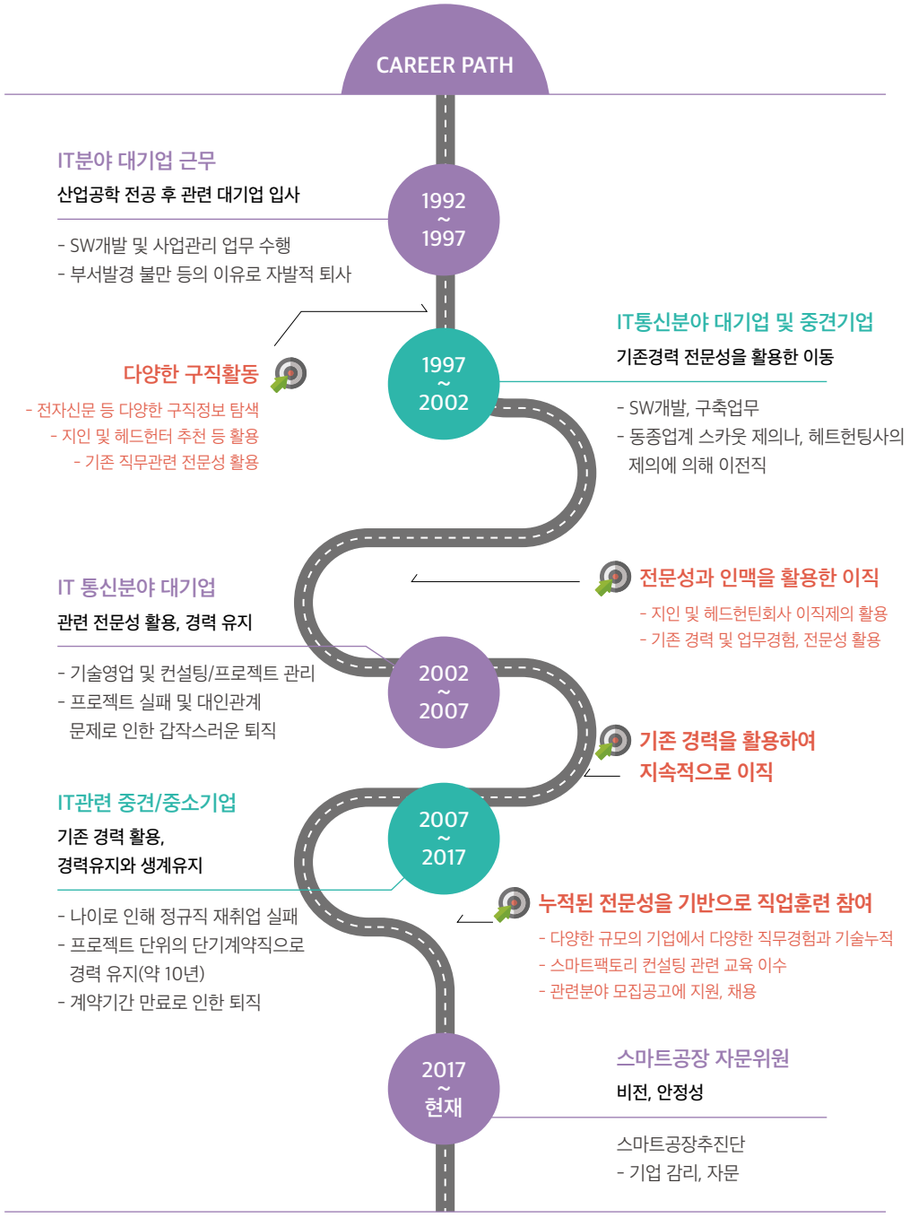
준비된 자에게는 우연도 기회가 된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천직이 IT 엔지니어이며, IT 컨설팅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신영식 씨는 계속해서 경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몇 군데 기업을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작은 일이라도 겸허히 받아들이며 경력을 이어 갔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공백이 생길 때조차도 집에서 가만히 쉬는 법이 없었다. 옛 동료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무실 빈자리를 잠시 빌려서라도 다음 일을 준비했다. 한순간도 도태되고 싶지 않았고, 늘 준비된 사람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 그에게 기회는 우연처럼 찾아왔다. "우연히 역삼동에서 첫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후배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뭘 하냐고 물어 보니 컨설팅을 하고 있대요. 그때 그 친구가 스마트 공장추진단을 알려 준 거죠. 마침 그날이 딱 전문위원 공고 마감일

이었어요. '아, 이건 신의 뜻이다.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지원했죠."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형태의 스마트 공장 도입을 지원하는 '민관 협동 스마트공장추진단'의 전문위원을 뽑는 자리였다. 자격 요건이 까다로웠음에도, IT 분야의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지원자들이 100명 넘게 지원했고, 신영식 씨는 1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다.

일관된 경력 경로와 전문성이 주효했다. 자신의 풍부한 경력과 경험을 활용하여 기업의 스마트 공장 도입을 돕는다는 데서 일에 대한 보람은 물론 수입과 고용의 안정까지 얻었다. 최근 그는 더욱 전문성 있는 감리와 컨설팅 업무를 위해 자격증 취득도 준비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고용 불안과 재취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영식 씨를 일으켜 세운 것은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에 대한 확신이었으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 나가면 희망이 있다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보기 좋게 증명해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그는 계속 나태해지지 않고 경력 개발을 위한 페달을 밟겠다고 힘주어 말한다. 다가올 10년, 20년을 계속 준비하고 싶기 때문이다. "재취업이 어렵다고 해서 인생 헛살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자전거를 타고 계속 나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너무 속도를 낼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는 거거든요. 페달을 놓는 순간 쓰러지잖아요. 저는 환갑이 넘더라도 내 일을 할 거 같아요. 지금도 계속 달리는 과정이죠."

※ 신중년 재취업 성공 스토리에 소개된 사례자 이름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처리



Guide 10

모든 곳에 길이 있다 2 :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라

주요 가이드 Point

- 주변에는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좋은 정보와 서비스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자.
- 사례자는 자신의 경력 경로 경험만을 가지고 있지만 경력 설계 지원을 하는 상담자나 컨설턴트는 다양한 사례 경험을 통해 효율적인 경로 설계 방법과 지원처를 알고 있으므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 신중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공고용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안내하자.

신중년들이 주된 일자리를 선택하고 진출하여 적응하던 시기에 성인의 진로 및 경력 개발 지원을 위한 고용 지원 서비스와 상담·컨설팅 등은 지금처럼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들 신중년에게 이와 같은 고용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나 관련된 상담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리 편하지 않으며,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거나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많은 경우 신중년들은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 희망으로 노후 준비에 대한 준비 없이 앞만 보고 달려 온 세대이기도 해 자신의 일을 찾는 데 누군가의 도움, 특히 공공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을 낯설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퇴직 과정에서 느낀 설움과 패배감으로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꺼리기도 하며 공공고용 서비스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나 무지로 해당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고용센터의 경우 실업급여나 받는 곳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마음의 장벽을 세워 두고 있기도 했다. 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바라보면, 고용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 기관에서 신중년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과 자신감을 회복하여 재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훈련 등 공공고용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성공적인 재취업 경로에 진입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재취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경우나 새로운 경력이 모색된 경우에 이 과정에서 함께 길을 모색해 준 전문가와 서비스에 만족을 표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고 신중년 사례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퇴직 후에 실업급여를 탔어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고용센터 쪽에서 요리 학원을 연결해 주더라고요. 거기서 밑반찬이랑 한식을 4개월 정도 배웠어요. 배우던 중에 고용센터 컨설턴트분이 여기저기 이력서도 넣어 주고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잘 챙겨 주셨고, 어디에서 강의가 있다고 문자 보내 주시고, 재취업을 위한 모임도 마련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박미선, 50대)

"직업학교에 다니면서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끝날 무렵에 교수가 노사발전재단 팸플릿을 가지고 왔어요. 혹시 활용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하라고. 그래서 바로 다음 날 방문해서 김○○ 컨설턴트를 만난 거예요. 그분을 만난 게 참 행복이고 행운이었죠. 전문가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력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주시는데 참 족집게처럼 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기에 지원을 했어요. 일자리도 소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저를 PR도 해 주셨어요. 제가 참 복이 많죠." (배기섭, 60대)

"퇴사하고 나서 실업급여 때문에 고용센터 갔다가 상공회의소 남○○ 컨설턴트를 만난 거죠. 어떻게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제가 면허증은 없는데 예전 회사에서 지게차 운전을 제일 잘했거든요. 지게차 정비도 어깨너머로 배우고. 그걸로 취업하려면 먼저 자격증을 따야 한다고 컨설턴트가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구승효, 50대)

상담자는 다양한 사례자를 만나지만, 사례자에게는 자신의 사례 정보만 있다. 즉 상담자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경력 경로 설계와 지원 방법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경력 설계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전문가와 상담 및 컨설팅 과정을 통해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자.

TIP 신중년 재취업 스토리

고객 응대에 대한 경험과 자신감, 직업교육을 통해 꽃피다

김진규(남, 50대)*

특유의 활발하고 친화적인 성격으로 ◯◯자동차 영업직으로 커리어를 시작한 김진규(53) 씨. 자동차 영업부터 편의점 및 의류 사업과 중소기업 영업부장을 거쳐, 현재 호텔 매니저로 오기까지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온 가장 값진 경력과 역량은 '영업 능력과 고객 응대 노하우'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수차례 취업과 창업을 오가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그는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조차 건설 현장이나 택배 물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한시도 쉬어 본 적 없이 25년 넘는 세월을 부단히 달려 왔다. 그리고 그 성실한 삶의 여정에서 새롭게 만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호텔 매니저라는 새 경력에도 과감히 도전할 수 있었다. 평생에 걸쳐 그가 가장 잘해왔고, 잘할 수 있는 역량 강점을 응집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호텔 매니저 일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하는 김진규 씨. 교육을 통해 새 경력을 꽃피운 그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영업에 대한 자신감, 거듭된 도전과 실패

대학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한 김진규 씨. 그러나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영업직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전공을 살리기보다는 자동차 판매 영업에 도전하기 위해 ◯◯자동차에 입사했다. 1990년대 초반 '마이카시대'가 본격화되며, 자동차 소비가 급증하던 시기였다. 영업직은 그에게 맞춤복처럼 잘 맞는 일이었고, 우수 판매 사원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며 영업력을 인정받았고, 고객 창출의 즐거움에 빠져서 지내기도 했던 그는 7년 만에 자영업에 대한 도전 의식으로 사직서를 냈다.

다년간의 영업과 고객 응대 경험으로,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던 것이다. 첫 시작은 편의점 창업이었다. 당시에는 전주 시내에 편의점이 몇 군데 없던 때였다. 활기차고 적극적인 운영 덕분에 매출도 상당했다. 그의 매장이 '안테나숍'이 되면서 예비 창업자들이 배우겠다고 몰려오기도 했다. 그러나 본사와의 민감한 계약 문제와 갈등 때문에 결국 3년 만

에 그만두게 됐다. 그래도 그는 '실패'보다는 얻은 것을 귀중히 여겼다. "많은 걸 배웠죠. 편의점은 워낙 내방객 수가 많거든요. 하루에 적어도 300명 넘게 응대하면서 수많은 유형의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을 익혔어요." 편의점 폐점 후 의류 사업에 도전한 그는 8년간 정찰제 의류 매장을 운영했다. 초반에는 매출이 적지 않았으나, 점차 상권이 변하고 신생 브랜드가 쏟아져 나오며 사업은 점점 더 기울었다. 아동복을 거쳐 스포츠 브랜드 의류 사업으로 전환해 봤지만 어려움을 타개하지 못하고 결국 사업을 정리해야 했다.

갑작스러운 퇴직, 절망을 딛고 일어서다

사업의 연이은 실패에도 그는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장 일을 선택했다. 건설 현장과 도배 시공 현장 일용직으로 1년 넘게 바쁜 나날을 보냈다. 워낙 성실하고 손재주가 좋아 현장에서 인정을 받기도 했지만 갈수록 나이와 체력 문제로 힘겨워하는 그를 염려한 한 지인이 어느 날 중소 제조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입사할 것을 제안했다. 그렇게 영업부장으로 입사하게 되었지만, 인사나 관리 업무는 물론 바쁠 때는 제조 현장에 투입되어 포장 일을 돕기도 했다. 자기 사업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임했던 그는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1인 다역을 자처했던 것이다. "비록 오랜 기간 사업을 했지만, 다시 회사라는 조직에 몸담고 있으니 이게 가장 체질에 맞더군요. 조직에서 제가 가장 나이가 많았지만, 젊은 사람들 속에서 활기차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소중했거든요." 회사에 대

한 애정도 굉장했던 그는 회사와 같이 성장하고, 명예로운 1호 정년퇴직자가 되는 게 소망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상일이 늘 뜻처럼 흘러가지는 않는다.

회사 생활 6년 만에 찾아온 위기였다. 회사는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는 젊은 세대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데 동감하여 퇴직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서운하고 슬픈 마음도 있었지만, 훌훌 털고 서둘러 다음을 준비해야 했다. 퇴직까지 약 한 달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고,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다. 가족들에게 퇴직 사실을 밝힐 수도 없었던 그는 한동안 가슴앓이를 하느라 잠도 잘 이루지 못했고, 밤낮으로 정신없이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뭐가 됐든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고 마음먹으니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경로를 모색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일을 했어요. 낮에는 도배 현장에 나가고, 밤에는 상하차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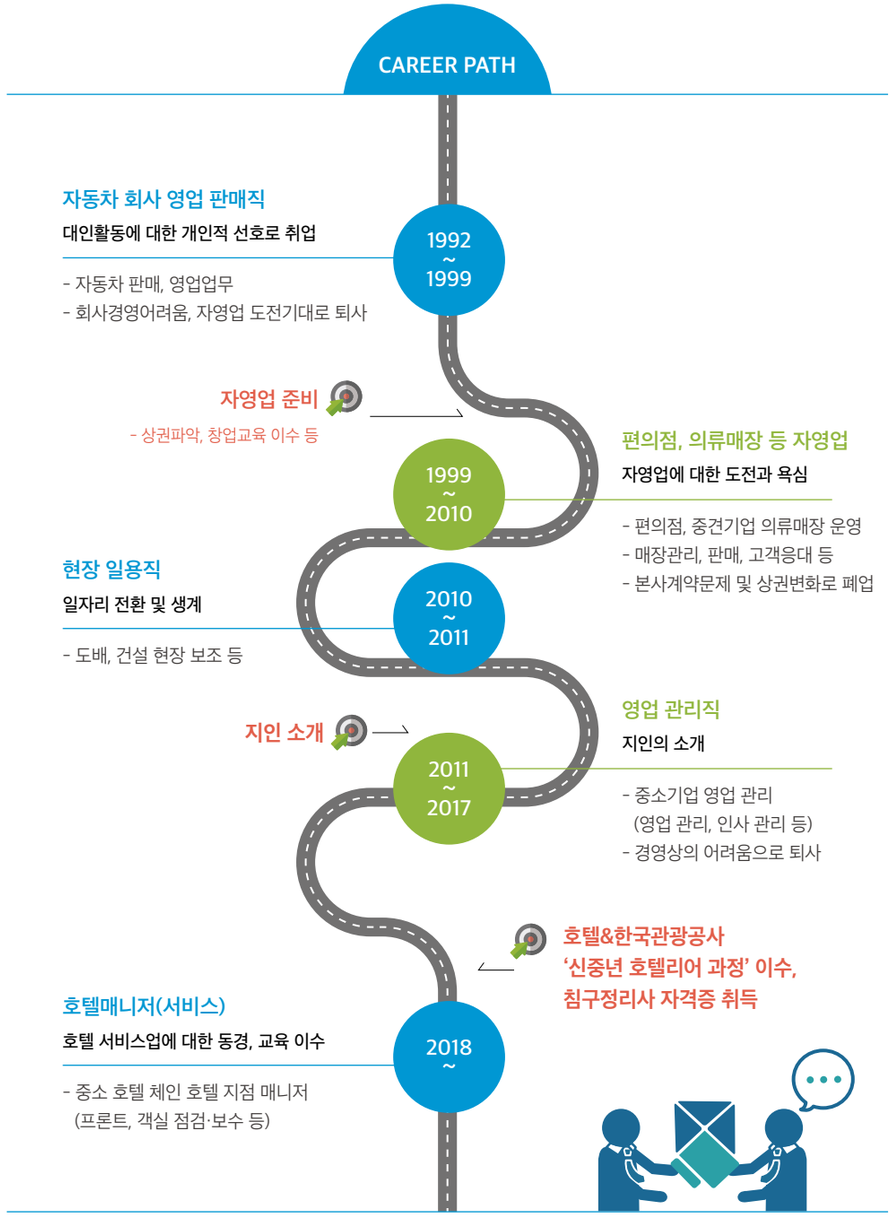
새로운 목표, 교육으로 희망을 찾다

김진규 씨는 자신의 경로를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 고민했다. 가죽 공예를 통한 자영업, 도배 현장직, 영업이나 서비스 직종으로 재취업하는 것이었다. 고민 끝에 재취업만이 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비록 보수가 적더라도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고 싶었던 것이다.

재취업을 위해 자신이 가장 잘하는 역량의 접점을 찾아보니 '고객 응대'였고, 오래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던 프론트 업무과 관련된 서비스 직종의 일을 찾아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인들을 통해 '프론트 일을 해 보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던 중, 한 친구가 반가운 소식을 알려 주었다. 한국관광공사랑 야놀자에서 '신중년 호텔리어 양성 과정'을 모집한다는 것이었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김진규 씨는 망설임 없이 바로 지원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굉장히 당황했어요. 워낙 스펙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고, 경쟁률도 높았거든요. 호텔 프론트 출신이나 유학파도 계셨는데, 운 좋게도 제가 통과를 했어요. 다시는 없을 귀중한 기회라는 생각에 진짜 열심히 했어요." 신중년 호텔리어 양성 과정 1기에 선정된 김진규 씨는 낮에는 교육을 듣고, 밤에는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막연하게 동경만 하던 호텔 업무를 자세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것에 피곤함도 잊었다. 1기 중 1등의 성적으로 수료한 김진규 씨에게는 야놀자 직영점 호텔에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면접관은 풍부한 연륜과 유대감을 갖고 리드할 수 있는 매니저를 원한다고 했다. 자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한 김진규 씨는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오랜 기간 영업과 고객 응대의 경험을 통해 고객을 폭넓게 이해하고 조직에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했죠. 또 개인적으로 10년 전부터 자원봉사회 모임을 통해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을 돕는 활동을 하면서 터득한 어학 능력도 소중한 자산이 되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번에 호텔 매니저로 채용된 김진규 씨는 요즘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호텔 리뷰에 그의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올라올 때마다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 프론트 업무 외에도 객실 점검과 시설 보수 등의 고된 일도 적극적으로 도우며 젊은 직원들과 조화롭게 일하고 있다. "저는 지금도 머리가 하얗지만, 더 하얘질 때까지도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어요. 호텔리어는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경험도 중요하죠. 그러니 나이가 더 지긋해지면 지금 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계속 한 단계씩 나아가겠다는 생각으로, 지금이 밑거름이 된다 생각하며 일하고 싶습니다."

※ 신중년 재취업 성공 스토리에 소개된 사례자 이름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처리



TIP!

신중년 재취업 준비 전략

새롭거나 어려운 길을 갈 때, 먼저 그 길에 나서 본 사람들의 경험은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 준다. 오랜 일 경험이 있는 신중년들이지만, 이들에게 재취업은 또 다른 새로운 길이기에 본 가이드에서는 재취업 사례자들의 주요 성공 포인트와 경로 준비 요소를 제시하여 재취업 경로 모색의 길잡이를 제시해 주고자 한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은 신중년의 삶이기에 제안한 경력 경로가 재취업 성공 보장의 충분조건은 아니겠으나 경력 이동을 위한 필요조건은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하 정보는 신중년에게 직접 제시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하도록 한다.)

1) 신중년 재취업자 사례자들의 주요 성공 포인트

■ **경력 연계형 재취업**

- '기존 주된 일자리에서 획득한 경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
- 기술직의 경우 주된 일자리에서 획득한 자격·기술이 재취업 시 영향력이 매우 큰 편
- 다만 경력 연계 일자리로 이동 전 다른 기관에 재취업 경험이 있거나 실직 및 구직 활동 기간이 길었던 경우에는 일자리 검색, 구직 기술 습득 요소를 높이 평가

■ **경력 무관형 재취업**

- 다양한 이동 지원 요소에 대한 평가가 낮고 부정적
- 구직 활동, 서비스 이용도가 낮은 편은 아니나 실효성에 회의적

■ **새 경력 재취업 유형**

- 구직을 위해 가장 다양한 방법을 활용
- 새 경력 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고용 서비스 활용도가 가장 높음
- 새 경력으로의 이동을 위해서 서비스 기관의 컨설턴트나 상담자들과 유대를 잘 맺고, 이들과 초기 상담부터 교육·훈련 연계, 구직 기술 클리닉, 취업처 발굴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활용
- 활용한 대부분의 취업 준비 사항들이 유기적으로 연계

| 개별 사례별 재취업 성공포인트 |

재취업 유형	사례자	재취업성공 포인트					
		개인특성 및 경력이용	교육, 훈련/자격증	상담/컨설팅/서비스	인적 네트워크	일자리 검색	구직기술 습득
유관	박한섭	👍	👍 주된일자리 획득자격	✔ 고용센터	👍		
	신영식	👍			👍	✔	✔
	위기찬	👍	👍 주된일자리 획득자격			👍	
	정진호	👍			👍	✔	✔
	김정한	👍	👍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앙코르펠로우	👍		
	유민식	👍	👍	👍			👍
	채정훈	👍	👍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	✔
무 관	고재식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고용센터 모두 도움 안됨		✔	👍
	한규석			생애경력설계서비스, 고용센터 도움안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도움됨	👍	워크넷 도움안됨	
새경력	박미선		👍 교육수료	👍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	👍 워크넷	✔
	배기섭		👍 자격획득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워크넷	👍
	김진규	👍 영업판매관련 마인드	👍 교육이수, 자격획득	👍 한국관광공사 운영 교육과정	👍	👍	👍
	구승효	👍 높은 기계적성과 관심	👍 자격획득	👍 고용센터		✔	👍

표 보는 방법

배경색 처리 :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

✔ : 사례자 스스로가 재취업 기여도를 '보통'으로 평가한 요소

👍 : 사례자 스스로 재취업 기여도를 '기여' 혹은 '많은 기여'라고 평가한 요소

2) 신중년 재취업 경로 준비 시 체크 포인트

재취업 경로 진입을 위해 필요한 준비 요소들입니다. 아래의 확인 사항을 살펴보고 자신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준비는 주된 일자리에 있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체크	확인 사항	세부 내용
	은퇴 시점은 미리 확인한다.	갑작스러운 기업 도산 등이 아니라면, 짐작이 가능한 은퇴 시기를 미리 확인
	은퇴 준비는 가능한 한 빨리 현역에서 시작하자.	퇴직 준비는 현역에서 시작한다. 최소한 퇴직하기 1~2년 전부터 준비 시작
	은퇴 준비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	개별 기업 단위로 운영하거나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는 퇴직 준비 프로그램에 참가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세대별(40, 50, 60대) 생애 경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경력을 정리하고 점검한다.	재취업 시 주된 일자리 관련 경력과 개인의 특성이 가장 재취업 성공과 연관된 요소이므로 관련 점검 필수
	은퇴 후 재취업 일자리의 의미와 기대를 분명히 한다.	일을 통해 충족하려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예) 보수가 적은 일이지만 경력 활용이 우선이면 적응이나 만족도가 높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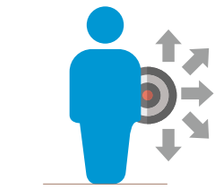
(2) 재취업도 취업, 가능한 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체크	확인 사항	세부 내용
	경력 이동 준비는 은퇴 전부터 시작하되, 은퇴 이후에도 지속한다.	은퇴 전 준비 사항 지속적으로 점검
	분명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지만 궤도는 수정할 수 있다.	장기전이므로 궤도는 수정, 변화 가능 - 새 경력이나 경력 연계로 직접 이동이 어렵고 준비 시간이 필요하면 경력 무관 일자리 병행도 고려 - 다만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경력 무관 일자리 이동으로 심리적 어려움 예상 시, 이동 준비만 하는 것도 좋음
	은퇴 후 재취업 일자리의 의미와 기대를 분명히 한다.	일을 통해 충족하려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예) 보수가 적은 일이지만 경력 활용이 우선이면 적응이나 만족도가 높을 수 있음
	구직 활동은 다각도로 진행한다.	다음의 구직 활동을 동시에 준비할 것
	- 직업 경험과 자격증, 노하우 등을 점검하고 강점을 파악한다.	
	-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 노동시장 정보와 구직처 탐색은 끊임없이 지속한다.	
	- 희망 분야 구직 서류, 면접을 미리 준비한다.	
	- 새 경력 기대 시, 진입을 위한 교육·훈련, 자격 취득을 위해 노력한다.	
	- 재취업을 돕는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 상담·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고용 서비스 기관과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자.	

(3) 재취업 진입은 또 다른 시작, 준비는 지속되어야 한다.

체크	확인 사항	세부 내용
	재취업 일자리에서의 적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재취업 기관에서는 신입이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직장 문화 적응과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일자리 경력 계획을 장기적으로 예상하고 일자리 유형 변화를 대비하자.	은퇴 후 시간에 비해 개별 재취업 기업에서의 재직 기간은 짧아 이후 일자리 이동은 지속되며, 일자리 유형은 변화할 수 있음을 미리 알고 대비할 것

신중년 재취업 경로준비와 점검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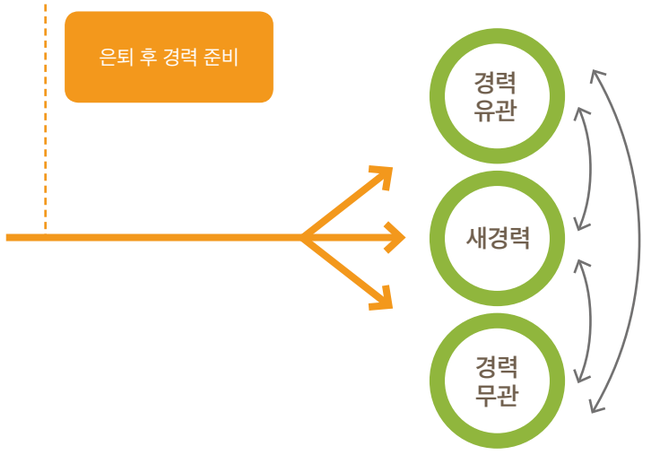


주된 일자리
- 은퇴 전 경력 준비 -

- 은퇴시점 미리 확인
- 예상 은퇴 시기 최소 1~2년 전 은퇴 준비 시작
  - 생애경력개발프로그램 참가 및 은퇴이후 경력 전무가 컨설팅 등
- **주된일자리 경력검토, 활용 경력점검**
  - 주요 경험 직무, 장단점, 자격증 등
- **은퇴 후 일의 의미 점검**
  - **우선순위 확인**(생계, 현역지속, 자아실현 등)
- **은퇴 후 희망경로 예상**(경력유관, 새경력, 경력무관)

- 은퇴 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준비
- **분명한 목표 설정, 필요 시 궤도 수정**
  - 경력유관 → 경력 무관
  - 새경력 준비와 경력무관 병행 등
- **구직활동 지속(유형 공통)**
  - 구직서류작성, 구직정보검색
  - **인적네트워크 활용 지속**
  - **경력활용 방법 모색 지속**
  - **경력관련 역량제고 및 새경력진입을 위한 교육, 훈련 참가**

은퇴 후 경력 준비



재취업 진입

- 진입한 일자리에서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
- 신입의 마인드,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최선
- **재취업의 일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예상**
- **일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 **경력무관일자리로 진입한 경우.**
    이후 경력유관이나 새경력으로 이동을 원한다면 추가적인 교육, 훈련, 컨설팅 지속
  - **경력유관이나 새경력으로 진입한 경우.**
    경우에 따라 재취업일자리의 정년이나, 체력약화 등으로 인해 새경력이나 경력무관으로 이동할 수도 있음을 이해

<참고 문헌 및 자료>

통계청(2017.7.25.), 2017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 보도 자료
통계청(2017.5.),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
통계청(2017), 경제활동 인구조사
관계 부처 합동(2017.12.20.), 55+ 현역 시대를 위한 장년 고용정책(안)-「제3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 계획(안)」
김은석 외(2015),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 경로 및 경력 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종단 연구(2차년도), 한국고용정보원
김은석 외(2016),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 경로 및 경력 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종단 연구(3차년도), 한국고용정보원
김은석 외(2017),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 경로 및 경력 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종단 연구(4차년도) 한국고용정보원
안준기, 최기성(2016), 중장년층의 경력 특성과 지원 정책 방안, 한국고용정보원
이우영 외(2013), 중장년 생애 재설계 및 경력 재개 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손유미, 이성(2012), 베이비붐 세대 제2의 인생 설계 구축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 5장

창업으로, 새로운 활로를 열다

1. 신중년 창업의 현황과 문제점
2. 신중년 창업의 올바른 방향
3. 창업의 실제: 창업 유형 및 준비 과정
4. 신중년 창업 지원을 위한 가이드
5. 주요 창업 지원 기관

Tip
신중년 창업 스토리

신중년이 퇴직 후 경력 경로를 선택할 때 재취업 다음으로 많이 고려하는 것이 창업이다. 창업은 창업자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본을 이용해 사업 아이디어에서 설정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 또는 시스템을 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김중진, 최영순, 2016). 국내에서는 자영업 창업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16년 기준 25.5%로 4명 중 1명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 평균인 15.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OECD, 2017).

최근에는 퇴직 후 재취업의 어려움과 기대 수명 증가에 따른 노후 소득 마련 등을 위하여 창업에 뛰어드는 신중년이 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 창업의 경우 전문성, 자본 등에서 진입 장벽이 다소 낮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신규 창업 기업 중 1년도 버티지 못하는 곳이 37.3%(2014년 신생 기업 기준), 5년을 넘기지 못하는 곳은 72.5%(2010년 신생 기업 기준)에 달한다(통계청, 2017.12.14.). 더욱이 신중년은 퇴직금 등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창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실패 시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창업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신중년 예비 창업자 대부분이 국내 창업 시장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주관적이고 단편적인 정보에 의지하여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는 경우가 많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의 창업 기업 실태 조사(2017년)에 따르면 창업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창업을 시작한 비율이 82.4%에 이르며 창업 준비 기간도 평균 10개월에 불과하다. 사전 조사와 준비 기간이 미흡한 창업은 실패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다. 따라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창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신중년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컨설턴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일선 고용 서비스 현장에서 신중년 창업에 대한 안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컨설턴트들이 신중년 창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국내 창업 현황을 비롯해 신중년 창업의 올바른 방향, 다양한 창업 유형 및 체계적 준비 과정, 예비 창업자를 위한 코칭 가이드, 주요 지원 기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신중년 창업의 현황과 문제점

1) 국내 창업 시장과 신중년 창업의 현실

무한 경쟁의 치열함으로 가득한 창업 시장

국내 창업 시장은 지난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부터 쏟아져 나온 퇴직자들과 고용 절벽에 부딪힌 청년 실업의 대안으로 이어진 청년 창업 열풍, 그리고 기존 사업자들의 실패와 재창업 등으로 정도를 가늠할 수 없는 경쟁 구도의 연속이다. 여기에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소비 위축과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등 원가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국내 자영업 시장은 성공보다는 실패의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자영업 현황 분석 자료(2016.12.22.)에 따르면 자영업 다섯 곳 중 한 곳은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특히 신중년을 중심으로 한 퇴직자 창업의 경우 다른 창업자 계층보다도 더욱 실패의 확률이 증가하는 어려움이 있다.

신중년은 창업 취약 계층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 2014년 방영해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미생>에 나온 대사이다. 퇴직 후 경험하는 창업 시장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한마디로 보여 주는 대표적인 구절이다. 퇴직자로 대표되는 신중년 계층이 창업 시장에서 다른 계층보다 취약한 이유는 주로 내부적 요인이 크다. 창업 마인드, 연령, 자본, 경험과 노하우, 생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직장 생활 경험과 창업을 연계해서 쉽게 생각하는 시쳇말로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 등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외부적 요인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창업 시장 전반의 어려움과 함께 가족 부양의 의무 및 부채 상환의 부담 등이다.

생계형 창업증가

통계로 살펴보는 창업 현황

▶ 자영업자 현황

(단위 :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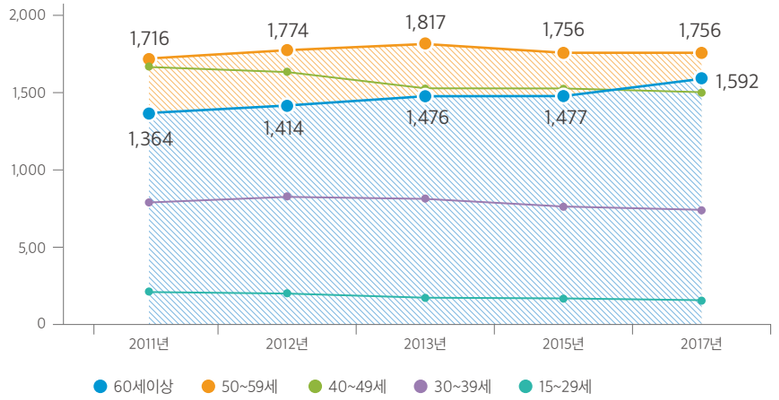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5	2017
자영업자 수	5,743	5,846	5,797	5,678	5,733
나 홀로 사장 업체 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232 (73.7)	4,286 (73.3)	4,271 (73.7)	4,055 (71.4)	4,153 (72.4)

[표주] 자영업자에 무급 가족 종사원은 제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비임금 근로 부가 조사(kosis.kr)

신중년 창업 증가

▶ 연령별 자영업 현황

(단위 :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비임금 근로 부가 조사(kosis.kr)

열악한 소득

▶ 자영업자 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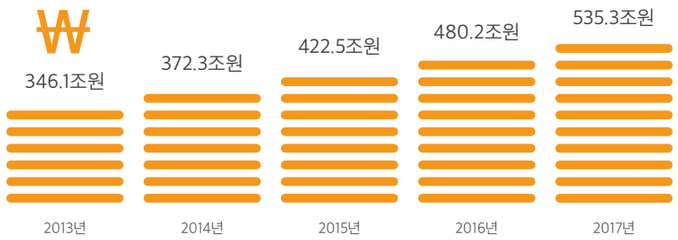
(단위 : %)

1200만 원 미만	~ 4,600 만 원	~ 8,800 만 원	~1억 5,000만 원	~3억 원	~5억 원	~10억 원	10억 원 이상
21.2	30.6	14.6	10.8	9.9	5.2	4.6	3.1

[표주] 2015년 등록 사업자 기준 연매출
[자료] 통계청(2016.12.22.), 자영업 현황 분석 보도 자료

대출 증가

▶ 자영업 대출 잔액 현황



[표주] 개인 사업자로 받은 대출뿐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받은 가계 대출도 포함
[자료] 한국은행
[출처] 연합뉴스(2018.3.31.), 자영업자 1% 늘었는데 대출은 11% 증가…금리 상승기 '취약 고리'

폐업 속출

▶ 개인 사업자 신규 및 폐업 현황(2016년 기준)

[자료] 국세청(2017), 2017년 국세통계연보

▶ 신생 기업 생존률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1년 생존율(%)	60.0	59.8	60.1	62.4	62.7
5년 생존율(%)	-	30.9	29.0	27.3	27.5

[표주] 신생 기업에는 개인, 법인 모두 포함이며, 생존율은 1~5년 전 신생 기업 중 '기준 연도'까지 생존해 있는 기업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2017.12.14.), 2016년 기준 기업 생멸 행정 통계 결과 보도 자료

2) 신중년 창업의 주요 실패 유형과 원인

신중년 창업의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그 실패유형과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과도한 자신감으로 무턱대고 뛰어들거나, 자신의 경험을 지나치게 믿거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안정성만을 추구하는 경우이다.

근자감 충만형

본인의 아이디어, 일부 지인의 추천 등을 바탕으로 사업에 대해 막연한 자신감이 가득 찬 상태에서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이다. 특히 공무원, 대기업 출신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했던 신중년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하며, 그 결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현실적이고 무리하게 사업에 뛰어들어 결국 실패에 이르는 경우이다.

경력 맹신형

과거 자신이 맡았던 업무나 직간접적인 경험 등을 바탕으로 그와 연관성이 있는 사업 분야 또는 아이템에 대해 맹목적인 자신감을 갖는 경우이다. 특히 회사에서 한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신중년의 경우 본인이 수행했던 방식과 결과를 객관화함으로써 사업화 준비 과정에서 그대로 인용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때의 가장 큰 실수는 동일한 일을 해도 조직의 배경과 체계적 시스템, 동료 협력 등을 바탕으로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과, 창업을 통해 사업자로서 아무런 배경이나 시스템이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해야 하는 것의 차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안전제일주의형

신중년 퇴직자의 상당수가 이에 해당한다. 창업의 위험성만 최소화하면 별문제가 없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경우다. 오랜 기간 직장 생활만 했고, 사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나 고민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실패에 대한 위험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다 보니 수익성 없는 사업으로 흘러가는 경우 등이 있다.

3) 사업 실패 후유증과 삶의 황폐화

신중년은 대부분이 인생 전체로 볼 때 소비가 정점에 이르는 연령대다. 특히 자녀의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이며, 부모를 직간접적으로 모시는 경우 의료비 등이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어느 시기보다도 일정한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직장을 다니던 대부분의 신중년은 이 시기에 퇴직하게 되고 이에 따라 안정적이었던 소득이 급감하는 현실에 직면함으로써 재취업이나 창업을 고려하게 된다. 이때 일정 수준의 소득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재취업보다는 창업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신중년의 창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그런데 사업은 직장 생활과 달리 정해진 룰이나 상대가 아닌, 무한 경쟁 시장에 놓이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보다는 실패의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그 실패의 결과는 상상 이상의 가혹한 현실이 되어 사업자에게 돌아온다. 신중년의 사업 실패 후유증이 상대적으로 다른 계층보다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연령, 건강, 자금, 사업 역량 감소 등 현실적인 한계가 주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은퇴 후 노후 자금 준비 및 생활비 충당 상황 (단위 : %)

구 분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노후 준비 상황>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 <생활비 충당 정도>				
	아주 잘 되어 있다	잘 되어 있다	보통이다	잘 되어 있지 않다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충분히 여유 있다	여유 있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2017년	1.5	7.8	34.7	**38.2**	**17.8**	2.7	5.3	29.7	**39.9**	**22.4**

[자료]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2017.12.21.), 2017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 결과 보도 자료

2. 신중년 창업의 올바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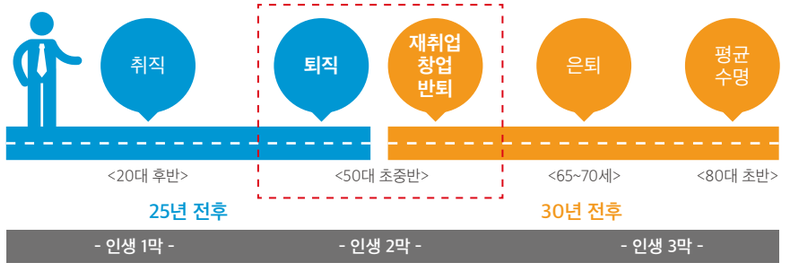
창업을 시작하는 데 완벽하게 준비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창업의 첫 갈림길에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한다면 실패를 최소화하고 좀 더 성공에 가까운 길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순간의 트렌드를 좇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아이템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 즉 신중년 창업의 핵심은 안정성과 지속성에 있다. 창업에서는 자기 자신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앞으로의 여생은 어떻게 준비할지,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건 무엇인지, 나에게 맞는 일은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해 보고 창업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1) 신중년 창업의 핵심은 안정성과 지속성

구체적인 계획 수립

의학이 발전하고 생활환경이 좋아지면서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자주 쓰이고 있다. 그럼 신중년의 기준에서 100세 시대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가장 기본적으로 여생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 유지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은 모든 신중년이 바라는 것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실정이다. 게다가 사회적으로도 노후 대책이라고 하면 대부분 보험, 연금 등 재무 전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여생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다르지 않다.

신중년 창업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한 가지 질문을 해 보자. 5060세대인 신중년 중 각종 보험과 연금을 충분하게 가입해 풍족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아마 대부분의 신중년은 현시점에서 보유 자산이 많지 않아 그러한 재무 전략은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노후를 위한 투자보다 당장의 생활 유지에 대한 고민이 더 큰 것이 현실이다.

지금의 신중년들은 인생 2막(퇴직~은퇴)을 넘어 인생 3막(은퇴~여생)까지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후는 고사하고 보유 자산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가족 부양의 의무까지 떠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자산의 활용 전략이 아닌, 남은 기간 동안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익 활동, 즉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 수립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수익성보다 안정성과 지속성에 집중

신중년 창업은 인생 2막의 안정적 마무리와 인생 3막 준비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트렌드에 민감한 반짝 아이템과 같이 짧은 기간에 뜨고 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년에서 15년 정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장수 아이템을 발굴하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단기 이슈형 아이템은 한순간에 확산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는 일반적인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고수익을 내는 대박 아이템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너도나도 묻지 마 식으로 창업에 뛰어드는 오류를 유도한다. 따라서 창업을 희망한다면 수익성보다는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장수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한의 수익 목표에서 시작

창업하는 시점에서는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창업 목표로 삼는 것이 좋다. 사업을 시작할 때 대부분 구체적인 수익 목표 없이 막연한 '대박'을 꿈꾼다. 여기서부터 잘못됐다. 현실에서는 이와 반대로 많은 사업자가 실패를 경험하며 쪽박을 차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특히 평생을 직장 생활만 하던 신중년 퇴직자의 경우 사업 준비가 부족하고 관련 분야의 노하우나 전문성도 전무한 상태이기에 실패 확률은 일반 창업 희망자들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게 사실이다. 또한 지금의 창업 시장은 경쟁 과열이 심화되는 추세라 성공보다는 실패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과도한 욕심이나 막연한 낙관론이 아닌 안정적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수입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해당 수익 목표를 세워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최소한의 수익 목표 달성을 위한 열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아이템 선정과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지혜에 있다.

기존의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

신중년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프리랜서, 사업 운영 등의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창업에 활용할 수 있다면 사업 실패의 위험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단,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과거의 조직 또는 제한된 환경과 여건 내에서 하던 업무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다. 무한 경쟁 시장에 뛰어들어 성과(수익)를 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그 강도와 전문성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창업을 하려는 아이템이 오랫동안 해 왔던 익숙한 업무였다면 그런 착각의 함정에 빠져들기가 더욱 쉽다.

창업 실패 사례

자동차 회사 마케팅 분야에서 20년간 근무했던 A 부장은 주로 국내 판매 분야를 담당하면서 다양한 판촉 아이디어와 프로모션을 운영하며 비교적 좋은 성과를 이뤄 냈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 후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크게 열었으나, 결국 3년도 못 버티고 막대한 손해를 감수한 채 타인에게 대리점을 넘겨주게 됐다. 직장 생활 중 우수한 마케팅 능력을 인정받은 A 부장이었는데 왜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여건의 차이'와 '전문성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 부장이 국내 마케팅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대기업의 정밀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잘 조직된 각 담당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일궈 낸 공동의 결실이었던 것이다. 반면 대리점은 아무런 시스템이나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영업 직원 관리, 대리점 수준의 판매 전략 수립, 고객 응대, 차량 구매 고객으로부터의 각종 불만 처리 등 세부적으로 거의 경험해 보지 못한 업무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더해 본인이 직접적으로 차량 판매를 해 보지 않았기에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직원들이 겪는 영업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2)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창업자 특성에 맞는 창업 준비

(1) 자신 있고 좋아하는 분야에 집중

> 知之者 不如好之者
> 好之者 不如樂之者
> [출처] 論語(논어)·爲政(위정) 13

공자의 <논어>에 "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락지자"라는 말이 있다. 이는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단순히 관련 지식만 갖고는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의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창업 시장은 기존의 직장 생활과 달리 정해진 규정이 없는 무한 경쟁이기에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사업을 단순히 먹고살기 위한 생존 수단 정도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어야 전문성이 생기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사업의 전문화를 이룰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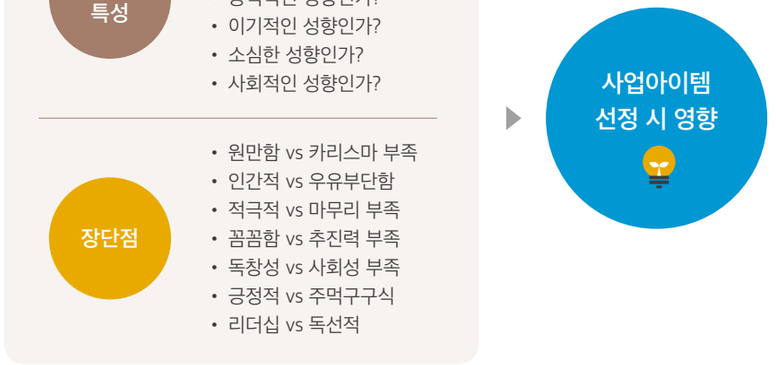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일에 대한 집중이다. 신중년 예비 창업자의 경우 창업을 준비하면서도 창업 분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새로운 경쟁 시장에 진입해 기존 경쟁자를 이기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창출하려면 오롯이 사업에만 집중해도 부족한데, 이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갖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창업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이 많은 편이다. 나이가 들고 사회 경험이 많을수록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일을 수행할 때 객관적 상식보다는 자신만의 판단 기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창업 준비 과정부터 실행 후에도 자기 사업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부분으로 역량과 집중도가 분산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는 대부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사업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즉 사업 여건의 문제이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남편, 부모 또는 자식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게 되므로 사업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사업은 직장 생활과 달리 출퇴근도, 휴일도 정해져 있지 않고 24시간 경쟁 체제 속에 있다. 그렇기에 창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면 경쟁력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2) 창업자 본인의 특성 파악을 통한 아이템 선정

신중년은 이미 50년 이상의 삶을 살아온 인생의 베테랑이다. 하지만 대부분 성격이나 장단점 같은 본인의 정확한 특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주된 이유는 우리 사회의 획일화된 교육과 상명하복을 바탕으로 한 조직 문화에 익숙해진 탓에 본인에 대해 진지하게 파악해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창업의 길로 들어설 때는 그렇게 막연한 상태로 해서는 안 된다.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기존의 앞서가는 경쟁자들을 이기려면 자신의 정확한 성격과 장단점을 파악해 긍정적인 부분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분야와 아이템을 찾아야 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

창업자의 역량과 특성 비교



개인별 특성과 장단점에 따라 신중년 창업 희망자에게 적합한 분야와 아이템은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될 수도 있다. 두 명의 NBA 농구 선수를 예로 들어 보자. 한 명은 키가 2m를 훌쩍 넘어 높이가 중요한 센터를 맡고 있다. 다른 한 명은 180㎝의 키로 비교적 단신이지만 빠른 움직임과 패스 능력으로 가드를 맡고

있다. 두 선수 모두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뛰고 있지만 팀 내에선 각자 다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선수들의 특성을 무시하고 역할을 바꿔 배치한다면 각 선수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한 채 팀 또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업에서도 자신의 성향과 장단점을 꼼꼼히 파악하고,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성공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이다.

(3) 사업가 마인드와 현실적인 수익 목표 수립

사업가 마인드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 요소이다. 그럼 '사업가 마인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간단히 답하면 'Give & Take'이다. 사업은 항상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 추구 활동이기에 무엇을, 얼마나 주고받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다. 가장 좋은 전략은 조금 덜 주고 조금 더 받는 것인데, 물론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신규 창업자의 경우에는 그 반대에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어쩌면 궁극적인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정일지도 모른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 덜 주고 더 받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남다른 마인드가 필요한데, 그것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가 마인드

- 상대방과의 약속은 철저히 지킨다 ····· 비즈니스 매너
- 시간 관념이 분명하다 ····· 신뢰성
- 업무 처리는 확실하게 한다 ····· 정확성
- 긍정적 사고를 갖되 현실성을 잃지 않는다 ····· 현실성
-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 장래성
-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를 활용한다 ····· 객관성
-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합리성
- 실패의 원인은 내부에서부터 찾는다 ····· 엄격함
- 원칙을 준수한다 ····· 일관성
- 항상 고민한다 ····· 개선과 발전

3. 창업의 실제 : 창업 유형 및 준비 과정

창업은 창업자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본을 이용해 사업 아이디어에서 설정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 또는 시스템을 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김준진, 최영순, 2016). 창업은 그 형태와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실행된다. 어떠한 아이템으로 어떻게 창업할 것인지, 그 사업이 과연 현실적이며 타당한 사업인지, 실제 사업 진행을 위한 세부 단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꼼꼼히 체크하고 준비하는 단계가 요구된다. 잘못된 설계도로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없듯이, 사업 계획을 탄탄히 세워 놓지 않으면 뼈대가 높이 올라갈수록 흔들리기 마련이다. 이번 장에서는 다양한 창업의 유형을 살펴보고, 체계적인 창업 준비 과정과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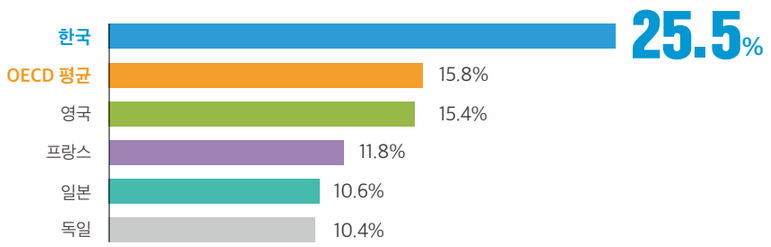
1) 창업의 다양한 유형

(1) 자영업 창업

국내 창업 유형 중 전 연령대와 성별 구분 없이 가장 많이 택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특히 신중년의 경우 특별한 경험이나 전문성도 없고, 자본도 제한적인 현실에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분야이기에 더욱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영업은 외식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요즘 들어 산업 형태와 트렌드가 다양해지면서 각종 생활형 서비스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전통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던 도·소매업은 인터넷 쇼핑과 대기업 유통의 확대 등으로 점차 수익성이 감소하면서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은 많은 업종에서 사양화가 지속되고 있고,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유통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잠재성이나 부가가치 측면에서 개인 규모의 아이템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16년 기준 25.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5.8%)을 비롯해 독일(10.4%), 일본(10.6%), 프랑스(11.8%), 영국(15.4%)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자영업 비중이 높다는 수치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창업을 하는 창업 희망자들의 전문성 부족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폐업률 또한 높다는 점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창업

주요국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2016년 기준)



[자료] OECD(2017),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2007~2016

에 취약한 신중년 계층은 이런 문제점이 더 많이 잠재해 있기에 일상에서의 친숙한 아이템이라는 부분만 보고 쉽게, 충분한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2) 아이디어 창업

자신만의 고유 사업 아이디어(아이템)를 개발해 이를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창업 방식이다. 아이디어 창업에는 다양한 분야와 그에 따른 아이템 유형이 있는데, 제조·도소매·생활형 서비스·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있다. 아이디어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특허, 상표 출원 등 법적 보완 장치를 병행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자영업 창업과는 달리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것이기에 분명 장단점은 있다. 장점은 기존의 평범하고 일반적인 아이템이 아닌 자신만의 노하우, 전문성, 차별성 등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것이기에 비교적 경쟁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유리함도 있다. 반대로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기 때문에 미지의 시장에서 신규 수요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경쟁자가 적은 만큼 사업화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듯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사업 분야로서 사업의 성패는 아이템의 적정성과 창업자의 역량에 좌우될 수 있다. 명심해야 할 것은, 경쟁자가 적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더라도 사업이 활성화되면 순식간에 유사한 경쟁 아이템이 쏟아져 나와 시장을 잠식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아이디어 창업에서는 지속적인 사업의 보완과 발전이 필요하다.

(3) 기타 창업

창업이 증가하고 기존의 자영업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아이템도 개발되고 있다. 즉 위에서 언급한 아이디어 창업 외에 새로운 분야들이 개발되고, 세부 아이템들이 개인 사업자에 의해 발전하는 중이다. 특히 인터넷이 일상화됨에 따라 온라인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온다. 그 분야 또한 우리 일상 전반에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기존의 PC(WEB) 중심이던 인터넷 산업이 Mobile(APP)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그 결과 이미 많은 분야에서 관련 사업 아이템이 활성화되고 있다. 음식 주문, 모바일 게임, 숙박 안내, 교통정보 제공 등 생활 편의성과 관련된 앱이 그러한 예이다.

그 외에 다양한 개인 서비스(생활형/사업 지원형) 분야의 확대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각종 대행 사업이 두드러진다. 전 업종에 걸쳐 수요 대비 공급이 확대된 이른바 과잉 공급이 일상화되면서 시장은 기존의 공급자(사업자) 중심에서 수요자(고객)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도 증가하고 있다.

Tip / 창업 형태 및 분야에 따른 분류

창업형태

독립 창업

창업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

합동 창업

개인 간의 협업(동업), 기업과의 협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리점 등)

창업분야

일반창업

점포형 창업

기존 자영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업종과 아이템을 불문하고 일정한 형태의 사업장을 오프라인상에서 운영하는 경우

예)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

비점포형 창업

판매 상품 또는 제공 서비스는 점포형과 유사하지만 사업자 명의의 독립적인 점포를 보유하지 않고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예) 숍인숍(Shop-In-Shop) 형태, 이동형 점포(차량, 팝업 스토어 등), 위탁 판매, 자판기 사업 등

무점포 창업

오프라인상에 고정된 매장이 없는
유형의 사업

예) 인터넷 쇼핑몰, 각종 대행업(대리운전, 구매대행 등), 사무실형 창업(지사 등)

전문창업

아이템 창업

사업자가 개발한 고유 아이템(특허, 전문성 보유 등)을 활용하거나 기존의 사업 분야에서 특화된 틈새시장을 발굴하는 경우

예)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식 등을 활용한 사업, 일상생활에서의 새로운 분야 개척(1인 가구 대상 주택 수리업, 배달 대행 등)

지식 창업

사업자의 지식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 유형

예) 각종 전문 자격증을 활용한 사업(세무사, 부동산중개사 등), 전문 지식과 경험·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컨설팅, 교육 사업, 공연·행사 기획 대행업 등)

기술 창업

첨단 기술 활용, 신기술 개발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 기술형 창업과 벤처형 창업 등

예) 상용화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관련 사업 등

2) 창업 아이템 선정과 세부 준비

(1) 아이템의 적정성 검토

창업은 돈을 벌고자 하는 수익 사업이다. 이에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신중년 창업 희망자와의 조화성, 트렌드와의 부합성이다.

첫 번째는 창업 희망자와의 조화성은 해당 분야와 아이템이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와 조화로운가에 대한 판단이다. 예를 들어 평상시 사람들과 사교적이지 못하고 내성적인 사업자가 서비스업 분야에서 창업을 하면 조화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가 서비스 관련 창업을 한다면, 아마 그 사업자는 돈을 버는 것을 떠나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에서부터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해당 사업에 애착을 갖고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는 트렌드와의 부합성이다. 사업은 고객이 나의 상품이나 용역(서비스)을 구매해 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때 구매의 정도와 방법, 반복성 등을 결정짓는 것의 큰 원칙이 트렌드이다. 트렌드는 우리가 흔히 유행이라고 표현하는 일종의 쏠림 현상이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이 이러한 사회적 쏠림 현상에 거스르지 않고 얼마나 주류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쏠림의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 트렌드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2) 사업 타당성 분석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적정성이 입증되었다면 그다음으로 '사업 타당성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말 그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내가 원하는 정도의 수익성을 가져다줄 수 있겠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예측해 보는 단계이다. 이를 통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서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와 주요 내용들로 이루어진다. 아울러 사업 타당성 분석 과정과 창업자의 사업 준비 과정의 연계도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가능한 한 이 두 가지 분야의 순서와 적정성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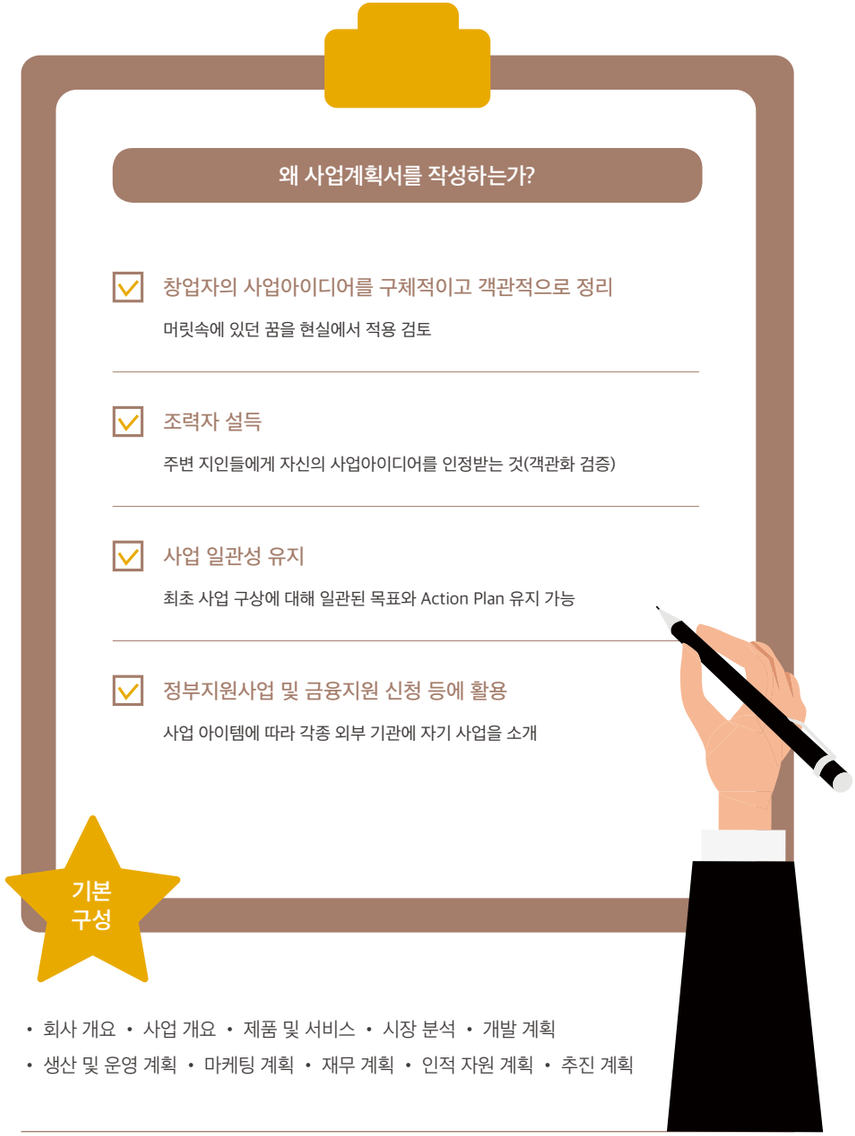
각 프로세스와 핵심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면 재무적 측면에서 예상 손익 분석도 꼼꼼하게 시행해 봐야 한다. 사업은 수익을 얻는 것이 기본 목표이기 때문에 모든 분석 및 예측의 결과는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의 내용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최종적으로 돈을 벌 수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업이 아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창업 준비과정

(3) 사업 전략과 세부 실행 계획 수립

사업 전략은 사업 목적(철학)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방향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신중년 창업자는 적극적인 목표나 꿈 없이 소극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방식 등에 일관성이 없고 단기적이며 즉흥적인 운영을 하게 되고 사업의 체계도 없을뿐더러 동기 유발도 약해진다. 최소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업에 집중하여 성과를 내려면 확고한 사업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전략, 세부적인 실행 계획(사업 계획)을 구체화해 둬야 한다.

사업계획서 수립 및 구성요소



[참조] 예비 창업자가 알아야 할 창업 과정 7단계

❶ 창업자의 여건 분석

- 창업자/가족(연령, 건강, 자녀 구성, 부모 및 가족 부양 의무 등)
- 창업 환경(재무 상태, 노후 준비, 창업 자금 조달 능력, 창업의 집중 여부 등)

❷ 창업자의 역량 분석

- 창업자의 특성(성격, 가치관, 대인 관계, 인적 네트워크 정도 등)
- 사업 수행 능력(전문성, 경험, 노하우, 사업가 마인드 등)

❸ 사업 목표 수립

- 사업의 목적, 기간, 방식 (사업에 대한 창업자의 확고한 신념과 목표 필요)
- 구체적인 수익 목표 설정(창업자의 역량과 여건에 맞는 수익 목표 설정-사업의 손익분기점/최소 생활비)

❹ 사업 아이템 선정

- 업종과 아이템(큰 틀에서 업종부터 선정→세부 아이템 확정)
- 사업자와의 적정성 확인(사업자가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검토)

❺ 사업 타당성 분석 시행

- 주요 항목 체크(상품성, 시장성, 지속성, 경쟁자와 실패 위험성, 수익성)
- 사업자의 수익 목표 달성 가능성 검토 (예상 손익계산서 작성)
  ※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장조사 선행 필수

❻ 사업 계획 수립

- 사업의 핵심 전략 수립 (핵심 가치 확정, 최상의 목표 설정)
- 분야별 세부 시행 방안 수립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 수립 (특히 재무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초기에 비상시 자금 조달 방안 등의 대안 수립)

❼ 사업 개시

- 기존에 수립한 사업 계획 기준으로 일관된 사업 수행
- 지속적인 성과 분석과 적정 기준에 의한 사업 계획 수정

사업 초기에는 당초 계획과 달리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급한 마음에 즉흥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결과는 계속해서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기간마다 호·부진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4. 신중년 창업 지원을 위한 가이드

신중년 창업자의 경우 그동안 쌓아 온 자신의 경력과 경험, 그로 인한 자신감과 성공에 대한 확신 그리고 무엇보다 창업 시장과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창업에 대한 올바른 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년의 창업을 지원하거나 안내해 주는 컨설턴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전달한 주요 창업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년 창업 안내를 위한 코칭 가이드를 간략히 유목화(類目化)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Guide 1 창업에 대한 인식과 이해 정도를 파악하라 "신중년의 창업은 출발이 중요하다"

신중년 창업 희망자를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은 창업 희망자의 창업에 대한 인식과 이해 정도이다. 창업에 대해 현실을 바탕으로 얼마나 객관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 창업을 하기 위한 오픈 마인드는 갖고 있는지 등을 문답 형식으로 파악한다.

(활용자료 참조)

Guide 2 직장 생활과 사업의 업무 차이를 인식시켜라 "직장에서의 업무와 사업 아이템은 다르다"

신중년 창업 희망자는 대부분 직장(일반 기업, 공무원 등)에서 조기·정년퇴직한 사람들이다. 한두 가지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했거나, 여러 유형의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해 왔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막연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쉽게 판단하여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유사 분야라고 할지라도 직장인과 사업가의 입장 차이와 업무 수행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기에 구체적인 예시를 바탕으로 이해시켜야 한다.

<활용자료> 신중년 창업준비 정도 체크리스트

항 목	그렇다	아니다
1. 사업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있다(수익/미래).		
2. 나의 창업 역량과 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아이템을 선정했다.		
3. 창업하려는 아이템에 대해 매일같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뉴스 클리핑, 관련 교육 참석, 서적 구독 등 - 6개월 이상)		
4. 창업 아이템 선정과 사업성 분석을 위해 상식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한다.		
5. 창업하려는 아이템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충분히 했다.		
6.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 계획과 이에 대한 세부 실행 전략이 확실하게 수립되어 있다.		
7. 창업 준비가 현재 나의 일상에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		
8. 창업과 아이템에 대해 가족이 충분히 이해하고 전적으로 지지한다.		
9. 퇴직 후 창업까지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재무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10. 창업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를 1년 이상 했다.		

★ 그렇다 → 8개 이상

☞ 창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음

지금 당장 창업하여도 될 만큼 창업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를 충실하게 한 경우입니다. 창업한 후에도 이러한 자세와 마인드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상대적으로 내·외적인 어려움을 비교적 잘 헤쳐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렇다 → 4~7개

☞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만 되어 있음

창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해와 준비는 되어 있으나,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다소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그렇다'가 4~5개 정도라면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하여 창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렇다 → 3개 이하

☞ 창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함

창업에 대한 이해나 핵심 요소들에 대해 개념 정립이 안 된 상태이고, 준비 내용도 매우 부족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비 창업자는 우선적으로 창업에 대한 이해와 방향 수립 등 기본적인 부분부터 정리한 다음 창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Guide 3

수익성보다 안정성에 초점을 두게 하라
"신중년 창업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을 둔다"

상담자는 창업 희망자의 창업 관심 분야와 대략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파악한 후, 사업 전반에 걸쳐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한다. 신중년은 다른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실패의 가능성이 높고, 또 실패 시 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 초기에 철저하게 안정성 위주로 창업 계획을 구상하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상담자가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수준의 수익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1차 목표

사업의 손익분기점 달성

사업을 통해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부터 검토

⇒ 사업을 하면 당연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창업 희망자의 잘못된 생각을 집어 줘야 한다.

2차 목표

최소 생활비 수익 확보

사업 수익이 최소한의 생활비 규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코칭

⇒ 최소 생활비는 매달 가정에서 실제 지출하는 비용이다. 2차 목표를 달성한다면 일단은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생각을 집어 줘야 한다.

3차 목표

노후 준비

최소 생활비 외 여유 소득은 재투자 금물

⇒ 여유 수익을 주식, 부동산 등 실패 위험이 큰 분야에 재투자하는 건 위험하다. 일정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여유 자금으로 유지하게 유도하는 것이 좋다.

Guide 4

창업자 유형에 따라 조언을 달리 하라
“신중년의 창업은 딜레마와 위험성이 있다”

신중년 창업 희망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적극적 사업가형’이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사업에 관심이 많고, 성격도 외향적이며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대인 관계가 넓다. 그러다 보니 사업을 지나치게 낙관해 실패 위험이 큰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상담자는 창업 희망자의 역량과 사업 규모, 실패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절히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두 번째 유형은 ‘자기 주도적 사업가형’이다. 자신만의 노하우나 아이템에 몰입해 특정 분야의 전문성, 특허 등을 바탕으로 사업에 나서는 유형이다. 이들에게는 사업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아이템만이 아닌 다양한 항목을 고려해서 적절한 사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게 조언해 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자의 반 타의 반 형’이다. 사업에 대한 관심이나 자신감, 충분한 준비 없이 등 떠밀리듯 퇴직하여 창업의 길로 들어선 경우이다. 막연히 사업 아이템을 찾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충분한 분석 없이 급하게 정해 버리는 사례가 많다. 당연히 실패로 끝나는 일이 많고 이후에도 실패의 원인 분석 없이 업종 변경 등 재창업의 길로 들어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처음부터 아이템 선정에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신중히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재창업 시 새로운 아이템을 찾기에 앞서 실패 원인 분석이 먼저임을 주지시킨다.

신중년 창업 희망자 유형에 따른 이상과 현실

Guide 5

아이템은 창업자의 특성에 맞춰 추천하라
“창업의 성공 조건은 아이템보다 창업의 특성이다”

대부분의 창업 희망자는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에만 집중한다. 이미 창업 아이템을 선정한 경우는 물론이고, 아직 아이템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의 ‘어떤 아이템이 수익성이 좋은가’를 묻는다. 상담자는 아이템에 앞서 창업자의 특성(역량, 경험, 장단점 등)과 여건(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부터 파악해 해당 창업 희망자에게 적합한 아이템을 추천해 줘야 한다.

창업 실패 사례

유명한 광고 대행사에서 임원까지 지내고 퇴직한 B(54)씨. 그는 본인의 업무 특성과 직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스스로를 상당히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의 소유자라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퇴직 후 새로운 트렌드인 젊은 고객층 중심의 이자카야 주점을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인수했다. 결과는 참담한 실패. 표면적으로는 고객과의 마찰이 이유였다. 술에 취한 젊은 고객들의 일상화된 막말과 ‘갑질’은 B씨의 자존심과 인격을 완전히 짓밟았고, 결국 여러 차례 고객들과의 시비 끝에 사업을 접게 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나중에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은, 주변에서 평가한 B씨는 상당히 보수적이면서 권위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그런 사실을 직장 구성원들이나 가족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항상 받아 주었기에 B씨 본인만 자신의 특성을 알지 못했다. 창업자의 특성이 사업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Guide 6

창업 분야에 따라 코칭을 달리 하라.
“자영업 창업은 전문성이, 아이디어 창업은 아이템의 적정성과 사회적 트렌드가 더욱 중요하다”

자영업은 신중년뿐만 아니라 전체 창업 희망자들이 가장 많이 진입하는 분야라 경쟁자가 많다. 특히 일상적인 분야들은 진입 장벽이 낮아 기본적인 준비도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실패로 이어진다. 상담자는 자영업 창업 희망자의 특성과 과거 경험, 생활 여건 등을 확인하고 다른 경쟁자와 차별화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해야 한다.

고유한 사업 아이템이나 기타 새로운 분야에 창업을 고려하는 신중년 창업 희망자에게는 해당 아이템의 사업화가 가능한지, 트렌드와는 맞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 상담해야 한다. 일반 자영업 분야에 비해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상담자가 완벽하게 진행하려고 하기보다는 기본 요소에 대한 안내 후 관련 전문 기관이나 업체 등의 정보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창업 실패 사례

신중년 창업자들의 자영업 실패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양하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이에 개인별 사례보다는 대표적인 실패 유형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외식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업 희망자가 주방 업무(조리)를 할 줄 알아야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운전을 못 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아이디어 사업의 경우 ‘Just Idea’인 경우가 너무 많다. 아이디어만으로는 사업화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일례로 중소 벤처 기업부에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사업에서도 최종 사업화에 성공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일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Guide 7

체계적인 분석을 강조하라
“이제는 소규모 개인 창업도 체계적이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물론 신규 창업자도 대부분 소규모의 개인 사업 위주다. 주먹구구식 운영이나 창업이 많다. 하지만 이제는 길거리에서 붕어빵 하나를 팔더라도 경영의 개념을 갖고 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상담자는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특히 막연하게 사업 아이템의 개념만 갖고 창업하려는 신중년의 경우, 주관적이고 단편적인 정보와 본인의 판단을 맹신하는 경우가 많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와 사례를 들어 바로잡아 줘야 한다.

창업 실패 사례

가장 대표적인 실패 유형으로, 사업 타당성 분석을 무시한 경우이다. 기업에서 재무·회계 업무만 25년을 하고 퇴직한 C씨는 부인과 함께 작은 빵집을 창업했다. 이 정도 규모는 모든 경우의 수와 관련된 숫자들이 모두 머릿속에 있다고 자신하고 구체적인 사업 타당성 분석 없이 문을 열었다. 그 결과 빵집은 창업 초기부터 각종 예상치 못한 문제로 자리를 잡지 못했고, 수익은 예상보다 훨씬 적어 안정적인 생활비는 고사하고 손익분기점도 달성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마이너스 부분을 카드, 캐피탈, 정부 지원 자금 등으로 돌려 막다가 결국은 2년여 만에 문을 닫게 됐는데, 그사이 사업 부채가 8,000만 원까지 불어난 상태였다. 가장 큰 실패 요인은 무엇일까? 창업 시 필요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단순히 기업에서 담당하는 재무·회계 업무 수준으로 간과하고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다. 새롭게 창업을 준비할 때 해당 사업의 적정성(수익성을 중심으로) 분석은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단순히 머릿속에서의 일부 숫자 계산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

5. 주요 창업 지원 기관

창업을 위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퇴직 후 남은 재산을 상당 부분 투자해야 하는 신중년의 경우, 무턱대고 창업에 뛰어들기보다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각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등에서는 창업 지원을 위한 여러 정책과 서비스를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다. 자금 지원부터 컨설팅, 사무실 공간 지원, 디자인 및 마케팅 지원 등 종류도 다양하며 준비 단계부터 창업, 폐업, 재창업 등 단계별 지원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창업 준비자가 이러한 지원 정책이나 서비스를 잘 알지 못해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창업 안내 시 이러한 정책이나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창업 준비자가 알면 유용한 주요 창업 지원 기관과 관련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자영업 창업 _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부 산하의 전국 단위 지원 기관으로서 자영업 창업 지원 관련 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과 전통 시장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정책 자금 지원 등 복합적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유형은 크게 연간 지속형 사업과 분야별 단기 사업으로 구분돼 관심 분야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전에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다만 신중년 창업을 특화해 차별화된 지원 제도를 운영하지는 않고 있어 일반적인 창업 지원 제도를 창업자의 특색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단의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좀 더 효과적인 홍보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공단 홈페이지 외에 별도의 사업 안내 및 이용 홈페이지(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를 운영하고 있다.

2) 기술형 창업 _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은 주로 기술, 창조, 벤처기업 등의 형태로 창업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이다. 진흥원 사업 중 신중년 창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 특히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와 아이템 창업 희망자의 경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만 40세 이상 퇴직자의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활용해 성공적인 기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25개소 내외의 센터가 있다. 입주 자격, 이용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창업진흥원 홈페이지(www.kise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신중년창업 _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50plus.or.kr)은 서울시에서 5060세대 신중년들의 은퇴 후 생활 설계, 교육,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등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설립한 기관이다. 서울 공덕동에 위치한 센터를 중심으로 서울시 전역에 걸쳐 여러 개의 캠퍼스와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5060세대의 창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 소재 3개 캠퍼스(서부, 중부, 남부)에서 신중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창업 준비를 위해 사무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캠퍼스별로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4) 창업 자금 지원 _ 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재단

신중년을 포함한 모든 창업 희망자 또는 기존 사업자들에게 저금리 사업 자금과 경영 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해 주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과 서울신용보증재단(www.seoulshinbo.co.kr)이 있다. 주로 사업 자금 대출이 핵심 사업인데 신용도가 낮은 개인 사업자도 초저금리로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창업과 경영에 대한 전문 컨설팅도 무료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창업 준비 시 알아 두면 유용한 정보이다.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창업진흥원(www.kised.or.kr)

서울시50플러스재단(50plus.or.kr)

서울신용보증재단(www.seoulshinbo.co.kr)

<참고 문헌 및 자료>

OECD(2017),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2007~2016
국세청(2017), 2017년 국세통계연보
통계청(2017.12.14.), 2016년 기준 기업 생멸 행정 통계 결과 보도 자료
통계청(2016.12.22.), 자영업 현황 분석 보도 자료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2017.12.21.), 2017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 결과 보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비임금 근로 부가 조사(2011~2017)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2017), 2017년 창업 기업 실태 조사
연합뉴스(2018.3.31.), 자영업자 1% 늘었는데 대출은 11% 증가…금리 상승기 '취약 고리'

<사이트>

국가통계포털 kosis.kr

TIP 신중년 창업 스토리

준비된 스타트업, 인생 후반기의 빛나는 도전을 펼치다

신창용(앙코르 브라보노 이사)

약 34년간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공공·금융·제조 분야에서 IT 정보화 사업을 담당해 온 신창용(61) 씨. 다양한 산업에서 전산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정보화 산업 전문가로 승승장구했던 그였지만,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생 1막의 커리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아픔과 상처를 이겨 내야만 했다.

준비 안 된 은퇴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뼈아프게 경험했던 그였기에, 창업에 도전하는 자세도 남달랐다.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시니어들과 힘을 합쳐 협동조합 형태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함으로써 안정성을 기하는 것은 물론,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창업 자금을 마련했고, 1년여에 걸친 전문 교육, 컨설팅을 통해 사업 모델과 콘텐츠를 구체화시키는 등 모든 단계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다. 준비된 시작으로 일군 예견된 성공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앙코르 브라보노의'의 신창용 이사를 만나 준비된 창업의 빛나는 도전기를 들어 보았다.

정보화 사업 전문가로 활짝 핀 경력 전성기

3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을 거치면서 IT 정보화 사업 전문가로 일해 온 신창용 씨에게는 '직장'보다 '직무' 그 자체가 일자리였다. 1981년 SK(당시 선경) 전산실에 프로그래머로 입사한 이후 해태상사, Wang Computer Korea, LG CNS, SK C&C 등의 대기업을 거치면서 정보화 사업 PM으로 성공 가도를 걸어 왔고, 뛰어난 기술력과 사업 운영 능력을 인정받아 연이은 스카우트 제의를 받기도 했다. 시장에서 자신의 브랜드 가치나 기술력이 정체되기를 원치 않고, 새로운 분야로 역량을 확대하고 싶은 욕심으로 몇 차례 이직을 거듭했다. 그러나 소속된 회사가 바뀌었을 뿐 줄곧 IT 정보화 사업 전문가라는 일관된 경력 경로를 이어 갔다. 수천억 원대 규모의 정보화 사업의 PM으로 일하며,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은 마치 사업 운영과도 같았다. 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해 인력만 수천 명에 달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모든 조직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꼼꼼하게 챙겨야 했다. 수많은 변수를 관리하기 위해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이 일해야 했고, 대규모 조직과 인력을 이끌기 위한 리더십도 필요했다. 늘 무거운 중압감과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보다 큰 보람과 자부심이 원동력이 되었다.

두 번의 퇴직, 두 번의 성장

신창용 씨가 2004년부터 10년 가까이 몸담은 SK C&C는 그가 거쳐 간 많은 회사 중에서도 각별한 애정을 갖던 곳이었다. 금융SI 사업팀장으로 들어가, 시장점유 1위 목표를 달성시켰고, 대규모 SI 사업을 연이어 성공시키기도 했다. 첫 직장으로 다시 돌아와 정년퇴직을 맞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였기에, 56세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퇴직 권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고 한다.

"사실 IT업계는 40대 중반이 정년이라는 것은 흔히들 아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전혀 예상을 못 했죠. 그해에 워낙 실적이 좋기도 했고, 연속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그런 결정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은퇴를 준비하려니 막막함과 억울함이 밀려 왔다.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도 당당하기 힘들었고, 소속감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자신감을 상실하여 대인 관계를 맺기도 어려워졌다. 모든 것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생각에 귀촌이나 해외 봉사를 준비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IT업계의 중견 기업에서 연락이 왔다. "갑자기 팬텍CNI에서 연락을 받았죠. 퇴직 전의 급

여를 그대로 줄 테니, 신규 프로젝트를 맡아 줄 전략 사업 총괄 IT 고문 자리를 맡아 달라는 거였죠.” 그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입사 제안을 수락했다. 쫓기듯 조급하게 추진하던 퇴직 준비를 몇 년 정도 유예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팬텍에서 1년간 다시 현역처럼 일에만 몰두하며 신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그는 회사에 급여와 근무 조건을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자신이 먼저 급여를 낮추되 일주일에 2~3일만 근무하는 것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충분한 여유를 두고 퇴직 이후를 준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도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판단해서 수락했고, 그때부터 1년간은 일과 퇴직 준비를 병행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두 번의 퇴직을 통해 많은 걸 얻었어요. 준비 안 된 퇴직의 위험성,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퇴직의 안정성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에 뜻을 모으다

퇴직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신창용 씨는 우연히 잡지에서 ‘사회연대은행 KDB 시니어 브리지아카데미’ 모집 공고를 발견했다. 시니어들을 위한 인생 변화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문구에 끌려 교육에 참여하게 됐고, 그곳에서 마음이 맞는 시니어 동기들을 만났다. 수료생 가운데 6명이 모여 같은 처지의 은퇴한 시니어들이 보람되고 의미 있는 앙코르 커리어를 찾아 갈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며 모임을 시작했다.

첫 시작은 토론 중심의 커뮤니티였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스스로 사회적 이슈도 해결하고, 인생 후반기에 삶의 의미도 찾는다는 취지로 매주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 시니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했다. “은퇴한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이 퇴직 이후에는 다 사장되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죠. 이러한 역량을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들과 매칭하여,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도울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한 거죠.”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화되자, 창업에 도전하자는 새로운 목표에 의기투합했다. 협동조합 형태로 시작하는 창업인 만큼 신창용 씨에게도 용기가 생겼다.

“인생 2막에서는 건강한 사회·경제 활동을 통해서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고 싶었어요. 사회적 기업 창업도 그중 하나의 선택지였는데, 혼자서 도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동료들과 조직화해서 도전한다는 데서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회연대은행에서 주최한 ‘시니어 협동조합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해 준비했다. 오랜 기간 정보화 사업의 PM으로 일하며, 사업 계획과 제안에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던 신창용 씨가 능력을 십분 발휘했다. 사업 공모에 당선된 그들은 2,000만 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그로부터 본격적인 창업 준비에 돌입했다.

체계적인 창업 준비, 서로를 이해하다

창업 자금을 지원받고, 협동조합으로 정식 출범하기까지 준비하는 데만 1년이 걸렸다. 매주 빠짐없이 모여 몇 시간씩 회의를 했고,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함께 논의를 거쳤다. 조합원들이 함께 은퇴자 전직 관련 콘텐츠를 구상하고,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교육, 사업 모델 수립 및 검증, 전문가 조언 등을 거쳐 2015년 7월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제각각 다른 삶, 다른 경력 경로를 걸어 온 시니어들이 한 번에 완벽한 합을 이루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개인별로 가진 역량은 물론 업무 진행 방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협동조합의 형태이다 보니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이사장을 맡은 신창용 씨는 갈등을 완전히 없애려고 애쓰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폭과 수준을 점차 낮춰 가는 방향으로 해결점을 찾고자 했다. 과거, 주된 일자리에서 대규모 조직과 인력을 이끄는 과정에서 터득한 노하우이기도 했다. 시니어와는 다른 관점, 색다른 창의성을 보태기 위해 카이스트 대학생들을

초빙하여 함께 사업 모델과 콘텐츠를 연구했다.

중장년들에게는 앙코르 커리어로 전환하기 위한 전직 교육, 컨설팅, 플랫폼 등을 제공하고, 사회적 경제 등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관에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중장년 인재 풀을 공급함으로써 중장년과 사회 모두의 공유 가치를 제공하는 사업 모델로 구체화됐다.

준비된 스타트업, 성공 가도를 걷다

신창용 씨는 앙코르 브라보노의 1대 이사장직을 맡아 협동조합이 시작하고 자리를 잡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고, 1년 만에 서울시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도 받을 수 있었다. 1년여에 걸쳐 조직 운영 체계부터 사업 모델은 물론 개인별로 360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까지 이수하며 구체적인 콘텐츠를 개발했다. 결코 서두르지 않고 완벽한 준비를 거친 끝에 사업을 시작하자는 것은 모든 조합원의 다짐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파일럿 프로젝트로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과 함께 한화생명의 앙코르 펠로십 모델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수행해 냈다. 교육생 중 다수가 인턴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했고, 이 중 7명이 재취업에도 성공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들의 성공 사례는 각종 매체에도 소개되었는데 그중에서도 KBS <명견만리 제3섹터에서 길을 찾다> 프로그램에서 협동조합으로 성공한 케이스로 '앙코르 브라보노'를 보도하면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 협력 기관과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되어 매출도 꾸준히 증가했다. 현재는 중장년 전직 지원 및 교육을 중심으로 경영 컨설팅과 커리어 펠로십, 커리어 멘토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금융, 회계,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에 지속적인 경영 지원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신창용 씨는 얼마 전부터 이사장을 내려놓고 이사직으로 활동하며, 동시에 50+세대를 위한 1인 창직 코칭과 멘토링을 지원하는 '50+내(來)일 컨설팅'의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는 협동조합이 아니라 1인 창업 형태로 새로운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다듬어서 창직 형태로 개발시키고, 그러한 역량을 온디맨드(On-Demand) 형태의 서비스로 플랫폼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전에 늘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다는 신창용 씨는 요즘 많은 분야를 배우기 시작했다. 1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글쓰기 작가, 사진작가, 여행 플래너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며 온디맨드 형태의 서비스 창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경제와 사회 공헌 전문 강사로도 활발히 활동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두 번의 은퇴를 경험하며 인생 1막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철두철미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사회적 기업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통해서 그가 얻은 소중한 삶의 지혜는 늘 미리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항상 현재에 안주하기보다는 다음 단계의 커리어를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급함을 버리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지금 '앙코르 브라보노'의 이사로 바쁘게 활동하는 동시에, 1인 창업을 준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신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고 충분한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향한 그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신창용 씨의
창업 성공 포인트

성공 포인트 1

창업 지원 자금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 준비

신창용 씨는 은퇴한 시니어와 함께 팀을 이루어 협동조합 형태로 창업을 준비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사회연대은행에서 주최한 '시니어 협동조합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에 응모하여 2,000만 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창업 준비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 자금은 그들이 약 1년간 매주 모임을 유지하고,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는 자금인 동시에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안정성을 주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정부나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업 지원 제도나 지원 사업이 마련되어 있다. 소액의 경비를 지원받는 보조 자금부터, 융자나 출연 자금, 투자 자금 등 다양한 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자신에게 맞는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초기 창업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성공 포인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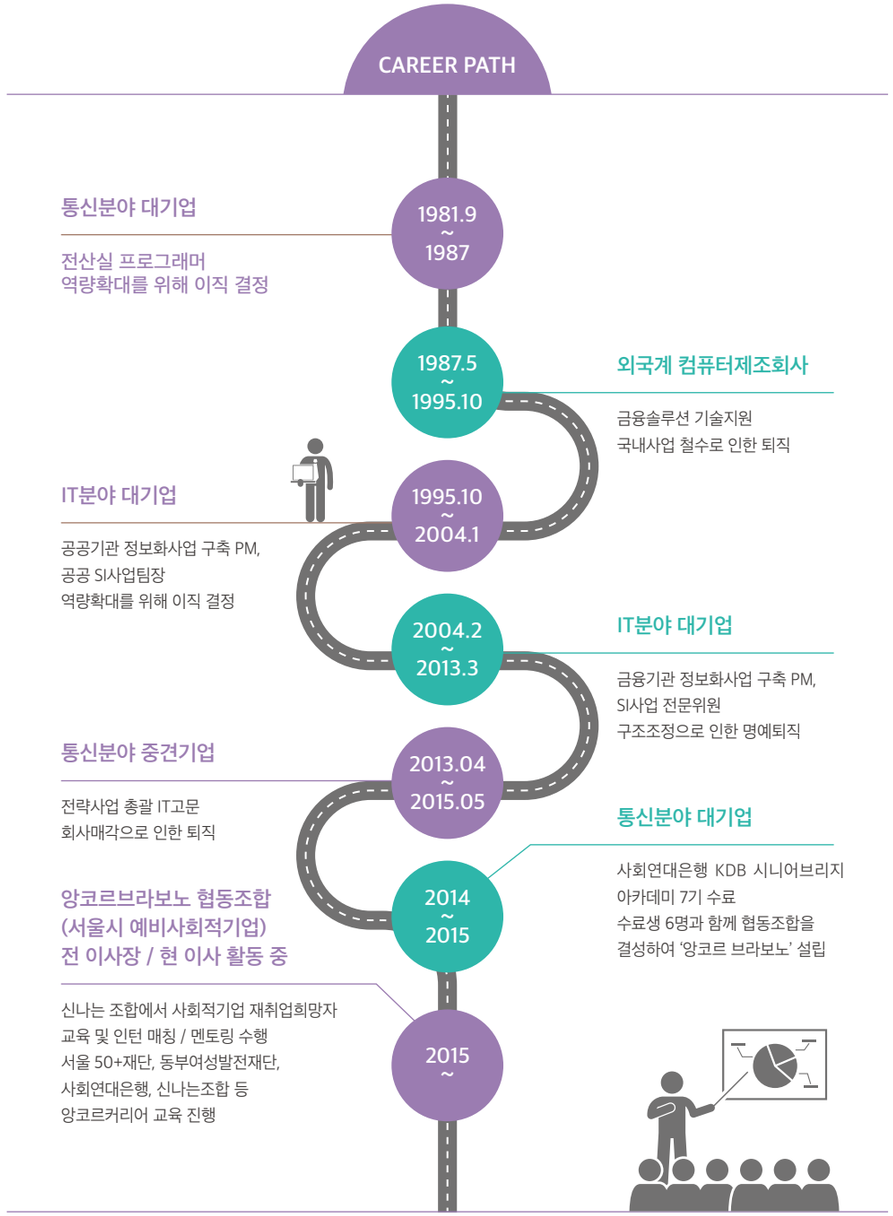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체계적인 준비

신창용 씨를 포함한 설립 동의자 6명은 1년 동안 매주 정기 모임을 가지면서 은퇴자 전직 관련 콘텐츠를 구상했고,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교육, 사업 모델 수립 및 검증, 전문가 조언 등을 거쳤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만의 생각과 아이디어에 갇히지 않고,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와 논의하면서 사업 모델을 구체화했고, 시니어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하기 위해 청년 전문가로서 카이스트 대학생들을 초빙하여 도움을 얻기도 했다. 또한 모든 조합원이 제각각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직 전문가 육성 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하는 등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철저하게 창업을 준비했다.

성공 포인트 3

화합과 조화를 이끄는 소통의 리더십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개인별로 가진 역량의 차이, 업무 진행 방식의 차이, 권리와 의무의 차이 등 다양한 개인 차이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신창용 씨는 과거 주된 일자리에서 정보화 사업 PM으로 일할 때 대규모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며 빚어지는 많은 갈등을 '소통'을 통해 해결해 온 노하우와 리더십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이겨 냈다.
그는 이러한 갈등이 모든 협동조합 창업이 갖는 공통된 어려움일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이 갈등을 얼마나 원만하게 조율하고 갈등의 폭을 좁히느냐가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고 강조한다.



특별 기획

신중년의 새로운 직업 대안, 창직

1. 창직의 개념 및 특징
2. 창직의 실제 : 창직 유형 및 프로세스
3. 창직 지원 기관

직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변화의 흐름에 적응해 나가면서 생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삶의 가치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변화와 적응은 교과서처럼 귀에 익숙해져 왔지만 우리의 일상에 다급하게 침투해 오기 시작한 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변화에 대한 반응은 사뭇 고용 시장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으로만 한정되어졌으나 이제 신중년 세대에게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되어 가고 있다. 지금의 신중년들이 결혼하던 당시에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직접 찾아다녔다. 입소문으로 흘려들은 정보로 예식장을 구하고 여행사를 찾아가 신혼여행지를 예약하고, 결혼사진과 예복 등 모든 것을 스스로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웨딩플래너의 등장은 이 모든 번거로움을 한 번에 해결해 주었다. 이제 웨딩플래너는 당연히 존재했던 직업으로서 우리 일상에 깊숙이 인식되어 있다. 초등학교 등·하굣길 정문을 든든히 지켜 주는 '보안관' 어르신은 이제 시니어의 새로운 일자리로 직업화되었다. 수십 년 생업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일터를 뒤로하고 이제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자신의 취미를 직업화하여 자신만의 직업을 창출해 또 다른 삶의 가치를 찾아가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창직의 시작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신중년의 새로운 직업의 대안으로서 창직을 눈여겨봐야 한다.

창직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다. 창직은 누구나 가능한 것으로 주체자, 대상, 분야나 영역에 제한이 없다. 특히 신중년의 경우 청년층보다 풍부한 경험과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창직의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 즉 기존에 자신이 수행했던 직무나 직업의 연장선에서 보다 빠르게 아이디어를 덧붙여 새로운 패턴의 직업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존에는 청년 실업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면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신중년에게 생계와 삶의 가치를 동반하는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로 주목받고 있다.

신중년 세대는 주로 재취업이나 창업 등 기존 노동시장의 틀에 맞추는 경직된 진입을 보여 왔다. 그러나 창직을 통해서는 개인의 경험과 경력을 살려 사회에 필요한 직업을 창출하는 사회 기여적 가치를 실현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재취업이냐, 창업이냐의 기존 양면적 선택에서 벗어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력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창직 마인드를 심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창직은 기존 시장에 없던 새로운 직업(직무)을 만들어 내는 과정인 만큼 오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그 과정에서 재정적, 시간적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이는 실패

와 기회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하여 신중년에게 제대로 된 진로를 탐색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그 방법론에서 청년층의 창직과는 달리 안정적인 시도가 요구된다.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창직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안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컨설턴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신중년 진출 가능 경력 경로 유형 중 창직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창직의 개념 및 특징, 창직 유형 및 준비 과정, 창직 코칭 가이드, 주요 창직 지원 기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창직의 개념 및 특징

창직은 기존에 없던 직무를 발굴하여 기존 직업 구조와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기존 직업 구조에 대한 지식 및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요구하게 되는데, 기존 직업 구조를 잘 아는 신중년에게 창직은 적합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창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및 특징을 이해한다면 보다 더 폭넓은 진로 탐색이 가능할 것이다.

1) 창직의 개념

창직은 개인이 기존 노동시장의 일자리에 진입하지 않고 문화, 예술, IT, 농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하는 직업 세계를 토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지식, 기술, 능력, 흥미, 적성 등을 활용하여 직업(또는 아이디어)을 발굴하여 본인의 진로로 삼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16).

2) 창직의 등장 배경

창직의 등장 배경은 대표적으로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구조 및 소비자의 욕구 변화, 직업 세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파생, 신중년의 일자리 가치관 변화이다.

▸ 산업구조 및 소비자 욕구 변화

기존의 서비스 형태로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및 직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주로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고 자리 잡기 시작한다.

▸ 직업 세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파생

사회적 트렌드와 인구구조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등의 사회적 배경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 경우이다.

▸ 신중년의 일자리 가치관 변화

고용 시장 및 시장 환경의 불안정성과 과도한 경쟁 구도에 대한 불안감 증대로 직업에 대한 고착화된 사고에서 벗어나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접목시킨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는 경우이다. 신중년의 일자리 가치관이 일을 통한 자존감의 고취나 삶의 가치 부여 등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해 그와 관련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게 된다.

3) 창직의 구현 형태

창직은 '개인의 창의적인 창직 역량을 통해 실현 가능하고 시장성을 갖춘 창직 활동으로 취업, 창업 및 프리랜서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 노동시장에서 직업을 영위하는 포괄적 활동'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창직과 창업을 혼돈스러워하는 사람이 많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적 변화로 새롭게 생겨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를 수행하는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게 된 것을 '창직'이라 한다. 반면 창업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조직이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창직은 일자리 시장에서 취업·창업·프리랜서 형태로 실현되며, 따라서 보편적으로 창직은 창업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여겨진다.

창직과 창업의 비교

구 분	창 직	창 업
핵심 요인	사람 중심	제품, 기술 중심
과업	새로운 직업 또는 직무를 만드는 일	조직 또는 시스템을 설립하는 행위
특징	- 제품 및 서비스보다 이를 수행하는 사람의 역량이 더 중요 - 사회적 수요가 강할수록 직업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중장기적 성격을 지님	-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 제품 및 서비스의 변화에 민감하고, 변동성이 높으며, 단기적 유행에 따라 생성 및 소멸됨
시장 원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관련 노동시장이 안정적이 됨	같은 일을 하는 창업자가 많을수록 불리함
구성 요소	지식, 기술, 능력, 흥미, 적성	자본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
가치관	직업적 가치를 중요시	수익 타당성 분석을 통한 이윤 추구

2. 창직의 실제 : 창직 유형 및 프로세스

창직을 보다 쉽게 이야기하면 '신직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취업이나 창업으로 일자리를 구하던 개념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직업을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일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기존 직무의 융·복합 혹은 세분화를 통해 직무를 새로 구현하는 일은 노동시장의 틀에 익숙한 신중년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창직을 준비하는 신중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창직의 기본 조건 및 유형, 프로세스, 창직 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창직의 기본 조건

(1) 참신성

창직을 하려면 먼저 기존 직업과의 차별성이 명확해야 한다. 신직업은 지식·스킬·능

력·작업 활동 등이 기존 작업과 다르며 기존 분류 체계에 반영되지 않는 직업이어야 한다(O*NET, 2006). 새로운 직업은 기존에 없는 직업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직업의 융·복합이나 직업의 세분화를 통해서 새로운 직업으로 명명될 수도 있다.

(2) 경제성

직업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시장 수요가 필요하다. 창직자가 창직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이 창출되고, 이 수익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창직은 직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업무 경쟁력이 있어야 하며, 시장 수요가 충분하거나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관련 노동을 제공하여 경제적 소득이 지속적으로 생길 수 있어야 한다.

(3) 현실성

창직 가능 직업은 시장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직업으로서 구현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창직자의 적성을 발휘하여 희망 분야에서 구현하고 지속할 수 있는 직무를 구축하여야 한다.

(4) 전문성

창직은 아이디어와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어떤 아이디어나 아이템과 관련하여 즉각적으로 모방하거나 변형하여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창직으로 볼 수 없다.

2) 창직 유형과 도출 방법

(1) 해외 직업 사례 벤치마킹

해외에서 발생하여 직업으로 자리 잡았으나 한국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은 직업을 도입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암환우 뷰티관리사 같은 직업은 일본에서 발생한 암 환우를 위한 전문 뷰티 서비스 직업을 한국에 도입한 사례이다.

(2) 직업 간의 융·복합

기존에 있던 두 개 이상의 직업을 융합해 새로운 직업을 생성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미술심리치료사 같은 경우, 미술 및 심리 분야의 직업과 학문이 결합하여 새로운 직업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3) 기존 직업의 세분화

새로운 수요에 따라 기존 직업의 분화 또는 전문화를 통해 직업이 새로 생성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장의사 및 반려동물사진사의 경우 반려동물 관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가 세분화되었으며, 이에 기존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던 서비스가 반려동물에게 적용되면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 것이다.

(4) 새로운 기술의 적용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기술의 적용으로 기존 직무를 대체하거나 고도화하여 기존에 충족되지 못했던 욕구를 구현함으로써 직업이 생기게 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증강현실 전문가를 보면 3D 모델링, VR 기술 등을 적용하여 게임, 비행기 조종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기반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새롭게 생겨났다.

(5) 사회적 트렌드

산업·문화·예술·종교 등 사회 전반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할랄전문가는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종교에 대한 자유와 존중을 기반으로 이슬람 문화인 할랄(halal)에 대한 전문 직업을 만들어 냈다.

창직 프로세스

1단계	희망 직무 설정	하고자 하는 직무가 현재 노동시장에서 직업으로 구현되지 않았는지 확인
2단계	직업명 작성	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명칭으로 작성
3단계	직무(하는 일) 제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과정에 대해 명료하게 서술하고, 여러 직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세부 직무별로 하는 일을 서술
4단계	근무 환경 설정	해당 직업 종사자가 일반적인 근무시간, 근무 형태, 근무 장소, 산업 안전 여건, 필요한 도구나 장비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의
5단계	요구 역량 제시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제시. 장기간 해당 직업에 종사할 때 초기 보유 역량에 추가하여 향후 보완할 역량도 기술. 해당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 있으면 그 내역도 제시 ※ 자격의 종류 Ⓐ **국가기술자격**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기술과 기능 분야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기술계 자격은 산업기사-기사-기술사 단계로 구성되고, 기능계 자격은 기능사-산업기사-기능장 단계로 구성됨. Ⓑ **국가전문자격** : 정부 부처의 개별 법률에 따라 주관하는 자격.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자격 제도, 국토교통부는 건축사,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관할 Ⓒ **공인민간자격** : 자격의 관리·운영 수준이 국가 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 자격 중에서 정부 부처의 장관이 공인한 자격을 의미
6단계	초기 진입 방안	창직으로 생겨난 신직업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로 구현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떻게 직업으로서 시장에 진입하고 안정화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전략을 도출

3) 창직 프로세스

창직에 관한 질문 중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창직 준비 과정 및 소요 기간에 관한 것이다. 생산성본부의 창직 교육 훈련 과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창직에 대한 이해 40시간, 자신의 아이디어와 사회 수요를 새로운 직업에 반영하여 점검하고 직무를 정의하는 데 60시간, 실제 구현된 신직업으로 초기 활동하는 데 100시간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교육 훈련을 위한 기본 과정으로 개인이 창직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준비 역량 등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준비 기간을 책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창직 프로세스는 희망 직무를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크게 6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며,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사례로 살펴보는 창직 과정

최근 새로운 직업적 수요로 창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창직을 통한 새로운 직업 아이디어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노동시장에서 직업으로 자리 잡아 안정화되기까지는 최소 5~6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이디어의 양에 비해 성공적 사례를 단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창직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이 주도적으로 창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로 안내하고자 한다.

<암환우 뷰티관리사 창직 사례>

유지영(2016년 청년아카데미 창직 과정 어워드 대상팀)

Q. 암환우 뷰티 관리사는 어떤 직업인가요?

A. 항암 치료로 남은 신체적 결함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직업입니다. 저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암센터, 전북지역암센터 등 국내 암센터와 협력하여 암 환우 외모 관리 프로그램 및 강연을 진행(암 환우 및 보호자에게 전반적인 뷰티 케어에 대한 지식 전달)하고 있고, 온라인 접수를 통해 일대일 암 환우 뷰티 관리 서비스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어떤 과정을 거쳐 창직을 하게 되었나요?

A. 원래 뷰티와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아 대학에서 미용 계열을 전공했습니다. 학교에서 포스터를 보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 과정'에 참가하게 되었고,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아이디어로 창직을 진행할까 고민하던 중 팀원의 어머니가 유방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원의 어머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창직을 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미용 계열이라는 전공을 접목하여 암 환우를 위한 전문 뷰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환우 뷰티관리사'라는 직업을 창직하는 프로젝트를 1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Q. 암환우 뷰티관리사가 기존 뷰티관리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암환우 뷰티관리사가 기존 뷰티관리사와 가장 차별화되는 특징은 '암 환우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에 있는 암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암 환우들을 만났는데, 암 환우들의 경우 염증 등의 문제로 일반적인 뷰티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 외모를 가꾸는 것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손톱 관리를 할 때 일반인들은 손톱깎이로 손톱을 깎고 손톱 아래에 있는 하얀 부분인 큐티클을 제거하고 미용을 위해 손톱을 연장할 수 있죠. 하지만 손톱이 약한 암 환우들은 손톱깎이 대신 네일 파일을 사용해야 하고, 세균 번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손톱 아래에 있는 큐티클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도구나 방법 역시 사용할 수 없고 미용 목적이 아닌 보강 목적으로만 손톱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 환우들에게는 각 증상에 따른 별도의 방법과 재료로 시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인터뷰를 통해 암 환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암 환우들의 요구에 맞춘 뷰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환우 뷰티관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길 연구가 창직 사례*>

김성주(아름다운 길 연구가)

Q. 아름다운 길 연구가는 어떤 직업인가요?

A. 단순히 길에 대한 지식을 설명하고 보여 주는 것을 넘어 아름다운 길을 걷고 향유하면서 길에 얽힌 인문학적, 철학적 스토리를 설명하는 길 전문 여행 가이드입니다.

Q. 어떤 과정을 거쳐 창직을 하게 되었나요?

A.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고시 공부를 오랫동안 해 오다 한 법무법인에 취업했습니다. 소송 관련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을 오가며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그냥 저의 삶이 되어 버린 어느 날, 변화경영연구소 '꿈벗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 내가 원래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남도 여행을 비롯해 여러 여행을 직접 기획하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숨은 진주를 발굴하고, 음식을 찾고, 스토리를 입히는 일련의 과정에서 심장이 뛰는 벅참을 느꼈고 진정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은 희열을 맛보았습니다. 결국 2008년에 다니던 법무법인을 그만두고 본격적인 여행 전문가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Q. 아름다운 길 연구가가 기존 여행 가이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답사를 하고 해설을 해 주는 여행 가이드는 많이 있지만 '길'을 테마로, 그 길에 인문학을 입히는 여행 가이드는 없었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차별점을 부각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와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숨어 있는 아름다운 길을 찾아 전국을 다니며 답사하고, 숲과 생태를 비롯해 문학, 인문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3,000편 이상의 영화를 보며 길에 대한 스토리를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했습니다. 최근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소규모 여행, 콘텐츠와 스토리가 있는 여행, 도보 여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 후루룩 훑고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길 위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쉬어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들 역시 그런 부분에 갈증을 느꼈던 분들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분들과 함께 서울을 비롯해 전국 방방곡곡 '길'을 탐방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행 인문학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 길의 아름다움과 이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인생의 해법을 함께 공유하는 일도 하며 기존 여행 상품에서 느낄 수 없는 만족감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름다운 길 연구가 창직 사례'는 한국고용정보원(2015)에서 발간한 <2016 우리들의 직업 만들기>에 수록된 아름다운 길 연구가 인터뷰 기사를 요약·발췌한 것임

[참조] 분야별 창직 직종 예시

4차 산업혁명(신기술) 관련 분야	여행·관광 분야
사물인터넷전문가, 핀테크전문가, 증강현실전문가, 홀로그램전문가, 인공지능전문가, 빅데이터전문가, 감성인식기술전문가, 사이버평판관리자, 디지털장의사, 자동차튜닝엔지니어, 로봇컨설턴트, 디지털융합마케터	장애인여행코디네이터, 시니어여행플래너, 도시농장피크닉디렉터, 이색여행개발자
의료 서비스 분야	**교육·컨설팅 분야**
원격진료코디네이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병원아동생활전문가, 의료컨시어지, 메디컬빅데이터전문가, 의료기기소프트웨어개발자, 임상엔지니어, 3D 메디컬 모델러	청소년패션에듀케이터, 과학커뮤니케이터, 사회적기업컨설턴트, 기업프로파일러, 지속가능경영전문가, 신사업아이디어컨설턴트, 협동조합코디네이터, 전직지원전문가, 노년플래너, 생활코치
안전 관리 분야	**주거·공간 분야**
화학물질안전관리사, 연구실안전전문가, 영유아안전장치설치원, 범죄예방환경전문가, 보안인증심사원	주변환경정리전문가, 공간코디네이터, 공간스토리텔러, 가정에코컨설턴트, 매매주택연출가, 주거복지사, 주택진단사, 녹색건축전문가, 도시재생전문가
농·어업 관련 분야	**복지·생활·여가 서비스 분야**
스마트팜기획자, 정밀농업기술자, 농촌비즈니스코디네이터, 바다해설사, 농산물디자이너	할랄전문가, 이혼상담사, 문화여가사, 임신출산육아전문가, 분쟁조정사, 산림치유지도사, 그린장례지도사, 소비생활어드바이저, 시니어여가생활매니저, 감정노동치유사, 아동진술분석관, 치매전문관리사, 베이비플래너, 건강식품코디네이터, 장난감컨설턴트, 수면컨설턴트
반려동물 관련 분야	**기타 분야**
동물간호사, 애완동물행동상담원, 애견식품코디네이터, 애완동물탐정, 반려동물사진사, 반려동물장례사	소셜미디어전문가, 케이팝번역가, 스마트의류개발자, 평판관리전문가, 스토리에이전트, 개인브랜드개발자, 스마트웹툰기획자, 창작자에이전트, 막걸리브루마스터

3. 창직 지원 기관

'창직' 혹은 '신직업'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지원 사업 및 양성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창의적 아이디어', '창의적 창업'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창업과 다른 창직적 접근으로서의 지원 사업이 늘고 있으며, 직업교육 훈련 현장에서도 드론지도사 양성과 같은 새로운 직업인을 양성하려는 교육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 창직만을 위한 전문 양성 기관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중년이 창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공공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경력 개발 프로그램 및 커리어 컨설팅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창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창직 준비 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창직 지원 기관을 안내하고자 한다.

(1) 서울산업진흥원 신직업 지원 과정

서울산업진흥원은 2015년부터 신직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신직업인재센터를 운영하여 미래를 여는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신직업, 신역량을 조사하고 발굴하여 표준화된 정의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하여 필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 자세한 세부 지원 사항은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ba.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년층 사회 참여 활동 지원 기관이다. 장년층의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새로운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사회 공헌 일자리, 앙코르 일자리 등 50+세대가 자신의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 공헌의 '가치' 와 '일자리'를 연계하여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3섹터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등 신직업을 테마로 한 양성 과정도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50플러스재단 홈페이지(50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제주시 지역주민 행복드림 JOB 사업단

제주도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인 창업과 창직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사업체를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창직 관련 교육, 창직 아이디어를 직업화하는 컨설팅, 창직 직무 분석과 실시 설계, 경영 진단, 홍보 지원 등과 같은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www.jobdrea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조> 창직 정보서 안내

사회적으로 창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정보서도 발간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베이비부머에게 적합한 신직업을 소개하는 <인생 2막, 새로운 도전>, 중장년층을 위한 창직 정보를 담은 <2016 우리들의 직업 만들기>, 정부 육성 신직업 및 민간 시장의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하는 <미래를 함께 할 새로운 직업> 책자를 발간했다. 서울산업진흥원에서도 4차 산업의 키워드인 기술과 혁신, 창의와 비즈니스, 인간과 행복 세 가지 관점에서 발굴한 신직업을 소개하는 <미래를 여는 새로운 직업>을 발간했다. 각각의 발간물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와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ba.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들의 직업 만들기
(한국고용정보원)

미래를 함께 할 새로운 직업
(한국고용정보원)

인생 2막, 새로운 도전
(한국고용정보원)

미래를 여는 새로운 직업
(서울산업진흥원)

창직, 이것이 궁금하다!

실전 Q&A

창직 관련 상담 및 교육 진행 시 내담자 및 교육생에게 많이 받는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응답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했다. 상담원은 본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의 키워드를 살펴볼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단의 본문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Q1. 창직이 뭐예요?

- 신직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 직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노동시장에 존재하지 않지만 수요가 늘고 있는 일거리를 파악하고 직업화하는 과정
- 취업이나 창업으로 일자리를 구하던 개념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직업을 만들어 나가는 개념. 공감을 바탕으로 시장이나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기존 직업과 다른 새로운 직무를 더해서 제공하여 지속적이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

Q2. 창직과 창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 직무를 통해 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창업과 창직의 공통점. 그러나 창업은 개인이 특별한 사업 영역과 사업 아이템으로 직접 고객과 만나는 방식이고, 창직은 그 이전에 직무 자체를 개발하는 과정이므로 창직과 창업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창직은 직무를 개발하여 그 직무를 통해 취업, 창업,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음. 창업은 창직한 직무로도 할 수 있지만, 창업자는 개발한 직무 외에도 영업, 계약, 행정, 마케팅 등 다양한 기존 직무를 추가로 하게 되거나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추가로 고용하게 됨

Q3. 창직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 신직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산업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
- 경력 개발 로드맵을 정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미래 경력 설계에 맞춘 필요 역량을 보완하여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 기업은 직무 혁신 계획을 세워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정립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됨
- 신중년들에게는 가치를 전환하는 기준을 찾을 수 있으며, 미래 역량 축적에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게 됨
- 창직한 신직업이 안착되어 종사자 수가 늘어나면 관련 자격을 심의하거나 학습 모듈을 작성할 때 직무 이해도가 높은 창직자들이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게 됨

Q4. 창직을 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창직 프로세스는 발굴 및 조사→직무 정의→공유 및 확산으로 이뤄짐
  - 발굴 및 조사는 해외 사례, 기업 현장 인력 수요, 기술 동향, 빅데이터 분석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노동 수요 현장을 파악하는 과정임
  - 직무 정의는 새로 정의할 직무가 직업의 4대 조건에 맞는지, 경제적·지속성·사회성·윤리성 등을 점검하고, 기존 직업과의 연관성을 살펴 확정하는 과정임
  - 공유 및 확산은 신직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 새로운 직무 수요를 반영하려는 기업, 사회적 요구로 관련 정보를 찾는 사람들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안착할 수 있도록 알리는 과정임

Q5. 창직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 개인이 창직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 준비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나, 한국생산성본부의 창직 교육 훈련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창직에 대한 이해 40시간, 자신의 아이디어와 사회 수요를 새로운 직업에 반영하여 점검하고 직무를 정의하는 데 60시간, 실제 구현된 신직업으로 초기 활동하는 데 10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Q6. 창직을 잘하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요?

- 일의 개념 확장하기: 기존 직무의 융·복합 혹은 세분화를 통해 직무를 새로 구현하는 작업은 콘셉트 잡기가 중요함
- 일자리 방향 찾기: 새로 정의된 직무를 산업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네트워킹의 구축이 중요함
-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주변에서 지원해 줄 든든한 배경을 이해하고 소득을 가져다줄 고객과 시장에 대해 공감해서 창의적이고 적절한 직무를 만들어 내려는 끈기
- 창직을 통해 일자리를 가지겠다는 강한 목표의식과 동기

Q7. 창직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 창직 프로세스에서는 자신의 희망 직업이 어떤 직무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과 관련 영역의 새로운 동향 등의 자료 수집으로 시작하여 아이디어를 실제 구체화하는 아이디에이션이 초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음

Q8. 내가 가진 능력을 활용해서 창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신이 보유한 역량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는지 본인의 희망 직업을 구체화하는 것에서 시작하여야 함. 보유 역량이 관심과 흥미에 연결될 수 있어야 지속성 있는 일로 장기간 종사할 수 있게 되며, 향후 직업인으로서 추가적으로 역량을 보완할 때 효율적으로 교육·훈련이 이뤄질 수 있음

Q9. 창직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현재 서울산업진흥원의 신직업 지원 사업 및 제주시의 지역주민행복드림JOB사업단 등에서 창직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서울산업진흥원: www.sba.seoul.kr
  - 제주시: www.jobdream.co
- 아직 창직만을 위한 전문 양성 기관 등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중년 스스로 창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공공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경력 개발 프로그램 및 커리어 컨설팅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창직 역량을 개발 가능

<참고 문헌>

한국고용정보원(2013), <2014 우리들의 직업 이야기>
한국고용정보원(2014), <2015 우리들의 직업 이야기>
한국고용정보원(2015), <2016 우리들의 직업 이야기>
한국고용정보원(2017), <2017 미래를 함께 할 새로운 직업>
한국고용정보원(2016), <2017 한국 직업 전망>
서울산업진흥원(2017), <미래를 여는 새로운 직업>

<참고 사이트>

워크넷 www.work.go.kr
서울산업진흥원 www.sba.seoul.kr
제주시 주민행복드림JOB프로젝트 www.jobdream.co
서울시 50플러스재단 www.50plus.or.kr

제 6장

사회 공헌으로, 일의 가치를 바꾸다

1. 사회 공헌 일자리의 개념과 현황
2. 신중년 사회 공헌 일자리 지원을 위한 가이드
3. 신중년 사회 공헌 일자리 경력 개발 사례
4. 사회 공헌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사업

Tip

신중년 사회 공헌 일자리 스토리

한국 경제의 성장과 위기의 아픔을 모두 경험하며 우리 사회의 중심축으로서 활약해 온 신중년은, 평균수명 증가 등으로 생애 주기 자체가 길어짐에 따라 이제 아래로는 청년층, 위로는 노년층과의 일자리 나눔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끼인 세대'가 되었다.

보건복지부의 「노후 준비 진단지표(2014)」를 통해 국내 35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남녀 3,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은퇴 후 삶의 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봉사 활동 등 사회 기여 활동(30%)을 희망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에 이어 창업(29%), 재취업(19%)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2015). 대부분의 신중년이 '소득'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에게 기존에 활약해 온 일반적 경제활동 분야에서의 단순 고용 연장이나, 다른 세대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생계형 일자리 분야보다 처우와 근무 조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점을 덜 두더라도 '소속감'과 '보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의 경력 개발과 경력 전환이 새로운 관심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분야로 눈을 돌려 자신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신중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신중년 당사자들의 욕구라는 측면에서 한 발짝 떨어져, 우리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어떠할까? 신중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이 세대가 그간의 사회 경험을 통해 쌓아 온 경력과 연륜, 전문성(역량), 네트워크 등 그 자체로 사장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회·경제적 자원임을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노동력이 사회적으로 사장됨으로써 취약 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경우의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는 측면까지 고려할 때, 신중년의 사회 활동은 경제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영역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기에 신중년이 보람을 느끼면서도 잘할 수 있는, 또는 그들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영역에서 사회 참여 활동이 지속된다면 신중년 당사자의 경제적 욕구 및 자아실현 측면과 사회·경제적 자원의 보존이라는 측면을 모두 만족시키는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

본 장에서는 신중년의 경력 개발이 주목되는 분야 중 '사회 공헌'에서 이들의 일에 대한 욕구 중 '보람' 욕구에 주안점을 두고 '사회 공헌 일자리'에 대하여 폭넓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 공헌 일자리의 개념과 현황

대기업, 공무원 등 수십 년 동안 주된 일자리에서 경제력과 사회 경험을 축적한 신중년, 이들의 '일'에 대한 욕구는 생계유지의 목적보다 '의미 있는 삶'과 '보람'을 갈구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대상자들에게는 사회 공헌 일자리 또는 활동이 자기만족감과 성취감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만족스러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이루어지는 진출 시도는 신중년에게 어려움과 좌절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 공헌 일자리'에 대한 개념과 하위 유형, 특성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우선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사회 공헌 일자리가 무엇인지, 또한 사회 공헌 일자리에는 어떤 유형이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사회 공헌 일자리의 개념

시사경제용어사전(대한민국정부_기획재정부, 2010)은 사회 공헌 일자리를 "금전적 보상은 적지만 자기만족과 성취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봉사적 성격의 일자리로 생계보다는 사회 공헌에 관심이 많은 유휴 인력이 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공헌 일자리는 이러한 사전적 개념의 범주를 뛰어넘어 소득 창출의 의미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생계형 일자리와는 달리,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 공헌, 나눔 등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일과 활동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확장하여 일과 활동의 범위를 취미·여가, 자원봉사, 공헌형 일자리, 혼합형 일자리, 생계형 일자리로 구분한다고 했을 때, 광의(廣義)의 사회 공헌 일자리는 크게 ① 자원봉사, ② 공헌형 일자리, ③ 혼합형 일자리까지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으며 유형별 주요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8).

사회 공헌 일자리의 유형과 특성

구분	목적 및 특성	소득 정도	세부 유형(예시)
취미·여가	- 스트레스 해소, 휴식, 즐기기 위한 활동 - 경제활동 이외의 것	- 무보수	- 운동(스포츠) - 여행, 감상, 수집, 창작 활동 등
자원봉사	- 사회·국가·인류 등을 위한 자발적 시간과 노력 제공	- 무보수(교통비 등 극히 제한적 보상)	- 노력 봉사 - 재능 기부 - 프로보노 등
공헌형 일자리	- 공익(사회적) 목적 - 정부 및 지자체 주도형 정책	- 실비 변상적 수준 - 최저임금 수준	- 정부 및 지자체 주도형 공익 목적 일자리 사업 등
혼합형 일자리	- 공익+수입 목적 - 기존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 - 시장 수요와 공급 기반	- 생계형 일자리에 비하여 그 수준이 낮을 수 있음	- 민간 CSV 일자리 (대기업 주도) - 인턴십, 제3섹터 분야 창직·창업 등
생계형 일자리	- 수입(생계)이 주목적	- 최저임금 수준 또는 그 이상	- 취업, 자영업 등

[표주] 붉은 테두리 안에 있는 셀은 광의의 사회 공헌 일자리를 의미함
[출처] 서울시 50플러스재단(2018), 서울시 50플러스재단 50+일자리 사업 소개 자료

2) 사회 공헌 일자리 유형

(1) 자원봉사: 사회적 의미의 삶과 소속감을 찾아요.

'자원봉사'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1365 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로 개념화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1365 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 자발성이란 자신의 의사로서 시간과 재능, 경험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활동한다는 것과

관련되며, 무보수성은 경제적 보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음을 의미하고, 공익성은 이웃과 지역사회 내에 산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활동하는 것과 관련된 특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는 다시 노력 봉사, 재능 기부(재능 나눔), 프로보노(Pro Bono)로 유형화할 수 있다. 우선 노력 봉사는 봉사자의 신체 활동, 노동력을 대가 없이 제공하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원봉사는 대부분 노력 봉사를 의미한다. 이러한 노력 봉사에는 신체 활동(노동력 제공)을 기반으로 하는 봉사 유형 중 청소, 운반, 대화, 심부름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재능 기부(재능 나눔)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이 가진 재능을, 재능을 소유한 주체의 이익 추구 목적이 아닌 사회 공헌의 목적으로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봉사 활동이다. 이·미용, 요리, 의료, 학습, 통·번역, 상담, 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프로보노는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 for the public good)'라는 뜻의 라틴어 약어로, 주로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자발적이고 대가 없이 공공(사회)을 위해 봉사(public service)하는 일을 표현한다. 재능 기부가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든 활동인 데 반해, 프로보노는 자신의 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수혜받는 기관의 문제 해결뿐 아니라 기관의 역량을 강화시켜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쉽게 말하면, 프로보노는 '전문가의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세무사, 웹디자이너, 홍보 회사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기술을 쌓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원봉사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복지시설의 아동에게 무료 축구 수업을 제공하는 것은 '재능 기부'라고 본다면, 복지시설의 법률 분쟁 해결을 위해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프로보노'가 된다. 대표적인 프로보노 활동은 경영 자문 및 멘토링, 교육·워크숍·세미나, 온라인 자문, 파견 근무 등으로 나타난다. 프로보노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운영 사례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중소기업경영자문단' 활동,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회적 기업 멘토링 지원 사업', '삼정KPMG'의 회계·세무·컨설팅 분야 교육 및 자문 제공 활동,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인사·노무 분야 교육 상담의 날' 운영 사례 등이 있다(사회적기업진흥원 www.socialenterprise.or.kr).

(2) 공헌형 일자리: 적은 소득이지만 보람을 느껴요.

공헌형 일자리는 신중년의 사회적 경험과 연륜,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공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적지만 일정량의 소득을 기대할 수도 있다. 공헌형 일자리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형으로, 대부분 1년 단위 사업으로 운영된다. 또한 풀타임 근무 형태(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는 비정형적 또는 시간 선택제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공헌형 일자리는 크게 중앙정부 주도형 일자리와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일자리로 유형화될 수 있다. 중앙정부 주도형 일자리는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의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 사업으로 시행 중이며,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일자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천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운영 중인 주요 일자리는 아래 표와 같다.

<유형별 주요 공헌형 일자리>

구 분		설 명	분 야	참여 대상	소득 (활동비)	시행처
중앙 정부 주도형	사회 공헌 활동 지원	퇴직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 사회적 기업·비영리 분야의 사회 참여 활동 지원	참여 기관의 경영 능력 제고 및 공익 등의 목적 관련 업무 분야 (경영, 마케팅, 인사·노무 등)	만 50세 이상의 퇴직 전문 인력	참여 수당 2,000원/시간 (교통비, 식비 별도)	고용 노동부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일정한 소양을 갖춘 여성 어르신이 유아교육기관에서 활동	민족문화 전승 등을 위한 선현 미담 등 세대 간 정서 소통	만 56~70세 여성	교통비 및 식비	문화 체육 관광부
	공익형 노인 일자리	노인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 참여 활동 지원	노노 케어, 취약 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 전수 분야 활동 등	만 6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	27만 원/월	보건 복지부
	재능 나눔형 노인 일자리	재능 보유 어르신의 사회 참여 활동 지원	안전 예방, 상담, 학습지도 등	만 65세 이상	54만~60만 원/월	보건 복지부

구 분		설 명	분 야	참여 대상	소득 (활동비)	시행처
지방 자치 단체 주도형	서울시 50+보람 일자리	50+세대의 전문성, 경력 등을 활용한 사회 공헌 활동 참여 기회 지원	사회 서비스, 마을, 세대 통합, 사회적 경제, 50+ 당사자 지원	만 50~67세 서울시민	52만 원/월	서울 특별시
	남동형 사회 공헌 일자리 사업(보람 일자리)	중장년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공익 서비스를 제공	복지 서비스	만 50~67세 남동구 거주자	53만 원/월	인천 광역시 남동구청
	사회 공헌 프로그램	사회적 경험과 인적자원을 활용한 사회 공헌 활동	거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 정리수납코디네이터	만 50~64세 부천시민	소정 활동비	경기도 부천시
	이음 일자리	신중년 인생 2모작과 지역사회를 잇는 사회 공헌 일자리 사업	오름매니저, 도서관사서, 버스킹 공연단 등	만 50~70세 이하 제주도민	45만 원/월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J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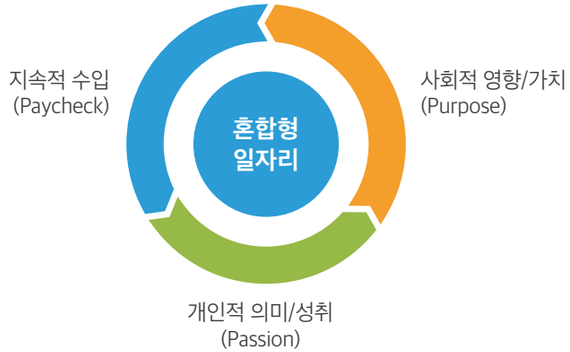
[표주] 상기 내용은 2018년도 기준으로 작성되어 정책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혼합형 일자리: 사회적 의미와 적정한 소득,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요.

혼합형 일자리는 신중년의 인생 후반에 할 수 있는 새로운 '일' 모델로서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영향과 가치, 그리고 지속적이고 적정한 수익을 만족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Marc Freedman, 2007). 적정한 소득 창출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지향하는 일자리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인턴십(Internship)', '창업' 등의 개념을 제3섹터(비영리(NPO), 사회적 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 CSV 등) 영역에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심화. 제3섹터 이해하기(207page)' 참고).

혼합형 일자리는 정부 및 지자체, 혼합형 일자리 분야별 중간 지원 조직, 기업 및 민간단체 등이 주도하여 마련된다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지속적 수입, 개인적 의미, 사회적 영향(가치)을 모두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데서 다른 유형의 사회 공헌 일자리와 차별화되며, 기존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되 전직 및 창업·창직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특성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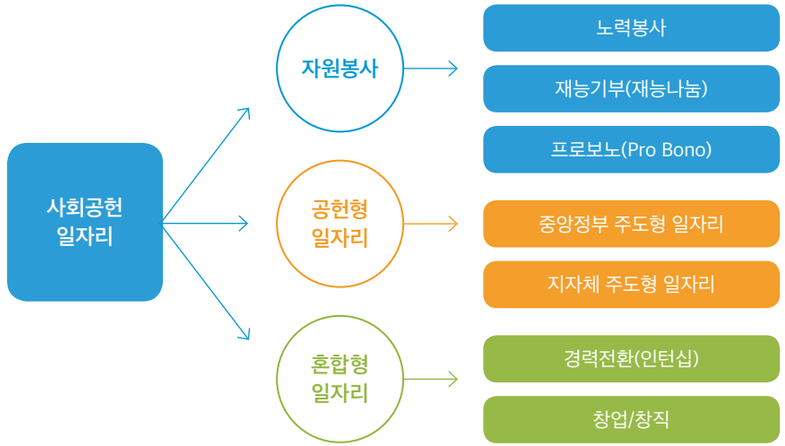
혼합형 일자리의 개념



혼합형 일자리는 크게 경력 전환(인턴십) 유형과 창업·창직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경력 전환(인턴십) 유형은 퇴직 이후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등 지금까지 신중년들이 종사해 온 것과는 조금 다른 유형의 단체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턴'으로서 근무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 유형이 단순 재취업과 다른 점은, 기존의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새로운 기업 환경, 새로운 지위에서 펼쳐 보여야 한다는 부분이다. Intel사와 Encore.org라는 비영리단체가 협력하여 운영한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Intel사의 기업 내 퇴직 예정자들이 6~12개월간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현장 근무를 체험한 뒤 실제 퇴직 이후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했던 영역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개척해 나간 것이다. 실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Intel사의 퇴직자들은 높은 만족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정리하면, 신중년과 같은 사회적 경험과 연륜, 전문성을 보유한 세대를 전문성이 필요한 인재를 찾는 사회 목적 기관에 연결하는 형태의 경력 개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앙코르펠로십(Encore Fellowship)(이종수, 2009)이라고도 칭한다.

두 번째 유형은 창업·창직이다. 여기서의 창업·창직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영업'이라고 칭하는 생계형 목적의 창업이 아닌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혼합형 일자리 분야의 창업·창직은 비영리 조직,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구현된다.

사회 공헌 일자리 분류



혼합형 일자리 '창업·창직'의 주요 유형

비영리조직 (NPO:non profit organization)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와 유사한 개념 공공 목적에 봉사하는 정부와 기업 이외의 자발적 비영리단체
소셜벤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가가 설립한 기업 또는 조직 사업 영역이 아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다는 측면에서 벤처기업의 성격이 있지만 공익 달성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
사회적기업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 조직으로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 사업 종류에 제한이 없음 (단, 금융 및 보험 제외)

[참조] 김혜원, 박찬임(2009). 제3섹터 부문의 고용창출 실증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황선일(2017). 소셜 벤처로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례연구. 벤처창업연구
고광철(2017).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이트(www.socialenterprise.o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사이트(www.coop.go.kr)

▶ 심화 섹션 : '혼합형 일자리'의 주 무대가 되는 제3섹터 이해하기

▶ 제3섹터란 무엇인가?

- '제3섹터'는 '고용 없는 성장' 또는 '고용 기근'이라는 21세기 현실에서 새로운 고용 창출 잠재력을 가진 주체로 주목(태원유, 2009)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NPO 등 제3섹터는 사회 공헌과 함께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 창출의 거대한 보고(이종수, 2009)라 평하고 있음
- 제1섹터(1st sector)인 공공 부문과 제2섹터(2nd sector)인 민간 부문의 공통 영역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본래 제3섹터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제3의 대안적 부문을 일컫는 말이었으나(한국노동연구원, 2009), 협동조합(co-operatives)이 중심인 유럽식의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나 비영리 조직(nonprofit organization)이 중심인 미국식 비영리 부문(nonprofit sector) 등을 의미(한국경제신문, 2017)하는 것으로 변화하였음

  ※ 본 가이드에서는, 신중년의 경력 개발 범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3섹터를 보다 포괄적인 범위로 명명하고 사회적 경제, 비영리 조직과 더불어 지역사회(커뮤니티 비즈니스), 민간 기업의 CSV 영역 등까지 포괄하여 설명함

<제3섹터 영역별 개념과 신중년 일자리 사례>

구분	정의 및 주요 특성	운영 사례 (프로그램 운영 사례 및 혼합형 사례)
비영리 (NPO)	• NGO와 유사한 개념으로, 공공 목적에 봉사하는 정부와 기업 이외의 자발적 비영리단체를 말함 • 주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며, 일반적으로는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와 혼용됨 • 국가와 시장 부문으로부터 분리된 국제적·국내적 모든 자발적 민간 부문을 지칭	▶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NPO펠로우십 • 50+NPO펠로우십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필요로 하는 비영리 조직과 신중년을 연결하여 일정기간 비영리 조직에서 재무·회계·홍보·사무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경험하는 신중년 인턴십 프로그램 • 신중년에게는 비영리 영역과 조직에 대해 이해하고 비영리 조직의 실무자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비영리 조직에게는 신중년의 역량을 파악하고 구성원으로서 평가하는 동시에 호흡을 맞추는 기회로 활용

구분	정의 및 주요 특성	운영 사례 (프로그램 운영 사례 및 혼합형 사례)
사회적 경제	•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상호 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등이 있음	▶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아름다운가게 뷰티풀펠로우 • 지속 가능,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보유자, 조직원의 성장과 변화를 돕는 자 등 사회 혁신 리더를 선발하여 아름다운가게를 비롯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 신중년에게는 비영리 영역과 조직에 대해 이해하고 비영리 조직의 실무자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비영리 조직에게는 신중년의 역량을 파악하고 구성원으로서 평가하는 동시에 호흡을 맞추는 기회로 활용 ▶ 혼합형 일자리(창업) 사례 □ 에버영 코리아 • 시니어 고용의 새로운 시장 확대, 시니어의 사회적 역할 확산을 위한 조석을 마련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시니어 인력을 활용하여 IT 분야의 각종 콘텐츠 모니터링 등의 사업 추진
커뮤니티 (지역 사회, 지역 경제) 비즈니스	•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를 통해 해결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시키는 지역 자활 프로그램으로 이미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어 있음 •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유형 - 도시 공공형 : 환경 분야, 육아 지원 서비스, 취업 지원 서비스 등 - 농촌 공공형 :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인 간병, 장애인 및 외국인 등 복지 - 지역 사업 진흥형 : 지역 산업을 통한 취업 기회 창출, 지역 이벤트, 상업 시설 등 - 지역 자원 활용형 : 지역 특산품, 문화 자원 자연조건 등 활용 분야	▶ 혼합형 일자리(창업) 사례 □ 번내 태양광발전주식회사 • 반농반어 마을 화순리 마을 소유의 땅이 도로에 편입되며 받은 20억 원가량의 보상금을 마을 공동 소득 사업으로 추진해 보자는 마을 공동의 논의에서 시작 •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위해 (사)화순리마을회를 설립, 이후 마을회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번내 태양광발전주식회사 출범 □ 일본 나가레야마 YOU·I 네트 • 지역사회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간병보험 사업으로 회원 전원이 서비스의 제공자이자 수혜자가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 • 사무국 멤버가 기업 OB인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풍부한 사회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충분히 활용한 성공 사례

구분	정의 및 주요 특성	운영 사례 (프로그램 운영 사례 및 혼합형 사례)
공유가치 창출 (CSV: Creating Sahred Value)	• 경제·사회적 여건을 개선시키면서 동시에 사업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업 정책 및 경영 활동으로 엄밀히 말하면 제3섹터라고 볼 수는 없으나 나누는 가치,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기업 자체가 사회적 경제에 뛰어들었다는 측면에서 광의의 제3섹터에 포함 가능	▶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유니레버(Unilever)의 Joyeeta 프로젝트 • 홍수로 논밭을 잃은 방글라데시 주부들을 제품 방문 판매원으로 고용, 삶의 질이 향상된 주민들이 유니레버의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매출 신장 □ GE의 에코메지네이션 •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로 수익을 올리면서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전략으로 2010년 180억 달러 매출 달성 □ 네이버의 에버영코리아 협업 프로젝트 • 지도 모자이크, 이미지 및 영상 콘텐츠, 쇼핑 모니터링, 게시 중단 서비스 등의 콘텐츠 운영 사업을 에버영코리아와의 협업하며 시니어 인력을 고용하여 공유 가치 창출

[참조] 김혜원, 박찬임(2009), 제3섹터 부문의 고용 창출 실증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종수(2009),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손유미(2010),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창출과 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용규(2009),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지역경제 활성화, 삼성경제연구소
농민신문(2009.2.9.), 부자 마을을 꿈꾼다 ④제주 서귀포 안덕면 화순리
김주환(2012), 공유 가치 창출(CSV)의 개념과 사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 신중년 사회 공헌 일자리 지원을 위한 가이드

은퇴 후 새로운 삶의 의미 추구 경향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많은 신중년이 전통적 의미의 '재취업'보다는 새로운 경력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전통적 경력 경로로의 취업의 대안으로 사회 공헌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분야로의 경력 설계를 고려하는 신중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일자리 분야인 만큼 이 분야 일자리의 특성과 자신의 욕구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경우, 진출 과정과 진출 이후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에 신중년에게 사회 공헌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고 이후 경로를 안내하는 컨설턴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바, 본 장에서는 사회 공헌 일자리로의 경력 설계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계별 가이드를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1) 1단계 : 욕구 파악

우선 내담자의 인생 2막 경력 경로의 설계를 돕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욕구를 파악해야 한다. 신중년이 기대하는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크게 '소득'과 '보람(사회 목적 의식 및 봉사 마인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생계형 일자리와 사회 공헌형 일자리(자원봉사, 공헌형 일자리, 혼합형 일자리)로 설계방향을 달리하여야 한다. 욕구에 따라 적합한 일자리 유형이 다르며, 이는 이후 설계되는 경력 경로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방향에도 차이를 가져오므로 욕구파악은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다음에 제시되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신중년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

Tip : 사회 공헌 일자리에 대한 욕구 파악을 위한 체크리스트

- 5개 문항을 통해 '사회 공헌 일자리'에 대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파악
- 개인의 정도에 따라 종합적 판단이 요구되기는 하나, 4개 문항 중 3~4개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 '사회 공헌 일자리' 욕구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할 것을 권장

질 문	check (그렇다 O)
사회 경험과 경력을 활용하는 활동을 하고 싶다.	
사회 활동을 통해 의미를 찾고 싶다.	
경제적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선행되어 있다.	
안정적인 업무보다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업무를 하고 싶다.	

2) 2단계 : 경험(역량), 이해도 파악

욕구 파악을 통해 사회 공헌 일자리로의 진출을 결정했다면, 그다음은 대상 신중년의 사회 공헌 일자리에 대한 경험(역량), 이해도를 파악해야 한다. 공익, 사회적 목적에 관한 이해가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교육 또는 자원봉사로의 진입을 추천할지, 일자리로의 진입을 추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Tip : 경험(역량), 이해도 파악을 위한 체크리스트

- 5개 문항을 통해 신중년 당사자의 '사회 공헌 일자리'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를 효과적으로 파악
- 개인의 정도에 따라 종합적 판단이 요구되기는 하나, 5개 문항 중 1~3개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 교육 또는 자원봉사를 통한 해당 분야의 경험 쌓기, 4~5개에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 사회 공헌 일자리로의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권장
- 다만 '욕구 파악' 때와는 달리 체크리스트에 대한 경험(역량)과 이해도 여부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우회적으로 판단해야 함

질 문	check (그렇다 O)
자원봉사 경험이 풍부하다.	
자원봉사, 제3섹터, 인식 전환 등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다.	
진입하려는 사회 공헌 일자리의 유형,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	
상대적으로 영세하거나, 체계적이지 않거나, 급변할 수 있는 업무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	
다양한 세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가능하다.	

3) 3단계 : 경로 설계

신중년의 욕구(1단계)와 이들의 사회 공헌 일자리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2단계)가 파악되었다면, 이에 따라서 교육, 자원봉사, 공헌형 일자리, 혼합형 일자리로의 경력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한다. '사회 공헌 일자리' 경력 경로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원 사업, 프로그램, 단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신중년 개인에게 '사회 공헌 일자리'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생계형 일자리' 설계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컨설턴트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컨설턴트는 사회 공헌 일자리 설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신중년이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력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사회적 공헌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사업, 단체에 대한 정보는 본 장의 6-4에서 제공하므로 이를 참조)

사회 공헌 일자리 경력 설계 상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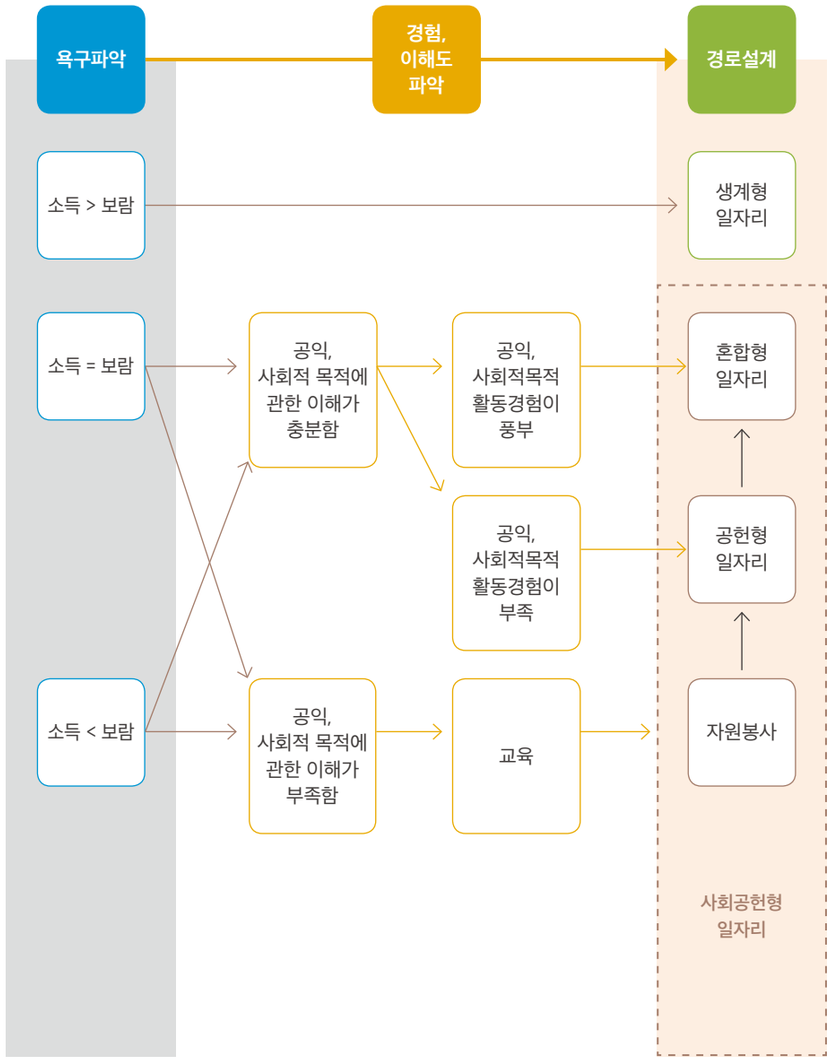
사회 공헌 일자리로의 경력 설계, 단계별로 접근해 주세요.

사회 공헌 일자리로의 바람직한 경력 설계를 위해서는 '신중년 당사자의 사회 공헌 욕구 확인→경험과 이해도 파악→경로 설계(자원봉사, 공헌형 일자리, 혼합형 일자리)'의 단계별 접근이 효율적입니다.

사회 공헌 일자리로의 성공적 경력 전환, 일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사회적 공헌 일자리'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사회 내에서 생소하고, 실제로 이와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도 이제 첫발을 내딛는 단계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신중년 당사자의 경력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경력개발 상담구조도



3. 신중년 사회 공헌 일자리 경력 개발 사례

아직은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신중년의 사회 공헌 일자리 분야 경력 개발의 개념과 유형,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사회 공헌 일자리 경력 경로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막연히 이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신중년에게 보다 효과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1) 자원봉사 활동 사례

● **자원봉사 point**

- 사회, 국가, 인류 등을 위한 자발적 시간과 노력 제공
- 무보수(교통비 등 극히 제한적 보상)
- 유형 : 노력 봉사, 재능 기부, 프로보노 등
- 자원봉사는 신중년이 사회 공헌 분야를 이해하고 이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향후 '공헌형 일자리', '혼합형 일자리'로의 경력 전환 시 사회 공헌 분야의 경력 디딤돌 기능도 함

"시간을 내 틈틈이 해 온 자원봉사, 공헌형 일자리 참여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선생님과 학원 강사 등으로 7년간 근무했던 C씨는 결혼 및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C씨는 주부로서 가족을 돌보고 가사 업무에 매진하면서 20여 년간 꾸준히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해 왔다. 그러면서 C씨는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넓혀 나갔다. 그렇게 지역사회 내 각종 위원회 및 자치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주변으로부터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제의받았다. 지역 내 장애인 재활 시설, 복지 단체에서의 자원봉사 경험은 곧 C씨에게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을 돕는 공헌형 일자리 사업에 선발되었다.

2) 공헌형 일자리 사례

- **공헌형 일자리 point**

- 공익(사회적 목적), 정부 및 지자체 주도형 정책
- 실비 변상적 수준, 최저임금(또는 생활임금) 수준
- 유형 : 정부 및 지자체 주도형 공익 목적 일자리 사업 등
- 신중년의 '사회 공헌 일자리' 참여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기대가 생겨나는 시기이므로 향후 계속적으로 그 정책적 지원 규모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30여 년 금융권 근무 경력, 이제 동년배의 재무 컨설팅을 위해 씁니다!"

국내 굴지의 금융업계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H씨는 퇴직 이후 오히려 더욱 열심히 경영지도사, 퇴직연금 관련 자격증 등을 준비했다. 개인 사업체를 꾸려 재무 상담 및 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하려 했지만, 1인 기업체에서 고객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생계에 허덕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으므로 주변 일자리 지원 기관을 통해 진로 설계 상담을 하던 중, 사회 공헌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30년 이상의 금융업계 근무 경험, 전문성, 역량을 살려 현재는 공헌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동년배의 재무 컨설턴트로서 활동하며 보람을 찾고 있다.

3) 혼합형 일자리 사례

- **혼합형 일자리 point**

- 공익+수입 목적, 기존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 시장 수요와 공급에 기반함
- 초기에는 생계형 일자리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을 수 있음
- 유형 : 제3섹터(비영리, 사회적 경제, 지역사회 등), 민간 CSV 일자리 등
- 현시대의 흐름이 '사회적 가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과거 경제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던 시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으로 미루어, 혼합형 일자리는 현재보다는 머지않은 미래에 더욱 각광받고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기대함

"비영리단체의 IT 해결사!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인생 2모작 성공했습니다!"

L씨는 이름만 언급하면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에서 20년 이상 근무했다. 이후 퇴직한 L씨는 기업에서 근무했던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분야로의 경력 전환을 위한 배움에 목말랐다. 단순한 재취업 교육보다는 기술과 사회적 가치, 보람에 중점을 두고 중장년의 커리어 설계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다양한 교육을 수강했고, 사회적 경제와 비영리 분야에 대해 알게 되었다. 공익에 가치를 두고 활동하는 이 같은 단체들의 업무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게 된 L씨는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IT 기기 등의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단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버거웠던 설립절차의 이해와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 L씨는 멤버들을 영입하여 성공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4) 사회 공헌 일자리의 복합적 경력 개발 사례: 자원봉사, 공헌형 일자리, 혼합형 일자리

- **사회 공헌 일자리 복합적 경력 개발 point**
  - 사회 공헌 일자리의 경우, 각 유형에 초기 개별 진입하여 해당 유형으로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나 유형 간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함
  - '신중년 사회 공헌 일자리 경력 개발 상담 구조도'를 살펴보면 자원봉사, 공헌형 일자리, 혼합형 일자리 간 이동을 확인할 수 있음
  - '신중년 사회 공헌 일자리 경력 개발 상담 구조도'와 '복합적 경력 개발 사례' 등을 통해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할 수 있는 사회 공헌 일자리에 신중년이 더욱 쉽게,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도출해 볼 수 있음

"봉사로 시작한 관심,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통해 나의 일로 성장시켰습니다!"

공무원으로 35년 근무한 C씨는, 퇴직을 앞두고 7년여간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키워 왔다. 퇴직 후 그간의 공직 경력과 봉사 활동 경험을 살려 소득보다는 의미 있는 일자리를 구하고 싶었다. 평소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사회적 기업에 네트워크가 있을 리 만무했다. 그러던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헌형 일자리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일자리에 참여하기 위하여 선행되는 충분한 교육을 받은 후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공공 구매 영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4개월여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업무 경험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서 그간의 경험을 펼칠 수 있는 역량도 기를 수 있었다. 우수하게 지자체 사업 참여를 마친 C씨는 이후 지역 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채용 연계 되었다. 그의 직무는 사회적 기업의 공공 구매 분야 영업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내 사회적 기업과의 다양한 네트워크망을 구축한 것을 계기로 현재는 사회적 기업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4. 사회 공헌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사업

생소한 분야인 만큼 사회 공헌 일자리로의 진출에 앞서 다양한 정보 탐색은 필수적이다. 사회 공헌 일자리 유형에 따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사업들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 분야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부족한 대부분의 신중년이 관련 서비스의 존재 여부 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회 공헌 일자리의 경우 하위 유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기관이나 프로그램·서비스의 내용도 상이하므로 보다 효과적인 경력 설계를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사회 공헌 일자리를 준비하는 신중년의 경력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기관과 프로그램,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자원봉사 지원 프로그램 및 사업

(1) 노력 봉사

• 1365 자원봉사포털 : 자원봉사에 관한 교육, 활동 정보, 실적 관리를 한 번에

홈 페 이 지	www.1365.go.kr
문 의 처	국번 없이 1365
주 요 내 용	개인 단위, 기업 단위의 자원봉사 참여 가능 활동을 전국 단위로 검색, 신청 가능하며, 봉사를 완료한 후 실적을 확인하거나 실적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음
주 요 기 능	자원봉사 상담, 자원봉사 교육, 자원봉사 활동 참여 가능
참 여 방 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 지역 분야 등 자신의 조건에 맞는 자원봉사 찾아보기 → 상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원봉사 신청 → 자원봉사 교육 → 배치 → 봉사 → 실적 인증 → 인증서 발급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 '사회복지' 분야 활동 통합 관리

홈 페 이 지	www.vms.or.kr
주 요 내 용	사회복지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단위로 검색, 신청이 가능한 사이트로 봉사를 완료한 후 실적을 확인하거나 실적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음
주 요 기 능	자원봉사 검색, 활동 신청, 인증 관리 등
참 여 방 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 자원봉사자 모집 메뉴에서 본인이 원하는 봉사 활동 조회 → 봉사 참여하기 → 참여 → 평가 → 인증서 발급

(2) 재능 기부(재능 나눔)

• (사)한국자원봉사문화 : 자원봉사를 통한 심도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

홈 페 이 지	volunteeringculture.or.kr
주 요 내 용	자원봉사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기업, 단체 단위로 신중년 대상자들의 자원봉사 교육을 위탁, 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캠페인 등을 운영하고 있음
주 요 기 능	자원봉사 관련 각종 콘텐츠 발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캠페인 등
참 여 방 법	개인 단위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통과공감 →시민참여 프로그램 메뉴에서 자원봉사 관련 교육, 활동,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음

(3) 프로보노(Pro Bono)

• 사회적기업진흥원 - 프로보노

홈 페 이 지	www.socialenterprise.or.kr
주 요 내 용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의 수요를 발굴하고, 이들을 전문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성공적인 경영을 지원함
주 요 기 능	(예비)사회적 기업의 경영 자문 및 멘토링, 온라인 자문, 파견 근무 등
참 여 방 법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 신청 → 교육 및 인터뷰를 통해 (예비)사회적 기업과 매칭 → 프로보노 활동 → 활동 종료 및 분석 등

•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 중소기업경영자문단

홈 페 이 지	www.fkilsc.or.kr
주 요 내 용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와 글로벌 시장 개척, 아이디어 사업화를 도와주는 대기업 출신 경영 베테랑과 법무 전문가로 구성된 무료 경영 자문단
주 요 기 능	중소기업 대상 무료 경영 자문, 기업 현장 방문 맞춤형 교육, 창업 아이디어 멘토링, 현직 법무 전문가 법무 상담 등
참 여 방 법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경영자문단 모집 시 신청 → 선발 → 교육 → 활동

2) 공헌형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사업

(1) 중앙정부 주도형 공헌형 일자리

• 고용노동부 - 사회 공헌 활동 지원 사업

홈 페 이 지	www.working60.co.kr
참 여 대 상	만 50세(1968.12.31. 이전 출생자) 이상 퇴직 전문 인력
주 요 내 용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지 원 내 용	참여 수당 2,000원/시간 (교통비, 식비 별도)
주 요 기 능	참여 기관의 경영 능력 제고 및 공익적인 사회 서비스 제공 확산 등의 목적과 관련 있는 13개 업무 분야(경영 전략, 마케팅 홍보, 인사·노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 서비스, 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 지원, 교육 연구, 상담 멘토링, 기타)
참 여 방 법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운영 기관 또는 워크넷으로 신청

• 문화체육관광부 -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홈 페 이 지	www.storymama.kr
참 여 대 상	만 56세(1962년생)에서 만 70세(1948년생)까지의 여성
주 요 내 용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여성 어르신이 유아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해 유아들에게 우리 옛이야기와 선현들의 미담을 들려주는 사업
지 원 내 용	전국 이야기할머니 활동비 및 신규자 교육비 지원 파견 활동비 : 1회 3만 5,000원(근로시간 주 2~3회, 회당 1시간)양성 교육비: 1회 3만 원(신규 월례 교육 대상, 6회)
참 여 방 법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 신청 → 심사를 통한 선발 → 교육 → 활동 → 종료

• 보건복지부 - 노인 일자리 사업

홈 페 이 지	www.kordi.or.kr
참 여 대 상	만 56세(1962년생)에서 만 70세(1948년생)까지의 여성
주 요 내 용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 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지 원 내 용	활동 기간 : 9개월, 12개월 활동 시간 :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 활동비 : 월 27만 원
참 여 방 법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 심사를 통한 선발 → 교육 → 활동 → 종료

(2) 지자체 주도형 공헌형 일자리

• 서울시 50+보람일자리 사업

홈 페 이 지	www.50plus.or.kr
참 여 대 상	만 50~67세 서울시 거주자
주 요 내 용	50+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커리어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
지 원 내 용	활동 시간 : 월 57시간 이내 활동비 : 월 52만 원 내외
참 여 방 법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 신청 → 심사를 통한 선발 → 교육 → 활동 → 종료

• 인천 남동형 사회 공헌 일자리 사업(보람일자리)

홈 페 이 지	www.namdong.go.kr
참 여 대 상	만 50~67세 미만의 인천 남동구 주민
주 요 내 용	베이비부머 은퇴자 중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맞춤형 복지 파트너로 일자리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
지 원 내 용	활동 시간 : 월 57시간 이내 활동비 : 월 53만 원 내외
참 여 방 법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 신청 → 심사를 통한 선발 → 교육 → 활동 → 종료

• 제주시 이음일자리 사업

홈 페 이 지	www.jejubokji.net
참 여 대 상	만 50~70세 이하의 제주도민(재직자 및 사업자 제외)
주 요 내 용	제주의 고유한 자연환경 보존 및 증진, 사회적 가치 창출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신중년 일자리 마련
지 원 내 용	활동 시간 : 월 48시간 이내 활동비 : 월 45만 원 내외
참 여 방 법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 신청 → 심사를 통한 선발 → 교육 → 활동 → 종료

3) 혼합형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사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 페 이 지	www.socialenterprise.or.kr
기 관 소 개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진흥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기관
사 업 내 용	사회적 기업가 양성과 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사회적 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사회적 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협동조합 교육·훈련 지원,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등

• 서울시 50플러스재단

홈 페 이 지	www.50plus.or.kr/org
기 관 소 개	50+세대의 새로운 길 찾기, 성공적 인생 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사 업 내 용	50+세대를 위한 포털인 50+포털(50plus.or.kr)을 운영하며, 공헌형·혼합형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커리어 모색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50+세대 창업 기업·소셜벤처·협동조합·창직자 등을 위한 공간 지원, 단체 설립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 KDB 시니어브리지

홈 페 이 지	www.socialenterprise.or.kr
기 관 소 개	시니어의 인생 후반 설계를 돕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우리 이웃,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사회 공헌 활동을 연계하는 민간 기관
사 업 내 용	시니어 브리지 아카데미, 사회 공헌 인턴십, 정보 제공 서비스, 네트워크 모임 및 공간 지원 등 운영

• 사회연대은행

홈 페 이 지	www.bss.or.kr
기 관 소 개	사회 취약 계층을 지원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고자 설립된 사회적 금융기관
사 업 내 용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마이크로크레디트를 통한 창업 지원, KDB 시니어브리지와 함께 사회 공헌 아카데미 운영, 시니어 사회 공헌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희망제작소

홈 페 이 지	www.makehope.org
기 관 소 개	다양한 아이디어의 현실화, 공공 분야에서 퇴직자들의 능력 발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현장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통해 혁신적인 공공 리더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민간 연구소
사 업 내 용	희망설계아카데미, 사회 혁신가 양성 프로그램, 시니어 대상 각종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 신나는조합

홈 페 이 지	www.joyfulunion.or.kr
기 관 소 개	사회 소외 계층의 지속 가능한 자립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전문적 지원 체계를 구축, 사회적 금융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민간 조합
사 업 내 용	사회적 금융 지원, 창업 자금 및 경영 개선 자금 융자, 사회적 경제 기업 융자 사업, 사회적 경제 기업 자금 조달 교육,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교육, 관련 분야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등

<참고 문헌>

황은희(2015), <중장년 퇴직 이후 재취업 길라잡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기획재정부(2010), <시사경제용어사전>, 대한민국정부
노대명(2009), 보건 복지 부문 제3섹터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태원유(2009), 실업 위기의 뇌관, 중고령자 고용 불안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이종수(2009),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김혜원, 박찬임(2009), 제3섹터 부문의 고용 창출 실증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고광철(2017),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
손유미(2010),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창출과 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용규(2009),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지역경제 활성화, 삼성경제연구소
강영식 기자(2009), 부자마을을 꿈꾼다 ④제주 서귀포 안덕면 화순리, 농민신문
김주환(2012), 공유 가치 창출(CSV)의 개념과 사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황선일(2017), 소셜 벤처로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례 연구, 벤처창업연구
서울시 50플러스재단(2018), 서울시 50플러스재단 50+일자리 사업 소개 자료
Marc Freedman(2007), <Encore: Finding Work that Matters in the Second Half>, 미국, PublicAffairs

<참고 사이트>

1365 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www.socialenterprise.or.kr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 volunteeringculture.o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www.coop.go.kr
서울시 50플러스 www.50plus.or.kr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www.vms.or.kr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www.fkilsc.or.kr
고용노동부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www.working60.co.kr
문화체육관광부 아름다운이야기할머니사업 www.storymama.kr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www.kordi.or.kr
인천 남동구청 www.namdong.go.kr
제주시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jejubokji.net
서울시 50플러스재단 50plus.or.kr/org
KDB시니어브리지 www.socialenterprise.or.kr
사회연대은행 www.bss.or.kr
희망제작소 www.makehope.org
신나는조합 joyfulunion.or.kr

TIP 신중년 사회 공헌 길자리 스토리

보람과 행복을 찾는 여정에 은퇴는 없다*

최삼식(㈜우리애그린 영업지원본부장)

순간에 충실하고, 주어진 자리에 감사하고, 오늘의 가치를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 처음 일을 시작했던 스무 살 무렵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강산이 네 번은 더 바뀌었지만 한결같이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애그린 영업지원본부장 최삼식(64)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의 빼곡한 여정을 듣고 있노라면 도무지 '쉼표' 하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35년이 넘도록 강직하게 공직에 몸담아온 긴 세월 속에서도, 은퇴 이후에도 학업과 사회 공헌 일자리를 병행하면서도 그가 늘 꿋꿋하게 지켜 온 소신은 '내가 있는 그 자리 밝히기'였습니다. 늘 '어디에서 일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왔고, 요직을 탐내기보다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서 빛나는 보람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원예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 ㈜우리애그린의 영업지원본부장으로 재취업한 지 넉 달째, 요즘 최삼식 씨의 일상은 아름다운 꽃처럼 매일 새롭고 싱그러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복'과 '보람'을 좇아 향한 길에서, 인생 2막을 밝혀 줄 '내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으로 살아온 35년, 경력의 다양성을 쌓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5급 사무관으로 정년퇴직할 때까지, 35년 6개월간 최삼식 씨가 공무원으로서 맡아 왔던 행정 업무는 무척 다채로웠습니다. 무려 17개 부서를 거치며 동 행정 서비스, 공원 녹지, 세무,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다방면의 업무를 섭렵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동 행정 서비스는 최삼식 씨가 가장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민들과 만나고, 그들의 불편함에 귀 기울이고, 도움을 주는 일은 맞춤복처럼 잘 맞는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다른 분들이 선호하는 부서, 가고 싶어 하는 자리에는 한 번도 욕심내 본 적이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불러 주셨을 때도 반려했고, 다들 희망하는 세무직으로 전환할 기회가 왔을 때에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첫 발령지였던 서울 상계동에서 6년간 주민들 속에서 일했던 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일까요? 외부의 유혹이 많은 일보다는 그저 낮은 위치에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일이 제게는 가장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1990년대 후반, 낙후된 지역 내 공원과 녹지를 복원하는 공원 녹지 업무와, 가로수 생육 환경 사업을 맡았던 일도 유난히 보람되었던 일로 기억합니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산림과 임업에 대해서도 새롭게 공부해야 했고, 산비탈을 오르며 일일이 가로수 관리를 하는 등 그 어떤 일보다 몸은 고되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식물, 녹지를 통해 주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저에게는 무척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고생스러웠지만, 소중한 경험이었죠. 은퇴 후 지금 다시 원예업종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때의 경험 덕분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된 은퇴, 인생 제2막을 향해 나아가다

최삼식 씨에게 공무원 ‘정년퇴직’이란 ‘은퇴’와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새로운 일로 제2의 인생을 열겠다는 인생의 목표를 오래전부터 세워 두었고,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부터 줄곧 경력 개발에 힘써 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이 50대 중반에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여 ‘복지시설경영학’을 전공한 것도, 은퇴를 앞둔 시점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문화예술관광학’을 공부한 것 역시 ‘인생 제2막’의 꿈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2014년 6월에 정년퇴직을 했는데, 당시에 대학원 논문을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은퇴가 끝’이라는 감상에 빠질 겨를이 없었죠. 그래서 제게 퇴직은 인생의 뒤안길로 물러나는 기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도전하는 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석사 학위 취득 후 전공을 살려 문화·예술 분야로 진출해 보고자 했던 그의 계획은 쉽지 않았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상 초기 진입 장벽이 높았고, 공무원 출신이라는 경력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재취업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그에게 “그동안 성실히 일해 왔으니, 앞으로는 여유로운 삶을 보내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평생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작은 일이라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명성보다는 보람과 행복을 기준에 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평생 현역’이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작은 일자리라도 찾겠다는 결심을 한 뒤, 최삼식 씨가 선택한 방법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공공 기관 일자리 검색이었습니다. 35년간의 행정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일자리는 노원구청 인구총조사 및 경제총조사를 위한 통계 조사 관리 계약직이었습니다. 과거 동 행정 일을 했을 때 유사한 통계 업무를 추진했던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적극적으로 어필했고, 그 결과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되었습니다.

"행정 경험이 풍부하니까 사실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갔죠. 그런데 막상 일을 하러 가 보니, 가정주부들이 많이 와 계셨어요. 알고 보니 그분들은 다년간 그 일을 하신, 정말 숙달된 전문가였죠. 그에 비하면 저는 완전히 초보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퇴직 전에 갖고 있던 지위나 직책 같은 것에 얽매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신입이 되었다는 마음가짐으로, 배우겠다고 했어요."

그 후로 약 2년간 최삼식 씨는 지자체 통계 조사 업무와 공정선거관리단의 선거 감시 업무를 번갈아 수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3~7개월가량의 기간 계약직으로, 급여는 높지 않았지만 경력과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에 만족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한 번도 쉬어 본 적이 없다는 최삼식 씨. 그는 자신의 삶을 나태함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아침 다섯 시 반에 일어나 두 시간씩 운동을 했고, 아르바이트 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이면 바로 다른 일을 탐색했습니다. 이러한 성실함은 그의 삶을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회 공헌 일자리로 새로운 기회를 펼치다

2016년, 최삼식 씨는 서울시 50+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보람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서울시사회적지원센터 공공구매영업지원단' 모집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공공시장의 수요와 사회적 경제 기업의 공급을 매칭하고, 공공 구매 영업 지원 활동을 추진하는 사회 공헌 일자리였습니다. 인생 2모작이라는 목표 아래 지금까지 쌓아 온 경험과 능력을 사회적인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싶었던 최삼식 씨가 가장 찾던 일이었습니다.

"보자마자 딱 저를 위한 일자리라고 생각했죠. 1기를 30명 모집했는데, 면접을 가 보니 80여 분이 와 계셨어요. 저와 같은 공무원 출신이나 금융인, 대기업, 교직에 계시던 분 등 다양했어요.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많다니 신기하고 반가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운 좋게 선발이 됐고, 4개월간의 교육 수료 후 1지망으로 신청했던 노원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최삼식 씨는 약 7개월간 노원구 내의 사회적 기업과 공공 기관을 방문하며 수요 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일을 추진했습니다.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홍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노원구에서 근무했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성실한 업무 수행은 또 다른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인증 사회적 기업인 ㈜우리애그린 영업지원본부장 자리에 추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주 2.5일을 일하던 '공공구매영업지원단'과 달리, 매일 출퇴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으로서 재취업한다는 것이 조금은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예 치료, 치료 정원 조성, 도시 농업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기업 모토가 최삼식 씨의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원예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인증 사회적 기업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더군요. 무엇보다 7개월간 다져 온 공공 구매 영업의 노하우, 공무원 시절 몇 년간 공원 녹지 사업과 생육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재취업을 결정했습니다."

최삼식 씨가 '우리애그린'에 출근한 지 넉 달째. 운동 삼아 지하철과 도보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 어느 때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나날이 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지만, 옥상 텃밭이나 정원을 조성할 때는 먼저 팔 걷어붙이고 나서기도 합니다. 젊고 열정적인 직원들과 함께 어울리고, 매일 꽃향기로 가득한 곳에서 일한다는 점도 그를 더 즐겁게 합니다. 앞으로 70~80세가 넘더라도 작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꾸준히 일하고 싶다는 그. 행복과 보람이 있는 일을 찾아 자신의 자리를 빛내는 그의 여정에 어쩌면 평생 '은퇴'는 불필요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 신중년 사회 공헌 일자리 스토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하는 <커리어info> 제13호(2018.9.)에 수록된 '재취업 성공 STORY' 기사를 수록한 것임을 밝힌다.

최삼식 씨가 전하는

중장년 재취업 성공 포인트

성공 포인트 1

현직의 다양한 직무 경험에서 가능성을 발견하세요

평생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늘 주어진 자리에 감사해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그래서 동 행정 서비스, 통계 업무, 공원 녹지, 세무,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다방면의 직무를 두루 경험할 수 있었죠. 돌이켜 보니 현직에서의 그 경험들이 퇴직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마다 자신감이 되어 주더군요. 과거 동 행정 일을 했을 때 통계 업무를 추진했던 경험을 살려 통계 조사 관리 일을 할 수 있었고, 계약 부서에서 구매 업무를 했던 노하우를 활용하여 공공구매영업지원단에도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원예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것 역시 공원 녹지 업무 경험이 있었기에 자신감을 가진 결과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업무 중 내가 좋아하거나 잘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공 포인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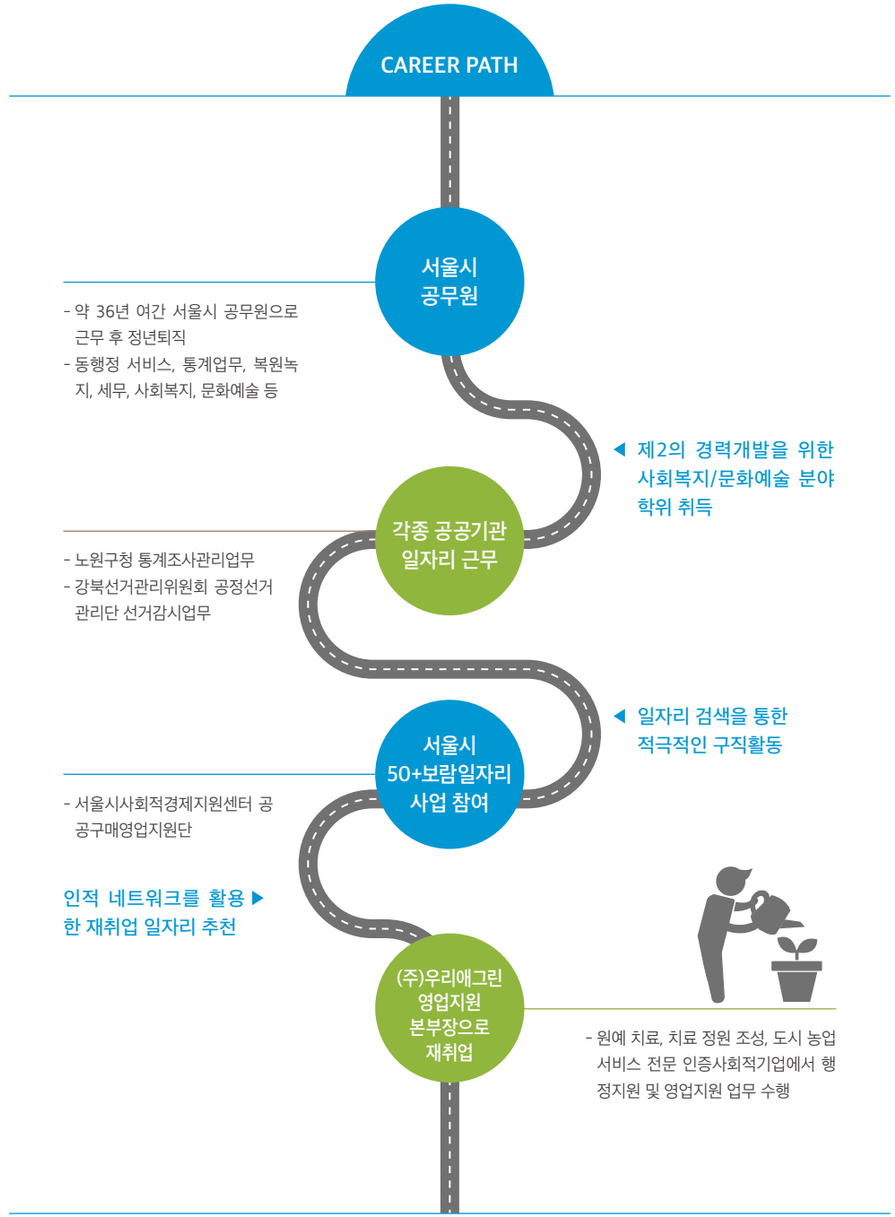
늘 준비된 자세와 행동력이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줍니다

현재에 정체하지 않고 늘 다음을 준비하는 자세가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줍니다. 저 역시 공무원으로 일할 때부터 미리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며 제2의 경력 개발에 힘써 왔습니다. 언젠가 사회복지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일반행정사, 사회복지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복지시설 경영사 등 관련 자격도 취득해 두었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꾸준한 정보 검색을 통해 계속해서 일자리를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다음을 준비하는 자세와 행동력이 재취업으로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도 인생 2모작을 위한 필수 요소라 생각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부터 꾸준한 경력 설계와 체력 관리를 해 두신다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성공 포인트 3

보람과 성취로 일의 의미를 확장해 보세요

은퇴 이후에도 현직에 있을 때의 명예와 지위, 직책, 급여 수준에 눈높이가 머물러 있다면 재취업으로 가는 길은 정말 좁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무게와 권위를 내려놓고, 겸허한 자세로 다시 세상과 만난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작은 일도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 공헌의 '가치'와 '일자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사회 공헌 일자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비록 급여 수준이 높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풍부한 경력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에 기여한다는 보람은 물론, 계속 활발하게 일하며 경력을 이어 간다는 성취감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7장

귀농·귀어·귀촌으로,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구다

1. 귀농·귀어·귀촌 개념 및 현황
2. 귀농·귀어·귀촌 준비자 유형 및 특성
3. 귀농·귀어·귀촌 준비 절차
4. 귀농·귀어·귀촌 지원 기관

Tip

신중년 귀농 스토리

1998년 IMF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귀농·귀어·귀촌 추세는 최근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 저성장과 재취업의 어려움, 자연환경 선호 등의 이유로 퇴직 후 제2, 제3의 경력 경로로 귀농·귀어·귀촌을 고려하는 신중년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귀농어·귀촌인 통계(2017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귀농·귀어·귀촌 규모는 총 34만 7,665가구, 51만 8,176명에 이른다. 이 중 신중년 세대 가구주 규모는 10.9만 명으로 귀농·귀어·귀촌 가구주 중 약 31.4%를 차지하고 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혹은 이미 퇴직한 신중년은 여전히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기에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통해 재취업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신중년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 경로의 대안으로 귀농·귀어·귀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김은석, 2015).

이에 본 장에서는 신중년들이 퇴직 후 진출할 수 있는 경력 경로 중 하나로 귀농·귀어·귀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귀농·귀어·귀촌을 준비하는 신중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귀농·귀어·귀촌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 간단히 짚어 보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신중년들이 귀농·귀어·귀촌을 생각하게 된 동기와 준비 경험도 들어보려고 한다. 그리고 상담원들이 귀농·귀어·귀촌 안내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선배들이 전하는 귀농·귀어·귀촌 성공 전략과 준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귀농·귀어·귀촌 개념 및 현황

우리는 일상적으로 귀농과 귀촌의 개념을 혼돈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귀농과 귀촌은 개념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귀농'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자신의 주된 주거지를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전업농을 의미한다. 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대부분을 영농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다. 반면 '귀촌'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주된 주거지만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원생활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농촌이 아닌 어촌으로 이동하는 신중년이 늘어나면서 '귀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귀어는 귀농과 마찬가지로 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된 주거지를 도시에서 어촌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종합센터(2017), 「2017 귀농귀촌 가이드」, p.6~7

귀농·귀어·귀촌 규모 증가 추세, 신중년 비중 높아

농림수산식품부 외(2018.6.28.)가 발표한 귀농어·귀촌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귀농·귀어·귀촌 총인구는 2017년 기준 34만 7,665가구, 51만 8,176명으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귀촌 인구의 증가세(33만 4,129가구, 3.6% ↑)가 눈에 띄며, 귀농(1만 2,630가구, 1.9% ↓)과 귀어(906가구, 2.5% ↓)의 경우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상황이다. 또한 귀농·귀어·귀촌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귀농이 1.55명, 귀어가 1.5명, 귀촌이 1.49명으로 전반적으로 1인 가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귀농·귀어·귀촌 가구주 성별을 살펴보면 귀농, 귀어의 경우 남성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은 5060세대인 신중년의 비중이 가장 높아 귀농은 65.9%, 귀어는 5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귀농, 귀어인 중에는 신중년 연령층 비율이, 귀촌인 중에는 30대가 51%를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젊은 층 비율이 높아 신중년의 경우 퇴직 후 경제적 수입을 목적으로 농촌과 어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귀농 준비 기간 늘었으나, 귀농 후 소득 불만족은 다소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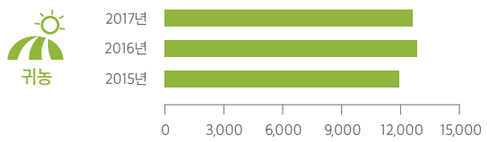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6.8.)의 2016년 귀농·귀촌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귀촌의 준비 기간은 평균 2년 이상이 소요되며, 귀촌(26.9개월)에 비해 귀농(32.7개월)에 더 많은 준비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에 비해 귀농·귀촌 준비 기간이 많이 길어졌지만, 여전히 귀농·귀촌 후 정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귀농·귀촌 안내 시 전문가의 상담, 정보 취득, 교육 이수 등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귀농·귀촌에는 많은 정착 자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실패 시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큰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귀농·귀촌에 소요되는 정착 자금은 평균 약 1억 7,000만 원 규모(귀농 1억 7,708만 원, 귀촌 1억 7,12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귀농·귀촌 생활 중 가구 소득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귀농의 경우 48.5%가, 귀촌의 경우 34.2%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귀농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 정착 자금 등을 고려해 소득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지양하고 귀농 후 소득 계획을 꼼꼼히 수립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농업, 미래 성장 산업으로 빠르게 변화

국내외 경제의 저성장 기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가속화, 기대 수명 연장 등으로 귀농·귀어·귀촌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6). 또한 최근 농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보 통신 기술(ICT)을 농업의 생산이나 가공, 유통 및 소비 전반에 적용해 원격에서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을 제어하는 스마트 팜이 부상하는 등 농업기술과 신기술의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농업은 농산물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농촌과 연계한 농식품 상품화, 체험, 관광 등 6차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김귀영, 2017).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농촌 또는 어촌으로 유입되면서 마을 공동체를 비롯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성공 사례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제 농업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재래식으로 해서 이윤을 창출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으며, 농업을 경쟁력 있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자체 및 정부의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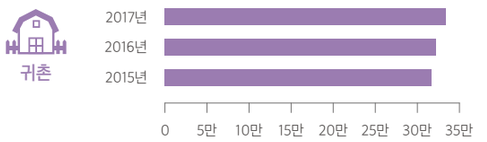
통계로 살펴보는 귀농·귀어·귀촌 현황

귀농어·귀촌 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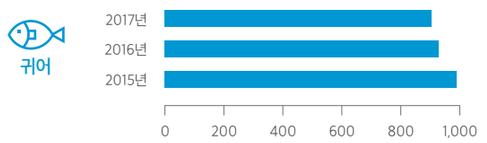
12,630가구
12,875가구
11,959가구

평균 귀농가구원수 **1.55명**



334,129가구
322,508가구
317,409가구

가구당 평균 귀촌인수 **1.4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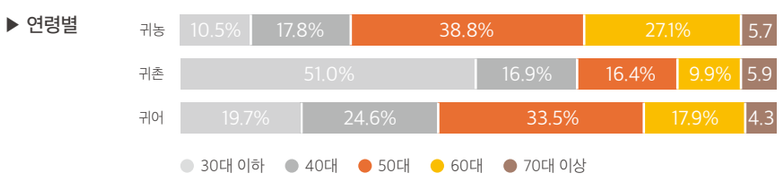


906가구
929가구
991가구

평균 귀어가구원수 **1.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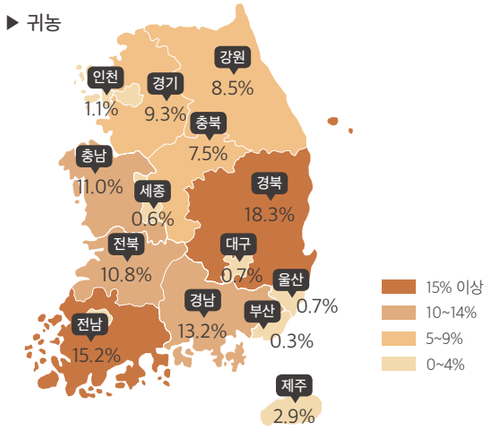
● 귀농가구수 ● 귀촌가구수 ● 귀어가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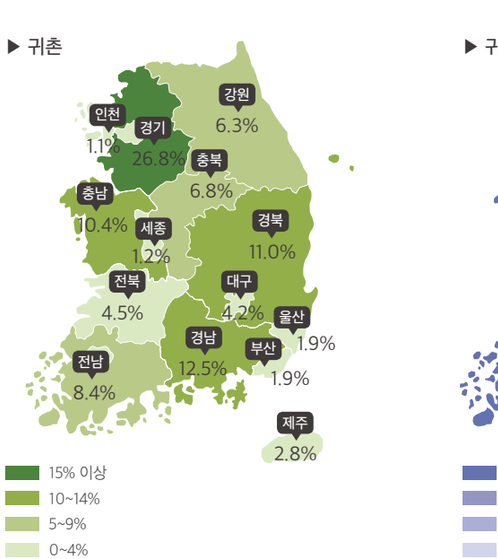
귀농어·귀촌인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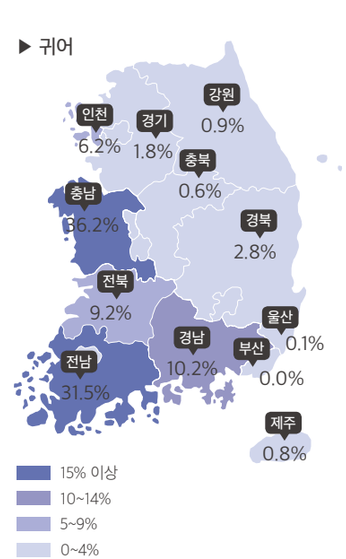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외(2018.6.28.), 2017년 기준 귀농어·귀촌인 통계 결과 보도 자료

시도별 귀농어·귀촌 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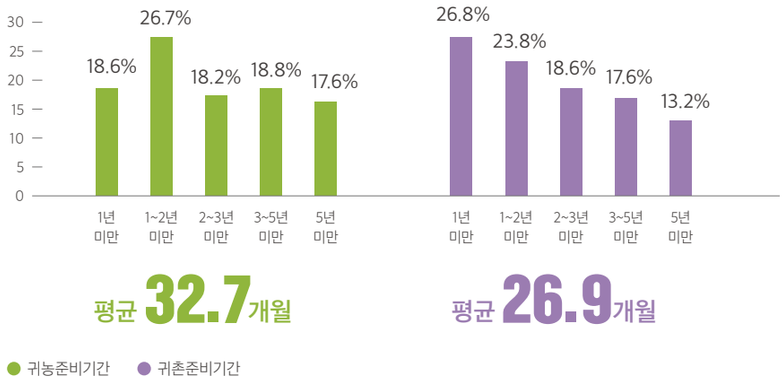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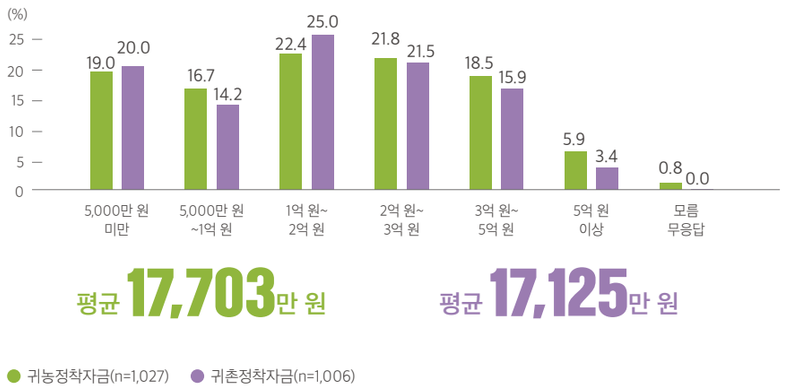
(단위 :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외(2018.6.28.), 2017년 기준 귀농어·귀촌인 통계 결과 보도 자료

귀농·귀촌 준비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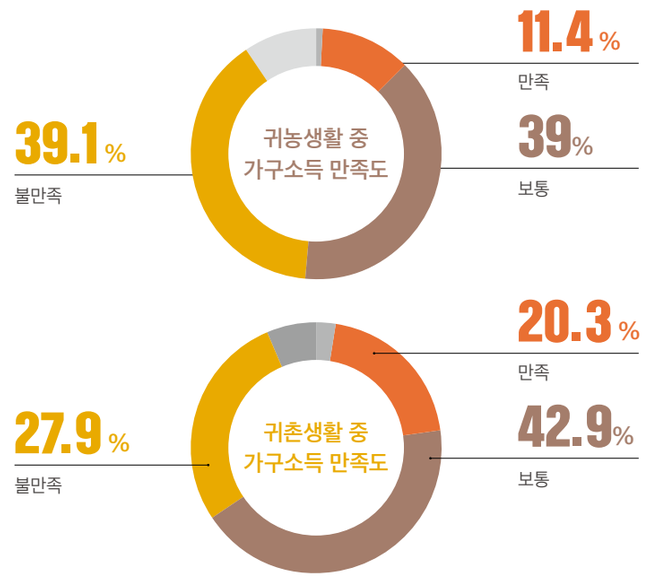


정착자금



[출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6.8.), 2016년 귀농·귀촌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귀농·귀촌 생활중 가구소득 만족도



[출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6.8.), 2016년 귀농·귀촌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2. 귀농·귀어·귀촌 준비자 유형 및 특성[1)]

신중년이 퇴직 후 귀농·귀어·귀촌을 생각하게 된 계기와 이유는 개인마다 개별성과 다양한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수행한 질적 연구(김은석, 2015)에 따르면, 귀농·귀어·귀촌을 준비 중인 퇴직자의 유형은 그 동기에 따라 크게 '도전형'과 '탈출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지원해야 하는 서비스도 차별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먼저, 도전형 귀농·귀어·귀촌 준비자는 그동안 걸어온 경력 경로에 대한 높은 만족감과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퇴직 후에도 재취업이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굳이 자신 및 자신의 직무 가치가 하향되는 것을 느끼면서까지 경력을 살리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일, '새로운 도전'으로서의 귀농·귀촌의 길을 준비하게 된다. 이러한 도전의 이면에는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 자신의 기술로 지역공동체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 등의 '이타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도전형 귀농·귀어·귀촌 준비자에게는 자신이 설정한 계획에 따라 계속해서 귀농·귀어·귀촌의 목표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기술을 습득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은석, 2016). 반면 탈출형 귀농·귀어·귀촌 준비자는 기존의 직장 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에 따라 직장 생활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는 가운데 시골 생활을 동경하는 유형이다. 직장 생활을 통해 해 왔던 일은 대부분 인정받고 진급 등을 하기 위한 성취 수단이나 경제적 수단이었다고 인식되는 반면, 귀농·귀어·귀촌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기반이자 진짜로 원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귀농·귀어·귀촌을 생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계속하지만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며 뒤늦게 귀농·귀촌을 준비한다. 그 때문에 도전형에 비해 그 준비 과정이 덜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기대와 현실과의 괴리감은 오히려 피하려던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1) 귀농·귀어·귀촌 준비자 특성 및 지원방향은 한국고용정보원(2015)에서 수행한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 경로 및 경력 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종단연구(2차년도)」의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귀농·귀촌 선택 동기와 준비경험(pp.77~120)' 분석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제시한 것임을 밝힌다.

도전형 예시

- 약 28년간 공무원을 거쳐 금융 분야 공기업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 왔고, 이후 관련 민간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한 뒤 임원 임기를 채우고 자연스럽게 퇴직을 한 A(남, 만 57세)씨. 경력을 살려서 일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로펌의 고문 같은 일을 맡아야 한다. 그런데 이는 자신이 과거에 몸담았던 조직에 로비하는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에도 맞지 않고 후배들에게 청탁, 부탁하는 일은 가급적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더불어 고령의 부모, 장남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일 등을 고민하다가 오래전부터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귀농·귀촌을 결심하게 되었다.
- 건설 분야 대기업에서 일하며 사원에서 임원까지 지내 플랜트 건축 일에 관한 자신의 전문성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던 B(남, 만 57세)씨. 대기업을 퇴직한 후 그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며 염증을 느끼게 되었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플랜트 계통의 건축 분야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협력 업체로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당 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상처를 받으면서 막연하게나마 생각하고 있던 귀농·귀촌을 결심했다.

탈출형 예시

- 신문사에서 여러 직무를 경험하며 나름 오랫동안 착실한 경력을 쌓아 온 C(남, 만 59세)씨는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퇴직한 후 가교 일자리에서 2년간 일하고 퇴직했다. 이렇듯 성공적으로 보이는 경력의 이면에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있었다. 간헐적인 시골 경험을 통해 시골 생활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던 그는 단순히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직장 생활이어서 재취업을 계획하기도 했지만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직장 생활에 대한 회의로 최종적으로는 귀농·귀촌을 꿈꾸며 준비 중이다.
- 정보 통신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D(남, 만 54세)씨. 퇴직 전에 기업 고객 대상의 영업 업무와 경쟁사와의 경쟁으로 스트레스 및 압박감이 심했다. 기업 전자 네트워크 컨설팅은 복잡하고 고객 요구 사항은 복잡한 데다 경쟁사에 밀리면 고객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사례자의 인센티브와 고과도 낮게 평가되므로 '이겨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직장 생활 동안 지속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업무 자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불러일으켜서 일이 끝나면 쉬고 싶지 무언가를 할 의욕을 갖지 못했다. 그 때문에 퇴직 후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명예퇴직에 당면해서야 막연하게 귀농 생활을 구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탈출형 귀농·귀어·귀촌 준비자에게는 무엇보다 시골 현지의 현실과 귀농·귀어·귀촌의 준비 및 정착 과정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접하고 인식하게 하는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이 사전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들 대부분은 스트레스 많은 도시와 직장 생활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귀농·귀어·귀촌을 생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실제 실행이 이루어지더라도 부적응하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 도전형과 탈출형 귀농·귀어·귀촌 준비자 모두 퇴직 전 체계적인 경력 경로 탐색 없이 막연히 생각 또는 동경하던 귀농·귀어·귀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년들이 퇴직 전에 본인의 향후 경력 경로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퇴직 준비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더불어 그 일환으로 귀농·귀어·귀촌에 대한 실제적이고 유용한 정보 제공이 요구되는 바이다.

3. 귀농·귀어·귀촌 준비 절차

본 가이드에서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경제적 수입을 목적으로 귀농·귀어를 준비 중인 신중년들을 지원하고자 귀농과 귀어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단계를 안내한다. 다만 귀농·귀어·귀촌의 경우 상담 및 안내 시 해당 분야에 대한 수준 높은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귀농·귀어·귀촌에 관심을 갖는 내담자 방문 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기관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의 경우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1899-9097), 귀어의 경우 귀어귀촌종합센터(www.sealife.go.kr, 1899-9597)로 안내할 수 있다.

> ☞ **잠깐! 귀농·귀어·귀촌 생활 적합도 및 준비도를 점검하고 싶다면?**
>
>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와 귀어귀촌종합센터(www.sealife.go.kr)에서는 홈페이지에 귀농·귀어·귀촌 준비자들을 위해 자신이 전원생활 또는 어촌 생활에 적합한지 생각해 보고, 귀농·귀어·귀촌의 준비 정도를 점검하며 단계별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가진단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1) 귀농·귀촌 준비 절차[2)]

정착까지의 귀농준비 과정 7단계

2) 본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귀농·귀촌 준비 절차 및 관련 내용은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제공한 내용을 수록한 것임을 밝힌다.

• 1단계 : 귀농·귀촌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교육을 받자

귀농·귀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교육은 어디서 받는지, 귀농 선배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역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지역 특산물은 무엇인지 지역 땅값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나를 도와줄 멘토를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일단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정부나 지자체 혹은 공공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예비 귀농·귀촌인을 돕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를 적극 추천한다. 포털 사이트에 귀농을 입력하면 귀농 농지 및 수익형 주택단지 등의 부동산 관련 모집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런 정보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귀농 트렌드를 기반으로 생긴 부동산 기획 사기나 무조건 큰 수익이 난다는 품목 묘목 판매 등의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물론 정보 수집이 되어도 자신의 상황에 맞춰 궁금한 점들은 상담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좀 더 준비가 되면, 이미 귀농·귀촌을 한 선후배 및 친척, 지인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를 찾는 일도 중요하다. 또한 결심이 확고하다면 귀농·귀촌 교육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전문적인 교육은 귀농·귀촌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고 결정적으로 귀농 창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귀농 마인드, 농촌 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 작물 선택 요령, 지역 선택 요령, 농지 및 주택 확보를 위해 알아 두어야 할 것들, 농업 경영자로서 마인드 확립, 미래 농업의 전망, 선배 귀농인들의 사례 등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교육 방식은 온라인 강의, 집합 교육을 통한 이론 강의, 현장 실습이나 체험 교육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자신만의 귀농 성공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 수강 시 만난 강사나 동급생들과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준비 과정이 된다.

• 2단계 : 가족들과 충분히 의논하자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귀농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 힘든 정착 과정에 가족의 응원과 도움은 절대적이다. 가족이 동의했더라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만 먼저 내려가는 경우 적정한 기간 내에 가족이 함께 하지 않으면 고립감이나 외로움, 혼자 일하는 어려움 등이 문제가 되어 정착 과정이 쉽지 않게 된다.

• 3단계 : 어떤 작물을 기를까?

귀농 전에 꼭 작물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귀농 후에 작물이 변경되는 경우가 더 많다. 방송을 보니 누가 귀농해서 뭘 키워서 돈 벌었다고 자신도 그것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장가격 형성, 소비자 입맛 트렌드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다. 그래서 작물 선택을 위해서는 작물 특징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작물마다 자라는 시기, 노동력 투입 정도, 필수 시설, 농지 규모, 필수 기술, 자금 회전 주기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자신의 여건과 맞는 작물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시설 채소(상추, 시금치, 부추 등)를 재배하는 경우 농업기술도 높은 수준이 아니며, 매일 일은 많지만 가격은 높지 않은 편이다. 재배 시설에 큰 자금이 투자되지 않고 농사를 망쳐도 금방 다시 복구하기 쉽고 판매 대금의 회수율도 높아 당장 운영 자금이 필

요한 귀농인에게는 적합한 작물일 것이다. 시설 과채류(딸기, 토마토, 오이, 호박 등)는 농업기술을 익히는 데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재배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자금도 좀 더 많이 필요하나 같은 규모의 농지당 수입률은 좋은 편이다. 판매 대금 회수율도 높은 편이다. 과수를 하는데 묘목부터 심고자 한다면 몇 년의 시간이 걸려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운영 자금이 필요하고, 다년생 작물의 특성상 병해충 방제 등 수준 높은 농업기술을 필요로 하는 데다 저장 시설이나 판로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면서 자금 회전율은 아주 낮은 편이다. 이렇게 작물군별 특징을 이해해야 재배 작물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귀농 교육을 받을 때 작물 선택 요령을 꼭 수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 귀농 시 많이 관심 갖는 것이 버섯 재배와 곤충 분야인데, 버섯의 경우 버섯 품종에 따라 시장 과잉 현상이 있으니 잘 알아보아야 하고 곤충은 작은 농지 면적에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이기는 하나 아직은 구매해 주는 곳이 많지 않은 시장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

• 4단계 : 영농 기술을 습득하자

'농사 그까짓 것 아무나 다 하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귀농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이 좋다. 농업은 생물학, 생태학, 화학, 물리학 등을 이해해야 하는 종합 과학이다. 주먹구구식의 농업을 할 것이 아니라면 첨단 농업기술 습득이 중요한데, '생활의 달인'처럼 시간 날 때마다 연습해서 실력을 쌓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농사를 50년 지어도 사과 농사 50번, 벼농사 50번밖에 지을 수 없기에 귀농한 사람들이 가장 애로라고 말하는 분야가 영농 기술 습득이다. 귀농 전에 기초적인 맛보기식의 교육(농업 경영, 마인드, 현장 견학, 귀농 우수 사례 학습, 농업 정책, 지역과 품목 선택 요령 등)을 받았다면 귀농할 지역에 내려가 그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영농 기술 교육을 자신이 농사지으려는 품목별로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특산물이라면 그 지역 내 기술 교육과 유통, 가공 등의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으니 지역 특산물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문경의 특산물이 오미자인데 충청도에 귀농해서 오미자를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오미자 기술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 없거나 생산해도 관련 인프라가 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 5단계 : 어디에 정착할까?

지역 선택 문제인데 부모님이나 친척이 농사짓던 것을 물려받거나 인수하여 귀농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연고지가 있기에 연고지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무래도 연고지로 가는 경우 지역 사람들과의 융화 문제나 부족한 영농 기술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 선후배의 도움을 받는 데 확실히 유리하다. 전혀 연고가 없는데 귀농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는 것이 좋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과 너무 멀어도 될지, 자녀 교육기관은 갖춰져 있는지 나중에 나이 들어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지, 농지 가격이 적정한지, 나를 도와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막상 살아 보니 자신과 안 맞거나, 원래 생각했던 작물 농사가 어렵거나, 다른 지역에서 다른 작물을 해 보고 싶다거나 할 때 큰 자금을 들여 농지나 주택을 구입해 놓았을 경우 옮기기가 어려워 난감할 수 있으니 좀 더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큰 자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6단계 : 주택과 농지를 구입하자!

자신의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임대와 구매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 기관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 사이트가 있다. 이곳에 가면 전국 농지의 실거래 가격을 알 수 있고 판매되는 농지와 임대 가능한 농지 정보도 나와 있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무조건 문서로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 소유권 확인 등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농촌의 많은 농지 경계가,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 오면서 판매할 것이 아니면 특별히 측량을 하지 않아 내 땅이 옆집 밭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도로로 사용되기도 하고 내 밭인 줄 알고 농사짓고 있는데 사실은 이웃집 소유 땅이기도 한 상황을 서로 이해하며 살고 있다는 말이다. 귀농해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산 내 땅의 경계를 분명히 하려고 길도 없애고 이웃과 경계를 세우면서 얼굴을 붉히는 경우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싸워서 이겨도 내가 그 마을에서 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애초에 경계 문제가 있는 땅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미리 그런 문제를 해결하던지, 아니면 그런 문제가 없는 땅을 구매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싸면서 좋은 땅은 거의 상상이라고 보면 된다. 농지 구매 시 체크해 봐야 하는 것들로는 배수 문제, 토질, 농기계 진입 등에 필요한 진입 도로, 주변에 송전탑이나 혐오 시설이나

농사에 방해가 되는 시설이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농촌에 빈집이 많지만 멀쩡한 빈집은 없는 게 현실이다. 멀쩡한 빈집은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세를 놓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으니 이주하려는 마을의 이장님이나 부녀회장 등과 친분을 쌓고 신뢰 관계가 형성해 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 좋은 땅이나 빈집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지역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별히 귀농인의 자격을 갖춘 상태로 구입하는 농지는 취등록세의 50%를 지방세 특례로 감면해 주고 있으니 성급한 마음에 귀농 전에 농지부터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 귀농인의 자격을 갖춘 후 구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 두면 도움이 된다.

• 7단계 : 영농 계획을 수립하자!

농사를 자영업에 비유한다. 내 사업을 하는 것이다. 직장 생활이 아니다. 누가 시키는 일을 하고 시키는 대로 한 달이 지나면 월급이 나오는 직장 경제활동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서 생산하고 내가 경영 관리를 해서 내 소득은 내가 만드는 경영에 해당된다. 직장 생활과 비교하면 힘은 들지만 자유롭게 경영하고 정년이나 퇴출이 있는 것이 아니며 경영 규모 등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니 뱃속이 편한 직업이다. 그런데 농사로 돈 번다는 것이 방송에 나와서 "1억 벌었어요" 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다. 그래서 자신의 희망 소득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창업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고 시뮬레이션까지 해 보아야 한다.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이 과정에서 계획할 수 있다. 참고로 귀농 창업 자금을 신청하려면 사업 계획서가 반드시 들어가니 이 부분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다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 자기 스스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귀농방정식이 마련되는 것이다.

[Tip] 귀농·귀촌 준비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 사기 유형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이 확대되면서 이를 준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귀농·귀어·귀촌의 사기 유형을 이해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기획부동산형>
귀농·귀촌인들에게 싼값에 토지·주택을 분양해 주겠다며 사기를 치는 유형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할 때는 인터넷에 뜬 광고를 그대로 믿지 말고 반드시 지자체 공무원 등 전문가들에게 확인해야 함

<영농조합법인형>
최근에 기획 영농조합법인들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어 이의 투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함. 특허를 받은 특용 작목 기술을 전수해 주고 시설·재료를 다 제공해 주겠다고 투자를 유도하지만 허위·과장 광고가 대부분임. 농업은 작황·시장 상황 등이 불규칙한 편이라 연간 몇 %씩 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말을 하기 어려운 만큼 광고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의심할 필요가 있음

<묘목상형>
귀농인들의 관심이 많은 개량 호두나무, 아로니아, 왕대추 등의 예상 소득을 과대 포장하여 해당 묘목을 판매하여 이득을 챙기는 사기

<애견브리딩형>
반려동물 급증 추세에 맞춰 애견 브리딩(Breeding; 번식)·분양업을 홍보하면서 비싼 값에 개·시설·사료 등을 팔아넘기는 사기

[출처] 아시아경제(2017.07.06.), "'월 500 보장'…귀농·귀촌 꿈 짓밟는 사기 극성"

2) 귀어 준비 절차[3)]

효율적인 귀어 준비 절차

[출처]
귀어귀촌종합센터(www.sealife.go.k)
귀어귀촌 준비 절차

3) 본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귀어 준비 절차는 귀어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sealife.go.k)에서 제시하고 있는 귀어·귀촌 준비 절차의 내용을 수록한 것임을 밝힌다.

• 제1단계 : 정보와 기초 지식 수집

어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기초 지식을 쌓아야 한다. 다양한 수산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모으고 전화 및 창구를 이용해 전문가와 상담한다.

• 제2단계 : 영어(營漁) 교육 사전 이수 및 영어(營漁) 체험

교육기관을 방문해 이론과 기술 교육을 받고, 선도 어가에서 어업 체험을 해 본다.

• 제3단계 : 업종 선택

경영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 수준, 자본 능력 등에 적합한지 신중하게 검토한 후 선택한다. '어업'이라 함은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하며, 면허·허가·신고 어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제4단계 : 기술 습득

경영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한 후에는 그에 맞는 확실한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단순한 취미가 아닌 직업으로 어업을 경영하는 것이라면 더욱 어업 기술과 노하우를 제대로 익혀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업은 농업과 같이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만 어업 생산의 기본은 생물과 자연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생산 활동이므로, 책에 소개되어 있는 이론과는 확연히 다르다.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서 비교적 규모 있는 어업 경영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보 수집과 현장 체험을 통한 기술 습득이 시행착오를 줄이며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인 것이다. 경영할 업종이 정해지면 정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하고, 잠시 선도 어가를 방문해 영어 체험을 해 보는 것이 좋다. 적어도 종사할 업종에 대한 한 사이클 정도의 경험을 쌓아 두어야 한다.

• 제5단계 : 지역 선정

업종 선택과 기술을 습득한 후에는 자녀 교육 등 생활 여건과 선정된 업종에 적합한 입지 조건, 어업 여건 등을 고려해 정착지를 물색하고 결정해야 한다. '일정한 후보 지역'과 '어떤 어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이 결정되면 후보 지역에 맞는 어장과 부지가 있는지

를 해당 지자체 및 관할 수산기술사업소에 문의해야 한다. 또한 가족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생활 조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착지에 대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시·도·군청이나 수산기술사업소에 전화 문의를 통해 수집할 수도 있지만,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여러 곳을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읍면 중심지에서부터 귀어 지역까지의 거리와 도로 사정, 병원까지의 거리, 일용품을 살 수 있는 상점까지의 거리 등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도시와 비교해 교통 사정 등 불편한 것이 많고, 그동안 해 왔던 도시 생활과 비교하여 어촌 생활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지역인지 충분히 고려하고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업의 특성상 어장에 나가 조업을 하거나 양식 수산물을 돌보는 등의 일을 매일매일 해야 하므로 집과 어장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좋다.

• 제6단계 : 자금 확보

업종과 지역을 선정한 후에는 어선 및 어장 구입 외에 종묘와 사료 대금 등 1년간 어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과 생활 자금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사전에 필요한 자금액 등 생활 설계를 면밀히 세우는 것이 특히 중요한데, 가능한 한 자기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귀어 자금 등 수산 정책 자금 등을 유용하게 활용한다면 저금리로 융자를 해 주는 어업인 혜택을 받으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7단계 : 어선·어장 및 주택 확보

어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어선과 어장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는 바다의 일정 구역에서 수산물을 포획, 양식할 수 있도록 어업인에게 허가권과 면허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 및 면허권을 취득해야 하고, 모든 허가와 면허는 총량제로 신규 취득을 할 수 없으며 기존 허가(면허)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

• 제8단계 : 영어(營漁) 재원 마련

자신이 선택한 업종과 그에 맞는 규모를 고려해 지역의 수산사무소 및 선도 어가 등에 조언을 구해 최적화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어업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제9단계 : 영어(營漁) 계획 수립

어장과 시설, 주택 등 모든 것이 확보된 후에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영어 계획을 세워 '나만의 영어 계획서'를 만들어 본다. 사업을 시작한 후 바로 소득이 창출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그동안 해당 업종의 이론 및 체험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 계획과 판매 계획, 자금 계획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경영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제10단계 : 지역사회 커뮤니케이션

1차 산업을 바탕으로 영위되는 어업은 예부터 마을 사람들끼리 교류하며 한 가족처럼 지내는 풍습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산업의 특성상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인데, 자신의 삶의 터전이 어촌에 맞춰진 것인 만큼, 지역 주민과의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는 마을 회의와 행사, 공동 작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역할도 맡는 등 적극적인 동참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인사를 하는 등 원주민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다. 어촌 생활과 이웃 간의 따뜻한 정 등을 생각해 이주한 경우가 아니라 직업으로서 어촌을 선택한 경우라 할지라도, 지역사회에 얼마나 융해될 수 있는지, 지역주민들과 잘 사귈 수 있는지 여부가 안정적인 어촌 정착의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다.

4. 귀농·귀어·귀촌 지원 기관

성공적인 귀농·귀어·귀촌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획득은 물론이고 전문 지식을 보유한 상담자나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어업 기술, 작물, 어종, 재배 지역 등 해당 분야에 대해 상당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귀농·귀어·귀촌에 관심을 갖는 내담자 방문 시에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기관을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대표적 기관으로는 귀농·귀촌의 경우 귀농귀촌종합센터, 귀어의 경우 귀어귀촌종합센터가 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www.returnfarm.com ☏ 1899-9097

-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지역 정착 지원
- 상담, 교육, 현장 전문가 지원 등 원스톱 정보 서비스 제공

<귀어귀촌종합센터>

www.sealife.go.kr ☏ 1899-9597

- 귀어·귀촌 희망자의 성공적인 창업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상담, 교육, 현장 전문가 지원 등 원스톱 정보 서비스 제공

<지역 관할 시·군청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자체별 관련 홈페이지 목록 :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 지자체관 → 전국 귀농귀촌지원 센터

-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전문 농업인 육성, 농가 경영 지도, 관련 정보 제공 등

<참고 문헌>

통계청(2018.6.28.), 2017년 기준 귀농어·귀촌인 통계 결과 보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외(2018.6.28.), 2017년 기준 귀농어·귀촌인 통계 결과 보도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6), 2016년 귀농·귀촌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7), 2017 귀농귀촌 가이드
농림수산식품교육원, 귀농귀촌종합센터(2018), 2018 귀농귀촌 종합 상담 매뉴얼
김은석 외(2015),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 경로 및 경력 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종단 연구(2차년도)의
김은석(2017), '막연한 꿈에서 행복한 노후로, 은퇴 후 귀농귀촌 제대로 알기', <커리어info> 제10호(2017.12.). 한국고용정보원
김귀영(2017), '막연한 꿈에서 행복한 노후로, 은퇴 후 귀농귀촌 제대로 알기', <커리어info> 제10호(2017.12.). 한국고용정보원
김은석(2015), '베이비부머의 일과 삶, 그 생생함에 관해 말하다-제2화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귀농귀촌 동기와 준비 경험', <커리어info> 제6호(2016.12.). 한국고용정보원
아시아경제(2017.07.06.), "월 500 보장"…귀농·귀촌 꿈 짓밟는 사기 극성"

<참고 사이트>

귀농귀촌종합센터 www.returnfarm.com
귀어귀촌종합센터 www.sealife.go.kr

TIP 신중년 귀농 스토리

신중한 판단력과 과감한 추진력, 귀농으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다*

조만석(귀농인, 우송영농조합법인 총괄이사)

26년 여간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는 동안 조만석(57) 씨에게 행정 업무는 천직이라고 생각할 만큼 몸에 잘 맞는 옷이었습니다. 주어진 대로 일하기보다 늘 업무 효율을 고민하고 개선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고, 특유의 뛰어난 판단력과 추진력으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주로 기획과 재무 등의 요직을 맡았던 것도 그 덕분이었습니다. 반도체 분야 중견 기업 임원으로 스카우트되어 8년간 감사직을 맡는 동안에도 경영 효율과 인력 쇄신을 위해 고민하는 일들은 늘 그에게 새로운 도전 정신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평생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활기찬 삶을 주도해 왔던 그였기에 은퇴 시기가 다가올수록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성격상 유유자적하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년간의 고민 끝에 '귀농'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고, 아내와 함께 충북 보은으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귀농 5년 차인 지금, 조만석 씨는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는 농업인인 동시에 타고난 행정가로서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 마을 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생활 터전과 업무 분야는 완전히 바뀌었지만, 신중한 판단력과 과감한 추진력은 여전히 주도적인 삶을 위한 원동력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귀농 결심,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열다

50대 초반, 평생에 걸친 공무원 생활을 정리하고 기업체 감사로 전직했을 때 그에게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8년의 감사 임기가 끝나갈 무렵 점차 자신감이 줄어들었습니다. 2~3년 앞으로 다가온 은퇴에 대한 불안이 그의 삶 전반을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삶,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인 역할과 인정 등 모든 면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될 거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더군요. 은퇴 이후에 도시 생활자로서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아무리 고민해 보아도 떠오르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귀농·귀촌으로 시선을 돌리게 됐죠."

그는 흔쾌히 동의해 준 아내 김은숙(51) 씨와 함께 귀농과 귀촌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했고, 유유자적한 전원생활은 체질에 맞지 않다는 생각에 귀농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적합한 작물과 지역을 찾기 위해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현장을 보며 정보를 얻었습니다. 과수 농사에 관심이 많던 부부는 충남 청양, 부여 등 각지를 둘러보던 끝에 대추와 사과 관련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충북 보은을 발견했습니다. 과거에 그가 지방공무원으로 일했던 지역으로 가면 여러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정착도 쉽겠지만, 인맥으로 해결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보은은 연고지 하나 없는 낯선 환경이지만, 농업 환경과 지원 정책이 풍부한 곳이라 이곳에서 새로이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귀농 준비, 서두르지 않는 신중함으로 임하다

조만석 씨가 선택한 '대추'는 보은군 지자체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특화 농산물이었기에, 관련 교육이나 판로 개척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보은군대추대학(8기)'을 통해 농장 개원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배웠습니다. 대추

과원관리와 접목 기술, 주요 병해충 진단과 예방 기술, 순지르기와 착과 기술 등 재배법은 물론이고, 수확과 출하 전략, 마케팅까지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나니 막막했던 귀농이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행정 업무에 능통했던 조만석 씨는 정부 정책과 지자체 지원 사업을 면밀히 알아보고, 모든 과정과 작업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또한 평택서해영농조합에서 귀농에 필요한 귀농 전문 과정을 3개월에 걸쳐 수료했고, 자신에게 맞는 귀농 지원을 찾아 꼼꼼하게 준비해 도전한 결과 귀농인 농업 창업 자금 2,800만 원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보은군에서 정착 자금과 농기계 구매 자금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이 귀농을 결심하면 우선 집과 땅부터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보 귀농인으로서 얼마나 잘 정착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덜컥 큰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의 경우, 농기계와 장비 구입비 등을 다 합쳐도 귀농 자금은 3,000만 원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보은군은 집과 땅이 임대라도 귀농 지원을 받는 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료로 임대한 농가 주택을 수리해서 거주했고, 농사지을 땅도 임대해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조기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귀농 정착, 열린 마음으로 먼저 다가서다

조만석 씨는 현재 대추와 와송 아로니아를 재배 중이며, 지난해에는 약 9,000만 원대의 수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귀농귀촌협의회 삼승면 이장을 맡아 박람회에 참여하고, 대추 작목반, 아로니아 작목반을 운영하며 멘토로서 다른 귀농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할 때보다 매 순간 활력과 의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됐다"고 활기차게 말하는 그에게도 귀농 초창기 적응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많은 귀농인이 그러하듯 귀농 초기에 가장 크고 어려운 숙제는 지역민과의 화합이었습니다. 사전에 각오를 단단히 했음에도, 지역민들의 이유 없는 냉대에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오랜 생활방식과 문화가 다르다 보니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인기척 없이 갑작스레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주민을 보고 적잖이 당황하기도 했지만, 부부는 싫은 내색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자 항상 먼저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술자리에 불러내거나, 크고 작은 마을 일에 동원될 때도 기꺼이 웃으며 참여한 결과, 함께한 시간과 신뢰가 차곡차곡 쌓여 이제는 친밀하고 스스럼없는 사이로 동화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만석 씨가 농림축산식품부 권역 사업의 사무장을 맡은 것도 지역민들과의 신뢰를 쌓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마을이 27억 원가량의 권역 사업에 선정되었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두고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 경험이 풍부한 조만석 씨가 사무장을 맡으며 사업을 순탄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민들과 수시로 모임을 열고 대화를 통해 의견을 모았으며, 토지 매입과 센터 및 공장 설립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했습니다.

귀농 확장, 마을 기업 설립으로 함께 성장하다

농사만으로는 귀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어렵다고 판단한 그는 마을 기업을 통한 가공 창업을 결심하고, 주민들을 설득하여 '우송 영농조합법인'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오해도 벌어지고,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진심으로 설득했어요. 법인을 세워 함께 힘을 합쳐야만 더 좋은 판로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호소한 거죠. 결국은 농가 11곳이 함께 의기투합해 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송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330m2 규모의 가

공장을 갖춰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공 사업에 뛰어들었죠. 이제 1년이 된 마을 기업이지만, 벌써 상당한 매출을 올릴 만큼 승승장구하게 된 비결 역시 함께 성장하겠다는 진심과 화합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송영농조합법인에서는 현재 마을기업 참여 농가의 사과와 배추, 아로니아 등을 즙과 분말로 가공하고, 임가공을 통해 월 6,000만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온 살균 방식으로 가공한 사과즙이 당도가 높고 맛이 좋아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주력 상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임가공 사업 외에도 6차 산업 지원센터의 직판 매장 세 곳에 입점해 판매 중이며, 내년에는 백화점과 마트에도 입점할 계획입니다. 가공과 체험을 연계한 6차 산업화도 목표로 삼았습니다. 타고난 성실함과 적극성, 추진력으로 지역 수익 산업에 활력을 가져왔지만, 그 공로는 함께 한 지역민들에게 있다고 강조합니다.

"귀농 성공의 비결이요? 무엇보다 다 같이 화합하고 협력한 결과죠. 귀농 생활을 하며 얻은 소중한 깨달음이 있다면, '함께'가 없으면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과 함께 마을 노인분들을 위한 식사 제공, 장학생 선발 등 지역 환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농조합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 애쓰는 동시에, 지역과 더욱 화합하고 융화되는 삶의 방식을 열어 가고자 합니다."

※ 신중년 귀농 스토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하는 <커리어info> 제10호 (2017.12.)에 수록된 재취업 성공 STORY 기사를 재가공하여 제공한 것임을 밝힌다.

조만석 씨의

귀농 성공 포인트

성공 포인트 1

지역에서 가장 주력하는 작물을 선택하세요

귀농 현장 실습생들에게 교육할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지자체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농산물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초보 귀농인에게는 모든 것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잘 하지 않는 독특한 농산물을 선택할 경우 재배뿐만 아니라 판로 개척까지 매 순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보은의 특화 사업인 대추를 선택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빠르게 판로를 열 수 있었던 것처럼 지역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는 것이 야말로 귀농의 성공을 가르는 핵심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성공 포인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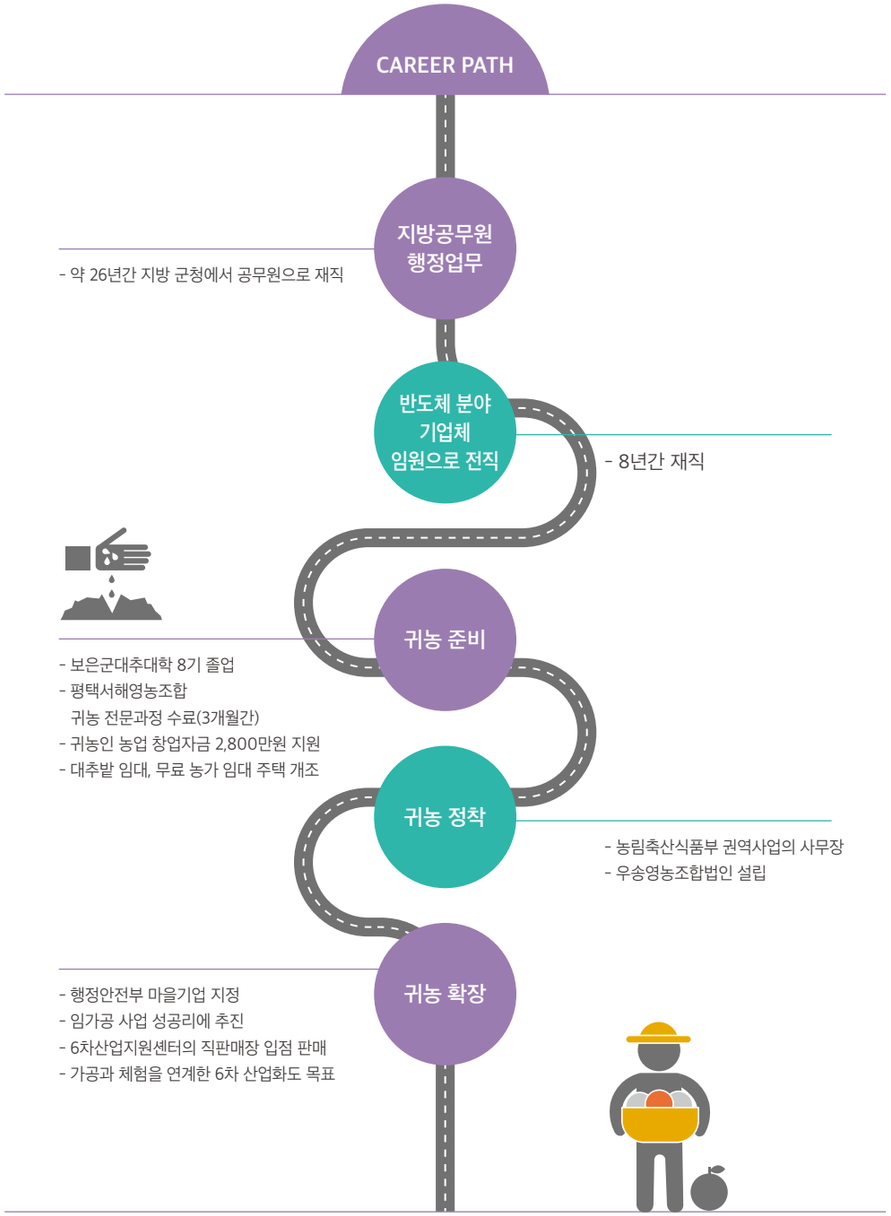
'화합'을 위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귀농하는 사람 중에는 현지 주민들과 화합을 못 해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시골의 낭만을 위해 온 것이라 오해하여 처음에는 주민들이 적대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태도에 당황하거나 상처받지 말고, 시간을 들여 차근차근 화합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활짝 열린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고, 마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 갖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혼자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 포인트 3

성급함을 버리고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귀농을 실패로 만드는 요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막연한 낭만과 기대만으로 섣불리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은과 같이 집이나 땅을 임대하더라도, 귀농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자체 지원, 각종 교육을 두루 알아보고 충실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CAREER PATH
지방공무원
행정업무
- 약 26년간 지방 군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
반도체 분야
기업체
임원으로 전직
- 8년간 재직
귀농 준비
- 보은군대추대학 8기 졸업
- 평택서해영농조합
귀농 전문과정 수료(3개월간)
- 귀농인 농업 창업자금 2,800만원 지원
- 대추밭 임대, 무료 농가 임대 주택 개조
귀농 정착
- 농림축산식품부 권역사업의 사무장
- 우송영농조합법인 설립
귀농 확장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정
- 임가공 사업 성공리에 추진
- 6차산업지원센터의 직판매장 입점 판매
- 가공과 체험을 연계한 6차 산업화도 목표

제 8장

신중년 경력 개발(취업 지원) 자원 활용 안내

신중년을 대상으로 고용 서비스를 수행하는 정부 및 관련 공공 기관에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국민들의 전 생애에 걸친 경력 개발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애 단계별·대상별 경력(진로)개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를 비롯해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 직업심리검사, 직업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신중년이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 서비스 종사자들 역시 산재한 정보들 속에서 콘텐츠의 인지 및 활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을 비롯해 유관 기관에서 신중년 경력 개발 및 취업 지원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경력 개발 및 취업 지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중년의 주요 호소 문제를 중심으로 각 자원을 유목화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내담자 유형에 따른 빠른 정보 찾기

구분	주요 호소		페이지
진로 미설정	“퇴직 후 남은 인생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68
진로 설정	재취업	“계속해서 일하고 싶어요.”	270
	창업	“더 늦기 전에 내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272
	사회 공헌	“내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공헌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274
	귀농·귀촌·귀어	“귀농·귀촌·귀어를 하고 싶어요.”	276

‘진로 미설정’ 신중년을 위한 경력 개발 자원 활용 안내

구분		활용 자원	내용	제공처
자기 이해	내 적성·흥미·역량·가치관 등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싶습니다.	직업 심리검사 구직 준비도검사 창업 적성검사	• 성인용 직업적성검사(90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 분야 제시	워크넷(www.work.go.kr) → 직업·진로 → 직업심리검사
			• 직업선호도검사 S형/L형(25분/60분) 좋아하는 활동, 관심 있는 직업, 선호하는 분야를 탐색하여 개인의 흥미 유형 및 적합 직업 탐색 지원	
			• 중장년 직업역량검사(25분) 중장년 근로자의 직업 역량을 진단하여 후기 경력 개발과 관련된 의사 결정 지원	
			• 직업가치관검사(20분) 직업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가치관을 측정하여 자신의 직업 가치를 확인하고 그에 적합한 직업 분야 안내	
	취업에 대한 저의 준비 상태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성인 구직자의 구직 준비도를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안내(20분)	워크넷(www.work.go.kr) → 직업·진로 → 직업심리검사
	창업을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창업 희망자에게 창업 소질이 있는지를 진단하고, 가장 적합한 업종을 파악하여 추천(20분)	워크넷(www.work.go.kr) → 직업·진로 → 직업심리검사
	귀농·귀촌·귀어를 해도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귀농·귀촌 자가 진단	‘귀농 단계별 체크리스트, 귀농·귀촌 준비도 테스트, 전원생활 적합도 테스트’를 통해 귀농·귀촌에 적합한지 정보 제공(5분)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 → 귀농귀촌상담 → 자가 진단
		귀어·귀촌 자가 진단	‘귀어 단계별 체크리스트, 귀어·귀촌 준비도 테스트, 어촌 생활 적합도 테스트’를 통해 귀어·귀촌에 적합한지 정보 제공(5분)	귀어귀촌종합센터(www.sealife.go.kr) → 귀어·귀촌 → 절차 → 귀어·귀촌 필수 팁
생애 경력 설계	앞으로의 경력 설계를 위해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생애 경력 설계 자가 진단	자신이 원하는 경력 개발 지향을 확인하고, 구직 태도·구직 기술·직무 능력과 관련하여 자신의 현 상황과 특성을 파악해 지원 및 주요 지원 서비스 정보 제공(5분)	워크넷(www.work.go.kr) → 직업·진로 → 직업심리검사
		전직 스쿨	기업의 퇴직 예정 근로자 발생 시 일대일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퇴직에 따른 불안 해소 및 인식 전환, 전직 계획 수립 및 구직 스킬 습득 지원	워크넷(www.work.go.kr) → 장년 → 전직지원 서비스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자가 진단을 통한 경력 자산 확인, 다양한 진로 모색 및 경력 설계 지원	워크넷(www.work.go.kr) → 장년→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구분		활용 자원	내용	제공처
노동 시장 이해	내 나이대 사람들이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워크넷 중장년층 취업 지원 직업 정보 콘텐츠	• 중장년층 취업 지원 동영상 중장년층 적합·선호 직업을 동영상으로 소개	워크넷(www.work.go.kr) → 직업·진로→동영상
			• 대상별 추천 직업(중장년) 중장년이 도전하기에 적합한 직종 및 관련 직무와 준비 방법 안내	워크넷(www.work.go.kr) → 직업·진로→직업 정보→직업 탐방
			• 미래를 함께 할 새로운 직업(중장년) 정부 육성·지원 신직업, 신생·이색 직업 중 중장년에 적합한 직종 및 직무와 준비 방법 안내	
			• 우리들의 직업 만들기(창직) 중장년 창직자 인터뷰 소개	
			• 커리어INFO 생애 경력 개발 관련 주요 현황 및 이슈 정보를 웹진 형태로 제공	한국고용정보원(www.keis.or.kr) → 발간물 → <커리어info>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현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향후 10년간 우리 노동시장의 인력 공급 및 수요를 예측하여 미래 노동시장 전망	한국고용정보원(www.keis.or.kr) → 발간물 → 인력 수급 전망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국내외 고용 지표와 인력 수급 전망 등의 정보 제공	한국고용정보원(www.keis.or.kr) → 고용 행정 통계
		잡 맵	산업별·직업별 종사자 수 및 소득, 근속연수, 성비, 평균 학력, 평균연령, 평균 근속 연수 등 정보 제공	워크넷(www.work.go.kr) → 직업·진로 → 직업 정보
정책 이해	신중년 대상 정부의 지원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중년, 55+ 현역 시대를 위한 일할 기회 늘리기	신중년 대상 고용노동부 지원 정책 소개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정책 자료 → 대상자별 정책 → 중장년

경력 경로별 신중년을 위한 자원 활용 안내 <재취업>

구분	활용 자원	내용	제공처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교 재취업 프로그램 - 베이비부머 과정**	취업을 희망하는 만 50세 이상의 미취업자 및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취업이 용이한 훈련 과정을 운영하여 무료로 직업훈련 제공	한국폴리텍대학(www.kopo.ac.kr) → 교육·훈련 과정 안내 → 실업자 과정 → 베이비부머 과정
	한국폴리텍대학교 재취업 프로그램 - 신중년 특화 과정		한국폴리텍대학(www.kopo.ac.kr) → 교육·훈련 과정 안내 → 신중년 특화 과정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HRD-NET)	내일배움카드제, 근로자 직무 능력 향상 훈련, 기업체 지원 훈련, E-러닝 강의, 전국 훈련 기관 등 안내	HRD-NET(www.hrd.go.kr)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기술 양성 및 취업, 교육·훈련 제공	상공회의소(www.korcham.net) → 상의 네트워크
재취업 경력 설계, 처음부터 취업까지 도움받고 싶어요.	**취업성공패키지**	중위 소득 초과 신중년에게 '생애 설계-훈련-취·창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워크넷(www.work.go.kr) → 채용 정보 → 취업성공패키지
재취업을 위해 자기 이해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고용복지+센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	**• 성장(성실) 프로그램** 중장년층 구직자의 인생 설계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인생 재설계, 취업 자신감 향상, 구직 기술 습득, 대인 관계 기술을 통한 직업 적응 능력 향상 및 취업 설계 지원	워크넷(www.work.go.kr) → 장년 → 성실 프로그램
		•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워크넷(www.work.go.kr) → 모두의 취업 → 취업 지원 프로그램 →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
		• 단기 취업 특강 취업 성공에 필요한 노하우를 알기 쉽게 알려 주는 단기 취업 특강	워크넷(www.work.go.kr) → 모두의 취업 → 취업 지원 프로그램 → 취업 특강 프로그램
전문 컨설턴트에게 심도 있는 일대일 컨설팅을 받고 싶어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취업 지원 서비스**	**• 재도약 프로그램** 40세 이상의 구직자가 빠른 시간 내 성공적인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일대일 컨설팅, 취업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중장년층 특성에 맞춤화된 지원 서비스 제공	워크넷(www.work.go.kr) → 장년 → 전직 지원 서비스
		• 무료 이력서 클리닉 지원 기업에 맞는 입사 서류, 지원자의 경력과 업무 전문성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맞춤형 이력서를 위한 전문 컨설턴트 컨설팅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www.fki-rejob.or.kr) → 취업 지원 서비스
		• 전문 컨설턴트 맞춤형 상담 재취업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전문 컨설턴트에게 맞춤형 상담 지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www.fki-rejob.or.kr) → 취업 지원 서비스

구분	활용 자원	내용	제공처
신중년에게 적합한 취업처 탐색은 어떻게 할까요?	**고령자 인재은행**	50세 이상의 구직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 지도 및 취업 알선, 취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 제공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정책 자료 → 대상자별 정책 → 중장년
	워크넷 장년	중장년에 특화된 서비스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년 우대 채용 정보, 고용 뉴스, 관련 지원 프로그램 등 정보 제공	워크넷(www.work.go.kr) → 장년 → 전직 지원 서비스
재취업과 관련된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나요?	**신중년, 55+ 현역 시대를 위한 일할 기회 늘리기**	신중년 대상 고용노동부 지원 정책 소개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정책 자료 → 대상자별 정책 → 중장년

Tip. 신중년 주요 취업 지원 기관 안내

기관명	지원 내용	관련 정보
고용복지+센터	- 일자리와 복지, 서민 금융 등의 상담과 지원을 한곳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생애 경력 설계부터 취업 지원까지 통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복지플러스센터 (workplus.go.kr)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40세 이상 신중년에게 생애 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 참여 기회 등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 및 취업 촉진 도모 - 만 50세 이상 신중년 대상 생애 경력 설계를 토대로 유형별·단계별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정책 자료 → 대상자별 정책 → 중장년
고령자 인재은행	- 만 50세 이상 신중년 대상 구인·구직 등록, 직업 지도 및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 - 구직 등록자 중 취업 능력 제고가 필요한 구직자에게 50시간 이상 취업 의욕 고취 및 직무 능력 향상 교육 실시	

경력 경로별 신중년을 위한 자원 활용 안내 <창업>

구분	활용 자원	내용	제공처
창업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받고 싶습니다.	**E-러닝 교육**	인터넷으로 창업 과정에 필요한 강좌 수강	소상공인통합교육시스템 (edu.sbiz.or.kr) → E-러닝교육
	상권정보 시스템	지역·업종별 창업 및 폐업·인구·집객 시설 등 53종의 상권 현황과 경쟁 정도, 입지 등급, 수익성 등의 분석 정보 제공	소상공인상권정보시스템 (sg.sbiz.or.kr)
	스마트창작터	앱, 콘텐츠, ICT 융합 분야 등 유망 지식 서비스 분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실습 교육, 시장 검증 교육 및 우수 수료생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진흥원(www.kised.or.kr) → 사업 안내 → 창업 교육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중장년(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가 경력, 네트워크, 전문성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 교육 및 창업 지원, 예비 퇴직자 맞춤 교육	창업진흥원(www.kised.or.kr) → 사업 안내 → 창업 교육
창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공간을 지원받고 싶습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1인 창조 기업에게 사무 공간 및 법률, 세무, 마케팅 등 경영 지원	창업진흥원(www.kised.or.kr) → 사업 안내 →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반 창업 여건이 취약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초기 기업(예비 창업자)에게 사무 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으로 안정적인 경영 활동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 (www.bi.go.kr)
창업 준비에서부터 사업화 자금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고 싶습니다.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이론 교육, 점포 경영 체험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창업 전 과정에 걸친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교육시스템(edu.sbiz.or.kr) → 교육 사업 안내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기술·경력·네트워크를 보유한 숙련 퇴직 인력과 청년의 아이디어를 매칭하는 세대 융합형 (예비)창업 팀을 발굴하여 초기 창업 전 단계를 집중 지원	창업진흥원(www.kised.or.kr) → 사업 안내 → 사업화

구분	활용 자원	내용	제공처
창업 및 운영을 위해 자금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창업 기업 지원 자금**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www.sbc.or.kr) → 자가 진단 → 사전 상담 (방문 상담) → 온라인 신청
	엔젤투자매칭 펀드	창업 초기 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 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 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 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지원센터 (www.kban.or.kr)
	미소금융 창업·운영 자금	제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창업·운영 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 서민 금융 상품 → 창업·운영 자금
	기술형 창업기업 자금	설립 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 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 기업에 자금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www.seoulshinbo.co.kr) → 업무 안내 → 자금 지원 → 운전 자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정책 및 서비스들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k-start up**	정책 자금, 창업 교육, 시설·공간, 사업화,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판로·해외 진출, R&D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지원 사업 및 창업 콘텐츠 소개	K-start up (www.k-startup.go.kr)

Tip. 신중년 주요 창업 지원 기관 안내

기관명	지원 내용	관련 정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및 전통 시장 교육, 컨설팅, 자금, 방송 등 소상공인 및 전통 시장 관련 서비스 제공 -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재창업패키지, 소상공인 컨설팅 등의 서비스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창업진흥원	-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교육, 창업 인프라 구축, 수요자 맞춤형 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스마트 창작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의 서비스 제공	창업진흥원 (www.kised.or.kr)

경력 경로별 신중년을 위한 자원 활용 안내 <사회 공헌>

	활용 자원	내용	제공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KDB 시니어브리지**	시니어 브리지 아카데미, 사회 공헌 인턴십, 정보 제공 서비스, 네트워크 모임 및 공간 지원 등 운영	KDB 시니어브리지 (seniorbridge.or.kr) → 사업 안내 → 배움마당
	사회연대은행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마이크로크레디트를 통한 창업 지원, KDB 시니어브리지와 함께 사회 공헌 아카데미 운영, 시니어 사회 공헌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회연대은행(www.bss.or.kr) → 사업 소개 → 교육·연구
	희망제작소	희망설계아카데미, 사회 혁신가 양성 프로그램, 시니어 대상 각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	희망제작소 (www.makehope.org) → 활동
	서울시 50플러스재단	공헌형·혼합형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커리어 모색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50+ 세대를 위한 공간 지원, 단체 설립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서울시50플러스포털 (www.50plus.or.kr) → 배움·일·참여
저의 재능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	전국의 자원봉사 정보를 한곳에 모아 다양한 자원봉사 정보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교육 및 실적 관리도 지원	1365 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사회복지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로 신청할 수 있으며, 봉사 완료 후 실적 관리도 지원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 (www.vms.or.kr)
	(사)한국자원봉사문화	자원봉사 관련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캠페인 진행, 신중년 대상 자원봉사 프로그램·시민 참여 프로그램·기업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진행	한국자원봉사문화 (volunteeringculture.or.kr) → 대표 사업
	중소기업 경영자문단	대기업 출신 경영 베테랑 및 법무 전문가로 구성된 무료 경영 자문단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 및 글로벌 시장 개척, 창업자 아이디어 사업화를 도와주기 위한 자문 실행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www.fkilsc.or.kr) → 경영 자문 → 자문단 소개

	활용 자원	내용	제공처
일정 소득을 받으며, 저의 연륜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 공헌 활동 지원 사업**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이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워크넷(www.work.go.kr) → 장년
	월드프렌즈 KOICA 자문단	봉사 정신을 갖춘 퇴직(예정)자를 6개월~1년간 개도국 정부 부처 및 공공 기관에 파견하여 교육·농림수산·보건·공공행정·산업에너지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 정책 자문 및 기술 전수 역할 수행	KOICA봉사단(kov.koica.go.kr) → 사업 현황 → 월드프렌즈 KOICA자문단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여성 어르신이 유아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해 유아들에게 우리 옛이야기와 선현들의 미담을 들려주는 사업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storymama.kr)
	100세 누리 시니어 사회 활동 포털	공익 활동&시장형 일자리, 재능 나눔 활동, 시니어 인턴십 등의 사회 공헌 활동 일자리에 대한 정보 및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제공	100세 누리 시니어 사회 활동 포털 (www.100senuri.go.kr:4431/main/main.do)
	서울시 50+ 보람일자리	50+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커리어 탐색의 기회를 제공,독거 어르신 후견 지원단과 50+취업진로전문관 등의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50+(50plus.or.kr) →일·참여+ → 사회 공헌 일자리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사회적 기업가 양성과 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사회적 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사회적 기업 인증 업무, 협동조합 교육·훈련 지원,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www.socialenterprise.or.kr) → 지원 사업 안내
	신나는조합	사회적 금융 지원, 창업 자금 및 경영 개선 자금 융자, 사회적 경제 기업 융자 사업, 사회적 경제 기업 자금 조달 교육,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교육, 관련 분야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등	신나는조합(joyfulunion.or.kr) → 사회적 기업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 공헌 일자리 정책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신중년, 55+ 현역 시대를 위한 일할 기회 늘리기**	신중년 대상으로 정부의 사회 공헌 일자리 정책에 대한 소개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정책 자료 → 대상자별 정책 → 중장년

경력 경로별 신중년을 위한 자원 활용 안내 <귀농·귀어·귀촌>

	활용 자원		내용	제공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데, 관련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준비	**귀농·귀촌 상담**	귀농·귀촌 관련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진행 (온라인, 전화, 오프라인)	귀농귀촌종합센터 (www.returnfarm.com) → 귀농귀촌상담 → 상담안내
		귀농·귀촌 교육	• **온라인·오프라인 귀농·귀촌 교육**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에게 농촌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농업교육포털 (www.agriedu.net) → 온라인·집합교육
			• **귀농·귀촌 아카데미 교육 및 소그룹 강의**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및 은퇴 예정자의 안정적인 농촌 지역 정착에 필요한 귀농·귀촌 이론·실무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무료 교육을 제공하여 체계적인 귀농·귀촌 실행 준비 지원	귀농귀촌종합센터 (www.returnfarm.com) → 교육 정보 → 오프라인 교육 → 귀농·귀촌 교육
		귀농·귀촌 박람회	중앙 및 지자체 정책, 농업 농촌 생활 정보, 귀농·귀촌 전문가 및 농식품 분야 창업 일대일 멘토링 등 현장 정보 중심의 박람회	귀농귀촌박람회 (www.returnfarmexpo.com)
	실행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 센터**	타운 형태의 '창업 지원센터'에서 일정 기간 동안 예비 농업인에게 주거 제공과 창업 실습 및 교육 지원	귀농귀촌종합센터 (www.returnfarm.com) → 지원 정책 →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 센터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 동안 영농 기술을 배우고 농촌 체험 후 귀농할 수 있게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 제공	귀농귀촌종합센터 (www.returnfarm.com) → 지원 정책 → 사업 지침 →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닥터	귀농·귀촌 희망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궁금증 해소 및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 또는 귀농·귀촌 선배의 상담 및 자문 지원	귀농귀촌종합센터 (www.returnfarm.com) → 지원 정책 → 귀농닥터
	정착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 기술 및 품질 관리, 경영·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 교육(체험)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 증진에 기여	시·군 농업기술센터
	정책	**귀농귀촌 종합센터**	귀농·귀촌 종합 정책, 농업 창업, 인턴제, 교육과정 소개 및 체험 정보 안내	귀농귀촌종합센터 (www.returnfarm.com)

	활용 자원		내용	제공처
귀어·귀촌을 희망하는데, 관련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귀어귀촌종합센터]	준비	**귀어·귀촌 상담**	귀어·귀촌 관련 지원 정책, 수산업 제도, 양식기술, 수산 가공·유통 관련 안내 및 상담 (방문, 전화, 오프라인)	귀어귀촌종합센터 (www.sealife.go.kr) → 센터 소개 → 상담 안내
		귀어·귀촌 교육	• **귀어·귀촌 종합·주말 교육(오프라인)** 귀어·귀촌 희망자의 성공적인 창업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귀어귀촌종합센터 (www.sealife.go.kr) → 귀어·귀촌→교육 정보
			• **어업 창업 기술 교육(오프라인)** 귀어·귀촌 희망자 및 신규 귀어·귀촌자에 대하여 어업 창업 기술 교육 실시	귀어귀촌종합센터 (www.sealife.go.kr) → 귀어·귀촌 → 어업 창업 기술 교육
	실행	**귀어촌 홈스테이**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우수 귀어·귀촌 가구 또는 선도 어가의 숙박과 어업 생활 지도 등 제공	귀어귀촌종합센터 (www.sealife.go.kr) → 지원 정책 → 귀어촌 홈스테이
		귀어닥터	귀어·귀촌 희망인의 정착 초기 어려움 해소를 위해 어업 경영, 어촌 생활 등 귀어·귀촌 관련 분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제공	귀어귀촌종합센터 (www.sealife.go.kr) → 지원 정책 → 귀어닥터
	정착	**어업 창업 및 주택 구입**	귀어업인 및 귀어촌인 중 지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를 심사를 거쳐 선발하여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지원	귀어귀촌종합센터 (www.sealife.go.kr) → 지원 정책 → 어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창업 어가 멘토링	어업인 후계자 및 귀어가 중 창업 어가에게 기술, 경영 등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제공하는 후견인 지원	귀어귀촌종합센터 (www.sealife.go.kr) → 지원 정책 → 창업 어가 멘토링
		수산업 경영인 육성사업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 지도하고 사업 기반 조성 및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통해 미래 수산 전문 인력 양성	·귀어귀촌종합센터 (www.sealife.go.kr) → 지원 정책 → 수산업 경영인 육성 사업
	정책	**귀어귀촌 종합센터**	어업 창업 및 주택 구입, 교육 정보, 사업 및 금융 상담, 귀어·귀촌 준비 절차 등 안내	귀어귀촌종합센터 (www.sealife.go.kr)

신중년 재취업 사례자
경력 경로 상세 정보

부록

路

신중년 경력 개발 관련 상담이나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본 가이드에서 제시한 신중년 재취업 사례자의 특성 및
경력 경로 상세 정보 수록

경력연계 재취업 사례와 특성

- **성명** : 위기찬(가명)
- **성별** : 남
- **연령** : 60대
- **최종 학력** : 전문대졸(전기)
- **보유 자격증** : (기존 보유) 전기산업기사, 전기고급감리
- **주된 일자리** : 전기안전분야 공사 전기 안전 점검부
- **재취업 일자리** : 전력 분야 공사 전력공급팀
- **주된 일자리 → 재취업 일자리** : 고용 형태 변화(정규 → 비정규)
  임금 수준 변화(약 50% 감소)

| 주요 경력 경로 및 특성 |

전기안전 분야 공사에서 설비 점검 및 화재 조사 업무 담당,
정년퇴직 후 전력 분야 공사 재취업

- 34년여의 주된 일자리 이전에 약 10년간 일본계 전파 회사 근무 경험 있으나 고용 불안으로 퇴사
- 약 34년간 전기안전 분야 공사에서 기술·기능직에 종사
- 퇴직 후 약 7개월여 공백기(자발적 휴식 후 구직 활동)
- 주된 일자리에서 취득한 전문 자격을 활용, 스스로 정보 검색을 통해 채용프로세스 경험한 후 전력 분야 공사에 취업

| 재취업 주요 포인트 |

- 주된 일자리에서의 기술과 경력, 관련 전문 자격을 활용해 유관 분야로 재취업한 경우
- 퇴직 직전 및 퇴직 초기에는 '재취업'에 대한 개인 의지가 없었으나 일부 기간 휴식 후 구직, 취업
- 고용 서비스나 지인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전문 자격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구인·구직 사이트(워크넷)정보 검색을 통해 취업처를 확인하고 채용 프로세스 경험 후 재취업한 케이스

경력연계 재취업 사례와 특성

- **성명** : 박한섭(가명)
- **성별** : 남
- **연령** : 60대
- **최종 학력** : 고졸
- **보유 자격증** : (기존) 전기기능사 2급, 중급감리원, 배전활선자격, 지중케이블접속자격
- **주된 일자리** : 전력 분야 공공 기관 특수 설비
- **재취업 일자리** :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 강사
- **주된 일자리 → 재취업 일자리** : 고용 형태 변화(정규 → 비정규)
  임금 수준 변화(비공개)

| 주요 경력 경로 및 특성 |

전력 분야 공사 특수 설비팀에서 정년퇴직 후
직업훈련학교 배전설비 자동화 직업 강사로 재취업

- 34년 전력 분야 공공 기관에서 기술·기능직에 종사
  (재직 중 신입 사원 대상 기술 교육 업무 경험 있음)
- 퇴직 후 2~3년여 공백기는 자발적 귀농(전원) 생활
- 퇴직 후 공백기 중 지인 소개로 귀농 지역 근처 직업훈련학교에서
  직업교육 시간강사로 재취업

| 재취업 주요 포인트|

- 주된 일자리 기술 분야로 그대로 재취업한 케이스는 아니나,
  기존 경력에서 누적된 기술 전문성과 자격증, 그리고 교육 직무 경험을 살려
  재취업한 케이스
- 퇴직 후 귀농하여 공백기 발생, 이후 지인 권유로 재취업
- 퇴직 전 노사발전재단 재취업 교육 및 컨설팅 받아 본 경험 있었으나
  실제 재취업에 직접적 도움은 되지 않았다고 밝힘

경력연계 재취업 사례와 특성

- **성명** : 김정한(가명)
- **성별** : 남
- **연령** : 50대
- **최종 학력** : 대졸(식품공학)
- **주된 일자리** : 식품 분야 중견 기업 영업부장
- **재취업 일자리** : 사회적 기업 영업구매
- **주된 일자리 → 재취업 일자리** : 고용 형태 변화(정규 → 비정규)
  임금 수준 변화(67% 감소)

| 주요 경력 경로 및 특성 |

식품 분야 중견 기업에서 진급 누락으로 퇴직, 식자재 유통 관련 창업과 부도 이후 사회적 기업 영업직으로 재취업

- 30년여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근속 경험을 통해 식품과 영업(관리)에 대한 전문성 누적
- 전공 및 주된 일자리에서의 누적 지식, 경험 등을 기반으로 창업했으나 부도
- 부도 이후, 여유 시간 보내기 위한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 수강
- '사회적 기업' 관련 교육 이수 후 기관·강사 추천을 통해
  사회적 기업 제품 공공 구매 지원단으로 재취업
- 현재는 계약 만료되어 해당 업무는 그만두었으며, 사회적 공헌을 위한 분야 진출 모색 중

| 재취업 주요 포인트 |

- 주된 일자리 기술 분야로 그대로 재취업한 케이스는 아니나,
  기존 경력에서 누적된 기술 전문성과 자격증, 그리고 교육 직무 경험을 살려
  재취업한 케이스
- 퇴직 후 귀농하여 공백기 발생, 이후 지인 권유로 재취업
- 퇴직 전 노사발전재단 재취업 교육 및 컨설팅 받아 본 경험 있었으나
  실제 재취업에 직접적 도움은 되지 않았다고 밝힘

경력연계 재취업 사례와 특성

- **성명** : 정진호(가명)
- **성별** : 남
- **연령** : 60대
- **최종 학력** : 대학원졸(행정학)
- **주된 일자리** : 은행 지점장
- **재취업 일자리** : 중소기업 관리직
- **주된 일자리 → 재취업 일자리** : 고용 형태 변화(정규 → 정규)
  임금 수준 변화(75% 감소)

| 주요 경력 경로 및 특성 |

은행에서 정년퇴직 후, 지인 소개를 통해 중소기업 관리 총괄로 재취업

- 은행원으로 사회생활 시작, 은행 지점장 및 본점 국제금융 업무 등의 요직을 거치며 30여년 근무
- 1차 정년 이후, 계약직 신분 전환 후 9개월가량 근무
- 지인 부탁 및 소개로 중소기업의 관리 총괄 업무 수행, 회사 폐업 및 가치관 충돌로 퇴직

| 재취업 주요 포인트 |

- 은행 지점장 등 주된 일자리에서의 전문성·경력으로 중소기업 관리 총괄 업무에 재취업
- 사례자 본인의 특별한 노력 및 의지로 재취업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사례자의 전문성에 기반한 주변인의 의뢰 등이 재취업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케이스

경력연계 재취업 사례와 특성

- **성명** : 유민식 (가명)
- **성별** : 남
- **연령** : 60대
- **주된 일자리** : 대형 은행 사무직
- **재취업 일자리** : 중소기업 이사(장년 인턴)
- **주된 일자리 → 재취업 일자리** : 고용 형태 변화(정규 → 비정규)
  임금 수준 변화(감소)

| 주요 경력 경로 및 특성 |

대형 은행에서 정년퇴직 후 중소기업 관리직을 거쳐, 현재 중소기업 근무

- 상고 졸업 후 경리 학원 일을 하다가 은행 취업 이후 32년 이상 근속 후 퇴직
- 퇴직 후 지인 소개로 중소기업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나 관계의 어려움, 처우 불이익 등으로 자발적 퇴직
- 첫 번째 퇴직 후, 다양한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 지속
- 장년 인턴제를 활용하여 현재 중소기업 이사(직함은 이사, 회계·경리 등 사무)로 재취업

| 재취업 주요 포인트|

- 은행에서의 장기간 근속 경력을 기반으로 퇴직 초기에는 지인 소개로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재취업
- 첫 번째 재취업 시 진입은 지인 소개로 무난히, 이후 직장 내 관계·적응 어려움으로 자발적 퇴사
- 퇴사 후 지속되는 구직 실패 과정에서 재취업 시장의 어려움 체감
- 다양한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도(상공회의소, 노사발전재단, 전경련 등 여러 기관을 통한 구직 상담, 취업박람회 참석, 워크넷 검색, 직업훈련 등 다양한 구직 활동)

경력연계 재취업 사례와 특성

- **성명** : 신영식(가명)
- **성별** : 남
- **연령** : 50대
- **최종 학력** : 대졸(산업공학과)
- **보유 자격증** : 민간 자격 IT-PMS(정보기술 프로젝트관리사)
- **주된 일자리** : 대기업 정보 통신 분야 전문가
- **재취업 일자리** : 스마트공장추진단 전문위원
- **주된 일자리 → 재취업 일자리** : 고용 형태 변화(정규 → 비정규)
  임금 수준 변화(6% 증가)
  * 단, 이 경우 주된 일자리 중 맨 마지막 일자리 중 5번째 일자리 기준

| 주요 경력 경로 및 특성 |

IT 분야 기업들에서 누적한 기술과 경력, 경험을 활용해
스마트 공장 추진단 전문위원으로 재취업

- IT 관련 다양한 기업(대기업~중견 기업)에서 이·전직하며 기술, 자격이 누적됨
- IT 분야 중견 기업 퇴직 후 스마트팩토리 컨설팅 관련 교육 이수,
  관련 분야 모집 공고를 통해 공개 채용 방식으로 선발되어 재취업됨

| 재취업 주요 포인트|

- 주된 일자리에서 경험한 직무와 동일한 분야에 취업했다기보다는 IT 분야 기업들을 거치며 경험했던 다양한 직무 경험(프로젝트 관리, 컨설팅)을 살려 재취업한 케이스
- 기존 분야에서 누적한 전문 지식에 기반, 스마트팩토리라는 교육 이수 후 재취업

경력연계 재취업 사례와 특성

- **성명** : 채정훈(가명)
- **성별** : 남
- **연령** : 50대
- **최종 학력** : 대학원졸(부동산 분야)
- **주된 일자리** : 건설 분야 대기업 및 중견 기업 관리직
- **재취업 일자리** : 부동산 투자 및 개발 회사 관리직
- **주된 일자리 → 재취업 일자리** : 고용 형태 변화(정규 → 정규)
  임금 수준 변화

| 주요 경력 경로 및 특성 |

대기업 건설 회사에서 25년 근무 후 부동산 개발 분야 창업, 실패 후 중소기업 재취업

- 상고 졸업 후 건설 회사에 입사, 군 제대 후 대학 진학, 이후 건설 분야 대기업 및 중견 기업에서 약 25년 근무, 최종 기업에서 구조 조정으로 명예퇴직
- 주된 일자리 근무 당시, 직무 특성상 전국 지방 및 해외 근무 경험 다수
- 이후 중소기업 주택개발사업 본부장으로 재취업했으나 조직 부적응으로 6개월 후 퇴사
- 퇴사 이후 다시 부동산 투자 및 개발 회사 관리직으로 재취업 성공

| 재취업 주요 포인트|

- 건설업계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관련 업무 노하우 경험 축적,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관련 사업 구상
-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했으나 글로벌 경영 위기로 사업 실패, 이후 청소 인부를 비롯해 각종 아르바이트 등 생계유지
- 사업 부도 후 재취업 역량 개발을 위해 자신의 장점 분야 파악 후 부동산 석사 학위(야간 대학원) 준비
- 석사 학위 취득 후 중소기업 주택개발사업 본부장으로 재취업했으나 조직 부적응으로 퇴직하고 다시 재취업 준비, 고용센터를 통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추천받고, 해당 기관에서 재취업 역량 준비, 활발한 구직 활동 지속, 현재 부동산 투자 및 개발 회사 관리직으로 재취업 성공
- 재취업 진입 성공 후 전문성 지속을 위해 부동산학 박사 과정을 수학하며 인적 네트워크 강화에 힘씀

경력 무관 재취업 사례와 특성

- **성명** : 한규석(가명)
- **성별** : 남
- **연령** : 50대
- **최종 학력** : 대학원졸
- **보유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다문화전문가 2급, 한국어교원자격 2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정보처리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2급, 네트워크관리사 1급
- **주된 일자리** : 통신 분야 공사 차장
- **재취업 일자리** : 지방교통공사 현장 관리 및 물품 관리
- **주된 일자리 → 재취업 일자리** : 고용 형태 변화(정규 → 비정규) 임금 수준 변화(약 60% 감소)

| 주요 경력 경로 및 특성 |

통신 분야 공사에서 명예퇴직 후, 지자체 교통공사의 정비 분야로 취업 이후 동일 기관 물품 관리직으로 전환

- 공고 졸업 후 통신 기업으로 취업, 31년여 근무 (통신장비, 시설, 물품 관리 분야 현장직부터 관리직까지)
- 기업 구조 조정 과정 중 퇴직 조건이 최선인 시기에 자발적 명예퇴직
- 퇴직 후 개인적 관심 분야 자원봉사 등 활동 지속, 이 일환으로 지자체 교통공사 모니터링 활동 중 해당 기업 전동차 정비 요원 선발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재취업
- 외국어, 봉사 등의 활동에 관심 지속, 관련 공부·학위 지속, 장기적으로는 향후 관련 분야의 일을 계속하고자 함 (다만 이때의 일은 경제적 수단이기보다는 자아실현이나 봉사를 위한 것임)

| 재취업 주요 포인트 |

- 첫 번째 재취업 일자리는 기계라는 공통점을 제외하면 이전 경력과 무관
- 두 번째 재취업 일자리의 경우 첫 번째 재취업 일자리 관리 기업이 변경되며 이동
-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다양한 재취업 교육·서비스 경험 있으나 재취업 시 효용이 매우 낮았다고 밝힘

경력 무관 재취업 사례와 특성

- **성명** : 고재식(가명)
- **성별** : 남
- **연령** : 60대
- **최종 학력** : 대졸(농학/농업경제)
- **보유 자격증** : 유통관리사 2급(주된 일자리에서 취득)
- **주된 일자리** : 제약 회사 인사총무/물류관리 임원
- **재취업 일자리** : 공공 기관 보안안내/해충방역 아르바이트
- **주된 일자리 → 재취업 일자리** : 고용 형태 변화(정규 → 비정규)
  임금 수준 변화(7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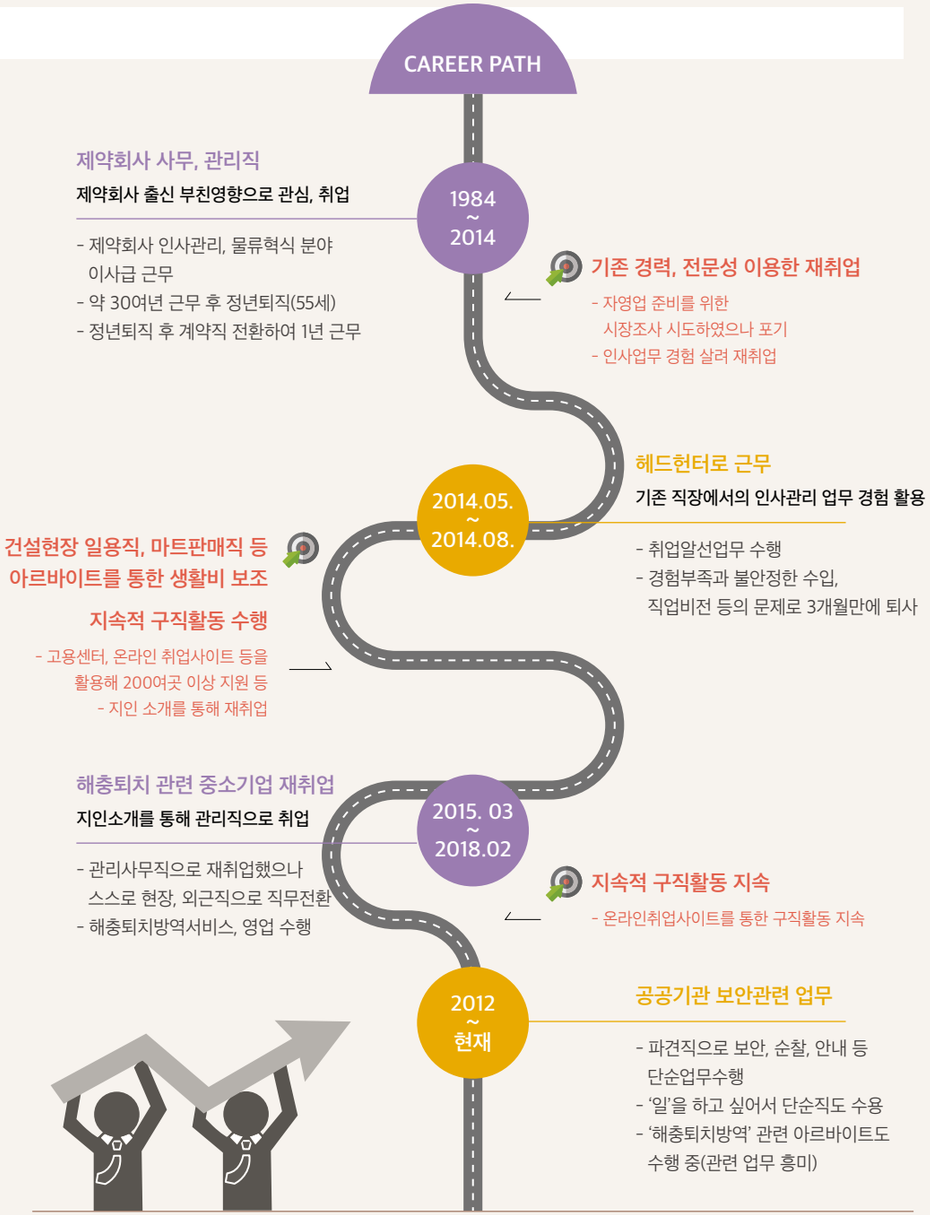
| 주요 경력 경로 및 특성 |

제약 회사 인사총무 및 물류관리 분야 근무 후 정년퇴직,
이후 해충퇴치 및 보안순찰 등 경력 무관 재취업

- 제약 회사 인사총무팀장 및 물류분야 이사직까지 30여년 근무 후 정년퇴직
- 퇴직 후 창업 시도 중 인사 관련 분야(헤드헌터)로 재취업 했으나 3개월만에 퇴직
- 이후 다양한 아르바이트 후 지인소개로 해충방역업체 인턴개념 총무팀장으로 입사
- 입사 후 현장직으로 자발적인 전환, 전환 후 재취업기업에서 정년까지 근무
- 정년 이후 파견직으로 공공 기관 보안, 순찰, 안내의 단순 업무 수행 중
- 재취업한 해충퇴치분야의 비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충퇴치분야 일도 현재의 보안순찰업무와 병행하여 하고 있음 (장기적으로 해충퇴치분야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일해보고자 함)

| 재취업 주요 포인트|

- 첫 번째 재취업은 주된 일자리 관련업무라 생각했으나 경험부족 및 직무 특성 이해 부족으로 실패
- 200여곳에 이력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등 구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유관한 분야 재취업은 실패
- 재취업 과정 중에서 건설현장직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눈높이 변화를 경험하고 재취업기관 업무 수행 시 때우기 식이 아닌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현장직으로 자발적으로 업무 변환을 하기도 함



경력 무관 재취업 사례와 특성

- **성명** : 전규현(가명)
- **성별** : 남
- **연령** : 60대
- **최종 학력** : 고졸(공고, 전지전자)
- **주된 일자리 → 재취업 일자리** : 고용 형태 변화(정규 → 정규)
  임금 수준 변화(감소)

| 주요 경력 경로 및 특성 |

주된 일자리는 기술 및 기술 기반 영업, 현재는 경력과 무관한 닭고기 가공업체로 재취업

- 공고 전기전자 전공으로 졸업, 약 29년간 다양한 기업에서 전자회로 설계 관련 업무 및 기술 기반 영업 관리업무 등 수행
- 주된 일자리에서 기업 간 전직은 대부분 회사 사정 악화가 사유
- 주된 일자리 분야에서 퇴직 후 2년여의 시간 동안 구직을 위해 실업 상태였으며 과정 중 단순, 단기 아르바이트 업무(오리고기 가공업체, 가스 충전소 등)를 간혹 수행
- 오리고기 가공업체 근무 경험을 활용하여 닭고기 가공업체 근무

| 재취업 주요 포인트|

- 일반 기업 경력 무관 재취업 사례로, 특별한 기술 없이 경력 무관 생산직으로 하향 재취업
- 2~3년간 실직과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면서 눈높이 조정과 노동 현장에 대해 이해하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 현재의 일에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음
- 현재 직장에서 단순 기능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4대 보험과 계약 안정성 등을 고려하며 만족하고 있음

경력 무관 재취업 사례와 특성

- **성명** : 최재호(가명)
- **성별** : 남
- **연령** : 50대
- **최종 학력** : 대졸(기계공학)
- **주된 일자리 → 재취업 일자리** : 고용 형태 변화(정규 → 정규)
  임금 수준 변화(감소)

| 주요 경력 경로 및 특성 |

기술 기반 자재 영업, 대기업 및 중견 기업 등에서 유사 업무 수행자로,
퇴직 후 단순 청소직으로 재취업

- 4년제 대학 기계공학 전공자로 철강 자재 분야 구매 영업 등의 업무를 약 29년여 수행
- 주된 일자리에서 기업 간 전직은 대부분 회사 사정 악화가 사유
- 주된 일자리 분야에서 퇴직 후 쉬지 않고 친구 병원 사무장,
  햄버거 체인 주방·카운터 보조 등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해 옴
- 이후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환경 팀에 소속된 청소원으로 근무 중

| 재취업 주요 포인트 |

- 다양한 가교 일자리 경험 후 단순노동 청소직으로 재취업한 케이스(하향 재취업)
- 주된 일자리가 영업 업무였으나 개인적인 성향과 맞지 않아
  근무 시 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음
- 첫 번째 가교 일자리인 친구 병원에서 업무 수행 관련 관계 및 감정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패스트푸드 업체의 주방 보조 업무까지 경험하며 자괴감 등을 느꼈으나,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심리적 좌절은 극복한 상태
- 현재 직장이 단순 청소직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심정적 자괴감이 남아 있긴 하나,
  영업 압박이나 관계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고용 안정성과
  신분 보장, 관련 복지 체계의 우수성 등을 감안하며 상대적인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

경력 무관 재취업 사례와 특성

- **성명** : 김진규(가명)
- **성별** : 남
- **연령** : 50대
- **최종 학력** : 대졸(금속공학)
- **보유 자격증** : 침구정리사(재취업 과정 중 취득)
- **주된 일자리** : 영업·서비스 분야(자동차 판매 영업, 자영업, 영업 관리)
- **주된 일자리 → 재취업 일자리** : 고용 형태 변화(정규 → 정규)
  임금 수준 변화(33% 감소)

  * 본 사례자의 경우 현재의 일자리 이전 '중소기업' 일자리와 현재의 일자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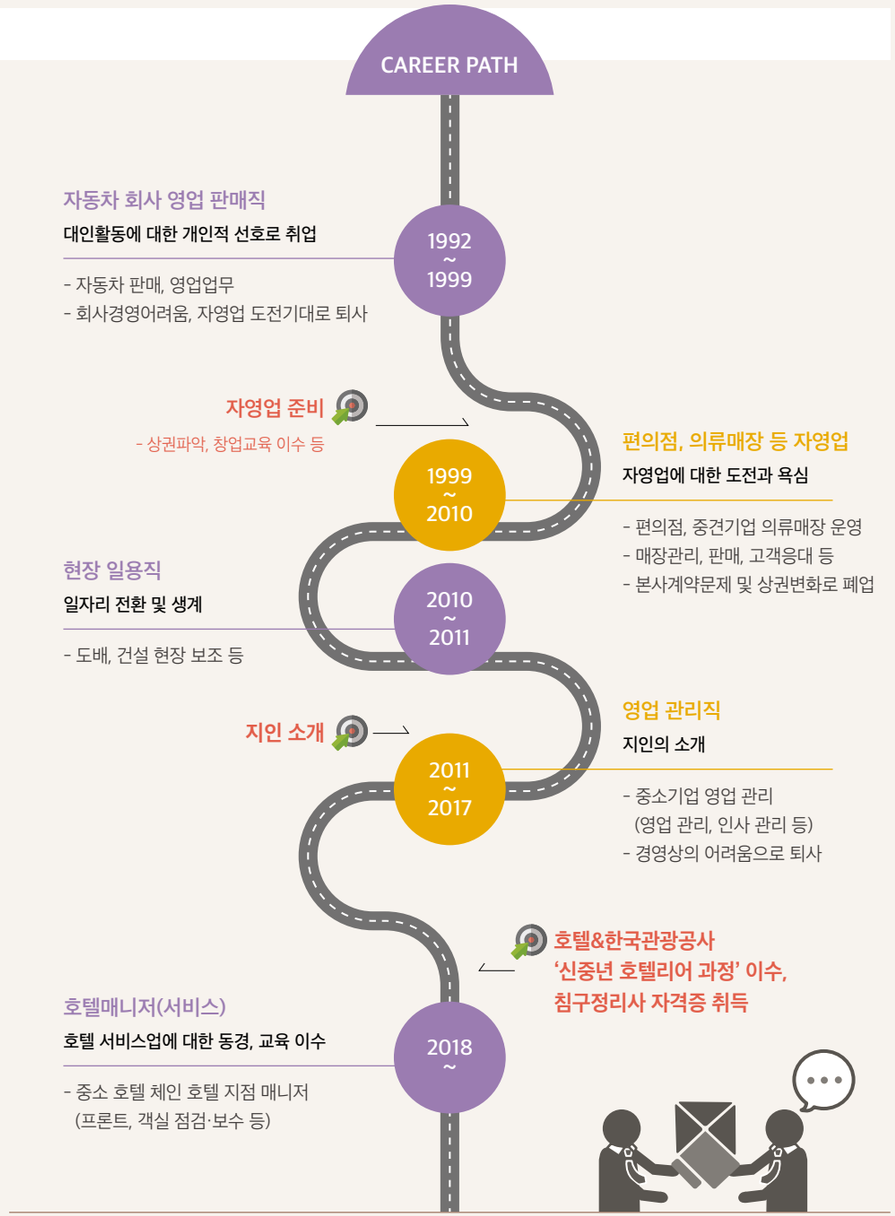
| 주요 경력 경로 및 특성 |

자동차 회사 영업 사원으로 시작해, 편의점 운영, 의류 판매점 운영 등 다양한 자영업 경험 누적, 이후 경기 악화 등의 문제로 자영업을 정리하고 중소기업 영업 관리직을 거쳐 현재 중소 호텔 매니저로 취업

- 자동차 분야 대기업 영업 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영업 경험을 누적하여 자영업 도전
- 체인 형태의 편의점 지점 및 의류 매장을 운영
- 본사와의 계약 문제, 상권 악화 등의 이유로 자영업 정리, 이후 생계를 위해 단순 현장 일용직 경험
- 지인 소개로 중소기업 영업부장으로 재취업, 이후 회사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
- 호텔과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기획·운영한 '신중년 호텔리어 과정'을 이수, 교육 이수 후 바로 해당 호텔 직영점으로 취업에 성공
- 현재 호텔 매니저로서의 경력에 크게 만족하며, 향후 관련 분야에서 더 발전된 커리어를 쌓아 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 재취업 주요 포인트|

- 첫 일자리, 자영업 경험, 중소기업 영업 업무 경험 누적으로 고객 응대 및 영업 역량 뛰어남
- 자영업 경험 후 안정적인 '취업'을 희망해 중소기업에 취업했으나 회사 사정 악화로 퇴직 예상
- 퇴직 예상 중 우연히 '신중년 호텔리어 과정'을 보고 해당 교육과정에 참여, 해당 교육과정에 최선을 다해 임한 결과 1등으로 교육 수료, 수료 후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한 호텔 체인에 연계되어 즉각적으로 재취업 성공
- 현재의 새 경력으로 진입 성공에는 공공에서 제공한 '직업훈련'이 절대적인 요인
- 현재 일자리 이전 '영업' 분야에서의 다양한 일 경험을 통해 '고객 응대와 서비스' 노하우가 누적되어 유관 서비스 직종으로의 방향이 결정되고 성공적으로 진입, 적응할 수 있었음



새 경력 재취업 사례와 특성

- **성명** : 배기섭(가명)
- **성별** : 남 • **연령** :60대
- **최종 학력** : 대졸(경제학)
- **보유 자격증** : 전기기능사, 승강기기능사, 소방안전관리자 2급(재취업 과정 중 취득)
- **주된 일자리** : 국책은행 지점장 및 본사 실장 등 임원
- **재취업 일자리** : 중소기업 시설 관리
- **주된 일자리 → 재취업 일자리** : 고용 형태 변화(정규 → 정규) / 임금 수준 변화(77% 감소)

| 주요 경력 경로 및 특성 |

국책은행에서 지점장 및 본사 실장 등 임원급까지 33년여 재직, 명예퇴직 중소기업 CFO로 1차 재취업 경험, 이후 기술 훈련 이수 후 기술직으로 전향하여 현재 시설 관리 분야 중소기업에서 기술직으로 재직 중

- 주된 일자리인 은행에서 부행장 임원 승진에서 탈락 후, 행보 고민 중 민간 투자 회사 재무본부장직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명예퇴직 후 재취업
- 유사 기관 등에서 재무본부장 근무를 지속하다가 회사 폐업으로 퇴직, 이후 여가를 즐기려다 우연히 본 영화 <인턴>에 영감을 얻어 재취업 도전
- 초기 사무 직종, 중소기업 재무 관리 분야로 재취업을 도전하고자 컴퓨터 활용 능력 및 세무 분야 자격도 공부했으나 나이 문제로 취업 좌절
- 본인보다 나이 많은 선배(기술직 전향)의 조언을 얻고 기술직으로 전향을 결정, 이후 국비 지원으로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
-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지원을 통해 구직 기술을 향상시키고 재취업에 도전, 현재 시설 관리 분야 중소기업 시설 관리자로 재취업 성공

| 재취업 주요 포인트|

- 초기 재취업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경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무난하게 지인 요청, 소개 등으로 이동
-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1차 재취업에서의 퇴직 이후 여가를 즐기려 했으나 영화의 메시지에 감화되어 다시금 일에 도전
- 주된 일자리와 관련된 사무직으로의 전향을 위해 관련 교육·훈련을 추가했으나 나이나 과도한 스펙 등으로 좌절
- 주된 일자리에서의 경력과 위치를 포기하고 과감하게 기술직으로 전향하는 새 경력에 도전
- 각종 훈련 및 컨설팅 등 고용 서비스를 활용하여 현재의 일자리로 이동 성공
- 주요하게 활용한 서비스로는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을 통한 국비 지원 자격증 취득,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일대일 컨설팅을 통한 구직 기술 함양, 일자리 연계

새 경력 재취업 사례와 특성

- **성명** : 구승효(가명)
- **성별** : 남
- **연령** : 50대
- **최종 학력** : 고교 중퇴
- **보유 자격증** : 지게차 기능사(재취업 과정 중 취득)
- **주된 일자리** : 중소기업 공장 생산직
- **재취업 일자리** : 중소기업 물류 관리
- **주된 일자리 → 재취업 일자리** : 고용 형태 변화(정규 → 비정규/파견)
  임금 수준 변화(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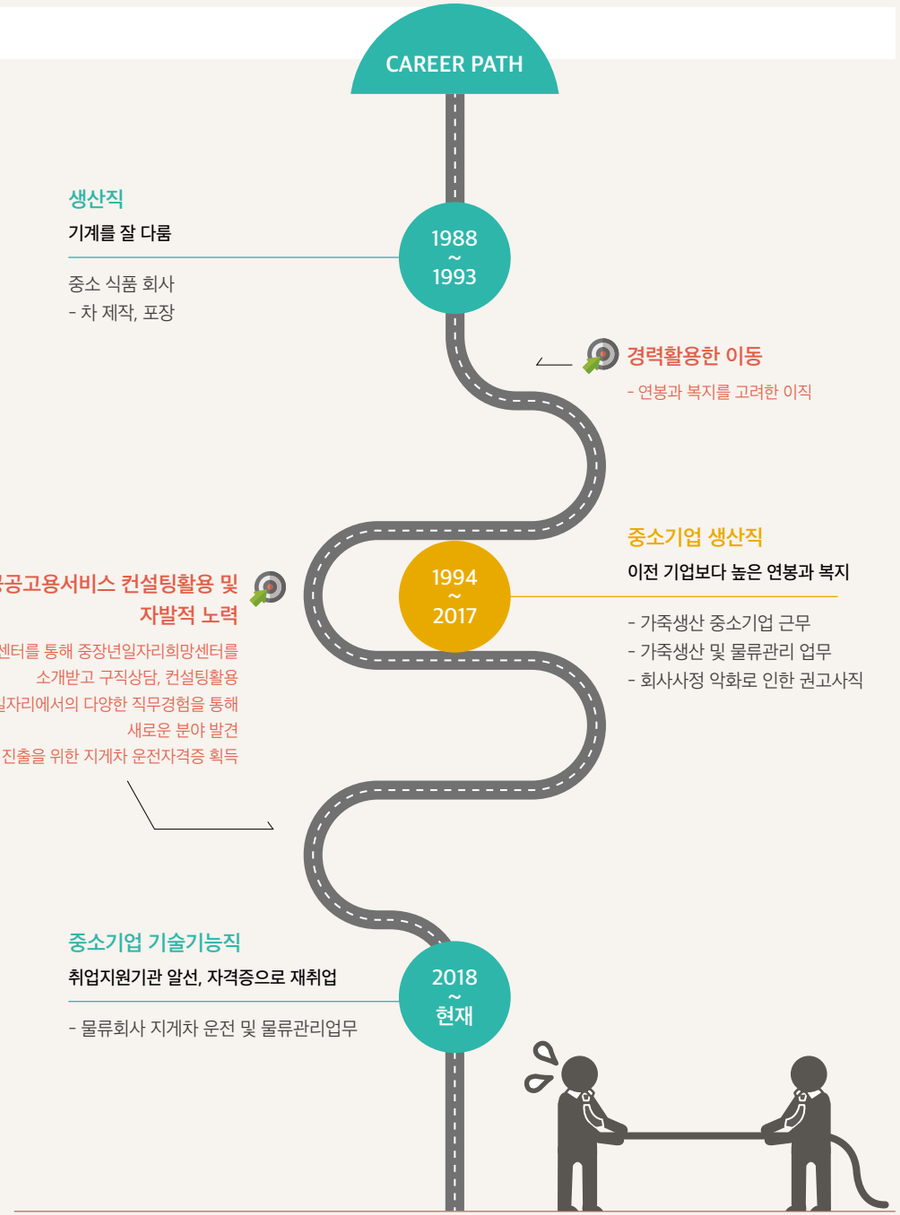
| 주요 경력 경로 및 특성 |

30여년 가까이 주된 일자리로 공장 생산직 분야에 종사함, 퇴직 후 주된 일자리에서 관심 있었던 지게차 운전 분야에 도전하여 재취업됨

- 30여년 가까이 생산직에 종사, 본래 손재주가 뛰어나고 기계를 잘 다루는 편이어서 주된 일자리에서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 등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여 말단 사원에서 관리직까지 승진
- 주된 일자리의 기업 업종 사양화로 회사 사정 어려워지는 과정 중 권고사직
- 실업급여를 위해 찾은 고용센터에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소개받아 구직 상담
- 담당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알선받아 물류 관리자로 재취업 성공
- 처음 도전하는 직종인 관계로 어려움도 있으나 더 많은 노력을 투여하며 적응하고 있음

| 재취업 주요 포인트|

- 주된 일자리에서 생산직으로 있었을 당시, 본인이 담당하는 일은 아니어도 다양한 업무들을 경험해 보고 시도함
- 현재 일자리인 지게차와 관련된 업무도 주된 일자리에서 배운 경험이 있음
- 우연히 알게 된 공공고용 서비스를 경험하고, 상담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다양한 직무 경험들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의 일자리 분야를 검토하고 전환을 위해 자격 획득
- 사례자 특성과 장단점을 골고루 검토하고 이전 경력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과정에 근거해 현재의 새로운 일자리를 발견하는 것부터 이후 경력 전환을 위해 필요한 자격과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안내, 이후 재취업 일자리 알선에 이르는 체계적인 지원이 주효함



새 경력 재취업 사례와 특성

- **성명** : 박미선(가명)
- **성별** : 여
- **연령** : 50대
- **최종 학력** : 고졸
- **보유 자격증** : 없음(각종 조리 관련 교육 수료)
- **주된 일자리** : 웨딩홀 관리직
- **재취업 일자리** : 병원 조리사
- **주된 일자리 → 재취업 일자리** : 고용 형태 변화(정규 → 비정규)
  임금 수준 변화(30% 감소)

| 주요 경력 경로 및 특성 |

웨딩홀 관리직으로 경력 12년, 웨딩홀 재개발로 갑작스러운 퇴직 이후 조리사로 재취업

- 웨딩홀 관리직으로 순조롭게 입직 후 12년여 재직함
- 웨딩홀 사정으로 갑작스러운 퇴직 경험
- 퇴직 후 수급을 위해 방문했던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수료
-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조리 분야의 새로운 적성을 발견하고 관련 교육 수료 후 구직 사이트를 통해 적극적 구직 활동 후 여성 병원 조리사로 재취업 성공

| 재취업 주요 포인트 |

-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자존감 하락 등으로 우울감 등을 경험함
- 공공고용 서비스(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새로운 경력에 도전할 기회를 경험하며 새로운 활력을 찾음
- 교육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신의 적성을 발견
-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으로 구직 정보 탐색 등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가능
- 현재 주된 일자리에 비해 급여나 직장 내 지위는 낮지만 정신적 스트레스 없이 일할 수 있고 비교적 적성에도 맞는 일을 하고 있어 만족함

집필진

연구책임자

강옥희 한국고용정보원 생애진로개발팀 전임연구원

공동 집필진

김은석 한국고용정보원 생애진로개발팀 부연구위원
정명진 한국고용정보원 생애진로개발팀 책임연구원
송스란 한국고용정보원 생애진로개발팀 연구원
박노정(창업) 엔제이컨설팅 대표
김선미(창직) 한국생산성본부 팀장
김슬기(사회공헌)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본부 PM

연구 지원

추가람 한국고용정보원 생애진로개발팀 연구원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이재흥(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발행처 한국고용정보원
27740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 1577-7114
홈페이지 www.keis.or.kr
편집디자인 디자인재미(dijam@naver.com)

※ 본 정보서의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재 및 역재할 수 없습니다.

ISBN 978-89-6331-838-7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제는
신중년으로(路)

본 정보서는 일선 고용 서비스 현장에서
신중년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이 대상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활한
고용 서비스를 이행하고 전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路

비매품/무료
ISBN 978-89-6331-838-7

한국고용정보원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고용노동부